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에서
지구촌
나눔의
주역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

60년의 영광, 새로운 도전과 함께 되살리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60년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과 조직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담아 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를 펴냅니다.

지난 60년 사이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라로 발돋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교육, 과학,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활동에서 차츰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지성계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유네스코의 주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활동으로 그 방향을 옮겨왔으며, 최근에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업과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의 지식 문화계와 교류하고 그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열망하던 국내 각계 인사들은 뜻을 모아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네스코와 함께 전후 교육 재건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원에 힘입어 1967년 서울 명동에 11층짜리 유네스코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학계와 문화예술계를 국제사회에 접속시키는 거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지식 문화계의 '세계로 열린 창'이었던 셈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저력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

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네스코 하면 세계유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간 이해와 대화, 동아시아 평화 증진, 남북한 협력 등 세계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읽지도 못하는 이들이 왜곡되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다른 집단, 민족, 종교,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과업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유네스코에서 교과서 인쇄공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빛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양심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과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1967년에 유네스코회관을 세웠듯이,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거듭 태어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사를 써나갈려 합니다. 개발도상국과 교육의 희망을 나누고, 세계시민교육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참다운 글로벌 리더로 키우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혀나가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 60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국가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신 역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동 석

C / O / N / T / E / N / T / S

여는말	60년의 영광, 새로운 도전과 함께 되살리자! - 민동석 사무총장	002
-----	--------------------------------------	-----

| 제1부 | *잣더미에서 찾은 평화의 희망* (1954~1969)

제 1 화	마침내 세계 무대에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010
제 2 화	국가 발전의 주춧돌을 놓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전후 교육 재건 활동 시작	014
제 3 화	한국 청년 봉사 활동의 시작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020
제 4 화	전후 교육 재건의 발판 한국외국어학원과 신생활교육원	026
제 5 화	세계 문화를 맞보다 세계영화 순회전시회	030
제 6 화	추위를 이겨낸 열정 1950년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풍경	033
제 7 화	'명동 시대'의 개막 유네스코회관 건립	036
제 8 화	초등의무교육을 향한 첫발 카리치플랜	041
제 9 화	유네스코를 읽다, 유네스코를 보다 『유네스코뉴스』와 『유네스코 아워』	044
제 10 화	한국을 세계에 알리다 『Korea Journal』과 『Revue de Corée』 창간	048
제 11 화	세계에 비추는 민족문화의 거울 『유네스코 한국총람』 발간	053
제 12 화	세계시민을 꿈꾸다 유네스코학교 활동	056
제 13 화	과학 진흥의 밑거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해양학위원회	061
제 14 화	외화 없이 외국 책 살 수 있다 유네스코 쿠폰 사업	063
제 15 화	유네스코 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066
제 16 화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 유네스코학생회(KUSA)	069
제 17 화	풀뿌리 유네스코 활동의 산실 유네스코협회	073
제 18 화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견다 국제청년야영(IC)	077



| 제 2 부 | 유네스코, 세계로 열린 창
(1970~1985)

제 19 화	배움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082
제 20 화	열린 창으로 세계를 보다 『UNESCO Courier』 한국어판 발간	086
제 21 화	진화하는 교육	
	아태 교육혁신사업(APEID)과 아태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APPEAL)	089
제 22 화	세계에 다가선 한국 한국문학, 역사, 예술 도서의 번역 사업	094
제 23 화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 조국순례대행진	099
제 24 화	사회과학, 한국 사회를 말하다 자생적 발전,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103
제 25 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유네스코청년원 개원과 활동	107
제 26 화	과학으로 동남아를 품다 동남아 과학기술 네트워크	113
제 27 화	강물처럼 흐르는 생각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이념의 국내 보급 사업	117
제 28 화	발전과 보전을 함께 인간과생물권계획(MAB)	123
제 29 화	문화적 자존심의 제자리 찾기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와 환수 노력	129
제 30 화	해외 한국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해외 교민 연구	133
제 31 화	아태지역 협력을 이끌다 국가위원회 교류·협력	135
제 32 화	문화로 도타워진 아시아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 협력	139

C / O / N / T / E / N / T / S

| 제3부 | 문화간 대화의 시대

(1986~2000)

제33화	문명간 대화의 다리를 놓다	실크로드 종합연구,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	144
제34화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디딤돌	문화 산업, 문화와 발전 사업	148
제35화	우리 마음에 평화의 길을 닦다	관용, 민주주의, 인권, 문명간 대화	153
제36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누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활동	160
제37화	한국 무형유산 제도의 확산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165
제38화	나눔과 섬김으로 전한 희망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	170
제39화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KUCES) 활동	174
제40화	미지의 꿈을 키우다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ZY) 개관	181
제41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직업기술교육	187
제42화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는 과학	과학과 사회, 생명윤리, 과학기술윤리	191
제43화	'다름'을 배워 지구촌을 돕다	국제자원활동	195

| 제4부 |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2001~2014)

제44화	정보사회가 갈 길을 묻다	정보사회 성찰 포럼	202
제45화	동심이 만드는 평화의 선율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	206
제46화	한국학 진흥을 위한 반세기	『Korea Journal』의 변천	209
제47화	미래 주역들의 향연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아리랑 청소년 캠프	213
제48화	아시아 국제이해교육의 산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설립	219
제49화	우리 곁에 다가온 과학	과학대중화, 과학교육	223
제50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	유네스코 정부간 과학사업	229
제51화	빌딩숲 속 또다른 숲	생태공원 '작은누리'	234
제52화	교육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38



제53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43
제54화	변화에 발맞추는 인문학	세계인문학포럼	248
제55화	한국, 유네스코의 주역이 되다	옵서버에서 주요 활동국으로	252
제56화	역사에게 평화를 주다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과 청년포럼	259
제57화	북한과 국제사회에 내민 교육의 손길	교육기금사업과 북한교과서 발간 지원	265
제58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모의 유네스코 총회	270
제59화	저개발국에 뿌린 희망의 씨앗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	274
제60화	영어교육을 넘어 문화간 이해로	지구촌평화마을 설립과 한·호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279
제61화	'세계의 기억'을 보존하다	세계기록문화유산 사업	284
제62화	도시에 창의성을 입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292
제63화	세계를 향해 꿈의 나라를 떠다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297

 다시 여는 말 	새로 태어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3
--------------------	-------------------	-----

 자료편 	부록1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316
	부록2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319
	부록3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320
	부록4	유네스코 헌장(국·영문 전문)	334
	부록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343
	부록6	유네스코 활동 연표(1945~2014)	346

제1부

> 1954~1969

젯더미에서 찾은 평화의 희망

한국이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해 유엔 체제하의 다자 외교 무대에 첫선을 보인 지 4년 후인 1954년,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게 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됐다.

이 시기에는 청년, 학교와 학생, 유네스코협회 등 유네스코 활동의 주체들이 성장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재정적·물적 토대가 마련됐다.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는 수복지구의 의료, 농업, 아동교육 활동 등을 벌이면서 한국 청년 봉사 활동의 효시가 됐다. 유네스코학생회(KUSA)는 변화하는 시대에 청년의 길을 찾고자 했고, 1966년부터 열린 국제청년야영(ICY)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 어깨를 견고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청년 한마당 구실을 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 협력과 평화 증진의 시작을 알렸다. 유네스코협회 역시 시민이 유네스코 활동의 주역이 되는 계기가 됐다. 명동 시대의 개막을 알린 유네스코회관이 1967년 명동에 건립됐다. 1963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활동의 법적 기반이 됐다.

- 제 1 화 마침내 세계 무대에
- 제 2 화 국가 발전의 주춧돌을 놓다
- 제 3 화 한국 청년 봉사 활동의 시작
- 제 4 화 전후 교육 재건의 발판
- 제 5 화 세계 문화를 맛보다
- 제 6 화 추위를 이겨낸 열정
- 제 7 화 '명동 시대'의 개막
- 제 8 화 초등의무교육을 향한 첫발
- 제 9 화 유네스코를 읽다, 유네스코를 보다
- 제 10 화 한국을 세계에 알리다
- 제 11 화 세계에 비추는 민족문화의 거울
- 제 12 화 세계시민을 꿈꾸다
- 제 13 화 과학 진흥의 밑거름
- 제 14 화 외화 없이 외국 책 살 수 있다
- 제 15 화 유네스코 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 제 16 화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
- 제 17 화 풀뿌리 유네스코 활동의 산실
- 제 18 화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견다

마침내 세계 무대에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1945년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외국의 지식과 기술을 도입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때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창설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에 정부는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장차 세계 평화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유네스코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1949년 7월 5일 정부는 당시 대통령 특사 겸 유엔 한국대표단장이던 조병옥 박사로부터 하 여금 주미 유엔 연락관에게 유네스코 가입 신청서를 전달하게 했으며, 1950년 2월 8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안이 통과됐다.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유네스코 헌장」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유네스코에 가입하려면 먼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안을 유네스코 총회에 앞서 가결했던 것이다.

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유네스코 가입

1950년 2월 8일, 유엔본부 10차 회의에서 한국과 신생 인도네시아의 유네스코 가입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호주 대표단이 또다시 한국을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초청하는 결의안을 제출, 반대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가결한 것은 신생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승리가 전폭적으로 부여된 증거라 하겠다.

국제연합 전 기구에서 중국의 국민정부 대표 참가를 거부하고 퇴장한 소련이 불참하고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동일한 태도를 취한 관계로 공산주의 진영의 집요한 반대와 공격이 없었던 이유도 경시할 수 없으나 국제적인 교육과학문화 조직체인 유엔 기구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국가적인 盛事[성사]다 …….

『동아일보』 1950.2.21.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에

1950년 5월 22일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한국의 가입을 둘러싸고 다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거수 표결 끝에 참석 회원국 32개국 중 찬성 27, 반대 1, 기권 4로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이 확정됐다.



제5차 유네스코 총회 (1950).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5차 총회에서 한국은 55 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다.

유고 대표만 반대, 대부분은 찬성 입장

한국이 유네스코 가입을 신청했을 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심의에서는 이견 없이 통과됐으나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1950년 5월 25일 열린 제8차 전체 회의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3개국 가입안이 다루어졌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라크, 필리핀 등은 3개국 가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했으며,

특히 이라크 대표는 이들 3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특정 국가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므로 유네스코는 이에 구속받을 것이 아니라 이들 3개국의 가입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버마(오늘날의 미얀마)는 한국의 가입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3개국의 가입안을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유고슬라비아 대표가 한국의 가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자유중국, 파키스탄 대표의 지지 연설이 잇따르면서 거수 표결이 진행됐다.

총회 결과, 한국은 6월 14일자로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됐다. 가입이 확정되는 순간, 오퍼버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 중이던 당시 주프랑스 공사관의 공진항 공사는 한국의 가입을 지지해준 회원국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을 대표해 가입 연설을 했다.

가입안 표결 후 공진항 한국 대표의 연설 내용 일부

“Mr. 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 delegate who has voted for our country. Our country will collaborate with all your Member States in furtherance of the great ideal of UNESCO. Thank you.”

6.25전쟁으로 미뤄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유네스코 헌장」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주요한 교육·과학·문화계가 유네스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2항에서는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네스코 총회에 참가하는 자국 대표단과 정부에 자문하고 유네스코와 관계된 모든 사항에 대해 연락 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6.25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까닭에 국가위원회 설립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전쟁 중에도 교육 재건을 도운 유네스코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이때의 유네스코 활동은 한국 교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23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1950)와 제6차 유네스코 총회(1951)는 초등 학교용 교과서를 공급할 인쇄시설 건립을 위해

미화 1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한국의 초등교육 정상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한국에서 진행된 최초의 유네스코 활동이었다.

이로써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유네스코 지원으로 교과서가 인쇄됐음을 알리는 글귀가 실렸고, 그 결과 유네스코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한국 교과서 인쇄 지원은 유네스코 창설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사업의 모범적인 실천 사례인 동시에 한국이 전후 복구 기간을 거쳐 초등의무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됐다.

유네스코는 운크라(UNKRA, 유엔 한국재건단)*와 협력해 교육 재건 및 지원 활동을 벌였다. 1952년 도널드 코트렐(Donald Cottrell)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유네스코-운크라 교육 사절단이 방한해 한국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재건을 위한 108개 항목의 건의안을 담은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전후 한국의 교육 재건을 위한 훌륭한 지침 구실을 했다.



제6차 유네스코 총회 (1951)

교육위원단への 진언(進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관 주최로 통일교육사업위원회 특파원 6명이 14일 내한했다. 초·중등학교의 실정을 시찰하고 앞으로 한국 교육계 권위자들과의 회합도 있고 강습회도 열어 9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한다. 전쟁의 재화에 시달린 우리 학생들이 가교사, 텐트 안에서 학습을 계속하고 있고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면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 생활비 전체의 2할이나 되는 학비를 끼니를 굶고라도 내놓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항학열에 놀라워했다……. 『동아일보』 1952.10.19.

*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가 발전의 주춧돌을 놓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전후 교육 재건 활동 시작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열하루 만에 6.25전쟁이 발발한 탓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립은 한동안 미루어지게 됐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는 전쟁의 와중에도 꺾이지 않았다.

당시 국내 유네스코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네스코 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제2대 국회는 부산 피란 중 백두진 국무총리가 동의를 요청한 「유네스코 헌장」 준수 서약 건을 1952년 11월 10일 제 17차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 공포

이후 교육·과학·문화계 저명인사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몇몇 법률학자와 관계 인사들로 하여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성격, 조직, 기능 및 활동을 규정하는 설치법을 기초하도록 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한국민의 국제 이해와 협력 촉진이라는 기본 정신에 따라 작

성된 설치법 초안이 마련되자 설치준비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53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801호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이 공포됐다.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안

6월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 법안을 상정하고 토의한 후 결의하였다. 조직은 (1)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과학 문화 방면의 35개 기관에서 신임대표로서 선임 된 각 1명 (2)문교부장관, 동 차관, 외무차관과 정부 공무원 중에 문교부 장관이 선출한 7명 (3)교육 과학 문화 방면의 인사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선임한 17명 (4)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단 위원장에 문교부 장관, 부위원장에 동차관, 그 외에 1명을 총회에서 보선하기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53.6.15.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설치령이 공포되자, 그동안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던 국내 각계의 대표들과 저명인사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마침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1954)



문교부 장관이 임명한 60명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초대 위원들은 국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또는 전문가들로서, 초대 위원장에는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김법린 박사가 취임했고 초대 사무총장에는 정대위 박사가 임명됐다.

1954년 2월 2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후 첫 번째 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관지 발행과 영화 제작, 방송, 각종 문화 행사 등 문화 전반에 걸친 37개 기본 사업의 세목을 결정하는 한편, 1억30여만 원의 예산을 심의한 뒤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이어 산하 6개 부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 6개 분과위원회와 소속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종교분과: 윤을수, 박은혜, 김원규, 김철란 외 12명
- (2) 자연과학분과: 최윤식, 김호직 외 6명
- (3) 인문사회과학분과: 고병국, 정일형, 고순덕, 이종우 외 8명
- (4) 예술문학분과: 장지영, 김동리 외 6명
- (5) 도서관박물관분과: 김재원, 황성수 외 3명
- (6) 매스컴홍보분과: 오종식, 박종화 외 3명

창립 직후 교육 재건에 주력

창립 직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전쟁으로 무너진 국내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유네스코의 교육 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국내에 알리는 일이었다.

유네스코 총회 참석한 백낙준 박사 귀국담

1954년 11월 10일부터 남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8차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백낙준 박사는 앞으로 운크라를 통한 유네스코의 긴급원조 등 한국에 대한 각종 사업이 전개될 것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앞으로의 사업은 선진국가가 구체적인 문화 원조를 후진국에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특히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요청에 의하여 교육, 문화, 기술 원조 등 광범위하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석상에서 한국이 피원조국가로서만 그치지 않고 정회원국으로서 전반적인 문화면에 걸쳐 서로 교류가 있기를 주장하였다.

『동아일보』 1954.12.29.

1954년 9월 16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60(현 동작구 대방동 502)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공기 순환도 잘되는 데다 유지비까지 적게 드는 최신식 건물, 대한문교서적(주) 인쇄공장이었다.

대지 면적 6,022평에 건평 730평으로 당시로는 꽤 크고 색다른 외양이어서 첫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였다. 공장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고속윤전기, 자동할판기, 활자제조기, 사진식자기 등 70여 대의 인쇄 장비가 들어앉았다. 이 인쇄 공장에서는 연간 3천만 부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찍을 수 있었다.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준공 (1954)

대한문교서적의 변화

당시 최신 인쇄시설을 도입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적기에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대한문교서적(주)는 그후 국정교과서(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8년 대한교과서(주)에 인수되어 이듬해 합병되었다.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이 인쇄 공장을 짓는 데 유네스코가 10만 달러, 우크라이가 14만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국민소득 세계 순위 109위였다.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교육열만큼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았다. 피란지에서도 천막 교실을 지어 학교 교육을 계속할 정도였다. 정부도 「전시하 교육 특별조치 요강」을 발표하고 전시 교재의 발행에 나섰다.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나 출판에 필요한 인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는 절대량이 모자랐다.

그런 가운데 인쇄공장이 가동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덕분에 전후 초등학교 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수 있었다. 한국이 비문해 퇴치와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유네스코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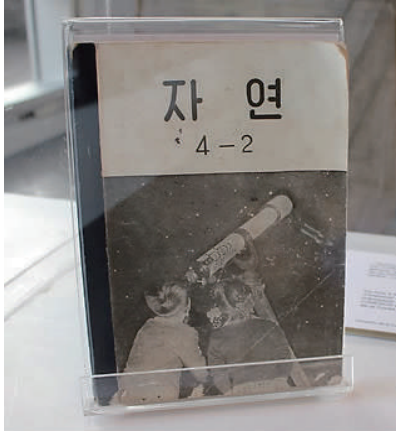
유네스코 도움받아 만든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에

1956년 발행된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했던 한국의 한 어린 학생이 훗날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사실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유네스코 지원으로 1956년 발간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를 유네스코에 기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12)

반기문 총장 “이 책으로 공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에 기증한 자연 교과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11월 유네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책 한 권을 기증했다. 1956년 출간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자연 교과서였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이 교과서의 앞표지에는 남녀 어린이 2명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건물 1층 로비에 전시돼

있는 이 책의 뒷표지 안쪽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금번에 유네스코와 운크라에서 인쇄기계의 기증을 받아, 국정교과서 인쇄전속 공장이 새로 생긴 바, 이 책은 그 공장에서 박은 것이다.” <문교부장관>

반기문 총장은 “이 책으로 공부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다”며 유네스코가 전후 한국의 교육 재건을 위해 헌신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만든 교과서로, 전쟁 통에 교실이 없어 천막에서 공부했던 가난한 나라의 소년이 성장해 유엔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의미였다.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스토리를 전해들은 유네스코 사무국 직원들은 자긍심을 느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동아일보』 2014.1.30.

한국 청년 봉사 활동의 시작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6.25가 끝난 직후라서 젊은이들이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야 공무원, 군인, 변호사가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농촌, 그것도 수복 지구에 가서 봉사 활동을 벌인다니 사명감과 정열로 뚝뚝 땀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된 1954년 무렵 눈여겨볼 만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를 꼽을 수 있다. 직원이라야 사무국장(오늘날의 사무총장)을 포함해 겨우 여섯 명. 직원들 월급조차 충분히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예산 탓에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사업은 당시 간사였던 장내원 전 사무국장(2대)과 초임 직원이었던 이상설 전 본부장의 작품이었다.

유네스코 학생건설대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대학생들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강원도 화천 등 6.25전쟁 직후의 수복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문해 퇴치, 생활 개선, 영농 지도, 의료 봉사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사업은 대학생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참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1954)

비문해 퇴치, 생활 개선 등 봉사 활동 펼쳐

“장내원 전 사무국장과 장도영 장군(당시 강원도 화천의 관할 사단장)은 일제 때 만주 용정에서 함께 지낸 덕분에 사이가 아주 돈독해서 장 사무국장이 부탁하면 장 장군이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장 장군 나름대로 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도 했겠죠.”

〈이상설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1954~1956년 근무)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강원도 화천은 북한 관할 구역에 속했다가 6.25전쟁 중에 되찾은 수복지구로서 군부대로서도 주민들이 한국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던 곳이었다.

“2백명 가량의 학생건설대가 떠날 채비를 갖추면 군 트럭이 10대쯤 와서 태워 갔습니다. 현장에는 군부대가 이미 건설대원들이 묵을 임시 막사를 지어놓았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교회나 집 옆에 필요한 벽돌, 목재, 시멘트, 공사 장비를 모두 갖춰주었습니다.”

건설대원이 방학 기간에 짓는 집은 서너 채에



도움을 준 군부대원들과 함께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남녀 학생들

불과했지만 당시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한 일이니 만치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뒤로 유네스코를 떠나 여러 일을 했지만 제 일생에서 그 때를 특별한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건설대원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상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의 증언〉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1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대원들)

2010년 4월 20일 여든을 바라보는 학생건설대 대원 4인방이 한국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빛 바래고 한쪽 귀퉁이가 닳은 학생건설대 사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남다른 감회와 세월을 잊은 듯 젊은 날의 열정이 여전히 서려 있었다. 국회의원, 의사, 교육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학생건설대 대원들의 머리에도 어느덧 서리가 내려 있었다.

* 참석자: 김환수 (전 미국대사관 문화관) / 이연숙 (전 국회의원)
하경근 (전 중앙대학교 총장) / 이정석 (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원장)

유네스코 학생건설대의 창단 목적과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이연숙: 1953년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때, 당시 농촌 봉사 활동이 유행했는데, 대학(이화여대)에서 총 위원장이던 제계 문리대 학생위원장을 맡던 김천주와 총무 이요식이 와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활동을 학생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승인을 받아주고 제의하더군요.

| 이정석: 총 5개 팀으로 구성된 학생건설대는 1차부터 4차까지 파견되었는데, 약 2주 동안 의료, 농업, 성인교육, 아동교육, 여성 활동 등 5개 분야를 책임지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아동교육과 농업 분야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 이연숙: 당시 활동지역이 수복지구다 보니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남한에 내려와 극도로 겁에 질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주로 성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였고, 밤에는 학생, 군인들과 토론했어요.

| 김환수: 당시 남한에서는 남북한이 통일된다 해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데 학생건설대가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요.

학생건설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하경근: 학생건설대에는 각 학교에서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학생들이 모였죠. 학교 밖의 세상을 체험하면서 지적·정신적 시야를 넓히는 모임이 학생건설대였습니다.

| 이정석: 학생건설대 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열정과 열의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4차까지 파견을 보낸 것도 지역에서 학생건설대 활동에 대한 호응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 김환수: 그 때 대학생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안보였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학생들이 학생건설대 대원으로서 문맹 퇴치 등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마치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내용과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 이연숙: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는데, 유엔 기구에서 추진하는 활동이었던 만큼 상당수의 주제가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같이 앉아 듣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서히 이를 받아들이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 수복지구의 부녀자들에 대한 생활 계몽 활동(좌)과 의료 봉사 활동(우)

학생건설대 대원들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까?

| 참가자들: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으로 명성이 높은 정신과 전문의 백상창을 비롯해 의사 임도수와 김창선, 여성계에서 활약한 김천주, 이요식 등 한국 사회 각계에 학생건설대 출신 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뉴스』 2010. 6월호

당시 학생건설대원으로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1953년 부산에서 대학에 입학했다. 사변이 끝나고 나서, 유엔참전 16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유네스코가 앞장서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장내원 사무국장의 리더십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봉사대 학생들이 떠날 채비를 갖추면, 당시 봉사지역을 관할하던 2군단에서 군용트럭 10여 대를 보내와 강원도 화천부근 군부대까지 태워 갔다. 마침 겨울이었

고 덮개도 없는 트럭을 타고 갔는데 산에서 불어대는 칼바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다. 몸이 푹푹 얼고 발이 시려서 몸조차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내가 만주 출생이라서 잘 아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동상에 걸릴 것만 같아서 아는 지혜를 동원하여 제안을 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내려 고춧가루를 얻어 발가락에 동여매고 간 덕분에 동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나는 미국 공보원에서 영사기를 빌려 대한뉴스를 틀어주는 일을 맡았다. 저녁이면 주민들과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영사기를 틀어 주었다. 농대생들은 소의 사육과 곡식 경작법을 가르쳐 주었고, 의·치대생들은 진료봉사, 문리대생들은 영어와 한글을 가르쳤다.

당시 건설대 출신들은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의사도 되고, 사회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로 맹활약 했다. 무엇보다도 학생건설대가 한국유엔협회 창설에 많은 기여를 했다. 멤버들 중에서 삼분의 일이 협회에 참여했다. 그 시대엔 그런 활동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이 추후 대학생 농활의 효시가 됐다고 본다.

〈 이요식 한일여성친선협회 회장 〉



1955년 12월, 학생건설대에 참가한 여학생들. 뒷줄 가운데가 이요식

전후 교육 재건의 발판

한국외국어학원과 신생활교육원

해방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어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져갔다. 전후 교육 재건을 위한 각종 학교의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광주, 목포,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 직업고등학교를 세워 직업기술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 신생활교육원 훈련 모습

한국외국어학원, 고등교육 분야 국제교류와 참여의 기반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한국외국어학원 킬 림바허 초대 원장

유네스코는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크라를 통해 22만 달러를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어학 훈련을 전담하는 한국외국어학원(Korean Foreign Language Institute)을 서울대학교 내에 설치했다.

1957년 개원한 한국외국어학원은 고등교육에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와 참여를 가능하도록 기

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외국어학원의 설립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 교육 기관들과 협력해 국내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기가 됐다. 유네스코가 운영을 맡아온 한국외국어학원은 정부로 잠시 이관됐다가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으로 발전했다.

영어교육연구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6년 8월 문교부 영어 담당 장학관, 각 시도 교육위원회 영어 담당 장학사와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6일간 개최했다.

이듬해인 1967년 11월 열린 제2차 영어교육연구협의회는 새로운 외국어 교육 방법인 청각-구두 교수법을 각급 학교 영어교육에 구체적으로 도입·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모범 학습 지도안과 녹음 테이프를 제작해 전국 11개 학교에 실험을 위촉했다.



제2차 영어교육연구협의회 (1967)



1 제2차 영어교육연구협의회 교수법 소개 (1967)

1968년 8월 개최된 제3차 영어교육협의회는 11개 실험 학교의 제1차 결과를 토대로 특히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국내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은 정책 건의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이어졌다.

수원 서울농대에 '신생활교육원'

유네스코는 또한 유네스코-우크라 교육 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30만 달러를 지원, 1956년 수원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에 신생활교육원(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re)을 세웠다. 한국의 농촌지도자 양성에 기여한 이 교육원은 1958년 3월 제1기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1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생활교육원 제3회 졸업식

이 교육원은 운크라 사업이 끝난 후인 1959년 한국 정부(문교부)로 이관됐다가 농림부 소속 농촌지도자 훈련원으로 개칭됐다. 그 후,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으로 흡수되어 농업공무원교육원으로 운영되다가, 1999년 1월 농업연수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네스코 신생활교육원에서 1기생 수료식

경기도 수원에 있는 유네스코 신생활교육원에서는 1958년 3월 24일 동 훈련원 제1기생 19명에 대한 졸업식을 거행한다. 이들은 18개월 동안 농촌 부락 발전과 그에 따른 철저한 기초교육을 받아 왔는데 학습과목은 '보건 및 위생학', '농업', '가족사육' 등 가정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서 특히 여자 훈련생들에게는 재봉과 기타 집안 살림기술에 대한 것까지도 강습시켰다.

『조선일보』 1958,3,23.



| 신생활교육원 훈련 모습

세계 문화를 맛보다

세계명화 순회전시회



1 유네스코 세계순회미술전

초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문화 분야 사업은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미술작품, 사진, 포스터 등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55년 유네스코 세계 순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아동미술전시회, 유네스코 세계순회 명화

전시회 등을 잇달아 열었다. 이후 작품 주제와 범위를 넓혀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불교 등을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국내 문화계에 신선한 자극, 문화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사진 복사판 140점을 제공받아 1955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세계명화순회전

국제문화의 신기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전시하려는 이 행사는 국내 문화계는 물론 교육계와 정계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각지에 약 150개의 순회 전시회를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빈치의 명화전시회도 바로 이 세계적 문화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특히 예술 부문의 문화활동을 중대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1955.5.12.

유네스코는 1950년부터 천연색 명화를 복제해 세계 각국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왔는데, 이는 유네스코의 지향, 즉 '문화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에서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 선진 문화의 관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1964년 각 언론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세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관문’으로 소개했다. 인류의 유산인 각종 도서, 예술작품, 역사와 과학 기념물을 꾸준히 국민들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 외에도 세계 아동미술전람회(1960년), 세계순회 미술 복사전(1962년), 세계명화전시회(1962년) 등을 잇달아 주관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관람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유네스코 세계순회 미술 복사전 (1962)

세잔느의 '사과 있는 정물' 등 동서양 저명 화가의 수채화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서양 저명한 화가의 수채화 복사품을 전시한다. 유네스코 동서문화교류 10년 계획 및 세계순회 미술전시 활동 계획에 따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들여와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폴 세잔느의 '사과 있는 정물' 등 모두 60점의 이름 높은 작품의 복사판을 볼 수 있다. 오노레 도미에, 에드가 드가, 고갱, 고흐, 마네, 피카소 등 서양 화가의 명작과 중국 일본 화가의 작품도 있어서 미술 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 1962.6.24.

한편, 1962년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년간의 시사 사진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골라 전시회를 열었다. 1960년 9월부터 유네스코 본부에서 월 2회 발행한 『유네스코 피쳐스』에 출품됐던 사진들 중에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사진 100점을 골라 전시회를 연 것이다.

1968년 8월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유네스코 현대 명화전이 열렸다. 세계적인 거장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한 현대 미술가들의 대표작 45점의 복제품을 전시했다.

추위를 이겨낸 열정

1950년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풍경

“또 난로 없이 겨울을 지내야 하나.”

홍봉룡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락과장(1954~55년, 1958~61년 근무)은 1950년대의 사무실 풍경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관계하던 시절, 사무국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방 하나를 얻어 자리를 잡았다. 사무국을 맡게 된 정대위 박사는 목사이면서 학자였다. 스스로의 생각에도 행정가는 아니어서, 고향의 선배인 장내원 선생을 간사로 모셨다. 1954년 1월 30일 창립총회 이전에 총회에 제출할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남대문 근처 모 여관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들던 기억이 난다. 사업계획에는 『유네스코 한국총람』의 간행과 각종 강연회, 강좌 개최와 같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넣었다.

사무국장(정대위), 간사(장내원), 기획과장(이한용), 선전과장(김경옥), 그리고 연

락과장 겸 조사과장(본인)이 간부였고, 김경옥 씨는 이보라, 이상설 두 사람과 함께 선전과원으로 일했다. 조출한 식구였다.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웠고 때로는 장내원 선생이 자영하는 운수사업체(트럭을 가지고 계셨다)에서 적으나마 얼마씩 보태 주신 것으로 안다.

외국에 보내는 서신의 우표 값도 없을 때면 으레 장 선생이 주셨다. 겨울에 난방이 시원찮아서 추위에 떨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 김경옥 씨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조직하는 힘도 좋아서 이상설 씨와 함께 학생건설대도 조직했다. 처음 1년 동안, 유네스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은 김호직 박사과 오종식 선생이었다.

< 위 글은 『유네스코뉴스』에 홍봉룡 선생이 1970년 6~7월과 1984년 2월호에 기고한 글들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홍 선생은 1921년 평북 의주 태생으로 1964년 국제보도연맹 이사, 1984년 『This Week in Seoul』 주간을 역임했다. >

겨울 아침엔 추워서 근처 다방으로

1958~73년 유네스코에서 근무한 원창훈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부장은 “한겨울 사무실 난방 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화재 염려 때문에 자주 때지를 못했다”고 기억한다. 아주 추운 날 아침에 일찍 나오면 근처 다방에 가서 장갑을 낀 채 문서를 작성하곤 했다. 영문 타자기도 한 대밖에 없어서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함께 사용했다.

사무실은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내 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후 광운대학교 근처의 대한교육연합회(남대문 옆)에서 지내다가, 문교부 주선으로 덕수궁 건너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옥으로 이전했다. 그러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져 북창동에 있는 빌딩 한 층을 모두 차지했다. 회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뒤였다.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다. 당시 화폐 단위로 500만 원 정도였다. 원창훈 전 부장은 당시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우체부’에 비유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그 우편물을 해당하는 각 문화기관에 전달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주로 유네스코와 관련되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와 해외 유학 정보를 국내에 소개하는 활동을 했다. 국내 정보를 해외에 전달하려 해도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애를 먹곤 했다.

한국의 교육 통계 자료를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야 하는데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서울대 치과대학

‘명동 시대’의 개막

유네스코회관 건립



| 준공 당시의 유네스코회관

서울 명동 한복판, 시내 중심지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같은 땅 1,345.8㎡에 위치한 건물. 연면적 13,367.1㎡, 지상 13층 지하 1층의 유네스코회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네스코회관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삼을 만큼 유명했던 곳이다. 1959년의 회관 기공식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는 “우리나라에 13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다소 흥분한 논조를 띠고 있다.

회관은 1959년 착공해 8년 가까운 공사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60년대 초반, 5층 이상의 건물조차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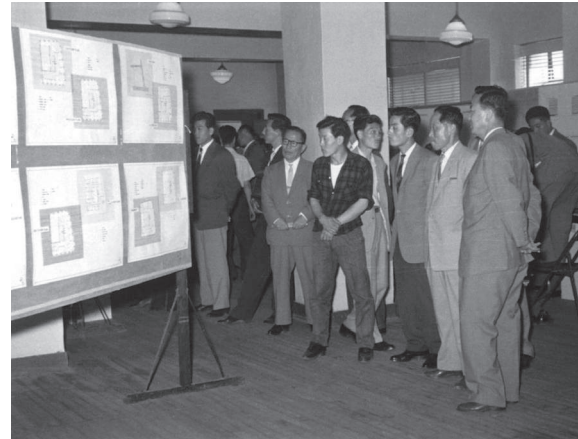
물던 명동 한복판에 골조공사만 끝낸 채 한동안 변화가에 우뚝 서 있어 ‘도깨비집’으로 불리기도 했다. 건축기금 마련 후원회까지 조직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된 탓이다.

국제 문화 교류의 전당, 국제이해교육의 교량

유네스코회관은 1959년 3월 30일 착공(기공식은 4월 11일)했고, 1966년 12월 20일에 준공(준공식은 1967년 2월 17일)됐다. 회관은 외국 귀빈을 위한 숙소와 대강당, 상업 구역, 사무실, 스카이라운지(11층)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로 건물 전면이 알루미늄 커튼월로 만들어졌고 냉난방 설비와 승강기가 완비된,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물이었다. 준공 후 곧바로 건물 7층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해 업무를 개시하면서 한국 유네스코 활동의 중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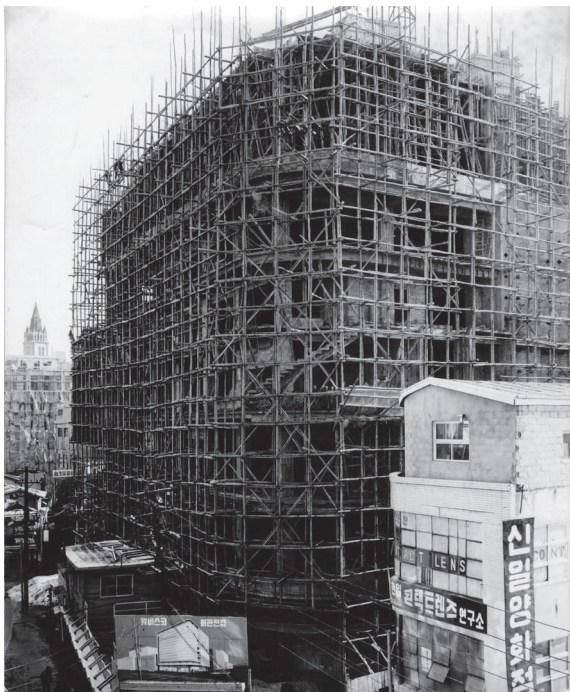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1959)



1967년 2월의 준공식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인 문흥주 문교부 장관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전당으로서 그리고 국제 이해 증진의 교량으로서 깊이 공헌하게 될 회관의 건립”이란 말로 당시 유네스코회관에 거는 비전과 기대를 드러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회관 준공(1967년)까지 13년 동안 자체 건물 없이 남대문과 시청 부근의 임대 사무실을 전전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오던 터라 독립 건물을 갖게 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대지는 중국인, 건물은 한일은행 소유



1 건축 중인 유네스코회관

1958년 11월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성원은 한층 더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국도 유네스코회관을 갖자”는 다짐으로 이어져 마침내 1958년 12월 유네스코회관 건립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후원회가 출범했다. 후원회 사무총장에 장내원, 이사에 대지 임차권 양도자인 신영순 씨 등이 선임됐다.

공사는 서울 중구 명동2가 82번지 대지(1,229.75㎡)의 원소유주 담정택(중국인) 씨에게서 대지 관

리권을 넘겨받은 주식회사 성업공사가 신영순 씨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이어 신영순 씨가 대지 사용권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무조건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배기형 씨의 설계(현상 모집 당선작)에 따라 1959년 4월 17일 풍전산업(주)가 기공의 삽을 들었다.

한국유네스코후원회는 지하 1층에 지상 13층, 105개의 방에 호텔과 극장, 이발관, 회의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성격의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축자금은 은행과 정부, 유네스코 본부에서 각각 5천만 원을 융자받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아 산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등에서 가까스로 5천4백만 원을 빌렸는데, 설상가상으로 건축업체인 풍전산업은 정부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1천만 원을 남겨둔 채 공사에서 손을 뗐다.

공사 중단과 재시공

이 무렵 후원회 사무총장 장내원 씨와 이사 신영순 씨 간에 분규가 발생해 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건설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1962년 말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1964년 6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13차 총회에서 정부에 직접 건설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1964년 8월 4일 후원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경제기획원은 각료와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유네스코회관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964년 11월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채권자의 하나였던 한일은행이 책임 시공을 맡게 됐고, 준공 후 관리권도 한일은행으로 넘어갔다.



유네스코회관 준공식 (1967)

1967년 준공, 1973년에야 관리권 전면 인수

‘유네스코회관’이라는 이름과 달리, 준공 후 6년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회관 7층만 유네스코 활동 공간으로 사용했다. 그나마 연간 약 1천3백만 원의 입주 보증금에 월세 130만원을 한일은행 측에 납부해야 했다.

회관 준공 이후 연말 대목을 대비해 개장 준비를 서두르던 명동백화점이 1969년 12월 회관 1~3층에 매장을 마련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총 180여 개의 점포를 갖춘 이 백화점은 명동 상권의 초입이라는 입지상의 강점을 안고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일약 명동의 새로운 쇼핑 중심지로 떠올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3년 12월 한일은행에서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회관 대지를 매입해 회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다. 그렇지만 회관은 유네스코 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 위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977년 11층 스카이라운지 일부를 회수해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김수근 건축가가 실내 설계)했다. 회관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12월 화재로 11층이 전소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곧 복구됐고, 2002년에는 옥상에 생태공원 '작은누리'를 조성했다. 2010년 11층 회의장을 단장해 문을 연 유네스코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크고 작은 행사 공간으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



| 오늘날의 유네스코회관 (2014)

초등의무교육을 향한 첫발

카라치플랜

유네스코의 꿈, 초등교육 의무화

유네스코는 1960년 초등교육 의무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의 기본 계획인 카라치 플랜(Karachi Plan)을 수립했다. 이어 1962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장관 회의에서 다시 이를 확인하고 초등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장기 종합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향후 20년 내에 2억 명 이상의 아시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당연히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베로네세 유네스코 사



제주도 비문해 퇴치 사업 (1965)

무총장은 이를 위해서는 약 640억 달러가 필요하며, 그중 100억 달러는 유네스코가, 나머지 540억 달러는 유네스코 각 회원국이 충당할 것이라며 재원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초등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63년 『카라치플랜』이라는 책자를 출간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초등의무교육 관계자와 교육학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카라치플랜 전국연구협의회를 개최해 카라치플랜에 따라 한국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의무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라치플랜 (Karachi Plan)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아시아 지역 초등의무교육 확대 계획.

1959년 12월 28일부터 약 2주일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17개 유네스코 회원국 초등의무교육 대표자 회의에서 수립됐다. 계획 수립 당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에 걸쳐 최저 7년간의 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나 각국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목표를 조정했다.

카라치플랜 조사단, 한국 교육 후진성 지적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의무교육 확대 계획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64년 3월부터 카라치플랜에 따라 방한한 유네스코 조사단과 공동으로 의무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한국의 초등의무교육 실태를 면밀히 연구 조사한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이 한국 전쟁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발전해 아시아에서 그 수준을 높여 평가받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발전의 여지나 탈피해야 할 후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이 지적에 따라 교육이 국가 경제발전과 병행하도록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종합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유네스코 교육조사단 문교부 방문 (1964)

초등 의무교육 발전 방안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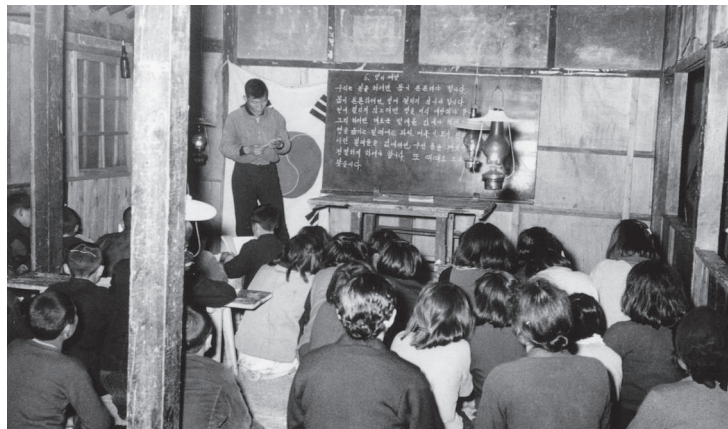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카라치플랜 연구협의회는 「초등 의무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문 내용의 이행을 정부 당국 및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협의회가 한국 초등 의무교육 실태를 분석·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했는데,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각 안에 거국적인 '중앙교육심의회'를 둘 것
2. 문교부 안에 '의무교육국'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
3. 교육 재정의 확립을 위해 교육세를 1964년부터 부과하도록 할 것
4. 2부제 이상의 수업을 없애 할 것
5. 교실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도심지의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교외로 옮기고 그곳을 초등교육 시설로 쓰게 할 것

비문해 퇴치 위해 전국적 사업 펼쳐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5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비문해 퇴치 사업을 전개했다.*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비문해의 상황을 퇴치하기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그 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민간운동(야학 등 한글교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비문해 퇴치 사업에는 지도 요원만 101명이 참가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부터 청·장년층에 이르는 3,318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 비문해 퇴치 사업 (1965)

* 유네스코 보고서에 의하면 1930년에는 만 15세 이상의 비문해자가 총인구의 68%에 달했으며, 1945년에도 크게 줄지 않아 60.6%에 이르렀다.

유네스코를 읽다, 유네스코를 보다

『유네스코뉴스』와 「유네스코 아워」

유네스코는 일찍이 민족, 집단, 개인 사이의 상호 인식과 이해 향상을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초기부터 출판을 통한 홍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2014년 10월호로 지령 700호를 맞이한 『유네스코뉴스』는 그 대표적인 예다.

유네스코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홍보사업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유네스코 이념과 활동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작·발간한 각종 홍보 자료와 연구 보고서, 도서 등을 언론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언론 종사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사업과 관련된 방한 인사의 기자회견이나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열어 사업과 기관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활용, 유네스코의 이념 보급을 위한 범국민적 기념 사업 역시 유네스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각급 학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유네스코 뉴-쓰’ 7월호부터 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과 한국과의 여러 가지 소식을 소개 교류시키고 우리나라 교육·과학·문화계로 하여금 세계로 통하는 문호를 개방하고자 매월 ‘유네스코 뉴쓰(Korean UNESCO News)’를 발간하기로 하고, 7월호 제1권을 발간했다. 내용은 전 세계 문화단신, 과학단신, 원자력소식, 과학논설, 국제문화기구 소개, 해외유학생 소식, 해외 인물과의 교우 안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선일보』 1957.6.30.

지령 700호 맞은 『유네스코뉴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4년 1월 유네스코 이념과 활동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뉴스』를 창간했다. 1957년에 선보인 월간 『유네스코 통신』, 1962년 프린트물 책자 형태로 발간된 『유네스코 뉴스레터』 등 『유네스코뉴스』보다 앞서 유네스코 소식을 전한 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호나 창간일 등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간행물의 시작은 『유네스코뉴스』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유네스코뉴스』는 1970년 5월 격주간 8면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 개편한 뒤 1982년 1월부터 월간 12면으로 발행됐다. 이어, 1986년부터 크라운판 월간 16면, 1993년에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97년부터 다시 일간지 형태에 가까운 타블로이드판 월간 8면으로 개편했다.

『유네스코뉴스』는 2014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디자인을 개편하고 타블로이드판 24면, 3만 부로 지면과 발행 부수를 크게 늘렸다. 지면 구성에서도 유네스코와 관련된 전문적 내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활동에 국민이 함께하는 후원 개발 소식,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등을 보강했다. 일반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다채로운 내용을 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유네스코뉴스』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 지역 문화원, 공공 도서관 등 국민의 발길이 잦은 곳과 유네스코 관련 정부 부처, 유관 기관, 유네스코협회 회원, 유네스코 학교 학생, 유네스코 후원회원, 군인, 개인 독자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웹진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호로 지령 700호를 맞아 독자들에게 평화와 나눔을 담은 질박한 그림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유네스코 아워」 방영



「유네스코 아워」 감사패 전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했던 홍보 사업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네스코 아워(UNESCO Hour)」의 방영을 꼽을 수 있다. 본부와 각 회원국의 사업 및 활동을 텔레비전 방송망을 통해 국내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네스코 본부를 비롯한 25개 회원국의 교육, 과

학, 문화 분야 활동을 담은 기록영화 40여 편을 「우정 있는 세계」라는 제목하에 1974년 5월부터 1975년 3월까지 10개월간 KBS를 통해 매주 토요일 1회씩 계속 방영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 영국 TVE사에서 제작한 유네스코 세계 우수 환경·인권·인구·발전 프로그램 시리즈(11편)를 우리말로 제작, EBS에서 방영한 바 있으며 이 자료를 국내 중·고등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이에 앞서 1989년에는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세계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작한 문화 영화 「세계의 다큐멘터리, 유네스코 세계」 중 18편을 KBS-3TV(교육방송)에서 방영한 바 있다.

안방극장 수놓은 「유네스코 아워」를 아시나요

유네스코의 숭고한 이념과 활동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소개하고 국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네스코 아워’(유네스코의 시간)가 5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KBS-TV망을 통해 방영된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 아워」의 TV 방영은 세계 초유의 일로서 각 회원국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로 방영되면 첫째 국제 간의 우의 증진 및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둘째 국내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위원회는 이 계획을 추진키 위해 지난 2월 4일, 131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103개국과 34개 서울 주재 대사관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서울 주재 각국 외교사절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표명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해 왔으며, 각 회원국으로부터는 속속 협조의 서신과 함께 필름이 도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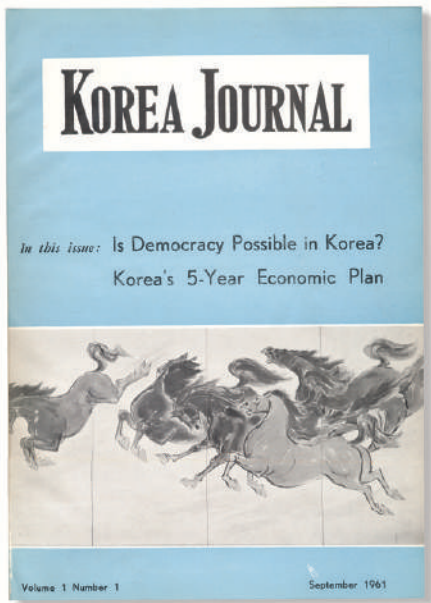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유네스코학교 학생들

「유네스코뉴스」 1974.5월호

한국을 세계에 알리다

『Korea Journal』과 『Revue de Corée』 창간



『Korea Journal』 창간호 (1961)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한국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다. 이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한편,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문학 작품을 영역해 소개하고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문지 『Korea Journal』을 창간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

한국문학 작품 번역해서 세계에 알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6년 2월 6일 한국문학 작품을 영역 간행해 해외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선 전문가 38명으로 번역대상 한국 문학작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작품을 번역한 각 분과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이하윤 ▲고전문과위 = 이희승 ▲현대분과위 = 주요섭

한국 문화 소개와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의 사명 맡아

『Korea Journal』은 한국 문화를 학술적 차원에서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61년 9월에 창간됐다. 본문 40쪽 분량의 창간호 주제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가능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골랐다. 미리 내다보기라도 하듯,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두 가지 커다란 성취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나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선택이었다. 창간호 표지에는 세계 속에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알리고 한국과 『Korea Journal』의 힘찬 전진을 기약한다는 뜻에서 김기창 화백의 작품 「말」(馬)을 실었다.

『Korea Journal』은 창간부터 1962년까지는 주로 해외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치와 경제 소식을 전하고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분야 현안을 다루는 시사지 성격을 띠었다.



『Korea Journal』 창간 10주년 기념식 (1971)

70~8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 학술지로서의 위상 다져

『Korea Journal』은 1970년대 초 4×6판형, 50쪽 분량의 월간지로 변신했다. 발행 부수 5천부 가운데 3천부 이상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동남아 등 104개국 정기 구독자들에게 보냈다. 한국의 문화, 예술, 학술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수록하면서 한국학의 해외 수출 임무를 맡았다. 동남아,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외국 학자들이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고대문학과 현대문학,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을 다루면서 한국인의 내면과 정신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1971년부터 한국 사상가 시리즈를 기획·연재하기도 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Korea Journal』은 한국에 대한 한층 깊이 있는 연구 성과물을 게재하는 국제 학술지로 거듭났다.



『Korea Journal』 창간 10주년 기념식 (1971)

대표작 뽑아 단편소설집 내기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영어로 번역돼 『Korea Journal』에 실렸던 현대 단편소설 중 김동리의 「황토기」 등 109편을 모아 『한국현대단편소설선집』(Modern Korean Short Stories Series) 전 10권과 한국의 미술, 음악, 무용, 민속 등 각 분야 논문들을 모은 『한국예술선집』(Korean Art Series) 전 8권을 1983년 발간했다. 1993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Korea Journal』에 수록된 단편소설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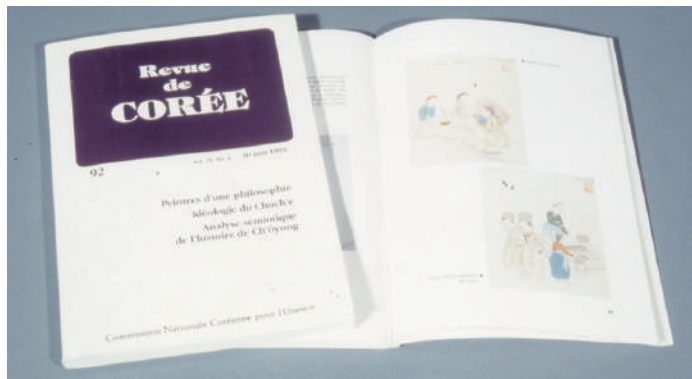


| 『Korea Journal』 창간 20주년 기념식 (1981)

데 1970~80년대의 대표작 9편을 엄선해 『Reunion So Far Away』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집을 출간했다.

불어로 한국 문화를 알린다, 『Revue de Corée』 창간

프랑스어 반년간지 『Revue de Corée』는 프랑스어 사용권 국가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 한국학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69년 6월에 창간됐다.



| 『Revue de Corée』

『레뷔 · 드 · 코레』 창간, 불어로 한국 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불어 사용 국가에 본격적인 한국문화 소개서가 될 불어판 계간지 『레뷔 · 드 · 코레』 창간호를 냈다. 4×6배판 50여 면의 이 잡지는 유네스코 동서문화 가치 상호평가의 일환으로 문화 소개에 역점을 두고 발간한 최초의 정기 간행물. 창간호의 내용을 보면 전해중 교수의 '동서사상의 충돌', 장덕순 교수의 '한국현대문학 속의 전설', 이선근 교수의 '1860~1919년의 한국의 사상', 백현기 박사의 '한국의 사회구조와 교육에 미친 그 영향' 등 충실한 논문과 민희식 교수의 춘향전역, 국보급 도자기 천연색 사진과 음악 관계 기사가 들어있다.

『경향신문』 1969.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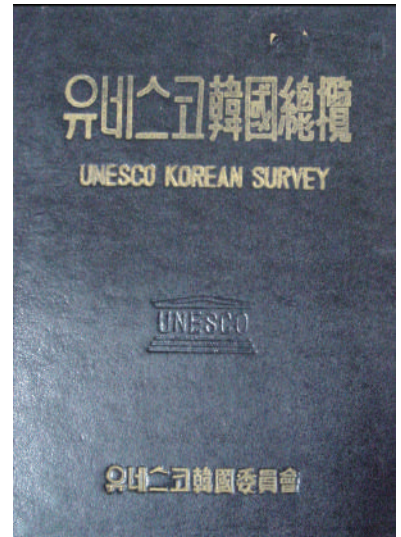
초기에 4×6배판(60면)으로 발간하다가 1972년부터 신국판(150면)으로 개편했다. 매호 한국학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한국 단편소설과 시를 프랑스어로 번역 수록하고 한국 문화계 소식, 시평, 서평 등을 실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실을 반영해 『Revue de Corée』를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했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과 『Revue de Corée』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이 저널에 실렸던 현대시 가운데 문학적 가치가 높은 시들을 엄선, 프랑스어 시선집 『Poètes coréens d'aujourd'hui』를 발간했다. 서정주, 고은, 김지하, 황지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16명의 시를 각 10편씩 모두 160편을 선정한 뒤, 각 시의 한국어 원문과 프랑스어 번역문을 꼼꼼하게 대조·편집해 발간한 이 시선집은 한국학 전공 학자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훌륭한 자료로 활용됐다.

세계에 비추는 민족문화의 거울

『유네스코 한국총람』 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과 함께 한국을 세계에 널리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교육,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집대성한 『유네스코 한국총람』(이하 『한국총람』)을 편찬한 일은 그와 같은 노력 중의 하나였다.



『유네스코 한국총람』 표지

3년 노력 끝의 결실

1950년대 한국은 6.25전쟁 참전국들 사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을 뿐, 그 밖

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유네스코의 동서문화 교류 10년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총람』 간행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한국의 교육, 과학, 문화의 전통, 발전 과정, 현황 등을 정리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세계의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이 책은 당대 최고의 학자 200여 명이 집필에 참여한 가운데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1957년 5월 발간됐다.

『한국총람』이 출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우선 전란으로 인해 문헌과 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되거나 소실됐다. 빈약한 예산 탓에 유네스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고통도 뒤따랐다. 그러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자료와 예산 부족이라는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방대한 분량, ‘쌀보다 더 비싼 책’

『한국총람』은 본문 16장과 부록을 합해 모두 74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치밀한 내용이 돋보였다. 이 때문에 당시 신문 칼럼에는 『한국총람』을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본문의 제1장은 한국의 교육·과학·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그 형성과 발전 과정이 담겼다. 전체의 서설을 대신하는 것으로 한국 현대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제2장부터는 각 부문별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 종교 민속, 제3장 언어 문자, 제4장 교육, 제5장 인문과학, 제6장 사회과학, 제7장 자연과학, 제8장 문학, 제9장 미술, 제10장 음악 무용, 제11장 연극 영화, 제12장 체육, 제13장 홍보, 제14장 도서관 박물관, 제15장 고적 천연기념물 관광, 제16장 국제 교육 과학 문화 현황이 담겨있다.

『경향신문』 1957.5.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한국총람』의 제작을 대행한 곳은 당시 대형 출판사였던 삼협문화사로, 책값은 7,700환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 시절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약 4,240환이었으므로 ‘쌀보다 더 비싼 책’이었던 셈이다.

영문판 한국총람 『UNESCO Korean Survey』 탄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총람』을 발간한 뒤 곧이어 영문판 제작에 나섰다. 국문판의 내용을 토대로 문헌과 자료를 보충해 영어로 발간하는 일이었다. 200여 명에 달하는 집필자와 번역자가 참여하고 4천여만 환(추산치 약 1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2년여의 산고 끝에 1960년 한국 문화의 세계백과사전이라고 할 950쪽 분량의 『UNESCO Korean Survey』가 세상에 나왔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도서가 거의 없었다. 1960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이 책을 세계에 한국을 비추는 ‘민족문화의 거울’로 극찬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UNESCO Korean Survey』가 국제 무대에서 거둔 성과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문판 『한국총람』은 유네스코 본부에 지원을 신청한 일본 등 12개국의 국제 문화 교류 출판물들과 경합한 끝에 국제 상금(장려금) 2천 달러를 획득했다. 그만큼 영문판 『한국총람』의 국제적 문헌 가치가 높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세계시민을 꿈꾸다

유네스코학교 활동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 협력과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해 1953년 11월 탄생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유엔과 관련된 네트워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 네트워크로서, 현재 전 세계 180개국 9천9백여 개의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양성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살아있는 역사

유네스코학교는 유네스코 정신에서 비롯된 모두를 위한 교육(EFA)**, 국제이해교육(EIU)***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와 특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새로운 교수법과 자료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증진·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학교 담당자 연수협의회 (1983)

*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국내 도입 후 '유네스코협동학교'로 불리다가 2013년부터 '유네스코학교'로 개칭됐다.
 ** Education for All ***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은 1961년 4개의 중·고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5년 후인 1966년에 13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유네스코학교 활동은 초창기에는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1965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내 연구협의회를 열었고, 1971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유네스코협동학교 계획 전국연구대회 (1962)

1972년 전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유엔 및 그 전문기구, 타문화, 인권 외에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와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연구를 새로운 주제로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 유네스코 학교 활동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고, 그 결과 1973년부터 문교부도 국제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목적으로 장학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 2005년 유네스코학교에 가입한 학교의 수가 100개교를 넘어섰고, 2014년 10월 현재 251개교로 늘어났다.



1 유네스코협동학교 발전을 위한 국내협의회 (1981)



1 유네스코협동학교 계획 발전을 위한 아시아지역 세미나 (1981)

그동안 유네스코학교 사업을 통해 수행해온 국제이해교육 활동은 크게 정규 수업 과정에서의 활동, 특별 활동, 국제교류, 교사 및 학생 연수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제교류 활동에는 유네스코학교 간의 자매 결연 및 교환 방문, 해외 펜팔, 유네스코 주최 국제 캠프 참가 등이, 교사 및 학생 연수로는 연구협의회 개최, 국제기구 및 해외 유네스코 학교 견학, 여름 캠프 개최 등이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이 제57차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 2005~14)의 실천을 위해 유네스코 학교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앞장서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꾀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교육 흐름과 동떨어져가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유네스코학교를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

1980년대 이후에도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발전해가던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 1986~88년까지 3년 동안 5개의 지정 연구학교 외에 14개교가 31건의 현장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현장 연구를 비롯해 아태지역 회원국과의 교사 교류, 세미나 개최, 자료 개발 등 유네스코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제이해교육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워크숍 (1995)



|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문

활동은 이 무렵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새로 들어선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국제이해교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교육부가 1995년 당시 유일하게 한국 사회에서 국제이해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국제이해교육센터로 지정한 것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활동을 넘어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다양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 국제이해교육연구회 설립에 이어 2000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199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장관 회의에서 가치교육(values edu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995년 서울에서 국제교육 및 가치교육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APNIEVE)*를 설립했다. 2001년부터는 매년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몽골,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교류·협력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집중적인 국내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외교적 노력을 더해 2000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을 통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설립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Asia-Pacific Network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Values Education
 **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가 협력·후원하는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2013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평화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국내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국가조정관, 교사,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 사무소 담당자 등 60여 개국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13)

과학 진흥의 밑거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해양학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연과학 분야의 주요한 국제교류 창구로서 전문가들의 국제교류와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국내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설립과 변천

1962년 과학기술 정보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를 설립했다. 센터 운영을 위해 유네스코 전문가가 내한해 기술 지도를 했으며, 일본과 인도의 관련 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기술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센터는 설립 후 2년간 1,300여 종의 외국 과학기술 관련 정기간행물과 각종 문헌을 수집, 분석, 정리해 『과학기술문헌 목록집』을 발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독립해 1964년에는 사단법인, 1967년에는 재단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바꾸었다. 1982년 국제경제연구원(Korean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과 통합되어 한국산업연구원으로 개편

* Korea Scientific &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됐다가 1991년 산업기술정보원을 거쳐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바뀐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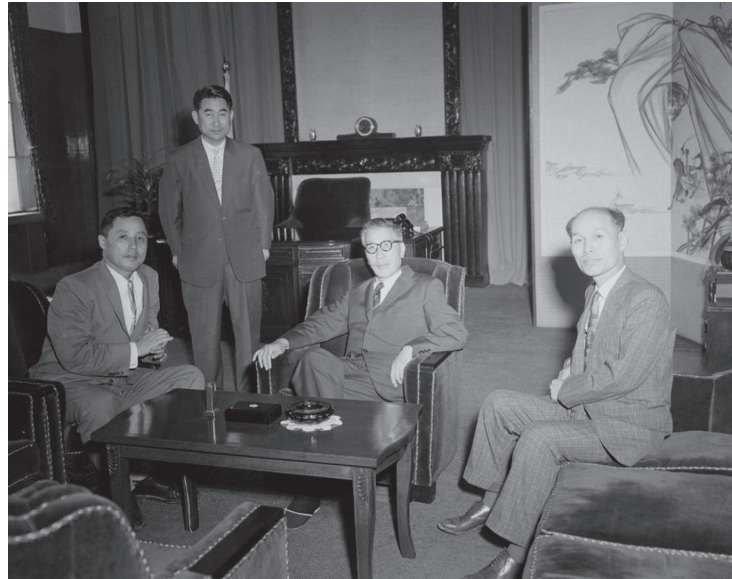
한국해양학위원회 설립과 활동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해양과학 연구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제11차 총회(1960)에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 유네스코 산하 기구 중 하나로 창설했다.

196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과학 분야 정부 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해양학위원회(KOC)**를 설립했다. 한국해양학위원회 사무국은 198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가 1996년 창설된 해양수산부로 이전했으며, 2003년에는 해양연구원으로 옮겨갔다. 한국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창설국 중 하나로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1993년부터 2015년까지 11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서태평양지역 20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지역위원회인 서태평양위원회(IOC/WESTPAC)***에 적극 참여해 1999년에는 제4차 총회, 2001년에는 제5차 IOC/WESTPAC 국제 과학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8년 세계 해양의 해를 맞아 『세계 해양의 해 자료집(International Year of the Ocean, 1998)』을 번역·발간했다.

-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 *** IOC Sub-Commission for the Western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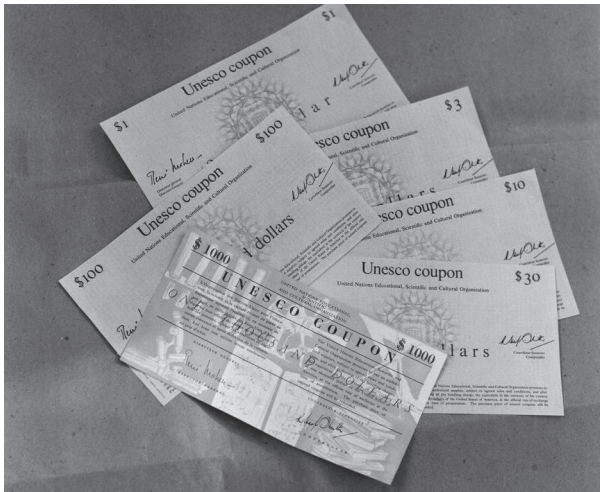
유네스코 주최 국제 해양회의에 참석한 허정 국무총리(1960)



쿠로시오 조사를 위한 해양과학 심포지엄

외화 없이 외국 책 살 수 있다

유네스코 쿠폰 사업



유네스코 쿠폰

유네스코 쿠폰이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책이나 교육, 과학, 문화 자료 및 기자재를 서로 사고팔 때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편리한 제도이다.

이 쿠폰은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로 외국의 학술 간행물과 각종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1948년 창안한 국제통화이다.

한국은 교육·과학·문화계의 향상과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각종 문헌, 특히 학술 전문 서적 등을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해 1961년 8월 유네스코 쿠폰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국내 쿠폰 배정 업무 맡아, 해외 학술서적 구입 절차 간편해져

유네스코 쿠폰은 서적 쿠폰, 과학기재 쿠폰, 영화 쿠폰, 여행지 쿠폰 등 4종이 있으며 한국은 서적 쿠폰과 과학기재 쿠폰 2종에 가입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0년 10월 서적 쿠폰을 배정한 이래, 매년 정부의 연간 책정액에 따라 배정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외무부, 재무부, 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재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23인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쿠폰 배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쿠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배정을 위해 노력했다.

쿠폰의 발매와 배정 업무는 한국은행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각 대행했는데, 국내의 실수요자들은 대행기관을 통해 공정 환율을 적용한 한화로 문헌을 구입했다. 정부는 유네스코 쿠폰 사용을 위해 정부 보유 달러 중에서 매년 10만 달러를 배정했고, 유네스코 본부는 1차분으로 3만 달러의 쿠폰을 보내왔다.

유네스코 쿠폰 제도의 시행 결과, 실수요자가 한화로 해외의 교육, 과학, 문화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간편해졌으며, 쿠폰 제도에 의한 수입품은 국제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수속이 간단하며 염가로 신속히 입수할 수가 있었다.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수속 절차가 편리했으며, 기명식(記名式) 금권이었기에 분실이나 도난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유네스코 쿠폰 협성고등공민학교에 전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전해 달라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보내 온 680달러 상당의 '기프트 쿠폰'을 협성고등공민학교에 전달했다. 이 '기프트 쿠폰' 제도는 자유우방의 유네스코 회원국 국민들이 우방국가의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돈을 거두어 국제통화단위인 '유넘(UNUM)' 쿠폰으로 보내는 제도이다. 이번에 한국에 배당된 680달러는 특히 향학열은 있으나 돈이 없어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협성고등공민학교에 배당하기로 된 것이며 일본의 국민들이 거둔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64.6.10.

쿠폰 프로그램 통해 외국서적 다수 구입, 프랑스 서적 제일 많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가 책정해준 10만 달러를 기반으로 1961년 11월 각 대학 교수와 학회, 은행 등에서 유네스코 쿠폰 신청을 받았다. 곧이어 유네스코 쿠폰 배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 1명을 제외하고 56개 기관 및 개인이 신청한 대로 쿠폰을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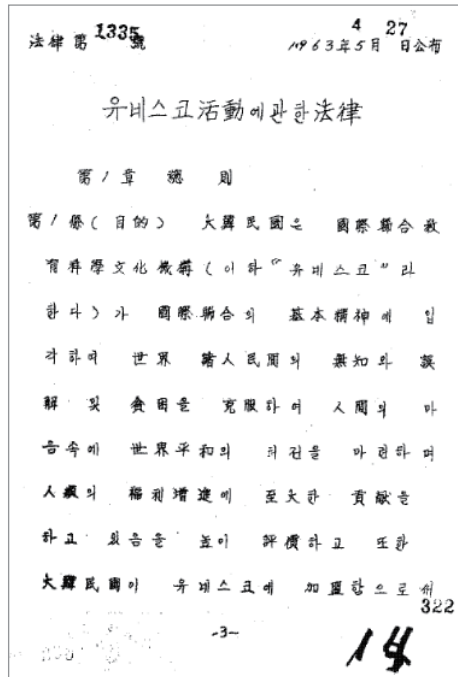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차로 배정한 도서 내용을 보면 단행본은 프랑스 서적이 834권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 서적이 431권, 미국 서적이 248권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기간행물은 미국이 342권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나라의 복잡한 통화제도와 환전의 장벽을 극복하게 해준 이 서적 쿠폰을 활용해 유럽 등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구입한 서적은 모두 15,431권에 달했다.

유네스코 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1963년 4월 27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35호로 제정됐다. 이로써 창립 이후 다양하고 활발한 유네스코 활동을 전개했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관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총 2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협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위원회 기관으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1963)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역

1963년 제정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 재정, 활동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재정적 자율성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는 데 따른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1953년 대통령령으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이 제정됐지만 이것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활동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될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죠.”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작정한 조민하 전 사무총장은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를 둘러봤다고 한다.

“이들 나라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조직이나 활동을 보니 좀 답답했어요. 이왕 만들 거면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활동이 있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또 민간단체의 역할이나 활동도 해야 하고…….”

다행히 이런 뜻에 공감한 집행위원회 위원들인 현승중, 양주동, 홍종인, 박종홍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어 법률 제정이 가능했다고 한다. < 조민하 제4대 사무총장 (1962~1966년 재임)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

법률 공포, 민족문화 창달과 세계 평화를 향해

법률 공포로 인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교육·과학·문화계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활동의 법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모두 25개조로 된 이 법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 세계 제 국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리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인 협력을 다하여 유엔 및 「유네스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을 실현한다.
- ▲ 교육·과학·문화 활동을 통하여 참신한 국제적 지식과 공정한 국제 이해를 국민에게 보급시키고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이해와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 ▲ 문교부장관의 관장 밑에 교육·과학·문화·홍보 관계 대표 또는 국회의원 및 행정부 요인 가운데서

뽑힌 60명의 인사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 기관으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44년 만의 법률 전부개정, 한국위원회 심의·조정·협력 기능 강화

1963년 제정된 후 44년 만인 2007년 3월 6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제265회 임시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4월 6일 법률 제8332호로 정식 공포 됐다.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법률의 특징은 국내외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심의,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한 데 있다.

특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등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맺은 협정을 근거로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명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한국 유네스코 활동의 국제적·전문적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위원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

유네스코학생회(KUSA)

인기 너무 좋아서 신입회원 모집 때 시험 보기도

“1960년대 중반 유네스코 학생회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해마다 신입 회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 테스트를 거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생 해외 교류는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프로그램이었다.

“해마다 일본에 스물 대여섯 명을 보냈고,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오곤 했죠. 한일 청소년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반인은 여권 신청조차 거의 불가능한 때여서 인기가 대단했었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계 20여 개국 청소년을 모아 개최하는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도 아주 매력적인 요소였다.

〈조철화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장(1964~1971년 근무)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새물결운동 표방, 조국순례대행진 이끌어

유네스코학생회는 대학가에 쿠사(KUSA)*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동아리이다.

*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1965년 전국 13개 대학에서 쿠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새물결운동’을 표어로 내걸고 “혼자면 독서, 둘이면 대화, 셋이면 합창, 넷이면 운동”을 약속했다. 2014년 현재 전국 30여 개 대학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1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민족의 얼을 되새기는 ‘조국순례대행진’은 유네스코학생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세계 각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토론을 통해 국제친선을 꾀하는 국제청년야영도 유네스코학생회가 참가한 단골 행사였다.

국내 활동 가운데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도 관심이 모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회 각 대학 지회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유네스코청년원으로 초청해 저명인사와의 대화, 공개강좌, 연구발표회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편, 각 대학 지회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 농촌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12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1970)

국내 청년활동의 길라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내에 청소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 청소년 활동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965년 5월 청소년문제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그해 12월 15개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태가 됐으며, 오늘날 71개 청소년 단체가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단체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1966년 6월에는 유네스코 학생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위한 유네스코학생활

동지도교수협의회를 결성했다.

1965년 6월에 열린 유네스코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는 한국 학생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학생 활동과 국제 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5년 7월 각 대학 학생회 임원과 대학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수원)에서 유네스코 하계학교(UNESCO Summer School)를 개최했다. 참가 대학생들은 당시 대학 상황과 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이후 새로운 대학 운동을 전개했다.



유네스코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 (1972)

대학가의 새물결, 유네스코학생협회

이러한 움직임은 1965년 서강대학교를 시작으로 13개 대학에서 유네스코학생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각 대학의 유네스코학생회는 자각적 탐구와 실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물결운동’을 주창했고, 1967년 11월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새물결운동 전국대회에서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를 출범시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 학생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력 함양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지도자교육과정 개최(1965~94), 새물결운동 전국대회 지원(1967~91), 회장단 연수회 개최(1968~91) 등을 통해 유네스코학생회가 고유한 활동영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유네스코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를 매년(1965~94) 개최해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했다.

1967년 11월 8일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는 전국 30개 대학에서 1천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전국새물결운동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대학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불의를 몰아내고 새로운 모럴을 제시하는 데 그 출발점을 둔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겨울 서울대 농대에서도 전국 남녀 대학생 108명이 모여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여름과 겨울 방학에 실시하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의 네 번째 모임이었다.

50년 전통의 유네스코학생협회, 새로운 도약을 향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유네스코 학생회가 출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것이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이 위축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관계도 끊어졌으며, 유네스코학생회의 연합체인 유네스코학생협회 역시 오랫동안 활동이 중단됐다. 다만 각 대학에서 유네스코학생회는 자체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2012년 16개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유네스코학생회연합회로 재출발했다. 한국유네스코학생회 지도자교육과정(2012년 2월 겨울학교) 개최를 시작으로, 신입생 환영회, 유네스코와의 간담회와 워크숍, 체육대회, 여름학교, 영상제 등의 활동을 하며 새롭게 기반을 다져나갔다.

유네스코학생회는 2013년 2월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린 겨울학교에서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로 명칭을 회복하면서 50년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고 있다.



제22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1978)

풀뿌리 유네스코 활동의 산실

유네스코협회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헌장」

유네스코 정신은 세계평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교류를 강조한다. 서구 지식인들의 평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유네스코협회

유네스코협회 활동은 유네스코의 평화 이념에 공감한 세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인 1947년 전쟁의 참화와 고통을 경험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네스코의 탄생에 자극받아 일본 내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74년 7월 도쿄에서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협회연맹(AFUCA)*이 창설됐다.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협회연맹에는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네팔, 태국, 베트남

* Asian Pacific Federation of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

남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다.

2012년 제21차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협회연맹 집행이사회에서는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 유재건 회장이 만장일치로 AFUCA 회장에 선출돼 2016년 5월까지 4년 임기의 회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1981년 7월에는 158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WFUCA)*이 결성됐다.

첫 지방협회는 1965년 대전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1965년 6월 17일 유네스코 지방협회 조직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6월 30일 「유네스코지방협회규약」을 제정했다.

곧이어 지방협회의 창설이 잇따랐다. 1965년 7월 10일에는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지방협회가 대전에서 탄생했다. 초대 회장에는 김영묵 당시 충남대학교 총장이 취임했다.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전주협회(회장 오명순 국악협회장), 10월 22일에는 대구협회(회장 김관영 교육감), 12월 13일에는 광주협회(회장 안용백 교육감), 1967년 2월 24일에는 부산협회(회장 오복근 교육감)가 각각 창립됐다.

1970년대 들어 충북, 강원, 경남, 경기, 제주, 경북, 목포(광주협회지회)에 유네스코협회가 설립됐고, 1980년 10월 29일에는 서울 유네스코협회가 결성됨으로써 유네스코 활동이 시민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됐다.

1981년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창설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같은 해 5월 21일부터 이틀간 충남 유성에서 전국 12개 지방협회와 한국유네스코청년협회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결성 준비회의를 열고 각 지회 대표들로 발기인회를 구성했다.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1982년 10월 27일 유네스코청년원(경기도 이천)에서 각



제3회 유네스코 민간활동 전국연수회 (1970)

* World Federation of UNESCO Clubs, Centres and Associations

단체 회원 90명과 관계자 12명 등 모두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창립총회가 열림으로써 한국에서 유네스코 민간활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초대 회장에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1983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맹 제1차 이사회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맹 초대 회장에 추대되어 그해 5월 25일 회장에 취임했다. 1983년 12월 28일에는 사단법인(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 수행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제2대 회장에 조성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3대 회장에 박선규 전 유네스코 충남협회장, 제4대 회장에 정몽준 전 의원, 제5대 회장에 전달출 대구매일신문 명예회장, 제6대와 제7대 회장에 이평우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수석대표, 제8대와 제9대 회장에 유재건(2009~16) 전 국회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14년 12월 현재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전국 20개 지방협회 조직과 유네스코 학교, 청년협회 등 각종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는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 분과위원회(교육, 과학, 문화·청소년, 국제협력)를 두고 있다.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의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 25인과 감사 2인이다.

연맹은 ① 타 민간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민간 유네스코 활동 증진 ② 회원 연수, 전국 대회, 출판 등 각종 유네스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 유네스코협회 활동의 발전과 활성화 도모 ③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과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협회연맹, 혹은 외국 조직과의 연계 활동과 네트워크 조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이사회 (2000)



| 유네스코협회 전국대회 (2014)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해 확산 프로젝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2012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 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이해 확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 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식을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 공개강좌, 유네스코 유산교육, 현장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해 이들이 직접 서울·경기·부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매년 3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유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모든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유네스코 유산의 보존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는데, 2013년 7월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유네스코 유산, 미래가꿈' 발족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겹다

국제청년야영(ICY)

1966년 8월 수유리에 위치한 한국신학교 구내에서는 신축 중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진입로 공사가 한창이었고, 이곳에 한국 청년 30명과 외국 청년 19명이 삼과 들것으로 흙을 퍼 나르고 바닥을 고르며 공사를 도왔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 참가자들로서, 국제야영봉사는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 중 하나였다.



제1회 국제야영봉사 (1966)



| 제2차 국제야영봉사 (1967)

젊은이의 국제 역량 키운다

국제야영봉사는 1979년부터 직접적인 노력 봉사 대신 청년들의 참여와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으로 이름을 바꾸고, 강

연과 토론, 실습, 국제 문화의 밤, 학습여행 등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해 인류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청년의 국제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한국을 알자” 세계 젊은이들 몰려

당초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문화와 현실을 서로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을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한 국제청년야영은 점차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의 행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해외 연수 등 한국 대학들의 외국 학생들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상당수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기 위해 내한하면서 청소년 분야의 국제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1년 한 해에만 제16차 국제청년야영, 프랑스 대학생 초청 행사, 한국·독일 청년 모임,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방한 연수 등 청년 대상 국제 프로그램을 네 개나 개최했는데, 이때 14개국 2백 명이 넘는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 행사들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발전상을 접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 제16차 국제청년야영 (1981)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방한 연수 (1981)

특기할 것은 1981년 8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16차 국제청년야영에 참가한 외국 대학생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방한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 1백 명 모두 스스로 참가 경비를 부담했다는 점인데, 외국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청년야영의 변천

국제청년야영은 2009년부터는 청년지역행동(Youth in Community Action)으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 Camp)라는 새 이름으로 해외 국제자원활동의 국내 캠프 성격을 띠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20여 개국 청년들은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서 함께 일하고 숙식하면서 환경, 문화, 지속가능발전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직접 그 해결 방안을 찾는다.



제29차 국제청년야영 참가자들 (1994)

제2부

> 1970~1985

유네스코, 세계로 열린 창

유네스코는 연령을 초월해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평생교육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아울러, 발전과 보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자생적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창설은 한국 사회과학 발전의 기반이 됐다. 해외 한국인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반도 영역 밖으로 확대한 신선하고 뜻깊은 시도였다.

한국문학, 역사, 예술 도서의 번역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세계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계속됐고, 해외 유출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찾고자 했다. 서방 언론 중심의 정보 유통에 맞서 신정보국제질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돼 말과 영상에 의해 생각이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샘솟았다. 이 시기 청년의 활약은 눈부셨다. 국토를 누비는 청년들은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를 만들어냈고, 청년의 터전 유네스코 청년원이 세워졌다.

- 제19화 배움은 언제 어디서나
- 제20화 열린 창으로 세계를 보다
- 제21화 진화하는 교육
- 제22화 세계에 다가선 한국
- 제23화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
- 제24화 사회과학, 한국 사회를 말하다
- 제25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 제26화 과학으로 동남아를 품다
- 제27화 강물처럼 흐르는 생각
- 제28화 발전과 보전을 함께
- 제29화 문화적 자존심의 제자리 찾기
- 제30화 해외 한국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제31화 아태지역 협력을 이끌다
- 제32화 문화로 도타워진 아시아

배움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 (1982)

‘평생교육’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한 주요 교육 개념 중의 하나로서, 교육을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틀에 한정된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생애 전체 과정 속에서 파악하려는 새로운 흐름이었다.

‘평생교육’ 개념의 도입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 세계교육의 해를 계기로 평생교육 개념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1972년 유네스코 본부의 자료를 수집·번역해 보급한 데 이어 1973년 8월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철학·심리학·정치학·사회학·교육학 분야의 교수와 언론계 인사 30여 명을 초청해 제1차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평생교육 개념이 국내에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1970년대 초반에 이미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번 얻은 지식만으로 일생을 살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직업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후의 우리 사회 구조와 직업 생활의 양상을 예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상적인 교육 체제 안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세대에 있어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우리 사회의 전문적 역할을 위해 활용하려면 사회 생활을 계속하는 한 평생을 통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현대의 교육학은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 활동 인력에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학교에서의 과학기술교육과 산업 구조를 대응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어쨌든 한번 학습해 얻은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전 생애를 평화롭게 마칠 수 없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의미는 단편적 지식을 얻는 것 외에 능동적 발전과 경험의 누적에 의한 의욕적 자기 실현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연령을 초월한 중단 없는 평생교육의 의미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 1973년 8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제1차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에서 연세대 이규호 교수〉

평생교육 진흥 방안 제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4년과 1978년 두 차례,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국내 사회교육 기관 현황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 1974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전국 20여 사회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는 한국의 사회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아울러 사회교육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교육에 관한 국가 수준의 협의체 또는 조정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둘째, 정부의 사회교육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사회교육의 정책, 제도 및 법률적 지위 등은 이미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 셋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사회교육 기관의 경우도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이 경영하는 사단법인은 재정 취약성이 더욱 심하다.
- 넷째, 각 사회교육 기관의 조직과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 다섯째,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다른 교육 목표와 그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평생교육 개념의 정착과 이행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벌인 결과,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도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평생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가정교육, 노인교육, 학교 외 청소년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보급했다. 그 결과, 1980년 새 헌법에 ‘평생교육의 진흥’이 명문화됐고 1981년에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가 만들어졌다.



평생교육과 가정교육 (198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2년 12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평생교육 개념 도입 10년을 기념해 평생교육의 이념 정립과 그 체계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다학문적 성격을 띤 이 세미나에서는 관련 학자와 전문가 등 60여 명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비롯, 평생교육의 철학적·사회적·심리적 기초와 교육과정, 평생교육의 행정 및 재정, 성인교육 요구의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포럼 개최

세계 평생학습의 흐름을 조명하는 ‘2013 세계평생학습포럼’이 2013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열렸다.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평생학습포럼이 아태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포럼에서는 아나 칼슨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원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한 데 이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의 대표들이 평생학습 사례를 발표했다. 주최국인 한국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아프리카는 문해 증진을 위한 지역 학습센터 운영 사례를 제시했으며 남아메리카는 경제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 평생학습사회 정책포럼 (2013)

열린 창으로 세계를 보다

『UNESCO Courier』 한국어판 발간

유네스코가 1948년 창간한 『UNESCO Courier』는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는 하나’라는 유네스코 정신의 확산과 구현에 이바지한 국제 문화 교양지다. 인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로 제3세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석학과 지성인들로 필진을 구성해 편중되지 않은 관점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폭넓고 심오한 안목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국제 이해의 촉진을 위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판 『유네스코 꾸리에』 발간

『UNESCO Courier』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출판되는 가운데, 한국어판은 1978년 6월 세계에서 19번째 언어로 창간됐다. 발간비와 유통 비용 등으로 매호 적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간 이후 제작·판매권을 이관하기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결호도 없이 꾸준히 『유네스코 꾸리에』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영어나 불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UNESCO

『Courier』 본부판에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 독자들과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가령, 1979년 2월호(본부판 1978년 12월호)에는 한국 특집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실려 한국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세계로 열린 창』으로 제호 변경

한국어판은 1985년 8월호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하다가 보급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서출판 정음사에 제작 및 판매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1986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4년간 기간을 정해 매호당 일정액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출판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제호(題號)도 『세계로 열린 창』으로 바꾸고 1986년 1월 혁신 창간호 3만3천부를 펴냈다.



『세계로 열린 창』으로 제호가 바뀐 『유네스코 쿠리에』

정음사는 제호 변경 이후 지면을 대폭 늘리고 사진 화보 중심의 교양물로 지면을 혁신했으며, 고급 용지에 전면 컬러 인쇄로 좀 더 읽기 쉽게 스타일을 바꾸는 등 책의 보급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도 세계적인 저명인사와의 단독 인터뷰 등 보다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독자 코너를 신설해 국내 독자들이 세계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음사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989년 9월 제호를 『세계의 창』으로 바꾼 뒤 제작·판매권을 행림출판사에 이관했다.

그러나 행림출판사도 1년이 조금 지난 1990년 12월 28일, 제호를 다시 『세계로 열린 창』으로 바꾸고 도서출판 청천(1990~94)으로 판권을 이관했다. 그 후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1995~96)가 그 뒤를 이었지만 유네스코의 지원금 감소와 판매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1996년 10월 창간 18년 만에 발간을 중단했다.

『UNESCO Courier』 한국어판 발행을 담당했던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의 강우현 소장

은 1996년 10월 발표한 「중간(終刊)의 변」에서 “세계 30개 언어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정갈하게 발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강한 자부심으로 독자적인 기획의 폭을 넓혀왔던 한국어판을 중간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꾸리에 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글판 『유네스코 꾸리에』 1981년 3월호에 국내 월간지로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독자용 점자판을 삽입한 특별 기획 기사를 실어 화제를 모았다.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 본부가 『UNESCO Courier』에 두 차례 점자판 특집을 꾸민 것을 접한 나찬우 씨는 점자판 간행물의 성공을 확신하고 『유네스코 꾸리에』 한글 점자판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나찬우 씨의 노력 덕분에 한글 점자판은 2년의 준비 작업 끝에 1983년 여름호로 창간됐다. 점자판은 석 달치를 한꺼번에 모아 엮어내기 때문에 계간지로 발간됐다. 유네스코 본부가 발간한 『UNESCO Courier』는 매달 35개 언어로 번역되지만, 점자판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의 4개 국어뿐이었다.



『유네스코 꾸리에』 점자판

진화하는 교육

아태 교육혁신사업(APEID)과 아태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APPEAL)

“한국 눈부신 활동에 경의”

1982년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은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1950년 이후 최초로 방한한 유네스코 최고 책임자이다. 그는 특히 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자 확대, 평생교육의 확충, 과학기술교육 강화 등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설악산의 유네스코 지구생물권 보존지역[생물권보존지역] 지정, 지역사회 개발 연구사업과 새마을운동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경향신문』 1982.3.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태 교육혁신사업(APEID) 국가위원회를 1980년부터 특별위원회로 두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1982년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유네스코와 한국정부 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 교육 협력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아마두 마타르 음보 사무총장 방한 (1982)

아시아·태평양 교육혁신사업

1960년대 유네스코가 아시아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카라치플랜은 1970년대 아태 교육혁신사업으로 개편, 발전했다. 1971년 5~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교육 및 경제 장관 회의의 건의에 따라, 유네스코는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교육 개혁과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과 기구의 설치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1973년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사무처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아태 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됐다.



아태 교육혁신사업 로고



문해교육 지도자를 위한 유네스코 워크숍 (1992)

한국은 1974년 3월 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국내 최초의 협력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전문가 7인으로 아태 교육혁신센터 국가위원회를 조직한 이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 그리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등 모두 8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업을 담당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6년간, 그리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 사업의 조정기관 역할을 맡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0년 아태 교육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교육행정 및 장학 담당자 양성에 관한 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981년에는 철학 교수법과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 1994년에는 교육 개혁 세미나를 열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특수교육, 환경교육 등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와 각종 회의, 연수 사업 등을 주관하거나 협력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육 협력에 크게 공헌했다.

아시아·태평양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아태 교육혁신사업이 주로 중등교육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혁신 활동이라면, 아태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APPEAL)은 주로 문해교육, 취학전교육 및 초등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개념을 포함한 유네스코 아태 지역 교육 활동이다.* 1985년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특히 1990년 태국의 줌티엔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 이후 한국에서 문해교육을 비롯한 계속교육 부문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태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국가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유네스코 본부가 운영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국내 사업으로 한국문해교육협회 연차 대회를 지원하고, 훈련교재인 『ATLP-CE』(APPEAL Training Materials for Continuing Education Personnel)를 번역·발간했다. 이러한 국내외 활동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전면 개정돼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평생교육법」이 탄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아시아·태평양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Asia-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 for All: APPEAL)은 아태지역에서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서 1987년에 출범했으며, 성인 기초교육, 계속교육 등을 통한 평생학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대표적인 문해교육상으로 부상

한편, 한국정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교육 활동의 중추사업인 문해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1989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 이 상의 제정은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는 이 상은 비문해 퇴치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3만 달러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들의 후원으로 몇 가지 문해교육상을 제정하여 수여해 왔으나 대부분 중단되었고, 2014년 현재 한국이 후원하는 세종대왕 문해상과 중국이 후원하는 공자상이 대표적인 문해교육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 (2009)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 (2013)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초청 프로그램 (2011)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유네스코가 문해활동에 커다란 공을 세우거나 성공적인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 매년 세계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인 9월 8일 수상자를 뽑아 시상하고 있다. 제1회(1990) 수상자로는 인도의 과학대중화 운동단체인 케랄라 과학 문학 협회(Kerala Science Literature Association)가 선정되었다.

세계에 다가선 한국

한국문학, 역사, 예술 도서의 번역 사업

유네스코 본부는 1960년대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연간 약 7만6천 달러의 예산을 들여 소수 언어 민족의 문학작품 번역에 착수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번역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을 추진할 연구단을 조직해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 제2회 한국문학번역 국제학술회의 (1998)

한국문학번역협회 탄생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해외 소개를 취지로 하는 한국문학번역협회(가칭)가 탄생한다. 1965년 8월 14일 유네스코한국본부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게 될 이 협회는 얼마 전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 주최의 세미나 '한국문학의 해외수출' 석상에서 참석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어 잉태한 것이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우리 작품을 외국어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사들로서 회원 13명을 추대했다”고 말하는 주요섭 씨는 창립위원으로 김동상, 김종길, 김종운, 라건석, 박태진, 백낙청, 백승길, 유의상, 이학수, 이희창, 정종화, 주요섭, 피천득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65.8.12.

번역자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 들어 유네스코 본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고전,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들을 영어, 불어 등 서구권 언어로 번역·출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시 선집』, 『한국단편소설 선집』, 『춘향전』, 『한국 시조선』 등이 대표적인 번역대상 작품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네스코한국위

원회는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고 각국과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우선, 훈련된 번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본부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자체 예산 역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 번역 정책 공개 토론회 (1999)

신탁기금 통해 한국문학 작품 번역 지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문학에 호의적이던 유네스코 본부 담당자들이 한국 작품의 해외 출판을 위해 제안한 방안은 신탁기금이였다. 신탁기금은 일정한 목표와 대상을 정한 뒤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 유네스코에 기부하는 기금을 말한다. 즉, 한국 작품 번역에만 쓰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해 신탁기금을 기부하면 유네스코를 활용해 훨씬 폭넓게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1974년 6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문학번역기금을 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 유네스코에 한국문학 번역 기금 2만 달러를 신탁한 것이다. 유네스코 본부는 이 신탁기금에 기여금 2만 달러를 보태 모두 4만 달러의 예산으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을 지원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이후 10년간 영문 15권, 불문 5권 등 모두 20여 권의 한국문학집이 해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

고전문학, 현대문학 골고루 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문학을 번역하고 해외출판추진위원회를 조직해 번역 대상 작품의 선정과 번역 방향 등을 주관했다. 이 무렵 『용비어천가』와 『구운몽』, 『춘향전』, 『한국의 탈춤』 등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과 『박목월 시선』, 『장마』 등 현대문학 작품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돼 해외 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이 작품들은 유네스코가 소수 언어권 작품을 영어 및 프랑스어로 번역·발간하는 『유네스코대표문학선집』(UNESCO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Works) 시리즈에도 포함됐

는데, 이 문학선집은 문화간 이해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가 세계 주요 출판사들과 함께 소수 언어권 작품을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아랍어 등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발간하는 사업으로 1948년 처음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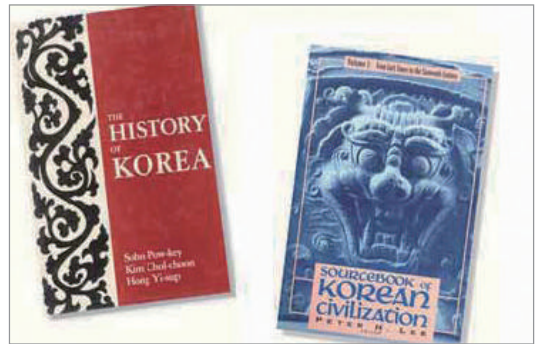
| 한국문학 작품 번역 도서전

『유네스코대표문학선집』에 포함된 한국의 주요작품

구운몽, 인현왕후전, 춘향가 (영어, 1974) / 용비어천가 (영어, 1975) / 박씨전과 속향전 (프랑스어, 1992) / 장마 (윤흥길, 영어, 1983) / 보조국사 지눌선집 (영어, 1983) / 왕오천축국전 (헤초, 영어, 1984) / 박목월 시선 (박목월, 영어, 1990) / 유형의 땅 (조정래, 영어, 1993) / 서정주 시선 (서정주, 영어, 1993) / 회색 눈사람 (최윤, 프랑스어, 1994) / 아름다운 영가 (한말숙, 프랑스어, 1995) / 귀천 (천상병, 영어, 1995) / 토지 (박경리, 영어, 1996) / 카인의 후예 (황순원, 영어, 1997) / 불놀이 (조정래, 프랑스어, 1998) ※괄호 안은 저자, 번역된 언어, 출판연도

한국 역사, 언어, 사상도 영어로 번역 · 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또한 자체적으로 번역 발간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역사와 언어, 사상에 관한 많은 영문 학술서적을 출간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출판한 『Traditional Performing Art of Korea』,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 『The History of Korea』, 한국 전통문화 연구의 전기를 마련한 『사료로 본 한국문



『The History of Korea』(1970),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1993, 1996)

화사』의 영문판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등은 국내 저명한 한국학자 4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사업의 결과였다. 특히,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은 지금까지도 한국학 연구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은 해외에서 원고가 완성되었거나 출판 단계에 있는 한국문학 도서를 일부(2~3백부) 구입해 출판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 사업이었다. 대상 도서로는 『한국시조집』(영국 그레이엄 윌슨역, 호주 퀸즐랜드대학 출판부에서 출간)과 『한국가사집』(미국 하버드대학 데이비드 매케인 교수역) 등이 있다.

한국 전통사상과 신앙 관련 문헌 번역

198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문학 작품과 고전 중 『한국의 전통연극』 등 4종을, 1983년에는 『패관잡기』 등 5종을 번역·출판했다. 1982년 9월에는 확대 개편한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출판추진위원회를 통해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신문화 발전과 교류에 큰 기여를 해온 한국 전통 사상과 신앙의 원전 자료와 문헌의 번역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문학과 역사학, 한문 원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기관 대표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에 이가원 교수(연세대), 부위원장에 장덕순 교수(서울대)를 각각 선임했다.

『한국전통음악시리즈』 발간



영문판 한국전통음악자료집 (198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3년 유네스코 국제문화진흥기금(IFPC)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의 전통음악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영문판 한국전통음악시리즈 발간을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라 범패, 아악, 산조, 주악도, 진도씻김굿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학술 연구 결과가 영문으로 발간됐다. 유

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시리즈를 발간함으로써 1981년에 이미 간행한 한국음악 자료집인 『Source Readings in Korean Music』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가장 방대한 영문 학술 단행본을 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

조국순례대행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교내외 활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많았고 그들의 관심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죠.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서 중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곳이 청소년부였는데, 조국순례대행진 사업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행진에 총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고 언론의 보도로 여론도 좋아져 한국위원회의 대외 접촉이 보다 활발해졌어요. 나중에 교과서에도 실렸으니 한국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거지요. 앞으로도 한국위원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 김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8대 사무총장(1973~1980년 재임)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

“겨레의 힘찬 행진”

조국순례대행진은 1974년 8월 전국 49개 대학생 1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 첫발을 내디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학생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국순례대행진은 “희망찬 조국의 내일을 향하는 젊은 대학인의 행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겨레의 힘찬 행진임을 확신”한 데서 출발했다.

이 행진은 매년 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4~6개의 도정(道程)으로 나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사 정권하에서 대학생의 집회조차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도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 활동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냥 걸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전국에서 2천1백82명의 남녀 고교 및 대학생이 참가하여 서울, 남원, 보은, 합천 등 4곳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행진을 시작한 이 순례대는 광복절까지 총 6백56Km 1천5백여 리의 조국강산 도보행진을 체험한다. 물론 이들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다. 민족문화의 근원을 찾아 답사학습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특히 일정의 막바지인 14일에는 백제의 고도 부여 백마강 백사장에서 전원 야영을 하면서 ‘아! 4천3백년’이란 주제로 민속축제를 가짐으로써 마지막 밤을 장식한다. 『조선일보』 1974.8.6.

20년간 진행, '국토순례 프로그램'의 원조

조국순례대행진은 1974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1980년과 1988년을 제외하고 1993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개최됐다. 전국을 누비는 이 젊음의 행렬은 해를 거듭할수록 각 도로 연변과 중간 합류지점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격려를 받았다. 이 젊음의 행진은 대학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 후 많은 국내 단체들이 주관한 유사한 형태의 국토순례 프로그램의 원형이 됐다.

특히 유네스코학생회원들은 조국순례대행진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과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고 마지막 날인 광복절에는 순례 참가자들뿐 아니라 일반 회원, 선배, 지도교수 등이 함께 모여 행진 보고와 함께 합류 축제를 벌이며 하나 된 젊음의 정열과 이상을 불태움으로써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됐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흠어진 힘을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1984년의 제11회 대학생조국순례대행진은 조국을 새롭게 배우는 자리였다. 순례 행진 중 답사 지역은 6개도 36개 시와 군, 67개 면에 달해 청년들이 도시와 농촌을 고루 체험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1981년에는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청년 지도자 연수단 1백 20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제8회 조국순례대행진 (1981)

“젊음은 행진한다, 영원히 사랑해야 할 조국의 땅을!”

1974년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던 ‘조국순례대행진’이 35회째를 맞아 전국 대학생들과 30여 년 전에 참가했던 선배들이 함께 행진하는 뜻깊은 행사로 펼쳐졌다. 2008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가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이 후원했다.

전국 67개 대학에서 학생 650여명과 대학시절에 행사에 참가했던 동문선배 200여명이 8월 5일 강원도 인제, 울산광역시, 충남 부여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10박11일 동안 총 870km 도보행진을 거쳐 8월 15일 경기도 이천의 유네스코청년원에서 만나 합류식을 갖는다.

대행진 마지막 날인 8월 15일의 합류식에는 순례자들과 KUSA소속 대학생 300여명, 일반 대학생, 동문 등 약 1300명이 참여한다. ‘조국순례대행진’의 학생장을 맡았던 구상찬 의원(KUSA 15기·한나라당)은 “대행진을 통해 다양한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때 조국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게 됐다. 당시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억했다. 『스포츠헤럴』 2008.7.10.

사회과학, 한국 사회를 말하다

자생적 발전,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유네스코의 사회과학 사업은 1960년대에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유엔과 유네스코에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는 197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 자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 스스로 동력을



| 사회과학과 국제학술교류세미나 (1968)



만들어가면서 누적적으로 성취하는 발전을 뜻하는데,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관습, 가치관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발전양식 찾기



한국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1984)

자생적 발전에 관한 국내의 관심은 1984년 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국 사회의 자생적 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나타났다. 유네스코가 제1차 중기 계획(1977~82)에서 ‘자생적 발전’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유네스코 발전 사업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데 유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발전양식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주제로 2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 갈래에서 논의된 자생적 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 심포지엄은 당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숙고하게 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회과학 사업은 1968년 6월 충남 유성에서 개최한 사회과학과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로 시작했다. 국내 사회과학자들과 외국학자 8명 등 모두 50여 명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서는 사회과학 각 분야의 국내 도입 및 토착화 과정과 새로운 사조를 검토하고, 국제 공동 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1973년 12월에는 지역사회개발 국제 비교 연구 세미나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



새마을 교육에 관한 다학문간 세미나 (1982)

새 동안 열렸다. 이 세미나는 14개국 24명의 대표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대표 14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모임으로, 1973년을 사실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회과학 사업의 원년으로 만든 행사였다. 이 세미나 후속으로 1976년 4월에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국제 비교 연구자 회의가 개최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새마을운동 및 농촌 개발 사업 평가에 관한 동남아시아 지역 훈련 세미나가 열렸다.

아울러, 1977년 12월에는 새마을운동 국제 비교 연구 전문가 회의가 인도, 케냐, 유고 등 10개국 학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1982년 8월에는 새마을 교육에 관한 다학문간 세미나가 국내외 관련학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발족에 산파역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아시아 지역 내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결성한 조직으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6년 1월 테헤란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회에 고려대학교 홍승직 교수를 파견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국

제정치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다학문적 연구 단체로서, 1977년 10월 서울에서 13개국 대표 30명이 참가한 제2차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회를 주최하여 아시아 지역의 학술 교류에 기여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 후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변화를 넘어 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1979년 6월 아시아 5개국 여성문제 전문가들이 참가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과학 연구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여성 문제의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1980년 5월에는 9개국 전문가 13명이 참가한 아동의 역할 및 변동 조건의 사회지표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또, 1981년 9월에는 유네스코 및 유엔대학과 공동으로 개발 계획과 사회경제지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시아지역 여성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자회의 (1979)



아동의 역할 및 변동조건의 사회지표에 관한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 (1980)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유네스코청년원 개원과 활동

“제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오기 전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새물결운동’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청소년 연수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조병규 경기도 지사의 도움으로 현재 부지를 마련하고 청년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했는데, 당시 도로교통법상 용인 인터체인지와 청년원으로 연결되는 덕평 인터체인지 간격이 4km 미만이어서 안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요. 김재규 당시 건설부 장관을 만나 사정 설명을 했고 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 김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8대 사무총장(1973~1980년 재임)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



| 청소년활동 지도자 육성대책 세미나 (1981)

한국 청년 활동의 요람, 이천에 터 잡다

196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관계 당국에 청소년 교외 교육과 야외 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을 건의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자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네스코청년원의 건립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태지역 청소년 지도자 특별연수 (1985)

1974년 김규택 사무총장은 조병규 경기도지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이천군(현재 이천시)에 국유지 8만여 평을 임대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10여 년의 숙원이었던 대학생 수련장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74년 8월 1일 제9차 국제청년야영에 참여한 7개국 130여 명의 청년·대학생들과 문교부 장관, 주한 5개국 대사,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매곡리 현장에서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 유네스코청년원은 1976년에 완공돼 1977년 7월 18일 ‘젊음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유네

스코청년원은 유네스코문화원을 거쳐 2006년부터 유네스코평화센터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활동 관련 각종 연수 진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대학생 지도자 연수 과정 자문회의(1977년),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 과정 자문회의(1980년), 대학 서클 지도자 연수 과정 자문회의(1981년), 청소년 연수 과정 자문회의(1985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연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수행

함으로써 당시 국내의 다른 연수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77년 1월 조국순례대행진 요원 훈련으로 시작한 대학생 연수 과정은 이후 유네스코학생회 지도자와 전국 대학 학도호국단 간부 및 서클 지도자, 일반 대학생에게까지 확대해 이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학교 외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전문 과정인 청소년 연수 과정(1978~96)은 모두 50차례 열렸으며 연인원 7천 63명이 참여했다. 1979년 6월에 시작된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는 4박 5일간 4개 과정으로 연중 실시됐으며 29기가 진행되는 동안 1천 8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 (1980)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그 밖에 서울교육대학생을 위한 특별 연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근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연수(1983~86)에 이어 청소년 문화 촉매 요원 연수(1987~94),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의 재외 교포 학생 하계학교(1986~88)를 위탁받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과정(1979~97)’은 한국의 청소년 지도자 훈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을 이해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이 연수과정은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회개발국이 진행한 아태지역의 청소년 지도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 모델로 인정받기도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의 경험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외 교육으로서의 청소년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소년 지도자 육성(1981), 청소년 정책의 수립(1982), 한국의 청년과 청년 문화(1983), 청소년 환경(1984), 한국 사회와 청소년의 자아 실현(1985)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 한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에 관한 세미나 (1983)



| 한국청소년의 환경에 관한 세미나 (1984)

청소년지도자는 평생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 가져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이 선포한 세계 청소년의 해(1985)를 앞두고 1981년 11월, 청소년 활동 지도자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에의 기여도 증진’이라는 과제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과 때를 맞춰 청소년 활동을 전담할 전문 요원의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지도자는 평생 천직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야”

“청소년활동은 사회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부터 자기 실현이 가능한 사회 건설과 인간이 중시되는 인간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규정 지워진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길들여지고 있으며 전문지식의 전달에 급급하여 그들에게 삶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데는 소홀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평생을 청소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청소년을 만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지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네스코청년원 강대근 지도교수 1981년 11월 28일 '청소년 활동 지도자상 모색' 강연〉

근로 청소년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돌렸다. 1978년 시작해 50차례 열린 근로 청소년 연수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내 서울지역기능개발센터에서 공공 직업훈련 기관과 기업체에 의뢰해 한 번에 160명씩 4박 5일간 진행됐다. 주입식 교육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거나 어려운 가정 사정 때문에 취업을 선택한 근로 청소년들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가정이나 학교에서와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폐쇄적이 되기 십상이다. 유네스코청년원의 교수진은 “지도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믿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청소년 정책 모색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과 육성 기능이 중요시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스 워커(Youth Worker)가 없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관련 제도의 실상과 과제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모든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회적

여건에 의해 비롯됐으며, 따라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발·육성·보호해주는 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은 정책당국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정부와 민간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정보사회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해 IT 인프라가 낙후한 상태이고 그 이용률이 낮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네스코가 1991년 발족한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 사업은 청소년 정보 분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 INFOYOUTH 아태지역센터로 지정됐다.

2005년에는 정보화 수준이 낮은 아태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돕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ICT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드림전시관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IT World, 명동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등을 방문해 한국의 앞서가는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1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 아태지역 네트워크 개발 워크숍 (1997)

과학으로 동남아를 품다

동남아 과학기술 네트워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유네스코 동남아 지역 과학기술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 네트워크들은 유네스코가 자연과학 사업을 분야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천연물화학 네트워크, 미생물 네트워크, 지구과학 관련 네트워크, 공학 분야에 대체에너지 개발 네트워크, 농촌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네트워크, 농촌 및 도시 폐기물 이용 네트워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네트워크, 제어계측 네트워크 등이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을 한국 대표로 지정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동남아지역 천연물화학 연수과정 (1977)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지역 천연물화학 네트워크는 훈련,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과학자 교류, 학술 정보 교환, 학술 발표를 위한 여비 지원, 소규모 연구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구 인력과 연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됐는데 한국, 호주, 동남아 각국 등 10여 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산 인삼 대상으로 분석과 실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1977년과 1980년 천연화합물의 분리, 추출, 순수화 기법에 관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1977년 8월 22일에는 ‘한국 인삼 성분 분석연구를 위한 아시아 지역 천연화합물 워크숍’이란 긴 이름의 학술모임이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9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참가한 이 모임은 10일간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진 한국 인삼을 대상으로 직접 분석 실험을 마쳤다. 모임에 참석한 9개국 전문가들은 3명이 한 조가 되어 자외선 분광기, 핵자기 공명장치 등 정밀 분석기로 인삼의 성분을 분석하면서 토론과 실험에 열중해 국내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천연물화학의 방사성 면역학적 분석기법 워크숍 (1982)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이 워크숍은 3년 전 유네스코가 결정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중 첫 사업으로서, 유네스코가 한국에 천연물화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모임을 개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이루어진 워크숍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영역이 한층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이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이 같은 과학 네트워크의 중재자 역할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천연물화학의 방사성 면역학적 분석기법’에 대한

동남아 지역 소장학자 워크숍이 1982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대와 서울 역삼동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8개국에서 약 30명이 참가했다. 이어서 1984년 8월에는 제5차 아시아지역 약용식물 및 향신료 심포지엄이 열렸다. 특히 1978년 4월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는 유네스코로부터 동남아시아 천연물화학 연구센터로 지정받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과학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네스코 동남아 지역 천연물화학 연수과정

1980년 '유네스코 동남아 지역 천연물화학 연수과정'이 천연물화학연구센터(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남아 지역 8개국 소장 과학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실시됐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인삼 등 동남아 각 지역의 천연물을 추출하고 분리하며 정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지역 천연물화학 연수과정 (1980)

아시아 물리교육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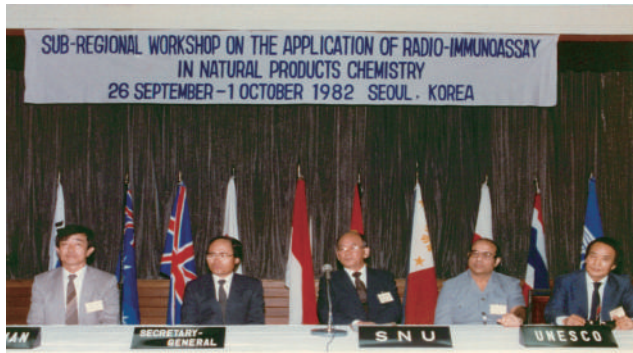
한편, 유네스코 동남아 미생물학 네트워크는 한국, 호주 등 아태지역 9개국으로 1975

년 구성됐는데, 참여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크숍과 훈련, 과학자 교류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8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환경관리-생물학적 폐기물 처리 및 부산물 활용에 관한 아시아 지역 훈련과정'을 개설했으며,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1983년에는 '유네스코 동남아 지역 유전공학 워크숍'을, 1988년에는 '생명공학 국내 훈련과정'을 각각 개설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물리교육 네트워크(ASPE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전북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아태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에 기초한 물리교육 회의(2001)를 개최한 바 있다.

공학교육, 국제 협력, 산학 협동 사업과 관련해 1961년 4월 한국정부와 유네스코 본부 간 의정서 합의에 따라 한국정밀기기센터(FIC)가 창설되었고, 기술교육의 보급과 향상을 위해 1961년 9월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5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인하공대 내에 '중앙종합 직업학교'를 설립했다. 또 1973년부터 시작된 '동남아지역교육공학협회(AEESSEA)'에 서울대학교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면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2년 동안 사무국을 맡기도 했다.



천연물화학의 방사선 면역학적 분석 기법에 관한 워크숍 (1982)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이바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기술 세미나(1974년 7월)를 개최했으며, 유네스코가 과학기술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연구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1973년부터 추진한 '연구단의 조직 및 성취 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IC SOPRU)의 제2차 연구(1977~81)에 참여했다.

강물처럼 흐르는 생각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이념의 국내 보급 사업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고유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것은 교육, 과학, 문화는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전달, 보급, 교환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헌장」 제1조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약들을 권고하는 것”을 유네스코의 첫 번째 임무로 삼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힘을 발휘하던 1980년대, 유네스코는 강대국 중심의 독점적인 국제 정보질서를 개편하고자 ‘신국제정보질서’(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의 수립을 추진했고, 이 때문에 1984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결국 유네스코는 ‘균형된 정보 유통’(balanced flow of information)을 표방한 신국제정보질서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고 1989년 다시 신커뮤니케이션 전략(New Communication Strategy)을 채택하여 헌장 당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의 원리로 회귀했다. 이후 유네스코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 등

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한국 사회에 알려



아이디어 및 정보 자유소통 촉진 방안 연구세미나 (1967)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사업 방향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1967년 12월 ‘아이디어 및 정보의 자유소통 촉진방안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한국의 당면 과제, 한국의 매스미디어 전문 요원 양성, 학교 교육과 농민 교육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등 8편의 주제가 발표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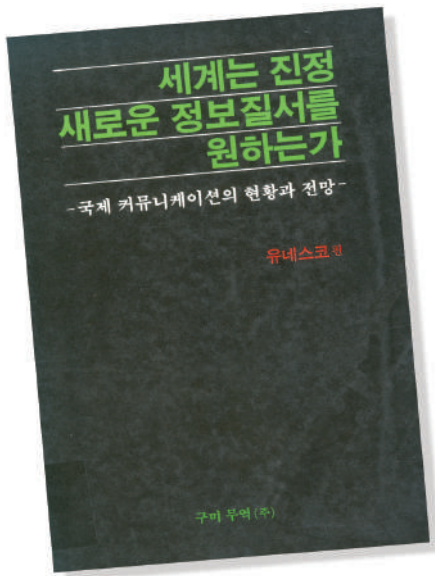
으며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언론계 대표들과 정부 기관 관계자 50여 명은 한국에 있어서 아이디어 및 정보의 자유소통 촉진 방안을 광범위하게 토의했다.

이후 매스미디어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사무처에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두고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76년 5월에는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검토해 텔레비전이 사회와 문화 발전을 위한 선도 미디어가 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학자, 실무자, 일반 참가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이념, 제도, 규제, 프로그램, 경영, 광고,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채로운 토의를 벌였다.

신국제정보질서와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197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서방 중심의 세계 정보통신



질서의 개편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연구에 관한 국제위원회(맥브라이드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16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년간 조사 연구를 수행한 끝에 『Many Voices, One World』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이른바 『맥브라이드 보고서』(MacBride Report)라는 명칭으로 198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됐다.

보고서의 골자는 서방언론 중심의 정보 유통 체제에서 벗어나 균형된 정보 유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연구 보고서를 분석 검토해 한국의 커뮤니케이션과 언론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81년 11월 국제정보질서와 한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Many Voices, One World』의 국문판 『세계는 진정 새로운 정보 질서를 원하는가』를 발간했다.

1980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 총회는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가 간 격차를 줄여 보다 새롭고 공명정대한 세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을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3년 동 사업 사무국장의 방한을 계기로 개도국 방송 관계자의 초청 훈련을 계획하는 등 이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KBS)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방송인 연수를 실시했다.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에 기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3년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해를 맞아 그해 12월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현황을 매체별로 검토·분석하고 대중매체 간의 격차 해소와 커뮤니케이션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회변동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을 주

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학계, 정부 및 관련 단체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 국제정보질서, 신문의 전문성, 한국 영화의 문제점, 도서 출판의 전문성, 방송직의 전문성 등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1984년 ‘인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1985년 10월에는 새로운 대중 매체의 등장에 따른 정보사회에 대비해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고 신국제정보질서의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정책’ 개념을 연구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보사회란 무엇인가’, ‘국가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 ‘방송 매체의 이념 정립’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5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마무리하면서 『미디어 교육론』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서강대 최창섭 교수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미디어 교육에 관한 한국 최초의 연구 서적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6년 8월 29~3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한국 사회의 변동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일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와 사회적 소통’ 등 6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해 기념 심포지엄 (1983)



| 인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 (1984)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1986년 11월 20일 도서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이 1987년 유네스코가 관장하는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 저작권 실무에 대한 강연을 듣고 국내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이 국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한승헌 변호사) 등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지원 활동과 정보화 사업

1990년대 들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주목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유네스코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촉진을 위해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 정부간 정보화 사업(IIP), 일반 정보화 사업(PGI) 등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화 분야에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운영했으며 한국은 여기에 적극 참여했다.

1983년부터 시작된 IPDC 방송인 연수(KBS에서 실시)는 1992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86개국 154명이 참가해 개도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간 정보화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했는데, 1989년부터 10년 동안 정부간 정보화 사업 사무국을 통해 매년 20만 불씩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정보 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또한 일반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보급하던 무료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인 CDS/ISIS의 한국어판 개발을 지원했다. CDS/ISIS는 한국산업정보기술원(KIET)을 통해 1992년 TIMS라는 이름의 한글판이 만들어졌고 1996년에는 그 윈도우 버전이 나왔는데,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던 시절,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국내에 널리 보급됐다.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다루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업은 1990년대에도 계속됐다. 1993년 12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직접위성방송(DBS) 시대하의 문화의 갈등과 국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1995년 방송위성 무궁화호 발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직접위성방송에 대비해 방송과의 월경 문제 등 방송과 홍수시대의 문화적 충격과 국제 협력 문제를 다뤘다. 강현두 교수(서울대 신문학과) 등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방송 및 문화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집을 번역해 『국제 정보질서문화론』(1990, 나남출판), 『뉴미디어와 초 정보사회』(1994, 나남출판) 등의 제목으로 발간했다.

여성과 미디어에도 관심

베이징 세계여성회의(1995) 이후 유네스코에서는 여성과 미디어(women in media)라는 사업 주제가 부상했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96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숙명여대 아시아여성문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과 미디어에 관한 아태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2정무장관실과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여성’이었다. 문화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태지역에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 결과, 숙명여대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가 설립되고 아울러 여성 정보통신 분야의 유네스코 석좌가 설치됐다.

발전과 보전을 함께

인간과생물권계획(MAB)

국내 최초로 환경문제에 관심 촉구

유네스코는 환경문제, 특히 환경과 개발 문제를 정부간 과학사업인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사업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 유네스코한국 위원회도 국내 환경문제를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2년 9월 부산대에서 환경문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이어 1973~74년 2년 동안 『MAB 자료집』 전 11권을 번역·발간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학술 자료가 부족하던 시기에 우수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았다.



인간과생물권계획(MAB) 30주년 (2003)

1977년에 개최된 인간과생물권계획 세미나는 단순히 구호에 그칠 수 있었던 자연보호 운동을 학문적·이론적으로 뒷받침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또, 1979년 서강대 오계철 교수와 서울대 한상복 교수의 책임 아래 반월지역 공업단지화가 그 지역 자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동시 추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0년 6월 인간과생물권계획 사업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안에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가 구성된 후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한국에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을 지정하는 일이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1971년 인간과생물권계획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한 보호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1년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를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해 지리산, 설악산, 광릉숲, 한라산을 후보지로 정한 뒤, 그해 유네스코 자문관의 현지 조사를 거친 결과, 4개 후보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는 이 가운데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해 1982년 6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 국내 첫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내 워크숍 (1983)

설악산 국립공원이 국내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BRN)에 가입해 자연보전과 생태학 분야의 최신 연구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 연구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도 증진할 수 있었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서강대 오계철 교수에게 「생물권보전지역 설정에 따른 국내 연구 및 종합계획과 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983년 4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인간과생물권계획 국내 워크숍을 개최해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때 설악산국립공원과 지역 당국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유일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설악산의 수서 무척추동물과 식생에 관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1994~98)을 수행하고 생태교육 안내 자료인 『설악산 생태여행』(1999)을 출판함으로써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연구·교육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 있었다.

제주도, 20년 만에 두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에

1998년 국내 관련기관, 학계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두 번째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한라산, 비무장지대, 서남해안 갯벌, 동강 일대 등이 추천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 △환경 보전과 병행한 개발 △생태계 변화 모니터 △전 세계 네트워크와 연결된 교류 등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려됐다.

2002년 11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지 20년 만에 한라산국립공원과 범섬, 문섬, 섯섬 등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식물 1천 8백여 종, 동물 4천여 종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및 기념 세미나 (2002)

이 서식하는 한라산국립공원, 파초일엽·후박나무·흑비둘기 등과 미기록 해양식물 등이 서식하는 범섬·문섬·섯섬, 식물상이 뛰어난 영천과 효돈천 2개 하천 등이 핵심지역으로 지정됐고, 생태관광, 교육, 농업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위해 넓은 전이지역을 포함했다.

보전과 개발, 무엇이 먼저?

보전과 개발의 대립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 중반부터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과 원리는 보전과 지역 발전을 조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정부 기관과 환경 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환경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민통선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1996~97)를 수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 지역사무소,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등과의 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였으나, 북한 측과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011년에는 DMZ 보전 방안으로 환경부가 경기도, 강원도와 협력해 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듬해 열린 MAB국제조정위원회는 이 지역이 보전 가치는 뛰어나지만 전이지역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정을 보류했다.

지역 네트워크 설립 등에 주도적 역할

199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를 공식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1년에는 카자흐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은 모두 7개국으로 늘었으며, 정기 총회, 역량 강화 워크숍,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환경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네트워크에 신탁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부, 제주도와 협력해 유네스코 MAB 이사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고, 이때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에 관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 사업을 수행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련 정부 기관, 연구소, 학자들과 함께 두만강 하구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설립 타당성연구(2002.6~2004.2)를 수행해 3국 국경 일대의 시베리아 호랑이, 극동 표범의 서식지와 습지를 보전하는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설립안을 관련 국가 및 국제 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인간과생물권계획 활동의 국내 거점

198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설립하여 운영해 온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는 2009년 9월 국가 정책 반영 및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후 환경부 훈령에 따라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이 2010년 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됐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MAB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환경부, MAB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 성과를 모아 『MAB 성과와 미래』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2013년에는 제주도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했다.

문화적 자존심의 제자리 찾기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와 환수 노력

198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그해 신규 사업의 하나로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회화와 조각, 공예, 고고학 자료, 전적(典籍) 등 5개 부분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 조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유출 시기 및 연대와 관계없이 박물관, 미술관, 사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외 모든 문화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중요성을 감안, 일본과 미국, 유럽 지역, 대만 등으로 구분해 순위별로 실시했다.

사업 추진 기간은 5년이였다. 기초 조사 기간(1년), 현지 조사 기간(3년), 목록 편집 및 출판 기간(1년) 등으로 나누어 기초 조사는 각 분야별로 1인의 책임 연구원과 2인의 보조 연구원을 두어 국내에서 조사 가능한 국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 기초 목록을 작성했다. 현지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2인과 사진사 1인으로 구성, 파견했다.

현지의 관계 전문가 및 학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조사 연구를 위촉, 현지 파견 조사단과 공동조사를 하기도 했다. 현지 조사는 1차적으로 일본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지역은 현지의 관계 전문가 및 학자에게 조사 연구를 위촉한 후 사업 계획 연도 마지막 해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일본 지역 유출문화재 실태조사단

최순우(국립박물관장), 황수영(동국대 총장), 정양모(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휘준(서울대 교수) 등과 일본의 기쿠다케 준이치(규슈대 미술사학과 교수), 오나시 슈야(규슈대 공과대학 교수), 오시타 히로시(대화문화관 학예부), 니시타니 다다시(규슈대 고고학과 교수), 후지모토 유키오(도야마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에 어려움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백승길 문화홍보부장은 “소요경비는 5년간 물가 인상액을 감안하면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해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에는 어려움도 뒤따랐다.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사단을 순순히 맞아줄 리는 만무한 일이고 그러다보면 조사에는 애를 먹기 마련이었다. 한국의 경우, 해외 유출 문화재의 약 70% 이상이 일본에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협조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일본은 국보급에 해당되는 한국 문화재를 아예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어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불가능했다. 반면, 서구에서는 대부분 국립박물관에 진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도 쉽게 보고 사진 촬영도 가능했다. 프랑스에 있는 문화재는 병인양요 때 강화부 서고에서 약탈해간 전적(典籍)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해외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불러

유네스코가 1970년 제정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정신에 근거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시작한 해외유출문화재 실태 조사 사업은 비록 조사 규모와 소요 예산의 방대함 때문에 당초 목표한 5개년 사업을 완수하

지 못하고 일본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한 이 사업은 애당초 “전쟁이나 구 식민지에서 빼앗아간 문화재를 원산지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유네스코 「전시문화재 보호협약 및 동시행 세칙」(1954)과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3세계와 구 식민지 국가들의 공통의 염원을 반영하는, 국제적으로 대의 명분이 있는 사업이었다.

문화재 반환의 길 터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 작업에 들어간 지 1년 만인 1983년 한국도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51번째로 가입함으로써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의 길을 터놓게 됐다. 주로 자국의 문화재를 약탈당한 경험이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이 협약은 외국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로부터 외면당했지만 해마다 국제적 호응을 더 얻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의 가입이 거론되었다.

유엔총회는 1987년 10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198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 또는 불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를 본국으로 돌려줄 것”을 결의했다. 총회의 표결을 보더라도 문화재 반환 안건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는 탓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을 정도였다. 찬성 103, 반대 0, 기권 15로 나타나 국제적인 분위기가 피해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단지 피해국이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구한말에서 일제를 거치면서 국보급을 비롯해 약 10만여 점의 문화재가 해외에 산재(이 중 일본에 6만여 점)해 있어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됐다.

프랑스로부터 '고서' 환수에 일조

1993년 방한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을 약속했지만, 한국과 프랑스 간에 진행 중인 문화재 반환 협상이 난항을 겪던 시점이었다. 당시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9월 14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고서인 조선왕조 의궤(조선왕조 의궤 191종 297책)의 반환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조선왕조 의궤가 돌아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귀국 전시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로부터 9년이 지난 2002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문화재 불법 밀반출과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국내 정책 수립 및 국제법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문화재 반환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국내외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외교적 사안인 까닭에 국내에서 쉽게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네스코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금지 협약」과 관련, 정부 간 회의를 구성하는 등 이 분야 국제포럼을 주도했으며,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타워호텔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유출 문화재의 반환 및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와 국제 협력, 외규장각 도서에 관한 프랑스와 한국 간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회의에는 갈라(호주) 국제박물관협회 대표와 카르두치(이탈리아) 유네스코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 30명, 일반인 150여 명이 참가했다.

그 밖에도 슈테판 튀르너(독일), 폴라린 실론(나이지리아), 마리 코르뇌(프랑스) 등 문화재 반환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유네스코 본부, 인터폴 관계자 등 9개국 25명이 참가했다. 회의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한불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 (2002)

해외 한국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해외 교민 연구



| 한국의 해외이주 연구 세미나 (198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3년 해외 교민에 대한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수만 명의 건설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지역에 장기간 체류하기 시작한 지 6~7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중동 근로자 연구에 이어 1986년에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남미 교민에 대한 현지 연구를 실시했고, 1987년에는 중국 교민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에 이어 현지 조사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활발하게 접촉했다. 당시 중국과는 수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남미 현지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대 전경수 교수(인류학)는 “이 같은 해외 교민·문화 연구 사업은 한국의 해외 진출 역사를 고려할 때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착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미 현지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이전까지의 간접적인 국내 연구 또는 문헌 연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본격적인 연구였다.

연구를 주관한 전경수 교수는 7개월(1986년 8월~1987년 2월) 동안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5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설문지 연구도 병행했는데, 전 교수는 “이제 이민 정책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력의 신장이나 국가 기반의 확장 그리고 간섭이 아닌 사후 관리라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연구의 지평 확장

서울대 김광익 교수(인류학)는 1987년 3월 길림성 조선족 자치구 등 중국 교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모아 이듬해인 1988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와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기존 연구 자료의 수집과 미국과 일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미국, 일본, 소련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약 4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문화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인류학자들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하게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남미를 필두로 중국, 소련, 중앙아시아로 현지 조사 대상지를 확대함으로써 당시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지역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태지역 협력을 이끈다

국가위원회 교류 · 협력



| 아시아 지역 국가위원회 신규 직원 훈련 세미나 (2005)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9년 유네스코일본위원회와 국가위원회 직원 교환 방문을 처음 시작한 이래 대상 국가를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위원회로 점차 넓혔다. 이

어 1980년대 들어 서독, 호주 국가위원회 등과 상호 교류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직원 교류는 모범적인 국가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을 각국에 소개하고 한국위원회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회원국 국가위원회와 교류, 상호 이해와 협력 밑거름

1990년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다른 국가위원회와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시기였다.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의 교류와 상호 방문이 빈번하게 이뤄졌고, 내용 면에서도 단순한 정보 교류에 머물지 않고 공동 사업 개발 등 한층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했다.

1991~9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중기 전략(1990~95)의 효율적 이행과 지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 사업의 하나로 아시아 및 유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2014)

럽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교환 방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 1994년에는 유네스코중국 위원회와 사무총장 교환 방문을 실시했다. 이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두 위원회 사이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러한 교류는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 위원회 간 직원 교환 방문 등 인적 교류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6년 동안에는 직원 교류 대상국을 태국, 일본, 중국,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잠비아, 이란, 베트남, 영국, 독일로 확대해 다양한 국가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직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국, 중국, 일본, 태국 국가위원회 직원들과의 공동 논의를 거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대표부-사무국 삼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권고」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북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 발족에 주도적 역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중국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1997년 동북아시아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가 발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회의는 12차례의 정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동아시아 유네스코 사무총장 회의로 확대·발전되면서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축제와 같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위원회 간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네스코 본부가 중점 추진한 개발도상국 국가위원회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부터 한국유네스코 장학계획



제5차 동아시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 (2004)

(KONACOM Fellowship Programme)을 실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매년 다른 회원국 국가위원회의 직원들이 약 1개월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연수를 실시했는데, 1995~2001년 총 11개국(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 독일, 케냐) 11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역 내 국가위원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해 1995년 3월 아시아 지역 국가위원회 신규 직원 훈련세미나와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문헌정보 관리자 훈련 과정을 잇따라 개최했다.

문화로 도타워진 아시아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일본의 유네스코아태문화센터(ACCU)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ACCU가 주관하는 출판 연수과정에 한국 출판계의 젊은 전문가들을 파견했으며, 1970년 말부터 매년 전국 45개 도시를 옮겨가며 ACCU 순회 사진전을 열어 사진예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진을 통한 국제문화 이해에 이바지했다. 특히, 출판 분야의 인적 교류는 국내 출판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출판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문화계 인사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의 '균형적인' 세계화를 전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2001, 2004)이 개최되었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정보망이 구축되는 등 한국과 아세안 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 사업은 기존의 교역, 투자, 관광 등 경제 분야에 치중



한·아세안 문화교류프로그램 (2000)

된 협력 사업을 21세기 한·아세안 관계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 정부와 아세안의 합의에 의해 계획된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사업’은 인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 사업은 청소년 교류, 언론계 인사 교류, 문화계 인사 교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인 방한 프로그램(아세안 10개국 3명씩 30명 7박 8일 방한)과 한국 측 문화예술인 아세안 국가 방문 프로그램(2개조 각 7명 아세안 2개국 7박 8일 방문)으로 구성됐다. 1999년의 제1차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2000년 6월에 열린 제2차 행사에서는 ‘공연예술: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공연예술 보존과 발전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영화인 교류와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 사업’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영화를 주제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영화인들 간의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영화인 30여 명이 참가, 회원국과 한국의 영화 현실과 그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지역 문화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영화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 이 사업은 각국 영화의 전반적 현황과 특성에 대한 발표 및 토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사업 (2001)

론, 한국의 영화 교육,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관 방문으로 구성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어서 2001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외교통상부와 아세안의 후원으로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과 아세안 예술인들의 인적 교류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참가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문화 교류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필리핀 문화센터, 국립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06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 부처와 학교, 문화재단,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과 아세안의 예술경영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한 워크숍에서는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상 등이 이루어졌다.



| 한·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사업 (2003)



|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 (2006)

제3부 > 1986~2000

문화간 대화의 시대

태국 줌티엔에서 열린 제1회 세계교육회의가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직업기술교육과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명윤리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는 과학의 역할을 되새겼고, 관용, 민주주의, 인권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의 길을 닦았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걸맞게 실�크로드 종합연구와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을 전개해 동서양을 잇고 문명간 대화의 다리를 놓았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공동의 유산을 지키는 데도 앞장섰다. 문화와 발전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 정책 수립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형유산보호 제도를 전수해 이 지역의 잠자는 유산을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개도국에 발전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등 개발도상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왔다.

- 제33화 문명간 대화의 다리를 놓다
- 제34화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디딤돌
- 제35화 우리 마음에 평화의 길을 닦다
- 제36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누다
- 제37화 한국 무형유산 제도의 확산
- 제38화 나눔과 섬김으로 전한 희망
- 제39화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 제40화 미지의 꿈을 키우다
- 제41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제42화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는 과학
- 제43화 '다름'을 배워 지구촌을 돕다

문명간 대화의 다리를 놓다

실크로드 종합연구,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는 문명간 이해와 협력의 대명사이다. 인류는 실크로드를 따라 삶의 지평을 넓혔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유네스코는 실크로드가 동서문화 교류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실크로드 종합연구: 대화의 길’(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 Roads of Dialogue) 사업을 진행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 진용을 갖추어 사상 최대의 실크로드 탐사를 벌였는데, 실크로드에 대한 학문적 조명의 시작이기도 했다.

실크로드 종합연구에 적극 참여

유네스코는 실크로드 국제 학술 탐사를 시작하면서 ‘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실크로드가 역사적으로 동서 대화의 장, 인종과 민족 간 대화의 통로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 사업은 크게 학술 탐사와 방송 출판 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학술 탐사는 육로, 해상로, 유목로, 초원로, 불교 루트 등 5개 탐사로에서 진행됐고, 방송 사업에는 일본 아사

히 TV, 중국 CCTV, 한국 MBC 등이 참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실�크로드자문 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국, 소련, 몽골 등지에 방송사와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중국 시안과 우루무치를 관통하는 육로 탐사에는 한국에서 권영필(고려대), 김호동(서울대) 교수가 참가했고, 베네치아에서 일본 오사카에 이르는 해상로 탐사에는 구간별 로 이병원(하와이대), 권오성(한양대), 전인평(중앙대) 교수 등이 각각 참가했다.

해상과 초원의 실�크로드 탐사

해상을 통한 고대 동서 문물의 교류를 규명하기 위한 해상 실�크로드 국제 학술 탐사선이 부산항에 입항한 후인 1991년 9월 24~25일 이틀간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크로드에서 한국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는데, 실�크로드의 실질적인 종착지가 대륙의 동쪽 끝인 경주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탐사팀은 경주에서 학술대회를 마친 뒤 부산항을 출발해 탐사의 종착지인 일본 오사카로 향했다. ‘평화의 배’로 이름 붙인 1만 9백 톤 급 탐사선에는 18개국 학자와 전문가 27명, 국제 방송요원 20여 명이 함께 탑승했다.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탐사 마지막 프로젝트인 ‘초원의 길’ 탐사는 1991년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진행됐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연결하는 동서 교역로를 답사한 이 탐사는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시작하여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에 이르는 1만km의 대장정이었다. 초원의 길 탐사에는 임효재(서울대) 교수, 전인평(중앙대) 교수, 이인숙(서울대박물관) 학예연구원 등 한국 학자 3명을 비롯해 30여 개 국가에서 2백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했다.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에 핵심 역할

문화간 대화와 교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1990년대부터 착수한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편향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 문화, 혹은 한국 문화 속의 세계 문화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에서 현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학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사면 유산의 발견 국제심포지엄(1998), 동서양건축문화 국제심포지엄(1999), 동서양음악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2000), 동서양미술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2003) 등을 꼽을 수 있다.

샤먼 유산에 비춰본 동서 문화 비교



1 샤먼 유산 국제심포지엄 (2000,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0년 4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유럽공연예술센터와 공동으로 전 세계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샤먼 유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2006년 9월 18일부터 5일간 ‘샤먼 유산의 발견’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인류의 중요한 무형유산 가운데 하나인 샤머니즘의 문화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시베리아, 만주,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시원(始原) 문화로 여겨지는 샤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이 행사에서는 학술적인 접근과 병행해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아시아 지역 샤먼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또 네팔의 샤먼을 촬영한 비디오가 상영되고 샤머니즘 관련 의상, 무구, 악기 등이 전시됐다.

동서양 건축, 음악, 미술 문화 비교

동서양 건축 문화를 비교, 토론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1999

년 10월 7~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세계 8개국 20여 명의 건축가가 참석한 이 심포지엄은 유네스코의 동서양 문화 비교 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건축 문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동서양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차이점은 물론 근대화와 동서양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며 현대건축에 반영된 문화간 특징과 조화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서양 음악문화의 이질성 가운데 숨어 있는 동질성을 확인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음악적 창조성의 윤곽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 9월 서울대 동양음악 연구소와 공동으로 동서양 음악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양권 5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 모두 10개국 25명의 중진 음악학자 및 연주자가 참여한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 민족음악학계의 40대 소장학자들도 참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주비엔날레,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현대미술학회는 미술문화 탐구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동서양 미술문화를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며, 21세기 예술의 창의성 고양을 위한 미술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11월 27~29일 서울과 광주에서 동서 미술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각 예술에서의 동양성 다시보기'를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는 외국 전문가 6명과 국내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동서양 음악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2000)



동서양 미술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디딤돌

문화 산업, 문화와 발전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해방 이후 척박한 문화 환경 속에서 교육부로부터의 문화 업무 독립, 문예기관의 설치, 문예진흥정책의 입안 등 정부의 문화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유네스코가 전 세계 문화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한 각국의 정책 자료들을 번역·발간하는 등 국내 문화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해외 자료와 정보들을 국내에 소개했는데, 대표적인 번역물로 1975년 프랑스 작가 오귀스탱 지라르(Augustin Girard)의 『문화발전: 경험과 정책』 등이 있다.

문화 산업을 강조하다

문화 산업의 선도적인 기능과 역할, 타 분야와의 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82년 5월 25~29일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예술종사자 간의 관계 연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4개국의 관계 전문가와 유네스코 본부 및 아태 지역 사무국(태국 방콕)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화 산업과 창작예술인 간의 관계 연구 △문화 산업, 특히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문화 현장에서의 창작 예술인 및 방송 종사자들의 지위, 역할 및 직업적 근로 조건 등의 현황과 문제점 △문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창작 예술인과 방송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제시 △문화 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문제 연구 및 미래의 전망 등이 다뤄졌다. 또한 배우, 무용가, 음악가, 작곡가, 안무가, 무대장치가, 분장사, 의상 전문가, 조명기술자, 음향기술자, 모형 및 특수효과 카메라맨, 스틸사진·영화사진 전문가, 편집인, 감독 및 제작자, 작가 등 17개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이 나와 창작 예술인의 현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문화지표 개념 도입, 문화 인력 양성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3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아태지역 문화 통계 및 지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각국의 문화 발전과 문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국가 간의 경험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보다 알찬 문화 발전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국이 '문화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회의는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화공보부와 공동으로 한국 문화 통계 및 지표 체계의 틀에 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이 문화통계 체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일부 보완해 한국의 주요 문화통계 및 지표를 수집·분석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종사자의 체계



문화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1984)

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인식하에 한국의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1984년부터 전국의 문화원과 예총 지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여러 문화단체로 하여금 문화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시각 찾아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1987)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가 1987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열렸다. 21개국 30여 명의 문화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 회의는 유엔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88~97)의 구체적 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모임이었다. 유엔이 유네스코

의 건의를 받아들여 1986년 선포한 이 계획은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개발의 목표와 절차를 재조정하며, 세계에 존재하는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사회발전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즉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국내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회 속의 예술 심포지엄(1984),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 국제학술대회(1992), 직접위성방송과 문화정체성 세미나(1993), 아·태 문화발전 국제심포지엄(2000)을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우리 문화정책의 선진화를 유도했다.

한편,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부회의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김정동 교수(서울대) 등을 파견해 문화와 재정분야 세미나를 주관했다. 아울러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최종 보고서인 『Our Creative Diversity』를 번역·발간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했다. 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사업과 관련해 국내 전문

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문화다양성 논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문화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문화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3년 ‘문화다양성 국제 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 국제학술대회’(1992년 8월)는 지방화 시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방향, 중앙과 지역 간 문화적 균형 발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대회에는 특히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지방자치제가 발전한 나라의 지역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역 문화 기관의 역할과 활동에 관련된 경험을 나눴다.

1993년 9월 20일부터 사흘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에서는 성장 일변도의 발전에 따른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네스코 본부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포럼에는 5명의 국내학자를 포함해 19개국에서 25명의 저명학자들이 참석해 8편의 주제 논문과 14편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포럼 개최식에서는 서울대 김경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 국제학술대회 (1992)

동 교수가 기초연설을 맡았으며 주제 발표와 국가별 보고서 발표가 끝난 뒤 토론을 거쳐 종합 보고서를 채택해 유네스코에 보고했다.

문화정책 정보망, '컬처링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년 전 세계 문화정책 정보망인 컬처링크(Culturelink) 본부와 계약을 체결, 아태지역 문화정보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다매체·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을 예상, 유럽연합(EU)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설립한 컬처링크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세계 각국 문화 관련 단체들의 정보교환 체계인 '컬처링크 네트워크 1차 아태지역 회의'가 1998년 3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아태지역 컬처링크는 아태지역과 국가문화정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1999년 서울에서 공식적인 지역사무소 출범식과 함께 아태지역 컬처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 문화 예술기관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제공했다. 아태지역 컬처링크는 그동안 아태지역 문화정책과 문화 분야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문화정책 공동 연구 및 회의, 뉴스레터 발간, 웹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2002년부터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활동이 침체되다가 결국 재원의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2012년 사업을 종료했다.



| 아태지역 컬처링크 로고



| 2009 컬처링크 아태지역 문화정책회의 (2009)

우리 마음에 평화의 길을 닦다

관용, 민주주의, 인권, 문명간 대화



평화 · 인권 · 민주주의 교육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설립회의 (1995)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문 사회과학 사업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을 맞았다. 그동안 발전에만 집중했던 조류에서 점차 관용, 인권, 평화 등으로 사업의 중요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함께 사회 내부의 다양한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 차이를 억압하지 않고 포용하는 가치로서의 인권이나 관용 같은 가치가 관심을 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그 실천을 위한 교육 훈련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인권, 관용, 민주주의 등의 개념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

었다. 동아시아 문명의 역사와 전통의 영향 속에 있는 한국사회가 서구 근대사회가 발전시켜온 이들 개념과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도 되는지, 나아가 이들 근대적 개념과 제도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의문은 문명간 대화를 통한 보편윤리 또는 공동가치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관용, 평화의 또 다른 이름

유엔은 1995년을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유엔 창설 50주년, 「유네스코 헌장」 채택 50주년인 1995년을 기념하는 주제로 관용(tolerance)을 선택한 것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관용이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었다. 유네스코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념에 따라 전 인류의 가슴속에 관용의 정신을 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봤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관용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1995년 세계 관용의 해를 기념하고 관용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관용'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국제회의에는 5개 대륙 16개국의 학자, 전문가, NGO 대표 등 25명이 참가해 관용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논문을 발표하고, 마지막 날에는 「서울 관용선언」을 채택했다. 유네스코가 관용을 주제로 국제적 차원에서 처음 개최한 이 회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냉전 지역인 한반도에서 열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철학, 역사 교육 전문가들 모여 포럼 개최

199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철학교육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 아태지역 11개국 학자 14명과 국내학자 5명,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아태지역 각국의 철학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아태지역 철학교육네트워크(APPEND)를 구성했다.

같은 해 고려대학교 한승주 교수가 유네스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분야 석좌 교수(UNESCO Chair)로 선정돼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독일위원회는 1997년 9월 24~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 아태지역 철학교육 전문가 회의 (1996)



| 21세기 역사교과서 포럼 (1997)

서 ‘21세기 역사 교과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일본인 학자 4명을 포함해 독일, 한국 등 6개국 학자 18명이 참가했다. 포럼의 초점은 지배-피지배, 침략-저항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옛 소련과 핀란드에서 진행된 역사 교과서 공동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맞춰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일 두 나라의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유네스코위원회는 유네스코일본위원회에 포럼 참가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역사 교과서를 두고 정부에서 사후 검정만 할 뿐 그 내용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포럼에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포럼은 내실 있게 진행됐고, 국내 언론과 일반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역사 교과서 분야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의견임을 재확인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역사교육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권교육, 평화로 가는 길

1999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교육부와 공동으로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숍을 열어 각국의 인권교육 현황과 장애물 극복 방안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워크숍에는 참가국의 인권교육 및 정책 관련 정부 관리들과 NGO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유엔의 전 세계적인 인권교육 활동 10년을 결산하고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인권 신장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숍 (1999)



제1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워크숍 (2000)

촉진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북한은 불참했지만 중국과 몽골, 일본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이 워크숍은 동북아 지역의 인권교육, 나아가 인권 신장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

이어 2000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학교 인권 관련 교과의 내용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국 학생 5천여 명과 교사 4백여 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2000년 7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 89명을 대상으로 제1회 인권교육 워크숍을 실시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중요한 의미를 확인했다. 이후 2001년에는 과학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2년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을 주제로 인권교육 워크숍을 실시했다.

국가 안보를 넘어 인간안보로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평화, 인간안보 그리고 분쟁 예방’을 주제로 세계 각 지역별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 6월 16~17일, 동아시아 인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통적 안보 개념이 고착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쓴 이 용어는 소극적 평화 개념인 국가 안보를 넘

어 적극적 평화 개념을 지칭한다.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국가안보로 좁게 해석하던 안보 개념을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넓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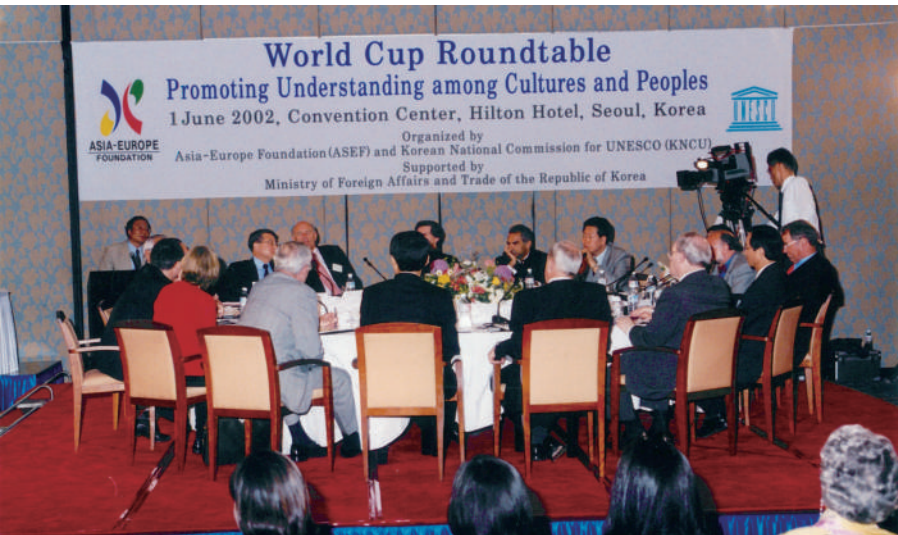
동아시아 인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 (2003)

문명간 대화와 보편윤리의 모색

2001년은 유엔이 선포한 문명간 대화의 해였다. 유네스코는 특히 보편윤리 사업을 통해 여러 문명 및 문화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을 모색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모든 문화, 사회, 개인이 인류공동의 가치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평화의 문화 증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인식하고, 문명간 대화 및 공동가치 포럼 사업을 추진했다.

2002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전통에 관한 국제회의는 현대 민주주의

의 지배적 형태인 자유민주주의를 동아시아 유가 사상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그 한계를 동아시아 사회의 문제의식 속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2002 한국·일본 월드컵을 기념해 문화와 민족 간 이해 증진에 관한 월드컵 라운드테이블을 아시아유럽재단 (Asia-Europe Foundation)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라운드테이블 (2002)

역사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열린 이 문명간 대화의 자리에는 자크 아탈리 등 석학과 동티모르 외무부장관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등이 참석해 9·11 사태 이후의 국제 정세 속에서 문명간 대화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우애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가치, 세계화에 대한 윤리적·인문학적 대응

이보다 앞서 2002년 4월에 열린 제1회 공동가치 포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세계화 시대의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세계화 시대가 제기하는 윤리적 도전을 국제적·국내적 맥락에서 점검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강자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공동가치 정립이 아닌 여러 문화 간의 대등한 대화를 통한 공동가치 모색이라는 국제적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 경제 주도의 세계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문학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기획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통사상의 보편윤리적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공동가치 포럼을 개최해 유가 사상과 불가 사상이 공동가치 모색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2003년 9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다양성과 공동가치에 관한 국제포럼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윌레 소잉카와 세계화 연구의 석학인 롤랜드 로버트슨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의 세계화·지방화와 문화정체성, 문화 지평의 확대, 공동가치를 향한 새로운 문화 계약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회의 말미에 채택된 「문화다양성과 공동가치에 관한 경주선언」은 다양한 문화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동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인문학 위기론에서 벗어나 인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2002년 12월 12~13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제인문학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인문학 위기론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인문학계가 급격한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을 설정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21세기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은 인문학과 세계화, 인문학과 정보통신기술, 인문학과 생명공학, 인문학과 교육학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고 철학, 문학은 물론 생명과학, 정보통신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학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의 문화 해’ 사업, 100만인 서명운동

유엔은 2000년을 세계 평화의 문화 해*로 정했다. 유네스코는 만델라, 고르바초프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작성한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을 선포하면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1999년 9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및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약 161만 명이 서명했다. 캠페인 첫날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공식 서명했다.

이 밖에도 세계 평화의 문화 해와 관련해 2000년 3월 14일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세계 시의 날’ 기념 시 낭송회를 열었고, 5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SBS와 공동으로 청소년 콘서트를 열어 1만5천여 청소년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 세계 평화의 문화 해 -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 (1999)



| 평화의 문화 서명운동

*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누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활동

“동아시아지역 불교예술의 걸작인 동시에 이 지역 종교건축과 불교신앙을 보여주는 탁월한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199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헨리 클리어 사무총장은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석굴암 등 3건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세계적 유물’로 일컬어지던 것들이 비로소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종묘 등,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에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한국의 문화재 3건이 1995년 7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1972년 체결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국의 문화유산 중 일부가 “자연적, 인위적 파괴와 손상으로부터 인류가 공동

*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으로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임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이날 채택된 석굴암 및 불국사 일원,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 외에도, 창덕궁, 수원성, 삼년산성, 무녕왕릉, 강진도요지 등 5건(문화)과 설악산, 한라산 등 2건(자연)을 “원형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유산”으로 보고, 각각 잠정목록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 종묘 제례악

유네스코가 현지 조사를 맡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994년 9월 문화체육부의 등재 신청에 따라 1995년 2월 한국을 방문해 이들 문화재의 가치 및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전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에 앞장서다



| 종묘 세계유산기념비 제막식

유네스코는 각종 자연재해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했다. 한국은 1988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1995), 수원 화성과 창덕궁(1997), 고창, 화순, 강화지역의 고인돌군(群)과 경주 역사유적지

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2014) 등 모두 11건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151개 가입국들은 1997년 10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한국을 21개 위원국의 하나로 선출했다. 한국은 1997~2003년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세계유산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1994년 세계유산센터(WHC)*에 제출할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10건을 직접 작성하는 등

* World Heritage Centre

세계유산 관련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 세계유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원칙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1999년 4월 국내 문화재 분야의 대표적 권위자, 전문가, 기관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한국위원회를 창립시켰다.

세계유산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재 보호정책을 현대화하는 각종 연구와 세미나, 훈련 등을 실시했다.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선 1997년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자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보호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유산 보호 세미나(1998),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훈련 세미나(1999, 2000), 고인돌 국제전문가회의(1999), 전통 역사 마을과 지속가능한 발전 심포지엄(2002) 등 많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아태지역 세계유산 정기 보고 준비회의를 세계유산센터 및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2001년 7월 경주에서 개최했다. 특히 2000년 9월 수원시와 함께 개최한 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는 전 세계 주요 성곽 유산을 보유한 시장들과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대표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회의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보호정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 유네스코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 (2000)



|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2002)

세계유산 사업은 한국 언론계와 교육계, 관광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세계유산센터, 독일 ZDF 방송사와 협력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세계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30여 편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방영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각종 세계유산 책자를 간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또한 1993년 세계유산 아동용 교육 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원, 경주, 대구 등에서 세계유산 사진 전시회를 열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화유산보호 대토론회-지방자치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1997)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세계문화유산 지역 모니터링 대원이 수원, 경주, 고창, 화순 등지에서 활동하도록 했으며, 『인류의 문화유산: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2002) 등 관련 서적을 발간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 우리 시민의 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년 3월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자문위원회 창립 대회를 서울 역삼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문화재관리국의 김종열 유형문화재과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보호자문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정



| 세계문화유산 보호 자문위원회 창립대회 (1997)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기 회의를 열어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건의 또는 자문하고 문화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했다.

한편,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의 화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시민이 앞장서서 보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1999년 7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수원과 경주에서 각각 시민이 참여하는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훈련을 실시했다. 국내 문화재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수원과 경주 지역 시민대표들에게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강의와 현장 실습을 실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훈련에 참가한 수원과 경주 시민 중 각 10명을 선발, 화성,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보존 임무를 맡겼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이 2004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으로 국내 유산 보존에 세계적 기준을 적용하고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했다. 워크숍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을 설명하는 기초 발표,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세계적 동향과 지자체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다.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 (2004)

한국 무형유산 제도의 확산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 무형문화유산보호 도시간 네트워크 워크숍 (20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96년 10월 22~2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주최한 ‘무형문화재 보존 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한 유네스코 본부의 주시 다니엘레 무형문화재 담당관은 “무형문화재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후계자 제도를 두고 국가가 지원·육

성하는 한국의 제도를 세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매우 정교하고 훌륭해 세계 각국이 본받아야 할 제도”라고 그 우수성에 찬사를 보냈다.

전통예술을 ‘문화재’로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등 4개국뿐



단오제 세계무형유산 등재 기념식



한-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신탁기금 전달식 (2005)

주시 다니엘레는 199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네스코 제142차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만든 『인간문화재 지침서』를 세계 각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통 예술과 공예 종목을 문화재로 지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루마니아, 프랑스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부터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제142차 집행이사회에 인간문화재 보호 제도의 실시를 건의한 이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 무형문화재 보존 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를 개최했고, 1998~2001년 4년 동안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보호 제도의 법제화, 목록화, 교육, 축제 등을 주제로 전 세계 문화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주관했다. 워크숍은 한국이 노력해온 문화정책의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에 전수한 성공적인 사례로, 이를 계

기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또한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전 세계 국가에 보급할 인간문화재 보호 제도의 보완 작업도 수행했다. 2002년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근거로 영국의 키스 하워드 교수와 박상미 교수 등이 수정 보완한 관련 지침은 유네스코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됐다.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 12월 강릉시의 협조로 미화 20만 달러

의 무형유산 진흥사업 신탁기금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국제적 보급,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지침의 제정, 무형유산 시장단 회의, 훈련 워크숍 등 주요 국제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 배워라

한국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 보존 제도를 세계화하려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1회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숍이 1998년 10월 13일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관리국이 공동주최한 이 워크숍은 이탈리아 등 9개국에서 문화재보존정책 관계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서울, 경주,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렸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개념은 유형문화재만 인정하고 등재하려는 서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나 다채로운 인간문화재를 지니고 있는 비서양 지역의 문화재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이 그 중심지로 주목을 받게 됐다. ‘아리랑’이 인류의 구전 및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공헌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아리랑 상’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1999년 4월, 한국을 방문한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대해 시상할 ‘아리랑 상’의 설립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유네스코는 산업화와 세계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급속한 사멸을 우려해 2001년부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도입했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인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가 걸작선에 포함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아리랑 상’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제도에 따라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혹은 그 보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것으로, 정부(문화재청)는 상금 재원으로 유네스코에 매년 3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상은 2003년부터 시상됐으나 유네스코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의 중단과 함께 2009년 18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폐지됐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카테고리 2' 기관으로 승인

한국 정부(문화재청)는 인류의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이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상당수 본래의 의미를 잃거나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내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설립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 정보화와 네트워크, 중국은 훈련, 일본은 연구 중심 센터로 2008년 유네스코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구는 한국이 설립한 문화 분야의 첫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으로서도 의미가 큰 곳으로,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높이 평가받아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센터를 만들자”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제정되고,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참석한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대표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를 한국에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다음 집행이사회에서 중국이 센터의 유치를 선언하고, 이후 일본도 참여하면서 3파전이 됐다. 이렇게 되다보니 당시 유네스코 내 정치적 영향력에서 한국이 밀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자칫하다가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2006년 동북아 5개국 사무총장이 모인 회의에서 내가 아태지역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고, 무형유산의 내용도 무궁무진하니 분야를 나누어서 세 나라가 각각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일본 사무총장 모두 그 제안에 동의했지만 속내를 보면 서로 협력하지는 데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결국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제35차 총회에서 일본은 ‘연구’, 중국은 ‘훈련’, 한국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중점 기능으로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초대 사무총장〉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35차 유네스코 총회(2009.10)에서 무형유산센터 설립이 승인

됐고 이어 센터 설립에 관한 한-유네스코 협정이 체결됐다(2010.6). 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는 독립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 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그동안 아태지역 유네스코 48개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외에 사라져가는 종목의 기록,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지원,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보급 등을 실행했다.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몽골, 피지 등에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했고, 그 결과 몽골과 베트남이 최근 관련법을 제정했다.

무형문화유산 정보 보급에 힘써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영문 뉴스레터 발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관련 도서 번역 사업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보 보급에 힘쓰고 있다. 국내 최초의 문화 분야 카테고리 2기관인 무형유산센터는 향후 한국의 강점인 정보 및 네트워킹 기능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나눔과 섬김으로 전한 희망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



| 한국청년해외봉사단 1기 네팔 현지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히려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1990년부터 2년간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1기생 함영숙 씨는 비록 피부는 검게 탔지만 보람찬 현지 활동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밝은 표정

이었다. 평범한 간호사 생활을 하던 함 씨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한국청년해외봉사단’과의 만남이었다. 줄곧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의 임종을 술하게 지켜봤던 그녀가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택한 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네팔 봉사 활동이었다.

그녀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8시간 거리에 있는 인도 접경 도시에서 열사의 더위와 싸워야 했고 좁히기 힘든 문화 차이, 열악한 생활 환경, 언어 장벽, 온갖 질병과도 맞서야 했다. 천연두 환자,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 소금만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식은 그곳에서 소용이 없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함 씨는 역경을 딛고 온몸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렸다. 처음 그녀를 대하던 차가운 시선은 차츰 따뜻한 감사의 눈길로 바뀌었다. 결국 돌아올 때 그들이 그간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준 조그만한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녀는 ‘해외봉사단 1기’라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다.

평화, 발전, 참여 정신, 세계에 심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 평화와 새로운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질 목적으로 해외교육 프로젝트를 확정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Korean Youth Volunteers’로 명명된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은 평화, 발전, 참여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국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 문제의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당시 미국, 서독,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봉사활동이 자국의 해외시장 개척과 자국 인력의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둬으로써 제3세계 등 개발도상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제2기단원 파견식 (1991)

국과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파견 대상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아래 순수한 봉사운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청년 활동을 바탕으로 이후 평화와 발전의 동반자인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청년봉사단의 해외 파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라 1989년 정부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의 파견을 발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수입기관으로 지정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파견 가능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파견단원을 모집하고 봉사단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기르기 위한 4개월의 훈련을 실시한 후 1990년 10월 제1기 단원 44명을 파견했다. 청년해외봉사단 1기생 44명은 1990년 8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원식 문교부장관, 김영식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네팔 등 파견 4개국 주한 대사, 봉사단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 발단식을 가졌다. 여자 14명, 남자 30명 등 44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파견 첫 달인 9월 한 달 동안 해당 정부로부터 봉사지역 및 봉사부문 전반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교육, 농업, 체육, 기술, 사회봉사, 지역사회 개발 등 6개 분야에서 1992년까지 2년 동안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원들은 파견 기간 중 매달 현지 생활비로 월 2백~4백 달러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국내 훈련에서 각 전공 분야별 봉사 외에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훈련도 함께 받았다. ‘나

늠과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한 단원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에 파견돼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나아가 이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같은 봉사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6.25전쟁의 피해를 입고 오랜 세월, 선진국의 원조를 받기만 하던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을 돕는 지위로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은 한국보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뒤진 개발도상국에 선진 기술과 사회제도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 체육 등을 지도하면서 이들 나라와 우호선린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

이 사업은 1991년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개도국 협력 사업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됐으며 지금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



| 한국청년해외봉사단 1기 청와대 방문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KUCES) 활동



| 문화교류센터 CCAP 사업 설명회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짙은 갈색 피부의 외국인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교시 수업을 맡게 된 세군도 데 로스 리오스 씨가 스페인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옆

에 있던 통역 윤이령(서울대 서어서문학과 4년) 양이 우리말로 옮겼다.

“제 고향은 바로 이 곳이지요.”

리오스 씨가 앞쪽에 펼쳐 놓은 남미 지도에서 페루를 가리키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오스 씨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강사로 이곳을 찾았다.

CCAP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이 각급 학교를 찾아가 자국의 문화와 풍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성과 개방된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KUCES)가 지난 1998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조선일보』 2001.4.18.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KUCES, 이하 문화교류센터)*와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이하 문화교실)**은 1990년대 이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주한 외국인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각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든 조직이자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가 국제화·세계화·개방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한국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한 오해나 편견은 주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였다.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통



CCAP 외국인 자원봉사자 세군도 데 로스 리오스 (페루)

* Korea Unesco Cultural Exchange Services
**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한 평화의 문화 건설에 기여해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주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7년 10월 15일 문화교류센터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 설립했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기대와 명동이라는 지리적 접근의 용이함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문화교류센터를 찾았다.

한국어로 한국 문화 이해하는 길 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교류센터의 설립에 앞서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주한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꼽으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강좌가 있기는 했지만 비싼 수업료와 시간적·지역적 제약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강하기 어려웠다.

문화교류센터는 이 같은 주한 외국인들의 생활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무료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업 시간도 평일 오후와 저녁 그리고 일요일로 정해 가급적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사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활동 경험자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함으로써 문화교류센터 한국어교실이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타문화 이해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교류센터 활동의 주축은 자원봉사자

문화교류센터는 주한 외국인과 한국 사회를 잇는 문화교류의 창구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997년부터 한국 문화강좌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고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국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교류센터 콜로키엄과 외국인 노동자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1998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인 문화교실을 시작했다. 또, 영문소식지 「Dialogue」를 발간, 주한 외국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문화교류센터의 다양한 활동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참여 외국인과 통역자들이 모두 자원봉사 활동자였다는 점은 문화교류센터 활동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 설립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원 산하의 한 부서로 출발한 문화교류센터는 200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청소년교류팀과 통합돼 그 활동을 이어갔다.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알고

1997년 10월 23일 문화교류센터는 스리랑카인을 위한 초급반을 처음으로 개설한 뒤 곧이어 필리핀과 태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3개 추가했다. 첫해에 4개 반 11명의 수강생으로 문을 연 한국어교실은 이듬해 초·중등·고급 11개 반으로 확대됐고 수강생도 학기당 30여 개국 130명으로 늘어났다. 문화교류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강좌수와 등록 인원을 늘리는 한편,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한국어교실 강사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어 수업 외에 국내 문화 현장을 방문하는 야외 학습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주한 외국인들이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교류센터 한국어교실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어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1999년 자체 교재를 발간한 데 이어 이를 수정·보완한 개정판을 2001년에 펴냈다. 한국어교실은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모두 12학기, 115개 강좌를 개설해 50여 개국 1,400명이 수강해 주한 외국인과 한국 사회를 잇는 문화교류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문화교류센터 사업의 방향 전환으로 2001년 제3학기로 막을 내렸다.



문화교류센터 한국어교실 수료식 (1999)

외국인에 한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문화교류센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주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8년부터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강좌를 개설했다.

1998년 10월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사(한국명 박노자)의 '외국인이 보는 한국 역사' 시리즈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총 28회에 걸쳐 계속된 한국 문화 강좌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소개했다.



문화교류센터 한국 문화 강좌 (2000)

전문가 강의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1998년 5월 제1회 프로그램인 '부처님 오신 날 서울 화계사 탐방'에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등 11개국 22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이후,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1998년 6회, 1999년 7회, 2000년 5회 등 총 18회 개최됐다. 2001년부터는 한국 문화 열린 마당이라는 강의와 현장 탐방을 병행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접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여름 경남 산청에서 외국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캠프(Campo Camp)를 열어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2년에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덕궁,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1998년 9월부터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주한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자국의 문화, 역사, 생활, 풍습 등을 소개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문화교류센터의 활동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들 모두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학생들에게 국제이해교육의 장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주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실시 첫해인 1998년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호주대사관, 일본문화원 등 주한 외국공관들의 후원하에 서울 지역 35개 학교(초등 9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서 32개국 58명의 주한 외국인이 28명의 한국어 통역자와 함께 80여 회의 문화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대상 지역을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지역으로 확대했고 참가 학교도 93개교로 늘렸으며 수업 횟수도 228회에 이르렀다.

시골과 도서 지역 찾아가는 ‘문화교실 캐러반’

또한, 주로 도시 지역 학교에서 열리는 문화교실 수업과는 별도로 1999년부터 ‘문화교실 캐러반’(CCAP Caravan)을 구성해 평소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직접 접하기 힘든 시골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문화교실 수업을 실시했다. 1999년 10월 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에 처음 파견된 ‘문화교실 캐러반’은 이후 매년 지방의 읍, 면 단위의 학교를 방문해 문화교실 수업을 실시했다. 문화교실 참가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과 일반 시민, 주한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유네스코축제’가 열린 것은 타문화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 10월 2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민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사흘간 열린 ‘유네스코축제 2000-Hearing the World’는 그동안 이어져온 문화교실 프로그램의 확장이었다. 2001년에는 ‘세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청소년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일반 시민도 축제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상호 문화를 경험하고



CCAP 터키수업



| 문화교류센터 유네스코 축제 (2000)

배울 수 있도록 이틀에 걸쳐 명동 거리와 유네스코회관 내에서 실시됐다.

문화교실은 2006년 5월 협동학교팀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문화교실 수업과 지역 운영기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국제이해를 통한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문화간 이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문화교실은 외부로부터 '다문화 이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의

국적도 1998년 32개국에서 실시 10년 만인 2008년에는 50개국으로 다양해졌다.

지역 분산화로 사업 이관

문화교실이 점차 사회적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실험적인 교육 사례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실시됐다. 2010년에는 경남교육청, 대진대학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죽계문화재단,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을 신규 협력기관으로 인증하는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지역 분산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각 지역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문화교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했다.

이 무렵, 지역 분산화와 더불어 그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해온 문화교실 사업의 종료 및 사업 이관을 위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고, 마침내 2013년에 정식으로 사업을 이관했다. 이에 따라 문화교류센터가 문화교실 수업을 위해 수집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담은 도서, 비디오테이프, 음악 CD, 일반 자료 CD롬을 비롯, 수업 교보재로 활용되는 2,200여 점의 자료를 보유한 세계문화자료실(1999년 개설)도 2013년 12월 유네스코협회연맹 자료실로 이전됐다.

미지의 꿈을 키우다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개관

우간다로 간 '특별한 운동화'

우간다의 전쟁고아 소녀 아코티고 플로렌스(Florence, 17)는 커다란 두 눈으로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폈다. 낯선 외국인들을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내 온 운동화 선물을 받아 든 순간,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운동화에 달린 메모지에는 한국 어린이가 쓴 “항상 희망을 잃지 말아요”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다. 메시지 내용을 알려 주자, 우간다 소녀는 다시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2008년 2월 20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키탄테 초등학교에서 열린 한국-우간다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 북부 우간다의 고아 청소년 25명과 키탄테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비행기로 20여 시간 걸리는 먼 나라 한국에서 온 '특별한 운동화' 100여 켤레를 선물 받았다.



|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 (우간다)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맨발로 생활하는 우간다에 도움을 주려는 한국 청소년들의 '선물'이다. 『조선일보』 2008.3.3.



미지(MIZY)센터가 주관한 나눔 운동

이 운동화들은 2007년 10월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와 유네스코우간다위원회가 주관하고 하이원 리조트가 후원한 '2007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에서 한국의 청소년 등 2만여 명이 직접 색칠하고 그림을 그려 넣은 4천여 켤레 중 일부였다. 검은 얼룩말 무늬, "I love Africa"라고 쓴 글씨, 별과 무지개 등 운동화에 그려진 색깔과 무늬도 다양했다.

운동화마다 우간다 친구들에게 보내는 한국 아이들의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우간다 북부는 20여 년간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소년·소녀 2만여 명이 납치돼 소년병과 성노예로 학대당한 지역으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허권 미지센터 소장은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 작은 선물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ZY센터

‘미지’(MIZY: Myungdong Info Zone of Youth)는 미지(未知)의 세계라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활동·교류의 중심지인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별칭이기도 하다. 미지는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공간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했다.

청소년 공간으로서 미지센터는 9~24세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 청소년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 ‘경험의 장’으로서 미지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또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류의 장’으로서 미지는 청소년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인 서울의 중심 명동(2014년 현재 남산)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세계시민으로 자라는 데 밑거름이 됐다.



2008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

‘씨랜드 사건’이 불러온 청소년 대책

19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 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국민들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세인들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던 이들 사건의 공통분모는 ‘청소년’이었다. 당시 사회는 인천 사건의 원인이 “청소년의 접근성이 보장된 시내 중심가에 그들만의 건전한 활동 공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그 이듬해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특별시는 1999년 12월 ‘청소년건전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과 접근성이 우



MIZY 센터 개관식 (2000)

수한 명동 유네스코회관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등 오랜 기간 청소년 활동을 통해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아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이 사업을 위탁했다. 미지는 성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센터를 표방하면서, 2000년 5월 개관식을 갖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출범 초기 미지는 소비 위주의 성인문화 일색이던 명동 거리에 청소년 문화를 심기 위한 프로젝트로 ‘명동 청소년 거리 축제’를 진행해 명동을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이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 미지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청소년 분야의 활동들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네트워크 파티’와 서울시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youthwel.com)의 개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미지는 이주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실,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 국제 화상회의, MIZY 아리랑 축제, 국제 활동 설명회, 한독 청소년문화교류프로그램, 미지세계문화여행, 아시아 유스 캠프 등으로 발전했다.

또, 당시 청소년들에게 생소했던 다문화와 국제화 현안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MICC(Mizy Intercultural Club)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문화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국제화나 다문화를 피상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을 벗어나 실제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회 청소년 영상 평가 토론회

청소년 문화 교류와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2006년 미지센터는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남산 자락에 있는 현 위치로 이전했다. 장소를 옮기면서 센터 운영 방향의 변화도 뒤따랐다. 다문화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실행과 정책에 대한 지문 등을 강화하면서 미지는 서울의 청소년 문화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중심으로서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후 미지는 기존의 국제 화상회의 대상국의 확대 및 다변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대기 중’, 국제교류박람회, 서울의 자매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연구하는 스터디 캠프인 브로시스 프로젝트, 일본 비영리단체인 관계아와 함께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교류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국제회의 파견사업 등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청소년 시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부족한 청소년 국제교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년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해 국제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도자 간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만족도도 높였다.

희망의 운동화,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편, 미지는 주한 미국대사관, 한양대학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외봉사단 원연합회 등 외부 기관들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사업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지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중·고생 해외체험 교육인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위탁받아 운영했다. 특히 하이원 리조트의 지원으로 개도국 청소년에게 운동화를 기증하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를 2007년부터 실시했다. 우간다를 시작으로 2008년 방글라데시, 2009년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각각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운동화를 전달했다. 특히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청소년센터에 장서 4천 권과 컴퓨터 5대를 갖춘 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해 캄보디아 청소년을 위한 배움터를 마련해 주었다.

글로벌 리더 양성에도 힘써

‘2009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서울의 중학생 63명과 고등학생 45명이 2009년 7월 13일부터 8월 중순까지 21개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였다. 미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중·고생 팀들이 특정 주제를 정한 뒤 해외 기업, 연구소, 대학, 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을 찾아가 조사·연구 활동을 벌임으로써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생은 국가 농업 경쟁력 향상, 글로벌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정책 등 12개 주제로, 고등학생의 경우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 도시 디자인과 글로벌 랜드마크 구축 등 8개 주제로 활동을 벌였다.

2000년 5월 1일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시 위탁 사업으로 설립·운영해온 미지센터는 2012년 3월 31일자로 서울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대신문화재단(교보생명 출연)으로 운영권이 이전됐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직업기술교육

한국의 직업기술교육은 1961년 정부와 유네스코가 인하공과대학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에 기술 원조를 하기 위해 유네스코-우크라 잔여금 50만 달러 원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유네스코는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을 한국에 파견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기술교육의 혁신을 위한 동남아 지역 회의(1977),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기술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국내협의회(1980), 직업기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필리핀·싱가포르·인도를 연결하는



| 인하공대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 (1962)



|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1999)

국가 간 이동세미나(1982), 인문계 중등교육에서 진로지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본·한국·태국을 연결하는 국가 간 이동세미나(1983) 등을 개최하면서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후 주로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혁신사업(APEID) 활동의 하나로 여러 분야의 직업기술교육 사업을 전개하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0년대 들어 새로운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1989년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직업기술교육 협약이 체결되고, 1991년 제26차 총회가 국제적인 직업기술교육 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자,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유네스코의 국제 프로젝트(UNEVO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1999년에는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제2차 세계 직업기술교육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0년 10월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 아태지역 우수 센터로 지정됐다.

‘산업기술전문교육원’ 현장중심교육 인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정밀기기센터의 기술훈련소가 오늘날의 산업기술전문교육기술원으로 바뀌었다. 이 교육원 수료자들은 산업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교육 내용이 현장 기술 중심으로 짜여있고 최신의 실습 기자재를完비한 탓에 교육원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전문교육기술원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의해 제어계측, 전자기기, 정밀측정, 치공구설계과 등을 설치·운영하다가 금형, 자동화설계,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기술), 열처리도금, 공기조절냉동 등 새로운 5개 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했다. 이들 학과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 (1999)

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산업 분야 최신 영역의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크게 주목했다. 1987년부터는 한일 기술 협력 사업이 시작되면서 7백만 달러의 실습 기자재 및 인력훈련 지원비가 투입돼 활기를 띠었다.

2015년, EFA 향배를 점치는 결정적 시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활동가가 촬영한 짐바브웨 교육현장 (2013)

‘모두를 위한 교육’(EFA)은 전 세계 비문해 퇴치와 초등교육 보편화를 목적으로 1990년 태국에서 열린 줌티엔 회의에서 탄생했다.

유네스코는 1950년대 성인문해교육 운동,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 사업, 1970년대 평생교육 사업 등을 펼쳐왔는데,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이 집약된 것이 1990년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유네스코는 10년 뒤인 2000년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① 유아교육의 확충 ②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 제공 ③ 모든 청년과 성인의 학습 수요 보장 ④ 2015년까지 성인 문해율 50% 향상 ⑤ 2005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 양성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양성 평등 달성 ⑥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모두를 위한 교육 6개 목표를 채택했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양성평

등의 달성을 위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2000년부터 세계 각지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2015’라는 숫자가 유네스코 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는 각별하다. 유엔이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시한이 2015년이기 때문이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 달성 기한도 2015년이다. 이보다 앞서 유엔 문해10년(UNLD)이 2012년에 마무리됐고, 2005년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은 2014년에 막을 내린다. 사실상 2015년은 새로운 미래교육 의제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0년 4월 26~28일 동안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164개국에서 1,100여명이 참여하여 최종 결과물로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다카르 회의는 10년 전 제창된 EFA의 기본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천명한 유엔 새천년개발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교육 분야(MDGs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 개발 과제를 달성하는 데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줌티엔에서 추진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다카르 회의에서 15년, 즉 2015년을 목표 달성 기한으로 제시한 것도 새천년개발목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2015년에 세계교육포럼이 한국에서 열린다.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2015년 5월 인천시에서 여는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줌티엔 제1회 회의와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제2회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 교육계의 최대 행사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설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2015년 이후 교육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는 과학

과학과 사회, 생명윤리, 과학기술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학문 간 협력이나 교류가 거의 없던 1981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세미나를 개최해 과학과 사회의 긴밀한 상호 관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성과 상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양 학문의 간격을 줄이고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협동 모색

1981년 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과학사를 중심으로 한 세 차례의 ‘과학과 사회 세미나’와 이어 열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세미나’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두 분야 간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같은 해, 과학과 사회에 관한 연구 진흥을 위해 국내 8개 대학 2,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를 서울대 박승재 교수에게 위촉해 수행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국내 최초의 연구조사였다.

1990년에는 아태지역 과학대중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자클럽이 참가해 아태지역 과학 기자 및 과학 저술인들과 함께 과학 저널리즘과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1994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사회』를 발간했고, 2001년에는 역시 중·고등학생들의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 자료로 『가치를 꿈꾸는 과학』을 발간·보급했다.

『과학과 사회』 한국어판 창간호 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1950년부터 발간해온 계간지 『Impact of Science on Society』의 한국어판 『과학과 사회』를 1984년 8월부터 1995년까지 발간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이 계간지는 지난 30년간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기후 변화, 군비 확장 등 현대사회의 문제를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시켜 심층 분석했으며, 3백만의 정기 구독자를 가진 영향력 있는 세계적 교양학술지이다. 이 한국어판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발간된 번역본이었다.

시민이 만드는 과학기술 정책

생명공학 발달에 따라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간의 유전인자인 게놈을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선언이 마련됐다. 유네스코가 1997년 11월 10일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은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한국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총 25개 조로 된 이 선언은 인간 유전인자를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보고 금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 복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생명윤리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1998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합의회의’는 시민 참여 토론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이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해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통 사람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9년에는 '생명 복제 기술'을 주제로 한 2차 합의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결과로 나온 「시민 패널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졌고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생명 복제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서 시민 의견을 표명한 좋은 사례로 보고됐다.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합의회의란 '선발된 몇몇 보통사람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합해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포럼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는 대규모 기술 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방안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7년 덴마크 의회 산하 기술평가국이 실시한 유전공학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한 사례를 참고해, 시민 패널 주도의 참여적 형태로 합의회의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다.

과학기술의 윤리를 묻다

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치와 윤리를 모색하는 세계과학회의가 '21세기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1999년 6월 전 세계 120개국 정부 대표와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다. 유네스코와 국제과학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 회의는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종합하고 앞으로 과학정책의 국제 기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한 「과학과 과학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1999)

언과 「과학의제: 행동강령」을 번역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 참가자들과 국내 차원의 후속 방안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정책, 과학과 여성, 차세대 과학자 양성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2001년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과학기술과 인권』을 발간했다. 2000년대 중반 국내에서 생명공학 연구 및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 윤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1년에 이미 『과학연구윤리』 등을 발간하면서 과학 연구자의 윤리를 강조한 바 있다.

‘다름’을 배워 지구촌을 돕다

국제자원활동

198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해였다. 이때를 전후로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재정립했고, 그에 따라 청소년 기관과 단체가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유네스코의 청소년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고, 세계화, 정보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이 이어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유네스코청년원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청소년 활동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청년의 국제화를 목표로 한국 청소년 활동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 활동 역량 강화를 청소년 활동의 중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8년부터 청소년 활동의 장기 중점 과제로 국제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전문 훈련 과



| 국제자원활동 훈련 워크숍



정을 이수한 청년들을 해외 단기 워크캠프와 중장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원활동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특히, 2001년 세계 자원활동자의 해를 계기로 국내 외에서 자원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3년에는

1,20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이 25개국에서 열린 국제워크캠프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자원활동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해외 파견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의 국내 워크캠프 참여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자원활동이라고 하면 흔히 일정 기간 외국, 특히 저개발국에 거주하면서 교육, 의료 활동 등을 벌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에서 국제 문제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국제자원활동의 일부로 봤기 때문이다.

‘다름’의 이해와 존중, 국제자원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

급격한 세계화로 인해 외국, 외국인, 외국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에 대한 편견이 많다. 국제자원활동은 결국 서로 간의 차이, 즉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속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9년부터 국내 대학이나 기아자동차 등과 협력해 매년 300명 이상의 한국 청년을 해외 자원활동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공동노동과 현지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한국 청년

국제자원활동에서 느낀 동질감의 경험들

일반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이나 자원활동에 참가하면 같은 것보다는 나와 다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처음에는 다른 것이 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란다. 이런 경험은 일반 국제교류보다 국제자원활동을 통해 더욱 느끼게 되는데,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이다.

“워크캠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서로 간의 이질감을 느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은 이상하게도 동질감이었다.” (안유림, 미국 워크캠프, 2003)

“대화를 할수록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 다르지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같은 길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공유해 왔던 것이다.” (강효원, 프랑스 워크캠프, 2003)

“다양한 체험활동은 우리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엔 충분했다. 이러한 체험들은 미약하나마 서로의 세계가 다른 곳이지만, 다름 속에서 비슷함을 찾고 서로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영환, 라오스 단기 자원활동, 2007)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을 진작하려는 유네스코 정책에 맞춰, 1966년 처음으로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를 개최했다. 이후 1979년과 2009년에 행사명을 국제청년캠프(IYC)와 청년지역행동(YiCA)으로 각각 바꾸어 캠프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외 국제자원활동의 국내 캠프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캠프는 한국을 비롯, 약 20여 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숙식하며, 환경, 문화, 지속가능발전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보는 사업이다. 특히 국내외 참가자들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다양한 주제의 국제워크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는 각국 청년들

『국제자원활동 매뉴얼-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어느 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인도 네루 수상에게 물었다. “미국 평화봉사단을 만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루 수상이 답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
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인도의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중)

이 책은 자원활동에 대한 거창한 담론이나 구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합 안내서로 기획되었다. ‘자원
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목도 자원활동이 어떻게 다
르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한국 사회에 던지려는 문제의식에
서 붙여진 것이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자원활동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성찰을
제기하며, 책 전반에 걸쳐 한국 사회의 국제자원활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자 했다.

케네디 대통령과 네루 수상의 대화는 자원활동의 본질을 정확
하게 보여준다.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 흔히 무엇인가를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봉사’라는 명칭에는 시혜적
인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이선재 대표 필자는 “자원봉사
활동은 일방적으로 ‘내미는 손’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맞잡는 손이 되어야 한다’고 머리말에 밝혔다.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의 ‘자원봉사’를 주장한다. 따라서 일방적 시혜성의 ‘자원
봉사’보다는 ‘자원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제자원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집필진들은 ‘자원활동’을 개
인이나 집단이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 의식에 기인해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사
용해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하는 실천 활동으로 정의했다. 『유네스코뉴스』 2010. 2월호



제4부

> 2001~2014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2000년대 들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자 했다.

이 시기 자연과학 사업은 과학대중화와 과학교육을 통해 대중들 곁에 좀더 가까이 다가섰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기록문화 사업을 통해 세계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내 도시들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도왔다. 다섯 차례의 정보사회 성찰포럼을 열어 정보사회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에 잇달아 당선되면서 한국이 유네스코 무대에서 한층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했고, 유네스코 키즈들이 세계를 향해 꿈의 나라를 펴는 것을 도왔으며,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창안했다.

- 제44화 정보사회가 갈 길을 묻다
- 제45화 동심이 만드는 평화의 선을
- 제46화 한국학 진흥을 위한 반세기
- 제47화 미래 주역들의 향연
- 제48화 아시아 국제이해교육의 산실
- 제49화 우리 곁에 다가온 과학
- 제50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
- 제51화 빌딩숲 속 또 다른 숲
- 제52화 교육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사회
- 제53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 제54화 변화에 발맞추는 인문학
- 제55화 한국, 유네스코의 주역이 되다
- 제56화 역사에게 평화를 주다
- 제57화 북한과 국제사회에 내민 교육의 손길
- 제58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 제59화 저개발국에 뿌린 희망의 씨앗
- 제60화 영어교육을 넘어 문화간 이해로
- 제61화 '세계의 기억'을 보존하다
- 제62화 도시에 창의성을 입히다
- 제63화 세계를 향해 꿈의 나라를 펴다

정보사회가 갈 길을 묻다

정보사회 성찰 포럼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

유네스코는 199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제1차 정보 윤리 국제회의를 열어 정보사회의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 2003)*를 열기로 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이끌어낸 것도 이 같은 유네스코의 노력 덕분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정책을 반영해 1998년 9월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마크 포스터 교수(『뉴미디어의 철학』 저자)가 기조 강연을 했으며, 디지털 정보 접근과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와 지구적 정보 규제, 가상 공동체와 문화다양성,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후 참가자들 이름으로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정보사회 성찰 포럼’을 열었다.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의 인간 존엄성, 지적 재산권 등 다뤄

제1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 포럼은 2000년 9월 19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서는 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협받고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 포럼(2000년 12월 14일, 서울 플라자호



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 포럼 (2000)

텔)은 제1회 포럼 못지않게 성황을 이루었다.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크게 위협받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뤘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적 재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정보 생산자들의 입장과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서로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컸다.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네트의 히피족’으로 불리는 미국의 존 페리 발로우가 13일 방한했다. 목장주이면서 록그룹의 작사가로도 활동하는 등 특이한 경력을 가진 그는 1990년 전자개척자재단을 설립, 디지털 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네트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블루리본 달기’는 이 재단이 시작한 캠페인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2000년 12월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 포럼’에서 발로우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소유권의 소멸-현실적, 경제적 대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한국일보』 2000.12.8.

존 페리 발로우는 기조 강연에서 “산업사회에 형성된 저작권 개념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 대신 윤리와 복제 방지 기술에 따라 새로운 재산 보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저널리즘 등에도 관심 기울여

세 번째 정보사회 성찰 포럼(2001년 11월 16일, 명동 은행회관)은 ‘정보기술과 교육-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열렸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 차례의 포럼에서 발표·토론한 내용을 모아 『디지털시대의 인간 존엄성』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 6월 26일 ‘온라인 저널리즘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4회 포럼을, 2002년 10월 17일에는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제5회 포럼을 개최했다.



제4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 포럼 (2002)

유네스코 가상 국제정보센터 개설

2000년은 'Y2K 버그' 문제와 함께 밝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 가상 국제정보센터 사업을 수행했고 2000년 3월 31일 시스템 발표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반세기 동안 다양한 국제 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자료를 디지털화해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상의 세계 문체 관련 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됐다.

사이버스페이스와 언어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1년 9월 사이버스페이스와 언어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언어적 요인에 의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기계 번역, 아시아 지역 언어 디지털화 등을 다뤘다.

유엔은 정보사회에 대한 인류 공동의 비전과 이해를 형성하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함께 선언문과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 위해 정보

사회 세계정상회의를 2003년(스위스 제네바)과 2005년(튀니지 튀니스)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회의 주요 내용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유네스코도 정상회의 준비에 적극 나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정책을 반영해 2003년 5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열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2003)

동심이 만드는 평화의 선율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

“전쟁이 어른들이 만든 악마적 괴물이라면 평화는 어린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선의 걸작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교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앞장서 가능한 것부터 교류를 시작하면 어떨까?”



| 제7회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 (2008, 광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열린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는 이렇게 출발했다.

동아시아 5개국의 합작품

200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 따라 동아시아에 평화의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 이 축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5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 행사로, 예술적 자질이 뛰어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다.

제1회 축제는 2001년 8월 21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는 한국,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마카오 등 6개국의 어린이 공연단이 참가해 무용, 합창,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예원학교 무용단이 창작 고전무용, 예원트리오가 피아노 협연, 한얼민속예술단이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다. 행사 개막식에서 한국 참가단이 부채춤을 공연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3회 축제 수원, 7회 축제 광주서 열려

2002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회 축제에 이어 제3회 축제는 2004년 7월 29일부터 5일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6개국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참가 규모는 국외 공연단 180명과 국내 공연단 170명, 국내외 초청 인사 250명 등 모두 600여 명이었다.

제3회 축제의 경우 처음 2일은 정식 공연으로, 나머지 3일은 국내 학교 방문, 문화유산 방문, 공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해외에서 참가한 어린이 공연단들은 모두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개·폐막식에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유네스코 평화예술인 조수미 씨의 특별공연이 열려 참가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제7회 축제는 2008년 7월 24일부터 나흘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는 동아시아 3개국(중국, 일본, 몽골), 1개 지역(마카오)에서 5개 팀 111명, 한국에서 4개 팀 163명이 참가했고, 국내외 초청 인사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예술제 홍보대사로 선정된 아역 탤런트 권오민, 오승윤 군과 팝페라 가수 로즈 장 등이 축제를 빛내기 위해 참석

했다. 평화예술인 구리하라 고마키도 특별 초청 예술인 자격으로 방한했다.

300여 명의 국내외 공연단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라는 주제로 각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아울러, 국외 참가단은 공연예술축제 외에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에 참여하는 광주 지역 4개 학교를 방문해 지역 학생들과 교류하고 국내 산업시설도 둘러봤다.

동아시아 지역의 고유 문화와 전통 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열린 이 축제는 참가국들이 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엘리트들을 파견하면서 조화와 화합보다는 경연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2013년부터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에 함께한 조수미 (2004, 수원)

한국학 진흥을 위한 반세기

『Korea Journal』의 변천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학술 심포지엄 (2011)

『Korea Journal』은 창간 이후 단 한 차례의 결호도 없이 2014년 10월 현재 통권 452호가 발행됐으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기관, 국공립 도서관, 학술연구 단체 및 한국학 연구 학자들에게 꾸준히 배포되고 있다.

또, 창간부터 각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간부터 35년간은 편집자문위원회 제도를, 1996년부터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적인 학술

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우창(전 고려대 교수), 백낙청(전 서울대 교수), 양성철(전 주미대사), 한상진(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학자들이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마르티나 도이힐러 교수를 비롯해 마샬 필, 에드워드 와그너 등 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들이 편집에 참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는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1960~70년대, 한국이 아직 세계 무대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우리의 훌륭한 문학작품을 영어, 불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서정주, 김춘수 등 현대 시인의 작품도 번역하고 작가 해설도 곁들였으며, 옛날 고려가요와 단편소설도 번역해서 세계 무대에 내놓았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출판물이 바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해서 만들었던 『Korea Journal』이었다. 『Korea Journal』을 낸 것은 국제적 학술지를 하나쯤 갖고 싶었던 우리들의 열망이 뭉쳐진 결과물이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내 학술지 최초로 「예술 및 인문학 색인」 등재

『Korea Journal』은 전문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계간지로 전환했으며, 1998년부터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전통적인 한국학 연구에서 탈피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당대의 한국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그 결과, 2001년 미국의 학술평가기관인 과학정보기구(ISI, 현 Thomson Reuters)의 「예술 및 인문학 분야 색인(A&HCI)에 국내 학술지로서는 처음 등재됨으로써 국제적 학술지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과학정보기구(ISI)가 색인에 이름을 올릴 저널을 선정하는 과정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해당 분야나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술지의 내용을 평가하고 발행시기와 국제적인 편집 기준을 엄수하는지, 저널 내용이 기존 등록지와 차별성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 학자들이 인용했는지 등을 조사해 그 가운데 10~12%만 과학정보기구(ISI) 학술지로 선정한다.

『한국학 총서』 발간, 한국의 책 100권 중 하나에

2001년에는 『Korea Journal』 창간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 총서』(Anthology of Korean Studies)를 내놓았다. 『Korea Journal』에 실린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 6개 분야의 논문 중 155편을 엄선하여 2004년까지 총 6권을 발간했다.

이 총서는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고,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의 ‘2004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대상 도서로 선정됐다. 2005년에는 총서 제3권 『Korean Anthropology: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Flux』가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되는 영예를 누렸다. 『Korea Journal』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수록 논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웹사이트(www.ekoreajournal.net)를 통하여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Anthology of Korean Studies』



『Korea Journal』 창간 40주년 기념식 (2001)

창간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어, 코리아저널 상도 제정

『Korea Journal』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2011년 9월 22일 유네스코회관에서 '세계화 시대 국내 인문학 영문 학술지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4년 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코리아저널 상'을 제정했다. 제1회 코리아저널 상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Korea Journal』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정했는데, 인문학 분야에서는 연세대 국학연구원 최기숙 교수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 제1회 코리아저널 상 시상식 (2014)

미래 주역들의 향연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아리랑 청소년 캠프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UNU Global Seminar)

1973년, 유엔의 싱크탱크로 발족한 유엔대학은 평화,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증진을 위해 1985년부터 일본에서 대학생이 참가하는 ‘유엔 대학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로 빈곤 퇴치, 인간 안보, 평화, 갈등 해결,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등 범지구적 주제를 다루며, 동북아 지역 국가 대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4~5일 동안 전문가에게 강연을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동북아시아 대학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공동체 형성: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제1회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된 강의, 분반 토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동북아 공동의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는 2008년부터 유엔대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 세미나

(UNU-KNCU Global Semina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며, 2009년부터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 열린 글로벌 세미나의 주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2009)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한국 회의

2003년 동북아 공동체 형성: 도전과 기회 (연세대학교)

2004년 과학기술과 인간안보 (숙명대학교)

2005년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대학교)

2006년 세계화 시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제주대학교)

2007년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한동대학교)

2008년 Asian Culture in Globalization (유네스코평화센터)

2009년 Model UNESCO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네스코평화센터)

2010년 Climate Change: Social and Ethical Dimensions (유네스코평화센터)

2011년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교육 아젠다 (유네스코평화센터)

국제적인 대학생 학술대회로 자리매김

2004년 8월 열린 제2회 세미나 이후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국제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잇달아 열렸는데, 이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각국의 대학·대학원생 80여 명과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했다. 2007년에는 7월 3일부터 5일 동안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한동대학교(포항)에서 열렸다.



|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2007)

2009년 7월 6일 열린 제7회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에서는 11개국 76명의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7회 세미나는 참가 학생들이 주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 유네스코 총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해 토의

제9회 세미나는 ‘2011 유엔대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의 대학생 및 청년 교육 활동가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세미나 기간 동안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밤을 새워가며 결의안을 작성하고,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배웠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관계자는 세미나 참가자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향후 활동과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네스코 청년포럼의 아시아판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 이래 청년을 유네스코 활동의 주역이자 동반자로 인식해 청년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총회 개최 전에 열리는 유네스코 청년포럼(UNESCO Youth Forum)의 결과를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에게 전달해왔다.

2005년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는 세계 각국 청년들 간

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 지역 차원의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유네스코 본부는 지역별 청년포럼을 구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포럼을 개최하고자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UNESCO Asian Youth Forum)을 개최해 한국이 아시아 지역 청년 활동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은 2007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평화를 향한 문화 및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5일간 열린 토론을 벌인 이 포럼에는 25개국 70여 명의 아시아 지역 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제2차 포럼은 2008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아시아청소년기금(Asia Youth Fund)을 마련해 아시아 지역 청년 활동가들 간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아시아 청년포럼 (2007)

세계화 시대 대안적 삶,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의 미래 등 논의해

제3차 포럼은 2009년 7월 2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다. 아시아 22개국 정

부 기관과 시민 사회의 청년 활동가, 유네스코 본부 인사 등 70여 명이 참가해 ‘다시 그리
는 우리의 미래: 아시아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들을 모색하고 이를
보편적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010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이 열렸다.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창의성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
에는 아시아 26개국 청년 활동가와 관계자 등 70명이 참가했다.

제5차 포럼은 2011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 청년을 말하다 — 정체성, 외침,
변화,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20개국 46명의 청년·대학생과 관계자 등 모두 70여
명이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린 이 포럼에 참가했다.

아리랑 청소년 캠프,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를 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외국 청소년에게는 한국을, 국내 청소년에게는 자국의 문화
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타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아리랑 청소년 캠프(Arirang
Youth Camp)를 개최했다.



| 아리랑 청소년 캠프 (1998)

정선, 진도, 밀양 등 아리랑의 발원지를 비롯해 강화도와 전북 남원까지 매년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아리랑 청소년 캠프는 한국 전통문화 워크숍, 국제 문화 교류의 밤,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현장 학습, 세계청소년의 날 축제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 캠프는 6년 동안 16~24세의 세계 청소년 376명이 참가해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 친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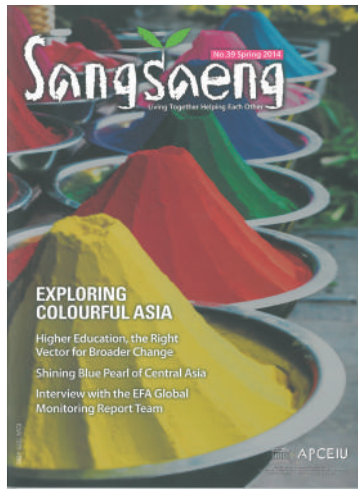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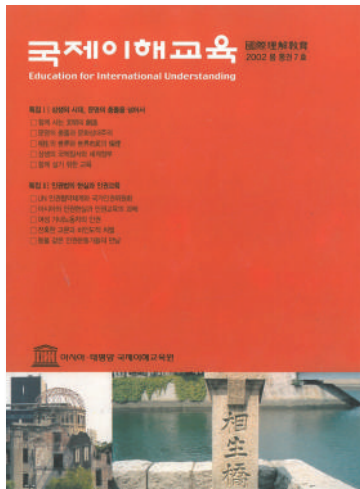
“문화적 다양함 나누자” ... 청소년 캠프 열기

청소년 국제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제5회 아리랑 청소년 캠프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전북 남원에서 2001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Let's Share Our Differences(문화적 다양함을 나누자)”라는 주제로 20개국에서 16세~24세의 외국 청소년 40명과 한국 청소년 45명이 5박6일의 일정으로 국제 문화 교류와 한국의 민요, 풍물, 민속공예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일보』 2001.8.6.

아시아 국제이해교육의 산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설립



| 「국제이해교육」과 「Sangsaeng」

“아시아 지역에서의 갈등과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8년 5월 유네스코 본부가 추천한 외국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2명이 한국에 국제이해교육 지역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난 후 내린 결론이었다.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간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서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국제이해교육 지역 센터를 유치하기에 가장 중립적이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 추진 기관으로 지정

국제사회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한 것은 냉전 체제 붕괴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민족과 종교 문제, 남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 간 이해와 교육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때마침 한국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국제이해교육 국내 센터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했다.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아태교육원은 1974년 열린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와 제44차 국제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 1994)가 권고하고 제28차 유네스코 총회(1995)가 채택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실천체계'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을 촉진하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협력기구(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이다.

지역 센터, 한국이 최적지

1997년 4월 한국 정부는 국제이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학이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혹은 기업 등과 협력해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센터와 국제 센터로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1997년 11월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수석대표는 국내 센터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발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1998년 5월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한국에 지역 센터 설립 여부를 엄정하게 실사해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 센터 유지 타당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적 상호 의존을 향한 역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센터를 세우는 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청년원 시설 개보수 후 개원

1999년 9월에는 아태지역 국제이해 및 평화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고 교사 교육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센터 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건물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청년원에 분반 토의실과 강의실, 실기 연습실, 자료실과 비즈니스 룸, 숙소와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춰 국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조직은 원장과 부원장을 비롯해 3개의 부서(연구개발팀, 연수기획팀, 정보서비스팀)로 구성했다. 설립 초기 대부분의 인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다. 센터의 주요 기구는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정해졌다.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2000)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협정 문안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실무 차원의 협상을 거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동의를 받아 6월에 정식으로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0년 5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를 창립하고 이론 연구 및 실천 사례 발표 모임을 개최했다.

초대 원장에 이삼열 교수

한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설립하는 형식을 취한 아태교육원의 개원식은 2000년 9월 20일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렸으며, 이어 창립총회가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원 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열렸다.

아태교육원의 실질적인 활동은 2000년 12월 6일 초대 원장으로 이삼열 숭실대 교수가 부임한 후 시작했다. 2001년 5월 열린 제1차 자문위원회는 교육원의 과제를 7개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24개의 사업 항목과 10년에 걸친 장기 발전 계획과 전망 등을 담아 교육원 과제와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아태교육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면서 유네스코회관

내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과 활동이 확대·발전되는 가운데 201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완전 분리된 교육부 산하 독립기관이 됐다. 앞서 아태교육원은 2010년 7월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서울 구로구의 독립청사로 이전했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개원식 (2000)

우리 곁에 다가온 과학

과학대중화, 과학교육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2004년 8월 20일자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의 첫 문장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는 분석이었다. 독일의 치텔 박사(재생가능에너지와 평화 회의 강연자)는 “특히 석유 소비 세계 2위의 중국, 3위의 일본, 그리고 석유 수입 세계 3위인 한국이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 안보 극복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으로 2004년 8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평화’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 베이징사무소 대표 등 외국 참가자 10여 명,

* Pyongyang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New Technology and Economy

국내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중동의 불안한 정세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인식한 참가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시아 지역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평화 지역회의 (2004)

과학문화의 증진

과학대중화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제9회 세계 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가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의 사전 회의로 2006년 5월 제주도에서 ‘자연재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07년 11월 16일부터 사흘간 유네스코가 주최한 ‘아태지역 과학대중화 포럼’이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후원으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아태지역 17개국의 과학관 대표 등 모두 32명이 참가해 ‘지식사회에서 과학문화의 역할 증대’를 주제로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나눴다. 포럼에서는 아태지역의 과학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의 토대로서 당시 포럼 참가자들을 발기인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과학문화포럼’을 설립해 초대 회장에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출했다. 과학문화포럼은 과학관뿐만 아니라 각국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다양하게 전개하는 과학문화 활동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여러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지향했다. 상설 사무국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두기로 했다.



| 자연재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 (2006)



| 아태지역 과학대중화 포럼 (2007)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

과학관과 과학센터는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도 학교 밖 과학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학관 및 과학센터를 통한 과학대중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네스코 과학대중화 심포지엄’을 2013년 11월 14일과 15일 이틀 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기초발표를 맡은 프랑스 국립과학관의 카롤린 튀레 대외협력 담당관을 비롯해 국내외 과학관과 과학센터 인사와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UNESCO 과학대중화 국제심포지엄 (2013)

“유네스코(UNESCO)의 명칭에는 교육(E)과 과학(S) 그리고 문화(C)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를 통해 인류 공통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희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 다. 과학관은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과학의 문화를 대중과 소통하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을 주는 곳으로서, 아마도 유네스코의 창설 정신에 가장 근접한 장소일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학관 건립 움직임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의 보다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와 국립과천과학관이 공동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일 것이다.”

〈송진웅 서울대 교수 「유네스코뉴스」 2013.12월호〉

개도국 과학교육 발전을 돕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및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아태지역 과학교육과 공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2005)를 개최한 데 이어 2009년부터 개도국의 과학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어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09년 9월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과학기술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교육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에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11개국 대표 14명과 유네스코 자카르타사무소 대표 2명, 한국 전문가 7명이 참가했다. 포럼에서는 아태지역 각국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업 방식 및 교육자료 개발이나 이러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 포럼에서는 과학기술교육 교사 훈련을 위한 지역 간 협력 사업을 한국이 주도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참가자들은 과학기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 훈련을 꼽았고, 이를 위해 교사 양성과 초·중등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후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교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 나라를 선정해 해당국의 과학교육과 교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학교육 기반이 취약한 동티모르를 선정해 2011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과학과 수학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실제 학교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 방식을 훈련했다. 2011년과 2014년에는 관련 실험 기자재를 보내 학생들이 직접 과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 아태과학기술교육포럼 (2009)



기후변화,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 주최한 제1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이 2009년 6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후변화 문제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행사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윤리’라는 낯선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기후변화가 왜 윤리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기후변화 윤리의 선두 주자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도널드 브라운 교수는 이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인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난한 나라들”이라는 점이 기후변화를 윤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제1차 포럼에서 기후변화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큰 관심을 확인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 11월 19일 제2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1차 포럼의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제2차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시장주의와 과학주의’를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주의적·과학주의적 접근과 이에 내재한 윤리적 쟁점들을 논의했다.



제1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도널드 브라운 교수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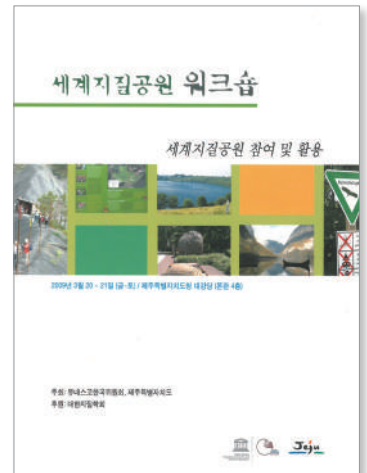
2010년 9월 17일 열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포럼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기후변화를 경제적·기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10년 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에너지·기후변화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두 기관은 대학생들을 기후변화 역량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사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40명을 선발해 이들이 기후변화 워크숍,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

유네스코 정부간 과학사업

유네스코는 지구상의 자연 자원은 궁극적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고 자연과학 분야 중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과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60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71년 인간과생물권계획(MAB), 1972년 국제지질학대비계획(IGCP: 2003년 10월부터 국제지구과학 프로그램으로 변경), 1975년 정부간수문학계획(IHP)*이 각각 설립된 것은 유네스코의 이와 같은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세계지질공원 워크숍 자료집 (2009)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 참여

유네스코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해양과학 연구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11차 총회(1960)에서 정부간해양학위원회를 유네스코 정부간 사업의 하나로 설립했다.

*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유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 기구로서 전 지구적 해양 연구를 지원하고, 개별 국가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양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0년 유네스코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됐다. 147개 회원국이 유네스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학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해양과학 분야 정부 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해양학위원회(KOC)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인 1965년부터 1971년까지 북·서태평양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그 지류인 쓰시마 해류를 조사하는 국제 쿠로시오 조사 사업에 참여해 한국 해양학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2011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상경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변상경 박사는 2013년 연임에 성공해 총 4년간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특히 운용해양학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 에세이의 경우, 고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일반부는 국토해양수산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수상식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청년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변상경 신임 의장(오른쪽)과 하비에르 전임 의장(가운데)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물, 지구과학 분야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유네스코는 물과학과 지구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수문학계획,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수문학계획은 수문 및 수자원에 관한 협력 사업으로, 전 세계 물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제수문학계획한국위원회를 설치해 국내 수문학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 협력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와 세계지질학연맹(IUGS)**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은 지구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질학 문제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장이다.

30년 가까이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사무국 맡아

인간과생물권계획은 일찍이 1971년 유네스코 총회가 설립을 결의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을 비롯해 도시 생태계, 사막화 등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 훈련, 교류 활동 등이 있다.

1982년 설악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년 후인 2002년에는 제주도가 지정됐다. 2009년 신안 다도해, 2010년 광릉숲에 이어 2013년에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돼 국내에는 모두 5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반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2014년에 칠보산이 지정돼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에 이어 모두 4곳을 보유하게 됐다.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기념행사 (2010)

*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교부 기념식 (2013)

1995년에는 보전, 발전, 지원이라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과 이 기능 실행을 위한 핵심, 완충, 전이 지역의 3가지 용도구역을 확정한 세비야 전략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는 이 전략의 실행을 위해

1995년 이전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은 용도구역을 제대로 갖추도록 권고하는 출구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설악산이 여기에 해당돼 현재 1%에 불과한 전이지역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실행 중이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간 협력 증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정부간 과학사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내 포럼을 개최해왔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국제수문학계획, 인간과생물권계획 등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관련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각 사업의 취지와 활동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협력 포럼 (2013)

제3차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위원회 워크숍

2007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워크숍이 2007년 11월 12~13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렸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인간과 생물권계획·해양학·수문학·지구과학 등 유네스코 과학 분야 사업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유네스코뉴스』 2007.11월호

세계지질공원제도 도입에 노력

지질유산 및 지질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지질공원제도는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질 자원 보전과 활용을 도모하는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세계지질공원 워크숍을 2009년 3월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민·관·학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의 특성, 활용 방안, 가입 절차 등을 소개하고, 지질공원 관련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한 최초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후 2010년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환경부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항목을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위원회는 자문과 지원 역할을 맡았다. 특히, 제주도 인증 시에 예비 실사부터 현장 실사까지 적극 협력하여 인증을 도왔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정규 사업화가 논의 중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협력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지질공원 제도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빌딩숲 속 또다른 숲

생태공원 '작은누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생태계가 있었습니까?”

명동 유네스코회관의 옥상에 새로 들어선 생태공원 '작은누리'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어찌 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유네스코 이념과 가장 부합되는 현장이다. 생태공원의 이름(작은누리)은 작은 생태계, 혹은 작은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02년 시작된 서울시 옥상 녹화 지원 사업에 동참해 2003년 봄(4월 1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2층 옥상에 조성한 190평가량의 생태공원은 개장 초부터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설계와 시공은 에코텍 엔지



니어링이 많았고 서울대 조경학과 생태환경계획연구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생태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을 도입해 습지가 있는 핵심지역은 야생의 생태계(야생 덩불숲)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조성했으며 완충지역은 토종 야생식물 동산(풀꽃 동산)과 교육 및 휴게시설, 전이지역은 텃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서울 녹지축 한가운데 있어 ‘생태 디딤돌’로 기능

회색 빌딩 숲, 잿빛 하늘이 늘 무겁게 가라앉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명동 한복판 유네스코회관 건물 옥상이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190여 평 규모의 이 공원은 서울시의 옥상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지만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풀이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만드는 기존 사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의 생태계를 구현했다. 이름도 소생태지를 뜻하는 ‘작은누리’로 지었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옥상공원은 북한산과 용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 명동성당과 중국대사관으로 이어지는 동서 녹지축 가운데 있어서 생태 디딤돌(Stepping Stone)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 디딤돌을 통해 생물들이 이동하면서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2003.4.1.

서울 도심의 생태 디딤돌

작은누리가 문을 연 뒤, 남산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았다. 도시 환경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됐으며, 도시 생태 복원, 열섬화 방지 등 생태적 효과가 주목받아 EBS의 교육프로그램인 「하나뿐인 지구」에도 방영됐다. 공원에는 조성 당시 120여 종의 식물을 식재했는데 1년 후 생태 조사 결과 200여 종의 식물이 발견됐고, 곤충을 비롯한 동물종도 50여 종이 발견되어 남산 등 인근 생태계로 연결되는 생태 디딤돌로서의 가치가 확인됐다.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와 메뚜기, 나비, 물달팽이 등을 도심 옥상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2004년 습지에 알을 방사한 도롱뇽은 그 뒤 10년이 넘도록 서식하고 있다.

작은누리 생태공원은 2013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조성 초기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

고 방문자도 많아 유네스코회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공헌했으나 관리와 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근로가 불편했고 휴게시설이 부족했으며 관리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주년을 준비하는 사업의 하나로 유네스코회관 명소화가 추진됐고 그 중심 사업으로 생태공원 작은누리를 되살리는 일에 착수했다. 11층 베란다를 통해 작은누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계단과 베란다 정원이 추가로 조성됐고 방수 문제로 철거됐던 공간이 텃밭과 전통 정원으로 다시 꾸며졌다.

생태공원의 핵심지역은 개장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야생식물들이 어우러진 덤불숲으로 변해 실제의 자연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공원 이용자들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조성했고 공원과 연결된 실내 공간

일부를 비워 카페를 조성했다. '배롱나무 카페'로 이름이 붙은 이 카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유네스코회관 건립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자 유네스코 이념을 보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작은누리 위 옥탑 공간을 활용해 도시 양봉을 시작했다. 양봉은 생태공원 자체뿐만 아니라 남산 등 인근 지역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태공원과 부대시설 재단장을 완료한 후인 2014년 6월 27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를 열었다.



작은누리 개원식 (2003)



작은누리 무궁화 심기 행사 (2014)



작은누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행사 (2014)

명동의 라퓨타, 유네스코 옥상 정원 작은누리

작은누리는 명동 변화기의 가장 큰 도로변에 있다. 명동의 서쪽 롯데백화점 방면 입구에서 100미터쯤 들어온다. 12층 유네스코 건물 옥상이다. 세상을 뜻하는 우리 말 ‘누리’처럼 그곳에 작은 세상이 있다. 명동이 간직한 소박한 판타지다. 명동의 심장에 별처럼 떠 있는 녹색의 땅이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하늘 섬 라퓨타다. 가로수가 아니라 화초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땅이다.

2003년 4월에 조성되었지만 아직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느 옥상정원과 달리 열린 공간이다. 쇼핑을 즐기다 쉬어 가기에 제격이다. 스타벅스나 커피빈만 못할 이유가 없다. 풀이나 꽃의 향기는 때로 커피향보다 질다.

작은누리는 유네스코 옥상의 옥탑을 둘러싼 3면에 조성되었다. 앞서 말했듯 작은 세상을 뜻한다. 생태계의 순환이나 자생 능력은 작은 공간에서도 경이롭다. 그래서 작은 생태계를 담은 옥상은 작은 세상이다. 작은누리에 사람의 간섭은 거의 없다. 흙을 깔고 습지를 만들고 사람이 지날 좁은 길 내는 정도의 양해를 구했을 따름이다. 그 터 위에서 생태계의 구성원은 저들끼리 간섭하고 저들끼리 화합한다.

(박상준 『서울 이런 곳 와보셨나요? 당신이 몰랐던 서울의 기불만한 곳 100』, 2008)

교육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독일 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대회 (2009)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과연 가능한가?

세대 간 형평성, 양성평등, 사회적 관용, 문화다양성, 빈곤 퇴치, 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

육은 과연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57차 유엔 총회(2002.12)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을 제정하고 유네스코를 선도 기관으로 지정했다.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은 새천년개발목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유엔문해10년(UNLD)**등 교육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교육 통해 한국 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의 뿌리내린다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활발하게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과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법적·정책적 기반이 끊임 없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거점 역할을 충실하고 일관되게 담당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 진행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설치
- ② 지속가능발전교육 콜로кви엄 시리즈 개최
- ③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실시
- ④ 유네스코학교 운영
- 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진행
- ⑥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실시
- ⑦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개최
- ⑧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 및 출판
- ⑨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연수 실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과 확산에 기

*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 Literacy Decade

여한 바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이자 기반인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둘째, 교사와 학교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를 최초로 개발·실시해 전국 단위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 연수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 콜로кви엄 시리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네트워크를 구축·확장했다.

넷째,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했다.

다섯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형식 면에서 다양화하고 내용 면에서 심화시켰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콜로кви엄 시리즈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 워크숍 (20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6년에 동아시아 유네스코학교 교사워크숍, 2007년에 한국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 지침서와 종합 자료집을 발간했다. 2008년 9월 20일에는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워크숍을 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국내 여러 기관·단체·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 콜로кви엄 시리즈를 진행했다. 콜로кви엄

시리즈는 점점 다변화하는 국내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교육적 맥락에서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국내 분야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례 발굴에 중점을 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 현황을 평가·보고하기 위해 학계 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는 새로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및 사업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외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관련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발행하고 있다. 콜로кви엄 시리즈, 인증 프로젝트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의 결과 자료 이외에도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지침서나 수업 및 교원 연수 모듈 등도 있다.

ESD한국위원회 출범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제적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부처가 없었고, 대중들 사이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폭넓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 6월 18일 제58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ESD위원회)의 설립을 확정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 이행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는 일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SD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15인을 위촉하게 됨에 따라 한국도 간접적이거나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담당 기구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정부의 관련 부처, 교육 연구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은 정책적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촉진자로서 국내외 지식 자원과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일종의 기관 간 협업 체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ESD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 △정부 부처, 기관 및 학자 간 협력 제고, △연구·교육 훈련 및 인식 향상 사업 촉진, △민간 참여 및 국제교류 사업 증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국내 이행 촉진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한국 대표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발굴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11년에 시작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ESD 기제를 활용함으로써 손쉽게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인증받은 공식프로젝트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로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도 목표 중의 하나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사업, 행사, 축제 등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단체가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ESD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확산에 모범이 되거나 잠재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인정되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최종 인증을 받는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 프로젝트 한마당 (2013)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예술교육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의 첫 여성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년 5월)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했다. 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은 물론,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예술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과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손꼽힌다.



|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사진설명회 (2009)

예술교육 세계대회 한국 유치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5년 11월 23일부터 사흘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제1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06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유네스코 아태지역 45개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리스본 세계대회에 제출할 아태지역 권고안을 마련하고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보다 앞서 2005년 10월에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교육 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에서 차기 대회(2010)를 유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채택한 권고안에도 한국의 유치 의사가 반영됐다.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2006년 3월 6일 세계 80개국의 예술교육 관련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르투갈 리스본의 벨레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렸다. 이어 제34차 유네스코 총회는 2007년 10월 차기 대회 개최지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예술교육은 문화다양성 위해 꼭 필요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대회의 유럽 지역 준비모임 성격을 띤
유럽 지역 예술교육 전문가 심포지엄이
2008년 5월 27일부터 사흘간 독일 빌트
바트 크로이트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
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 사무
총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심포
지엄 기간 중 제2차 세계대회에서 좀 더
깊이 다뤄야 할 개념과 주제들을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09년 5월 5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
회'를 위한 제3차 실무조정회의가 열렸
다. 서울 대회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
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
질적 이행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로 세
계인의 주목을 받게 됐다. 2009년 12월

에는 2차 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과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
문이 조직위원장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정
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등 20여 명이 조직위원에 선임됐다.

2010년 1월 18일 조직위원회는 서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
고 국내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엑스에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령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등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국내외 협회와 학회 대표, 공공·민간 문화 재단 대표 등 전문가 150
여 명이 참석한 이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21세기 창의 사회 구현을 위한 예술교육의 기여와
역할, 한국 대회의 의의 등에 대한 연설과 토론이 있었다.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 역사의 한 획, 서울 아젠다 채택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2010년 5월 25일 오전 9시 나홀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새로운 사회 통합 모색을 목적으로 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역대 유네스코 문화예술 분야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유네스코 본부 주요 인사와 15개국 문화부 및 교육부 장·차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 110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해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교육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개막 행사에 4D 홀로그램 기술 선보여

“개막 행사에서는 황병기 가야금 연주자,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 안숙선 판소리 명창, 국수호 안무가, 김덕수 사물놀이 연주가 등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거장들이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4D 디지로그 아트 공연 ‘유네스코 서울 무지개-2010 색깔의 꽃과 새 그리고 물고기를 위하여’가 펼쳐졌다. 디지털과 공간의 가상현실과 현실의 아날로그 공간을 이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멋진 공연과 함께 별도 안경 없이도 사물을 현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대에 재현하는 4D 홀로그램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뉴스레터 2010.5〉



| 제2차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 (2010)

서울 대회에서는 사흘 동안 ‘실천’, ‘설득과 지지’, ‘역량 개발’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전체 회의와 25개 워크숍이 열렸다.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 연도를 의미하는 2010개의 티셔츠를 활용한 ‘기슴과 기슴을 이어주는 T셔츠 네트워크’ 행사가 마련돼 경매 수익금 전액을 결핵으로 고통받는 아이티 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회장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정책과 사례 전시, 한국 문화예술 체험 전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상물 상영, 노르웨이의 화상 미술 퍼포먼스, 세계 청소년 미술 전시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폐막식에서는 제1차 대회(2006)에서 채택한 예술교육 로드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 아젠다」를 채택했다. 「서울 아젠다」는 예술교육을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10개 목표 및 세부 전략을 담았는데, 향후 각국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지표이자 각국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실천 전략으로서 전 세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모두 배포하기로 했다.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한국이 제안

한국이 제안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관련 의제가 2011년 11월 4일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됐다. 그에 따라 해마다 5월 넷째 주는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정해졌다.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총회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을 선포한 데 대해 “유네스코 총회가 기념일이 아닌 기념주간을 선포하는 것은 최초이며, 한국이 유네스코 가입 이래 유네스코 기념주간을 제안해 채택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한국 문화 외교 활동의 큰 성과로 평가했다. 독일,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32개국 이상의 지지 발언에 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은 5월 넷째 주에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문화예술교육 관련 행사들을 개최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게 됐다.

변화에 발맞추는 인문학

세계인문학포럼

“대한민국이 휴대폰이나 자동차, 선박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인문학의 나라’임을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2011)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2011년 11월 24~26일,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은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적 행사야말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세계인문학포럼의 의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인문학포럼(World Humanities Forum)은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려는 유네스코가 함께 마련한 학문적·실천적 논의의 장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1회 포럼 「부산 선언」 채택, 2회는 ‘치유의 인문학’ 다뤄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은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 in a Multicultural World)를 주제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글로벌 시대의 다중 정체성, 문명 갈등의 양상과 전망, 지구 윤리와 문화 소통의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한국어, 영어, 불어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인문학자와 연구원, 작가, 활동가 3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치철학자인 프레드 달마이어 노트르담대 명예교수, 프랑스 소설가 장 마리 구스타프 르 클레지오가 기조강연을 하고, 국내외 인문학자 60명이 발표·토론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인문학포럼의 향후 방향, 인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세계인문학포럼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2012)

한국은 2011년에 이어 제2회 포럼도 부산에서 개최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주제는 ‘치유의 인문학’으로서, 인문학이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인문학의 어떤 측면 또는 특성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인문학의 치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 사례는 무엇이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포럼 기간 내내 인문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인문학 진흥 정책과 실천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 중심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인문학포럼은 논의된 내용과 효과 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분야 성찰 통한 국제 원칙 제시

유네스코는 과학기술윤리, 특히 생명윤리에 관한 성찰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 의제를 주도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등을 통해 규범을 제정하고, 정부정책에 자문하며, 전문가와 정부 간 대화를 촉진했다. 유네스코는 「인간계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2003)에 이어 2005년 총회에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 선언」을 채택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활동에 한국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를 통해 제정된 윤리 원칙의 국내외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

철학과 인문학은 하나의 학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적 활동이다.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철학적 성찰과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을 ‘세계 철학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펼쳐 철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였다. 또, 2007년 결성한 유네스코 여성 철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여성 철학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인권과 평화의 증진에 노력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유네스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연구 신장, 인권 교육 진흥, 인권 문화 함양 등을 추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8년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빌바오 상’을 제정해 2년마다 세계의 인권 문화 창출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고, 2004년에는 인종차별반대도시연합(ICCAR)*을 결성해 지방정부들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자료 출판, 전문가 회의,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인권·평화의 보호와 증진에 힘쓰고 있다. 2000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인권조약집』을 기획·출판했으며, 2006년에는 국제 이주민 인권 신장 지역 회의를 주관했다.

* 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한국, 유네스코의 주역이 되다

옵서버에서 주요 활동국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 한국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할 정도로 든든한 재력과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다. 재임에 성공한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키우고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데도 그 같은 역량이 뒷받침됐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유네스코에서 13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됐고, 여러 차례 집행이사국을 맡는 등 국가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들어, 정부가 교육,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늘리고 있는 추세 또한 한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국제 협력과 교류 활동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설립 초창기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제 협력 활동은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초기, 국제 협력과 교류 활동이 제한적이고 미약하던 시절에 한국은 유네스코로부터 일방적인 원조를 받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또한 '수혜자'의 위치에서 점차 '시혜자'로 그 위상이 바뀌었고, 그 결과 유네스코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폭도 확대됐다.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유네스코 활동을 주도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성장했고, 이에 발맞추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제 협력과 교류 활동 또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됐다.

유네스코 본부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력 활동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제 협력과 교류 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무엇보다 유네스코 본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이바지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은 초창기 3~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오늘날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위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 40명 규모의 정부 대표단이 참가해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과 예산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83년 제2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부간위원회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위원국으로 선출됐고, 1985년 제23차 총회에서는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IPDC)**과 정부간정보화사업(IIP) 등 2개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진출했다. 이처럼 한국이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에 피선됨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국제 활동에 활발하게 관여했다.

아울러 한국은 1983년 2월 14일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과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을 시작으로 수많은 유네스코 관련 협약에 가입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진출에 결정적 기여

1980년대 들어서 이처럼 강화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은 1987년 제2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집행이사국의 국가위원회로서 그 활동 영역을 한층 넓혀나갔으며, 이는 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6회 선출(1987~2003년 4회 연속, 2007~15년 2회 연속)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8년부터 매년 집행이사회 회의에 소속 직원을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해 유네스코 사업과 예산 수립을 포함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 정부간 사업의 위원국으로의 진출을 계속 확대했다. 2013년 제36차 총회에서는 국제교육국(IBE) 이사회,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BC),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의 위원국으로 각각 선출돼 해당 분야 사업이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또한 이에 발맞추어 국내 유관 기관 및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이 진출한 유네스코 정부간 기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1~15)

인간과생물권사업(MAB) 국제조정이사회 (2012~15)

국제교육국(IBE) 이사회 (2012~15)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GBC) 위원국 (2012~15)

불법소유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CPRCP) 위원국 (2013~17)

국제수문학사업(IFP) 정부간위원회 (2013~17)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2013~17)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 등에 한국인 진출

한편,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 주프랑스대사관에 통합 운영되었던 유네스코 상주 대한민국 대표부는 1987년 독립 상주 대표부로 출범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프랑스대사관에 통합됐다가 2009년 다시 복원되어 현재 활발한 대 유네스코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집행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1994년 김여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본부의 국장직인 철학윤리국장에 임용됐다. 이어 2003년에는 함재봉 연세대 교수가 사회과학연구정책국장에 임용됐고, 2009년에는 김광조 박사가 아태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에 임용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현재 한국인 10명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황대준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교육정보기술연구소(ITE)*의 집행이사(2009~13)에 임명됐다. 이어 2011년 4월에는 ‘국경 없는 교육기회’ 공동대표인 성경희 박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집행이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평생교육과 성인교육, 문해교육, 아프리카 교육을 연구하는 유네스코 직속 기구이다.

2011년 6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변상경 박사가 유엔 산하 유일의 해양과학 전담 정부간 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에 선출됐다. 변상경 박사는 2013년 연임에 성공했다.



김광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

*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2년에는 연세대 손명세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으로 임명됐다. IBC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국에서는 이세영 전 고려대 교수(1996~98)와 박은정 서울대 교수(2000~03), 맹광호 가톨릭대 교수(2006~09)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개혁과 운영에 필요한 의견 적극 개진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자문회의 (2010)

유네스코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향후 도전 과제를 알아보고, 유엔 체제 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비전을 찾기 위해 1999년 제15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21세기 유네스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권태준 사무총장은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참여

해 다양한 정부간·비정부간 회의에서 내실 있고 지적인 담론 강화 필요성,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국가위원회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주도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가 유네스코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해 2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하는 국가위원회 자문회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10년에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경남 창원에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자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화, 평화의 문화, 상호 이해와 존중, 인권 등 기본적 원칙 및 가치에 기반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자 한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표는 같은 해 5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교육대회에 성과인 「서울 아젠다」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회원국과 유네스코의 관심을 촉구해 참가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한국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업

과 무형문화유산 사업에 있어 유산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구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해당국 간의 공동 보호 및 등재 장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수립된 의견들은 「유네스코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총회 채택 보고서」로 만들어져 유네스코 본부의 2012~13년도 사업 및 운영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한국이 제안하면 주요 의제가 된다

2012년 제18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내부감사실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의 주요 수행 주체인 유네스코 사무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주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부 등 3자 대표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결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효과적 3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자 실무 그룹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4개 영역 14개 권고로 구성된 실행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2013년 4월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회의와 관련,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행 계획 초안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민동석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수차례의 발언과 권고문안 수정 제안을 통해 실행 계획 채택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와 그 헌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제1권고를 비롯해 국가위원회의 후원 개발 노력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제5권고, 유네스코 총회 및 집행이사회 기간 중 국가위원회 상호 간의 정보 및 경험 교류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회의를 강조한 제8권고, 다양한 국가위원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한 제13권고의 경우, 한국 대표단이 제안한 수정안들이 모두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도국 국가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개도국 유네스코 국



국가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국가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가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했다. 2011년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2012년 라오스, 솔로몬제도, 키르기스스탄, 2013년 부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진행한 이 사업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국가위원회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3~4개 국가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위원회의 사업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개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 내용과 예산 규모에 따라 해당 국가위원회에 사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다.

작은 섬나라 국가위원회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개도국 국가위원회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개도국 국가위원회의 웹사이트 제작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정보통신 환경이 가장 열악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나우루,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피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각국의 IT 환경과 필요를 고려한 웹사이트 템플릿 개발과 이를 활용할 관리자 대상 훈련 워크숍 등 2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해당 국가위원회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사업 성과 외에도 해당 국가위원회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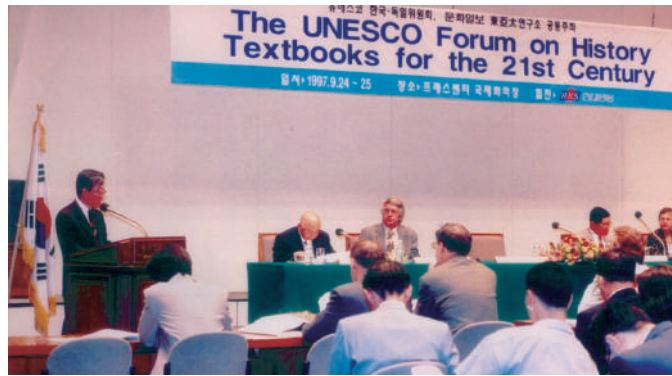
역사에게 평화를 주다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과 청년포럼

‘피스메이커(peacemaker)’ 한국, 동아시아 역사화해의 중재자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역사 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독도·북방 4개 섬·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간도 등의 영토 문제, 동해 표기 등의 바다 명칭 문제,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징용·징병·일본 위안부 등의 강제 동원 문제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다자 간 협의 채널을 통해 마무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두고 중층적으로 쌓여 왔다.

이제 정부와 민간에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징을 살리면서도 상호보완적이고 병렬적인 ‘동아시아형 역사교과서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활약한다면 지역의 중재자로서 피해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판단이다.



| 21세기 역사교과서 포럼 (1997)

『유네스코뉴스』 2008.10월호



제1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2007)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20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 나라 사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갈등에 주목해 유네스코의 이념을 토대로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7년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국제포럼’을 개최한 이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대방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신과 오해를 줄이고자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

회는 역사화해가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도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7년 10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1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법을 탐색하고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포럼을 진행했다.

일찌감치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 대화를 다층화하고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역사화해 노력의 성과들을 학교 역사교육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학교 역사교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대화 노력을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역사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2008년 9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기억의 공유와 다원적 보편성’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과 한국 학자 10명이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공동역사교과서 및 지역사를 통한 기억의 공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유럽의 역사공동교과서 편찬 경험과 그 활용 실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통한 기억의 공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대화로 넓히는 역사화해의 지평

제3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은 역사화해의 지평을 동남아시아, 특히 현대사에 서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베트남으로 넓혀 ‘역사교육을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이해 증진’을 주제로 열렸다. 2009년 8월 27~2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와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 학계와 시민사회가 상대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했다.

유네스코베트남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의 공동 주최로 제4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은 2010년 8월 6~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전쟁과 식민지 역사에 집중된 기존 논의를 넘어 공동의 문화와 역사 유산을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동아시아 역사를 갈등의 역사가 아닌 협력과 교류의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공동 교재 편찬, 청소년 교류 등을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1년 8월 5일부터 이틀간 태국에서 개최된 제5회 포럼(주제: 동아시아 공동체의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화해)에서 참가자들은 갈등과 가해-피해 구분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논의를 넘어 공동의 미래 비전을 발전시키는 지식 공동체를 지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학술 및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제3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2009)



제4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2010)

이처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역사화해 전문가 국제포럼을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고, 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역사화해는 전문가나 정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청년의 역할과 활동에 초점을 둔 국제포럼을 새롭게 개최했다.

청년이 말하는 역사화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12년 8월 20~24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경을 넘는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주제로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을 연 것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포럼에는 한·중·일 포함, 16개국에서 18~30세 국내외 청년 60여 명이 참가했고 공개 강연, 분과 및 전체 회의, 현장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 청년포럼은 청년들의 주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인식과 교육 현황을 돌이켜보고 그 실제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변화를 위한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1회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2012)

“아이 엠 소리...: 지난 잘못에 대해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괜찮다. 네가 미안해할 것 없다.”

23일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로 모진 청춘을 보낸 할머니 8명이 사는 이곳에 일본인 대학생 4명과 한국·중국·팔레스타인·독일 등 16개국 청년 60여 명이 방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 참석자들이다. 할머니는 당부했다.

“부디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아요.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어? 교과서가 문제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줘.”

역사관 곳곳에는 악몽 같은 과거가 흑백사진으로, 관련 자료들로, 할머니들의 기억화로 재현돼 있었다. 안도 게이토(20, 와세다대) 학생은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일본 국민 대다수는 잘 모른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포럼 팀은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이틀에 걸쳐 토론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독일에서 온 리나 요한나 엑스너(19)양이 조언했다.

“논쟁 중인 역사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시각이다. 독일에서는 ‘안네의 일기’를 학생들이 공연하면서 직접 안네가 되어보는 식으로 피해자 입장을 체득한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뉴스』 2008.10월호

제2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은 2013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청년이 만드는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 참가자 70명, 전문가 및 활동가 10명, 일반 청중 및 관계자 50명 등 총 130명이 참가한 포럼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가로막는 요인과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청년의 실천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3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은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16개국 청년 대학생 51명이 모여 역사화해에 대한

강의와 현장학습, 그리고 토론과 해법 찾기의 시간을 가졌다. 이 포럼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쟁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역사 서술에서 자국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짚어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 간

역사 갈등을 부채질하는 과도한 민족주의 문제를 주목하고, 민족주의 중심의 '갈등의 역사'에서 동아시아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공동의 역사'로 역사 인식을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청년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제2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청년포럼 (2013)



제3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2014)

북한과 국제사회에 내민 교육의 손길

교육기금사업과 북한교과서 발간 지원

“이번 유네스코 회의는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회원국들이 한국의 교육 개혁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고 저개발국가의 교육발전 사업기금으로 1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 마이클 잭슨 자선 공연 기자회견 (1999)

아시아·태평양 교육발전 신탁기금

1982년에 시작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 교육혁신사업(APEID)



| 캄보디아 역사교과서 편찬 사업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1997)

지원이 1996년 종결되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1997년 아태지역 저개발국 교육발전 신탁기금 사업을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1997년에는 캄보디아 역사 교과서 편찬 사업에 1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베트남 유네스코학교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에 1만2천 달러, 몽골에서 열린 한·몽골 국제청소년포럼 개최를 위해 1만2천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협력해 2000년 8월 서울 및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개최와 아태지역 교사들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연수자료 개발에 4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1년 7월에는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APCEIU 주관으로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렸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협력해 2000년 8월 서울 및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개최와 아태지역 교사들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연수자료 개발에 4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1년 7월에는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APCEIU 주관으로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렸다.

삼성·유네스코 교육기금 조성, 마이클 잭슨 공연 수익금이 종잣돈

1999년 6월 25일 한국에서 유네스코와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후원으로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마이클 잭슨 자선공연이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공연 수익금과 국민 모금으로 자선기금 4억 원을 마련한 뒤 삼성전자에 공동 프로젝트를 제의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6억 원을 기부하면서 10억 원 규모의 삼성·유네스코 교육기금을 조성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삼성전자는 유네스코 본부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5년간 이 기금을 국내외 불우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에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4월에 시작한 베트남과 국내 유아교육 관련 지도자 및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매뉴얼 제작을 위해 유네스코 신탁기금으로 1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01년부터는 국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캄보디아, 콩고, 코스타리카, 인디아, 케냐, 리투아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르완다, 잠비아 등 11개국의 불우 아동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 삼성-유네스코 교육기금 전달 (2000)

1950년대 유네스코가 지원한 인쇄기로 찍어낸 교과서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간 이들은 아직도 교과서 뒷장에 찍힌 유네스코 로고를 기억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를 통해 지난 수년간 북한에 인쇄기와 교과서 인쇄 용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만큼 베푸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뉴스』 2010.3월호

교과서 발간 지원

2002년에는 삼성·유네스코기금에서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으로 기탁한 10만 달러로 구입한 인쇄용지 1백만 톤과 한국제지(주)가 기증한 1백만 톤을 합해 총 2백만 톤을 북한 영어 교과서 인쇄를 위해 지원했다. 이 용지는 북한에서 영어 교과서 130만 권으로 제작돼 9월 1일 개학 때 북한 전역의 중등학생 240만 명에게 배포됐다. 이 영어 교과서에는 영어로 ‘유네스코 신탁기금 기증’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유네스코를 통해 북측 외무성 산하 조선 유네스코민족위원회(이하 유네스코북한위) 앞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한국이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 인쇄 용지를 지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북한에 기증된 교과서 윤전기 (20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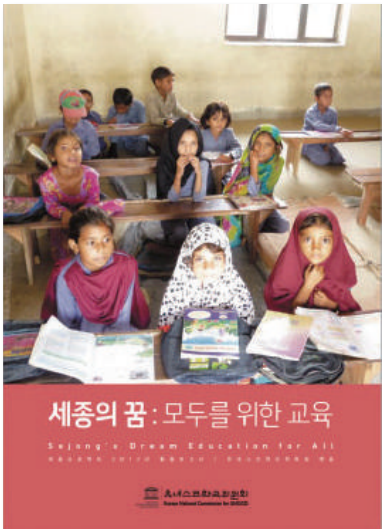
북한은 2000년 초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교과서 인쇄기와 인쇄 용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에 이 사업의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국 정부도 유네스코를 통한 북한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북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1차 지원(2002)에 이어 2차 사업(2005~06)으로 중고 8색 운전 인쇄기를 지원(대한교과서주식회사)했으며, 이어서 교과서 인쇄용지 및 인쇄기 부품을 제공한 3차 사업(2007)과 4차 사업(2008), 5차 사업(2009)으로 이어졌다.



북한교과서 인쇄용지 지원사업 (2009)

‘세종의 꿈’ 전하는 세종프로젝트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을 앞두고 개도국의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자 세종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을 창제해 보급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본받아 시작한 세종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이 미진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네트워크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문해교육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2년에는 현지 협력기관들과 함께 동티모르,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2013년에는 네팔, 라오스,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세종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2014년에는 네팔과 파키스탄을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를 신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해율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프로젝트는 2014년까지 지원 대상국 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기관 등 총 10개의 문해교육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현지 사업을 지원했다. 현지 사업은 주로 마을에 세운 지역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문해강사를 모집·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마을 여성들과 청소년의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활동보고서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세종의 꿈: 이는 게 힘이다』를 각각 펴냈다. 이 보고서들은 아시아 각국의 교육 현황과 세종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진화

유네스코는 급속도로 증대하는 기후변화 위협에 주목해 2009년 기후변화 전략과 기후변화 구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1년부터 3년간 유엔개발계획(UNDP)과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교육 지원 및 확산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RICE Project)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구성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주목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6개 개도국(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굴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총 30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과 함께 현장교육용 교재를 영어 및 현지어 버전으로 제공했다. 개별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삼림자원 보호 및 폐품 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사용과 같은 실천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에는 6개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우수 사례로 선발되어 유엔개발계획(UNDP)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가에 워크숍 개최를 지원했고, 이외는 별도로 매년 하반기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2014년에는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유엔개발계획과 KB금융지주의 후원으로 선정했으며, 가장 많은 우수 사례가 선정된 네팔과 라오스에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모의 유네스코 총회



|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시민 놀이터 (2012)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파도에 올라탄 한국호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환경 문제, 세계 빈곤, 식량 문제, 문화적 충돌 등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되고 있으며, 점차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방식과 태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등 유네스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이슈를 찾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할 방법을 계획·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해 지원하고 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실천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계 문제와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국제회의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모의 유네스코 총회 준비와 참가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의사 결정에 대한 지식과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개인적 삶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캠페인 (2011)

스스로 주제 정하고, 스스로 프로젝트 설계해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해 매년 참가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7개교(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2개교)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된 세계 빈곤퇴치의 날 캠페인 (2010)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13)

로 확산됐다.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지역 이슈와 연계된 주제를 선택한 뒤 학생들 스스로 설계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로 다문화 바로알기, 학교 텃밭 가꾸기, 친환경 캠페인, 공정 무역 캠페인 등으로 실천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중·고교생 500여 명은 유엔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전후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청소년의 힘으로 개선하는 공동 행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제는 ‘지구를 위한 한 걸음, 그린 투게더(Green Together)’로 정하고, 점차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린 ‘2013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에 참가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학교 및 유네스코학교 학생 대표 70여 명은 1년간의 활동 내용을 서로 소개하고,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한 토의를 거쳐, 「세계시민선언문」을 작성·결의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 세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

2010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이천의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201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76명이 4명씩 유네스코 회원국 중 한 나라를 대표해 유네스코 총회 의사 규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토의한 뒤 기후변화

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생들은 앞서 2010년 5월 준비모임에서 회의 진행 방식과 의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 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두 달 동안 국가별 협상 전략을 준비해 6월 30일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고교생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 의사 결정 과정을 공부하면서 초국가적 협력과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제1차 총회(7.16~18)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에 제2차(11.5~7)와 제3차 총회(11.26~28)를 개최하는 등 매년 2~3차례씩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모의총회를 열었다. 2010~11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접근’, 2012년에는 ‘세계화 시대 문화다양성 보호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고, 대회 전국의 고등학생 대표단 80명과 의장단 4명(대학생)이 참가했다. 한국어 사용, 준비모임과 본회의 분리 진행, 합숙, 대학생 의장단과 고등학생 참가자와의 협력 등을 모의 유네스코 총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모의 유네스코 총회의 성과라면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자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자발적 실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 제7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2012)



저개발국에 뿌린 희망의 씨앗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

“아프리카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발대식이 9월 16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삼성전자, 한국 국제협력단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브릿지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뉴스』 2010.10월호

세 차례에 걸친 선발 과정과 50일간의 훈련을 통과한 1기 브릿지 사업 활동가 18명의 표정은 발대식 내내 진지했다.

“예전 우리가 선진국들에게서 받았던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지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베풀어야 합니다.”



1기 브릿지 활동가 출국 환송식 (2010)

젊은 활동가들에게 애정 어린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빈들도 감회가 새로운 듯했다. 브릿지 활동가들은 “교육, 소통, 자립, 다양성, 희망이라는 다섯 가지의 가치를 명심하면서 꿈꾸는 사람들이 이어가는 소통의 다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가들은 2010년 10월 7일 남아공,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 등 아프리카 6개국 18개 지역을 향해 떠났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모델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등 국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릿지 사업을 기획했다.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새로운 시장에서 전략적 사회 공헌을 모색하는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민관 협력 지원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과 현지 청년들의 참여에 힘입어 현지 주민 공동체가 활력을 찾게 된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발전을 보완해 아래로부터의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뿌리 수준에서, 주민 주도로



▶ 짐바브웨 동보사와 지역학습센터에서 글을 익히시는 94세 샘 할아버지 (20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가난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외부의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개발에 참여해 자신들의 역량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플뿌리 수준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개발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이를 위해 2009년 유네스코 청년 지역 전문가 양성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고, 2010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

웨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의 브릿지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유네스코의 2008~13년 교육 부문 중기 전략의 우선 순위인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을 적극 고려한 탓인데, 비문해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브릿지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프리카에서의 브릿지 시범사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6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각국 NGO들이 브릿지 사업의 현장 활동을 지원했다.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 이끈 ‘희망’ 전도사



레스토 하무추에 건립 중인 지역학습센터 앞에서 손을 맞잡은 아페세 라첼레 레스토 교육부 차관과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3)

아프리카 대상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비문해퇴치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청년 지역활동가들은 아프리카 현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지역 NGO들과 협력해 오지 마을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를 세웠다. 지역학습센터는 문해, 수해, 필수 생활 기술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육기관의 역할과 지역개발센터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1기)는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양대 목표를 염두에 뒀다. 잠비아에서는 2011년 삼성전자 임직원 교육 의료봉사단이 기증한 노트북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컴퓨터 활용 지식을 전수했고, 그 결과 5명의 현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했다. 또, 잠비아의 청년들 일부는 영화제작소를 차려 마을의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했고,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주변 마을까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구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르완다에서는 양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 수입으로 미취학 아동과 성인영어교실을 후원했다. 말라위에서는 장애 청년들이 지역사회조직을 만들어 비장애인, 장애인을 둔 부모, 비장애 아동의 부모 등을 초청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세미나를 열었으며,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활동, 문해, 수해 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아프리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형식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장기간 파견된 한국의 청년활동가들은 당초 시범사업 기간에는 2년간 현장 활동을 한 후 해당 국가의 대학원,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2+2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사업 내용이 바뀜에 따라 전반기 2년간의 활동을 마친 후 귀국했다.

아프리카 현지 경험자 코디네이터 선발

201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브릿지 코디네이터'를 선발한 뒤, 브릿지 2기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국가별로 1명씩 보내 이들이 현지 협력기관들과 함께 사업 추진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국가별 브릿지 사업을 관리하고 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 선발된 브릿지 2기 활동가들도 지역별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에서 개인별 문해교육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직접 운영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현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교육 당국)와 협력단체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원의 부족, 초등학교 진학을 부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발굴하도록 하고,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을 병행 지원했다. 주로 성인 문해교육, 문해교사 양성,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코디네이터 발대식 (2013)



말라위 나이양고에서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2012)

문해교육 교재 개발 등 기초교육 발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9개의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브릿지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들이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했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경험, 아프리카와 나눌 것

유네스코는 1954년부터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에 교과서 인쇄 공장을 설립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 기적과도 같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교육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제까지의 부분적이고 분산된 지원 사업의 형태를 벗어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엮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을 통해 저개발국가에서 유네스코의 미션을 수행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개발 협력 사업의 차별화된 표본 모델을 만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6개국을 중심으로 다목적 지역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을 정한 것은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비교우위분야인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차별화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말라위 현장 (2013)

영어교육을 넘어 문화간 이해로

지구촌평화마을 설립과 한·호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영어교육과 인연이 많았다. 영어가 국제이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교류하고 해당 분야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영어였기 때문이다. 국내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은 정책 건의와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매년 한 차례 문교부의 지원 아래 미국 위스콘신대 국제교육연구소와 협력해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약 20일간 하계영어학교를 개최했다.

한·호 영어교사 연수, 교사끼리 가르치고 배우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남호주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지역 초·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를 연간 1회 실시했다. 이 연수는 남호주 애들레이드 시와 경기도 영어교사들이 만나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영어교수법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국내 영어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

는데, 두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0년간 실시됐다. 이 연수에 참여한 국내 교사 가운데 일부는 호주를 방문해 호주의 교육 현실을 접하기도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호 지구촌 영어 교사 연수(2002.12.27~2003.1.16)는 세계화 시대에 교사들의 영어 소통 능력 증진, 양국 영어 교수법 공유, 문화 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했으며, 경기도 초·중·고교 교사 97명과 호주 교사 및 교육 전문가 14명이 3주간 합숙하며 연수에 참가했다. 특히, 이 연수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영어로 표현하는 발표력 증진에 역점을 뒀으며, 합숙 후에는 호주 교사가 한국 교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했고, 이어 한·호 교사가 함께 경주의 문화 유적지를 여행하며 두 나라 문화를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호주 교사들이 강사 역할을 맡은 영어 수업은 4개 또는 6개 반으로 나누어 영어 작문, 즉흥 연설, 잡지 기사와 호주의 사회문화에 대한 토론 등을 내용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됐다.

언어교육과 문화간 이해를 결합한 교사 교육 모델

2005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선발된 초·중등 영어교사 100명과 남호주교육청이 선발한 호주 교사 및 교육전문가 18명이 참가했다. 이 연수는 단순히 영어교수 기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교육과 문화간 이해 증진이 결합된 효율적인 교사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5년 8월 1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공동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2002년부터 3년간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의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3년간 연수를 계속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눈의 나라에서 펼쳐진 한·호 영어교사 문화 교류

한·호 연수는 주최기관 세 곳이 각기 기대하는 목표가 한데 어우러져 치러지는 행사다. 연수 재정을 지원하고 참가 교사를 모집, 선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한국

영어교사들이 영어권 국가 교사들과 대면할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습득한 교수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프로그램 편성 및 행사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역점을 두는 교사 교육과 문화 간 교류,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다.

남호주교육청은 호주 교사를 선발·파견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벌써 여덟 번째 연수를 치르면서 이 연수 과정을 거쳐 간 한국 교사만 해도 500여명이 넘는다.



『유네스코뉴스』 2010.2월호

언어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10년

2012년 1월 열린 제10회 연수를 끝으로 10년간 한국과 호주 양국 교사들의 영어 교수법 향상과 상호 문화이해 증진에 이바지했던 유네스코 한·호 지구촌이해 영어교사 연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된 이 연수에는 한국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912명, 호주에서는 남호주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153명 등 모두 1,065명이 참여했다.

국내 연수의 프로그램 편성과 행사의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교사 교육과 문화간 교류, 그리고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해 이 사업을 주최했다. 한·호 연수와 다른 연수와의 차이점은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간 이해를 연수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 연수를 주최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호주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구촌평화마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영어마을’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혹은 문화간 이해교육) 방식의 영어교육이 성공을 거두자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났다. 당시 영어마을 설립 붐과 발맞추어 이천시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시설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천시와 2006년 9월 지구촌평화마을(이천영어마을, Global Peace Village)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방법론에 의한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868-1 유네스코평화센터 내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이천시가 교육관(1,813㎡)과 원어민강사 숙소(325㎡)를 리모델링하고 학생용 숙소(1,427㎡)를 신축하기로 하고 이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8년 5월 15일 이천시청에서 이천영어마을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대강당을 리모델링해 교육시설인 지구촌교육관을 꾸미고, 강당 뒤편에 학생들 숙소를 신축해 ‘상생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네스코청년원 초창기부터 있었던 귀빈 숙소는 원어민 교사를 위한 숙소로 탈바꿈했다. 지구촌교육관 내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 영어 학습과 함께 세계시민의식을 배우는 배움터로 자리매김했다. 지상 3층 규모의 교육관에는 요리 체험실, 복합 전시관, 홍보관, 행정실, 주제 학습실, 강당, 라운지, 시장 체험실, 차(茶) 문화 체험실이 들어섰다.



유네스코평화센터 내 지구촌평화마을 개원 (2008)



2008년 11월 14일 지구촌평화마을(이천영어마을) 개원식을 갖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이천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영어마을과는 달리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방법(문화, 환경, 평화, 유엔 이해 등)을 가미했고 또한 저렴한 참가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박 5일의 정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을, 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개원 초기에는 관내 초등학교들에 홍보가 부족해 참여가 저조했으나 곧바로 이천시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반드시 거쳐가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기도 이천시가 공동 협력·조성한 ‘지구촌평화마을’의 교육 활동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구촌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4박 5일간 무료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이천시 교육청과 각 학교장들이 추천한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 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교육 기회와 문화 혜택 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일대일 면담 및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평화, 환경,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에 참여하면서 지구촌평화마을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와 학습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국제이해교육과 체험 영어교육, 문화다양성, 평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체험했다.



지구촌평화마을 영어교육 프로그램

‘세계의 기억’을 보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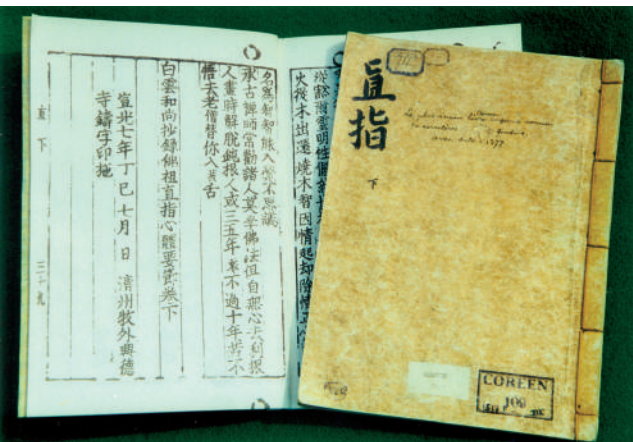
세계기록문화유산 사업

한국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록문화의 선진국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기록물은 총 11건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수가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다.

유네스코가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1997)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200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등 총 11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기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중요한 기록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포함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다. 세계기록유산 목록에는 2014년 현재 아태지역 24개국의 80건을 포함해 전 세계 102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기록유산 301건이 등재돼 있다.

『직지심체요절』, 프랑스에 있어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직지심체요절』

2001년 6월 제5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청주에서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전 세계 전문가에게 알리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심체요절』)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해당 기록유산의 미소장국이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직지심체요절』의 이름을 딴 유네스코 직지상 제정

유네스코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이름을 딴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004년 4월 14일부터 열린 제169차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네스코 직지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제정을 승인했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기록유산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이 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은 우리나라 청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격년제로 시상하게 될 유네스코 직지상은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금 3만 달러와 함께 수여하기로 했다.



『유네스코뉴스』 2010.2월호

아태지역 개도국의 기록유산 보호 역량 강화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주시,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2004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청주에서 제2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화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대한 쟁점과 국제적 동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2001년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 보존 훈련 워크숍을 격년으로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2002년 6월에는 10개국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이 기록물의 보존’을 주제로 청주에서 제1차 워크숍이 열린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청주시와 함께 2006년 5월 3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타르의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회의실에서 유네스코 몽골 기록유산 보존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존 설비와 경험·지식 부족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져가는 몽골 기록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며, 이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 워크숍에는 한국의 관련 기관, 전문가 등 11명과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담당관 및 몽골 기록유산 관리 실무자 약 35명이 참석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워크숍 준비를 위해 두 달 앞서 몽골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몽골 국립도서관, 기록원 등을 방문하고 기록물 보존, 관련 현황과 제도를 사전에 파악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6년 9월 청주시 및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청주에서 ‘제3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직지심체요



제2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보호훈련 워크숍 (2004)



제3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훈련 워크숍 (2006)

절』 등 한국의 우수한 기록물들을 아태지역 기록유산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선진적인 기록유산 보존 기술을 참가자들에게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캄보디아, 이란, 카자흐스탄 등 아태지역 12개국 기록유산 담당자 15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담당자 및 미국 유타대학의 기록유산 전문가 1명, 국내 기록유산 보존 전문가 10명이 참가한 이 워크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문서, 필름 등 기록유산 보호 방법과 훼손된 유산의 복원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적 서화 보존 처리 기법인 배첩과 설계 도면 복원 방법을 실습하고, 한국영상자료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7년 7월 23~27일 불교기록유산이 많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2차 유네스코 아시아 기록유산 보존 훈련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현지 특성을 고려한 보존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도서관 등 국내 기록물 보존 및 전산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 현지 기록유산 관리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 2월 18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네스코 비정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2007년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루시아에서 첫 워크숍이 열린 바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인 부탄, 쿡 제도, 피지,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을 비롯한 10개국 참가자들에게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수했다.



제1차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등재훈련 워크숍 (2009)



4 |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1주년 기념 및 국제학술회

기록유산 분야 국내 협력 강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 7월 23일 국가기록원과 기록유산 보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성남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 기관은 기록유산 분야 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의 협력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와 교류 사업에서의 협력 및 소장 도서와 자료의 공동 이용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록유산 사업에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가칭 ‘세계기록유산 사이버 박물관’ 개관을 유네스코와 공동 추진할 것”을 국가기록원 측에 제안했다. 앞서 양 기관은 2002년부터 기록 보존 관련 워크숍 개최, 몽골과 스리랑카 기록유산보호사업 지원 등 기록유산 보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을 수행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안타까운 과거 기록도 인류의 소중한 기억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한국의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 등재명: 인권기록유산-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에 대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관련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일성록』

『일성록』은 조선 영조 즉위 36년인 1760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 전반을 기록한 왕의 일기로,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 동서양의 정치 및 문화 교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 등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좋은 선례가 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당시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등재 결과에 대해 “한국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등재와 관련해서는 “자랑할 만한 과거의 기록뿐 아니라 안타까운 과거에 대한 기록도 잊지 말아야 할 인류의 소중한 기억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보감』과 정약용의 업적, 세계사적 의미 인정받아

2011년 10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2013)과 ‘정약용 탄생 250주년(2012)’이 ‘2012~13 유네스코 연관 기념행사’로 선정됐다. 2013년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는 동의보감은 허

준 선생이 편찬한 의학적인 지식과 치료 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예방 의학과 공공 보건 정책에 대한 관념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 공중 보건 의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와 더불어 동의보감의 의학적 성과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2012~13 유네스코 연관 기념행사'로 선정됐다. '정약용 탄신 250주년'은 백성들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정약용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하는 바가 인정되어 기념행사로 포함됐다.

기록유산 역량 강화 지원, 아프리카까지 넓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2013년 12월 10~13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프리카 지역 등재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저개발국 기록유산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감비아, 나미비아, 말라위, 모리셔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 8개국이 참가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나라들은 아직 자국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거나 한 건만 등재한 국가들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문가들로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조언을 들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9개국 11건의 기록유산만 등재된 상태였다.

잠든 기록유산을 깨우다, 아태지역 4건의 기록유산 등재 도와

세계기록유산을 11건이나 등재시켜 이 분야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2009년부터 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아태 지역 이웃 나라들과 나누고 있다.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아태 지역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가치 있는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돕기 위해 저개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이 2009년 경기도 이천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등재훈련 워크숍'이었다.

이 워크숍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열렸고,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에 힘입어 벌써 몽골(『알탄토폭치』: 1651년에 쓰인 황금역사서), 베트남(로 왕조와 막 왕조 왕조시첩기록 비석), 피지(인도인 노동자들의 계약이민 기록), 동티모르(국가의 탄생) 등 4개국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반영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14년 아태 지역 워크숍에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 몰디브, 마셜 제도, 사모아, 피지, 스리랑카, 쿡 제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도시에 창의성을 입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창의도시(Creative City)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한 개념이다.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락, 대량 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문화를 근간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개선을 추구하는 창의도시가 주목을 받게 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홍보 자료와 주최 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수입도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노리는 이유이다.

뜨거운 창의도시 가입 열기

창의도시의 핵심적 요소는 창의성에 기반한 창의산업의 존재 여부이다. 창의산업은 문화유산과 예술, 미디어 등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데,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주목받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2008년 무렵이었다. 각국의 도시들이 치열한 가입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가입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그동안 창의도시 지정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활동 측면에서나 서구의 도시들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도 문화를 통한 발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디자인),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을 창의 도시에 올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8곳), 일본(5곳) 등 동북아 국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상적인 창의도시 모델 따로 없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이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2009년 7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국내 지자체의 이해 증진과 가입 지원을 목적으로 열린 이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 국내 15개 지자체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영국 정경대 앤디 프랫 교수는 하나의 이상적 형태의 창의도시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각 도시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국제적 인정보다는 창의적 방식으로 사고하고 기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이천

2010년 7월 서울과 이천이 각각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는 창의도시 활동으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과 창의 인재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협약식 (2010)

를 육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디자인 창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 9월 14일 ‘창의도시 네

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디자인산업 활성화, 문화적 협력, 디자인 정책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문화 및 정책 교류를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포럼’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가입한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11월에는 세계 41개 도시 시장단과 대표단이 참석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컨퍼런스’를 개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증진을 위한 창의성 도모,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도시 발전의 창조적인 전략과 정보를 제3세계 등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활동 방향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구 20만 명의 소규모 도시인 경기도 이천시는 공예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를 계승·발전시킨 대한민국 도자명장, 이천 도자명장, 경기도 무형문화재(붓·벼루), 유명 조각 작가 및 옷칠 명인 등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풍부한 인적 자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물적 기반과 제도적 지원 장치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수십 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천도자기축제’, 지역문화의 세계화·선진화를 위한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을 통해 명실공히 현대 공예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예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한 이천시는 향후 회원 도시들 간의 선진 정책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10월 21일, 이천시 아트홀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천시 창의도시 선포식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명칭은 비단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위 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선진 도시들과의 국제교류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천시는 2010년 유럽도자도시연맹(UNIC) 가입을 통해 한국의 도자 문화를 유럽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창의도시를 위한 창의산업 키우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1년 7월 8~9일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을 양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개도국의 창의산업 발전에 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2011)

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모색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같은 해 11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서울 2011’을 개최해 전 세계 24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단과 함께 ‘창의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해 각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가 도시 시장들이 중심이 된 시장단 라운드테이블 세션(17일)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전주시, 유네스코 ‘미식’ 분야 창의도시에

2012년 5월에는 전주시가 ‘미식’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되면서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서울시, 이천시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국내 최초로 미식(gastronomy) 창의도시에 선정된 전주시는 세계적으로도 포파얀(콜롬비아, 2005), 청두(중국, 2010), 오스터순드(스웨덴, 2010)에 이어 네 번째로 미식 창의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정성이 담긴 가정 음식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활발한 음식 연구와 인재 양성 체계 및 특색 있는 지역 축제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식의 세계화를 기치로 한 음식 산업 활성화 정책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창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3년 5월 22일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개최 도시이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광주시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 가입 추진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타 유네스코 사업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은 “지방정부가 유네스코의 핵심 파트너로 국제 무대에서 역할이 확대되는 시점에 광주시가 기록유산 분야와 창의도시 가입 분야 모두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첫 번째 지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국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향해 꿈의 나라를 펴다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제2의 반기문 총장, 이들 중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뒤흔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프로그램 실체가 드러났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명은 〈유네스코 키즈 캠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 제3 유엔 사무총장 수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하자는 뜻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가 계획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민동석 사무총장은 “매년 100여 명씩 10년간 1천 명의 유네스코 키즈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또 “반기문 총장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하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는 물론 다른 외국어를 반드시 3~5개씩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뉴스』 2013.8월호

전국이 가마솥더위를 보인 2013년 8월 7일, 유네스코 키즈 1기 발대식이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열렸다.

참가 학생 88명과 학부모, 가족, 연수 일정 내내 함께 생활할 대학생 멘토 12명 등 2백여 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름캠프(5박 6일)에서 훈련을 받은 뒤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 모두들 들뜬 얼굴이었다.



1 유네스코 키즈 제1기 여름 캠프 (2013)

미래 세대의 꿈 키워주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일찍이 1960년대부터 한국 청소년지도자 육성에 기여해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국제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3년 6월, 미래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제1기 유

네스코 키즈'를 모집했다.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영어 실력보다는 리더십과 창의성, 배려심 등 품성과 잠재력에 주안점을 두어 선발했다. 또, 지역별 균형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30% 이상 선발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을 거쳤다.



1. 세계시민캠프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학습하고,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등을 통해 각 주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의견을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자기주도학습

세계시민캠프 이후 해외현장학습 전까지 평화, 다문화, 환경,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생활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3. 해외현장학습

해외현장학습 참가자들은 실제 국제기구를 방문해 세계 평화,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한다. 해외현장학습은 참가자들이 세계라는 더 큰 무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된다.

‘유네스코 키즈’로 선발된 어린이 88명은 경희대학교 대학생 멘토와 더불어 평화, 국제기

구, 환경, 다문화 등 주제 학습과 세계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후원사인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방문 등 체험 활동,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등 토론 활동 등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프 참가자 중 우수 활동자 32명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대외협력국장, 유네스코한국대표부 대사 등을 예방한 뒤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과 희망에 대해 토론했다.

프랑스로 간 유네스코 꿈나무들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유네스코 키즈'가 2014년 2월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다. 2013년 8월 세계시민캠프(여름캠프), 9~12월 자기주도학습에 이어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할 겨울캠프가 2월 16~24일 8박 9일의 일정으로 파리에서 펼쳐진 것이다. 해외현장학습 참가자들은 국제기구 현장과 세계유산 등을 탐방하고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둘러보며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유네스코 키즈 32명과 경희대 학생 멘토 8명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와 OECD, 그리고 이들 기구의 대한민국 상주 대표부 등을 방문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인재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생생한



| 유네스코 키즈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견학



경험담을 듣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프랑스 유네스코학교인 카흘르퐁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미술, 체육 활동을 함께 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베르사유 궁전과 노트르담 성당, 다양한 인류의 문화예술 유산이 남아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프랑스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여러분이 유네스코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3일,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2의 반기문을 키우자'란 캐치프레이즈로 시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여름캠프 참가 어린이 49명이 방문한 것. '유네스코 키즈' 어린이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한 이유는 자신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보코바 사무총장은 3박4일 동안의 첫 일정으로 유네스코 키즈와의 만남을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면담 등 20여 개가 넘는 빠듯한 공식 일정 속에서 '유네스코 키즈'와의 면담을 최



| 유네스코 키즈,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다 (2014)

우선에 두는 그녀의 배려에서, '유네스코 키즈'를 격려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졌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환한 얼굴로 유네스코 키즈를 반겼다. 그는 '유네스코 키즈'들을 만난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 개최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유네스코뉴스」 2014.3월호

새로 태어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후 격동의 세월부터 세계화의 높은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육 재건과 문화 발전, 과학 진흥과 평화 및 인권의 신장 등을 위해 매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 책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아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랄 것이다. 그리고는 왜 지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일을 하는 곳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지 안타까워할 것이다. 어떻게 하다 과거의 영광은 간데없고 존재감조차 별로 없는 조직이 되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의 눈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기 어려운 조직’ 또는 ‘유니세프와 혼동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1월 말 유네스코회관 바로 앞 명동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네스코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았다.

“유네스코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나요?”

두 여학생이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유네스코, …… 많이 들긴 했는데. 세계 무슨 기구일 텐데, 아, 보건기구인가요?”

어느 직장인의 대답이다.

“예, 들어봤죠. 세계적으로 구호나 구제, 이런 좋은 일 하는 단체?”

“혹시 유니세프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게 유니세프예요? 제가 말한 게, 하하하.”

한 주부와 주고받은 대화다.

“할머니들처럼 생계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 곳 아닌가요?”

두 학생의 자신 있는 대답이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 28명이 한결같이 유네스코를 유니세프나 다른 기관과 혼동하거나 아예 알지 못했다. 유네스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나 다름 없다. 그동안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취약한 재정으로 영세한 잡화점식 사업을 계속하고 구태의연한 조직 운영방식을 답습해온 탓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뼈아프지만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60년을 돌이켜보며 다가올 앞날을 계획할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길을 찾는 일이다.

새 출발을 위한 준비

2014년 1월 30일 맞이한 창립 60주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마땅하다. 의례적인 축하 행사나 하고 보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인 것이다.

이에 2013년 한 해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는 혁신추진단을 꾸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새로 태어날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작업의 결과물은 9월 27일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비전 포럼에서 발표됐다. 민동석 사무총장은 이 포럼 기조발제에서 당면한 위기의 원인

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취약한 재정 기반이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된 재원은 명동 유네스코회관 임대 수입이지만, 회관이 1967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관리나 보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사업비 지원

은 2013년 기준 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대부분이 교육부 예산이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의 예산 지원은 아주 미미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취약한 재정 구조는 사업의 영세성으로 이어져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나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내세울 만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한국 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학계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와 연결해준 거의 유일한 '세계로 열린 창'의 지위를 더 이상 고수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게 됐다. 그렇다면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사업과 조직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다. 60년이나 유지된 조직이니 앞으로도 별 탈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안주하는 분위기나 그동안 독립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역사와 문화 탓에 시대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과감한 자기 혁신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뼈아픈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 수립에 나섰다. 60주년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비전이라는 문구에 집약해 대내외에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다짐했다.

2013년 9월에 열린 창립 60주년 비전 포럼 전후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3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비전포럼 (2013)

1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38차 집행위원회에서 비전 초안이 발표됐다.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의 미래,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으로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유네스코를 통한 평화와 협력 촉진’,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확산’, ‘유네스코 활동 기반 강화’가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집행위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집행위원들은 이후 서면으로 비전과 전략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었으며, 마침내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비전이 2014년 2월 3일에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주년 기념식장에서 선포됐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

2014년 2월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은 아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을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서남수 교육부장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중국, 일본, 몽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주한 외교사절과 더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현직 위원 및 직원, 유네스코학교 선생님과 학생, 유네스코학생회(KUSA) 회원,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4)

협회 회원,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학부모,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해온 전문가와 정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야말로 국내외 유네스코 패밀리가 한데 모인 감동의 현상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해 “반기문 총장이 소년 시절 공부했던, 유네스코 지원으로 만든 교과서가 유네스코 본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교과서는 교육의 힘과 더불어 유네스코와 한국의 오랜 협력의 생생한 증거”라며, “유네스코는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는 유네스코한

국위원회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전 선포를 축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한국위원회의 의지가 세계로 뻗어나가 행복한 지구 가족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녹화 영상을 통해 “교육, 과학,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초석”임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60년 동안 활동해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유엔과 함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1천여 명이 넘는 청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민동석 사무총장은 그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소홀했지만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심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평화 이념을 달성하려면 온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더 많은 국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움의 열정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로서 한국이 그러한 열정과 경험을 세계와 나눌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앞장서 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략이 바로 ‘저개발국 교육 나눔’,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3대 과제의 추진이다.

저개발국 교육 나눔

한국이 6.25전쟁이후 배고픔과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에게 받은 지원은 잊을 수 없다. 유네스코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곧 바로 1951년에 초등학교 교과서 인쇄공장 건립을 위한 긴급 지원을 결의했고, 그에 따라 1954년에 대한문교서적 인쇄공장이 설립됐다. 그와 더불어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해 교육 재건 건의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전후 교육 재건에 긴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로써 한국민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지구촌에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린이가 아직도 5천 7백만 명에 이른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그보다 더 많은 6천 9백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한국이 이들에게 배우려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과 정신을 세계와 나눠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오늘의 위치에 도달한 나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저개발국 교육 나눔 사업은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의 기본은 읽고 쓰기를 배우는 문해교육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 및 저개발국에서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을 그 나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빈부격차 확대, 전염병 확산, 깨끗하지 않은 물과 공기,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기존 국경을 넘나드는 분쟁과 전쟁 등은 오늘날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 단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해법이 현실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국가들 사이의 속 좁은 이해 타산을 뛰어넘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으로 각성된 지구 시민들의 결속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는 유네스코의 사명은 그와 같은 세계시민의 육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연유로 유네스코는 창설 이후 줄곧 국제이해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한국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청소년 지도자 육성이나 유네스코학생회(KUSA)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과 비전을 넓히고자 힘써왔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공연 (2014)

이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구촌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2013년에 새롭게 시작한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유네스코의 평화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청년 국제자원활동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한 단어는 단연 ‘평화’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건설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문구는 여전히 인류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러한 유네스코의 평화 증진 역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은 바로 한반도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제쳐놓고 다른 그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유네스코로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해 북한의 교과서 인쇄용지 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그런 경험을 살려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교과서 용지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후손에 물려줄 건강한 국토 보존을 위해 힘껏 나설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일본의 침략 사실 부인 문제, 중국과 고대사 관련 논쟁과 같은 역사 갈등뿐만 아니라 영토를 둘러싼 대립과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이해, 문화간 대화, 역사 대화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기초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 역사화해 청년포럼,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식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청소년을 위한 교류와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20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알리는 친선홍보대사들

유네스코 활동을 국민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3년부터 평화와 화합의 유네스코 정신을 온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친선대사 또는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 12일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가락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아리랑」을 재즈로 재해석해 세계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나윤선 재즈 보컬리스트를 유네스코 세계재즈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4일에는 장애인 자활과 인권 활동에 일생을 바쳐온 정덕환 에텐복지재단 이사장을 장애인 평화인권 홍보대사로, 같은 달 18일에는 한국화에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의 옷을 입힌 작품을 선보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문화예술 친선대사로 각각 위촉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2014년에는 1월 15일 텔레비전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를 인연으로

한글홍보대사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인기 배우 신세경 씨가, 3월 4일에는 ‘국악소녀’ 송소희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에는 시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온 고은 시인을 평화친선대사로 위촉했으며 특히, 고은 시인은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자신이 지은 유네스코 헌정시 「유네스코에게」를 직접 낭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10월 28일에는 우리 전통문화 및 유산 보존 활동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를 전통문화 친선대사로 위촉했고, 11월 13일에는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 양방언 씨를 평화예술 홍보대사로, 12월 12일에는 팝페라테너 임형주 씨를 평화예술 친선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복수 광복복지회 대표와 작곡가 심수천 씨가 강원지역 후원홍보대사와 방송연예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명 인사들을 친선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들을 통해 유네스코와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원개발, 가보지 않은 길

이상과 같은 비전과 중점 과제를 실행으로 옮기려면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원 확보 방안이 없는 비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유네스코회관 임대 수입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6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바로 후원개발이다.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기엔 두려움도 앞서고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 감수한다. 하지만 이 길 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2013년 2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사무국-국가위원회-유네스코대표부 간 3자 협력 실무 회의에서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 후원개발을 권고하는 방안이 회의 결과 문서에 포함됐다. 유네스코도 국가위원회의 후원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천에 나선 국가위원회는 아직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 세계 198개 국가위

위원회 중에서 처음 후원개발 활동을 시작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개발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저개발국 지원에 나선다면 유네스코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획기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013년 3월 민동석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개발을 적극 추진해 유네스코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국·유네스코 협력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013년 8월 민동석 사무총장을 만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개발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설정해 저개발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유네스코 외교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 안전행정부에서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음으로써 후원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60주년이 되는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진 빛을 갠 행위이며 지금보다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인류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는 일이다. 또, 이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국민과 기업에 선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과 기업의 후원을 요청하고, 국민과 기업이 기부한 후원금은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후원금 규모를 키우는 데 급급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구촌 이웃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 기회를 얻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에 후원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게 힘을 쏟을 것이다.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에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



자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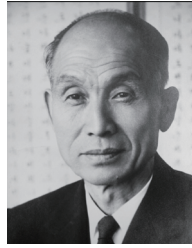
- 부록 1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 부록 2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부록 3 역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 부록 4 유네스코 헌장 (국·영문 전문)
- 부록 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부록 6 유네스코 활동 연표 (1945~2014)



1대 김법린
1952.10.30~1954.04.20



2대 이선근
1954.04.21~1956.06.07



3대 최규남
1956.06.08~1957.11.26



4대 최재유
1957.11.27~1960.04.27



5대 이병도
1960.04.28~1960.08.22



6대 오천석
1960.08.23~1961.05.02



7대 윤택중
1961.05.03~1961.05.19



8대 문희석
1961.05.20~1962.01.08



9대 김상협
1962.01.09~1962.10.14



10대 박일경
1962.10.15~1963.03.15



11대 이종우
1963.03.16~1963.12.16



12대 고광만
1963.12.17~1964.05.10



13대 윤천주
1964.05.11~1965.08.26



14대 권오병
1965.08.27~1966.09.25



15대 문홍주
1966.09.26~1968.05.20



16대 권오병
1968.05.21~1969.04.10



17대 홍종철
1969.04.11~1971.06.03



18대 민관식
1971.06.04~1974.09.17



19대 유기춘
1974.09.18~1976.12.03



20대 황산덕
1976.12.04~1977.12.19



21대 박찬현
1977.12.20~1979.12.13



22대 김옥길
1979.12.14~1980.05.21



23대 이규호
1980.05.22~1983.10.14



24대 권이혁
1983.10.15~1985.02.18



25대 손 제 석
1985, 02, 19~1987, 07, 13



26대 서 명 원
1987, 07, 14~1988, 02, 24



27대 김 영 식
1988, 02, 25~1988, 12, 04



28대 정 원 식
1988, 12, 05~1990, 12, 26



29대 윤 형 섭
1990, 12, 27~1992, 01, 22



30대 조 완 규
1992, 01, 23~1993, 02, 25



31대 오 병 문
1993, 02, 26~1993, 12, 21



32대 김 숙 희
1993, 12, 22~1995, 05, 12



33대 박 영 식
1995, 05, 16~1995, 12, 20



34대 안 병 영
1995, 12, 21~1997, 08, 05



35대 이 명 현
1997, 08, 06~1998, 03, 02



36대 이 해 찬
1998, 03, 03~1999, 05, 24



37대 김 덕 중
1999, 05, 24~2000, 01, 14



38대 문 용 린
2000, 01, 14~2000, 08, 07



39대 송 자
2000, 08, 07~2000, 08, 31



40대 이 돈 희
2000, 08, 31~2001, 01, 29



41대 한 완 상
2001, 01, 29~2002, 01, 29



42대 이 상 주
2002, 01, 29~2003, 03, 06



43대 윤 덕 홍
2003, 03, 07~2003, 12, 24



44대 안 병 영
2003, 12, 24~2005, 01, 04



45대 이 기 준
2005, 01, 05~2005, 01, 10



46대 김 진 표
2005, 01, 28~2006, 07, 20



47대 김 병 준
2006, 07, 21~2006, 08, 08



48대 김 신 일
2006, 08, 09~2008, 02, 28



49대 김도연
2008.02.29~2008.08.05



50대 안병만
2008.08.06~2010.08.30



51대 이주호
2010.08.30~2013.03.10



52대 서남수
2013.03.23~2014.07.17



53대 황우여
2014.08.08~현재



1대 정 대 위
1954.01.30~1956.07.19



2대 장 내 원
1956.07.20~1962.04.17



3대 김 성 일
1962.04.18~1962.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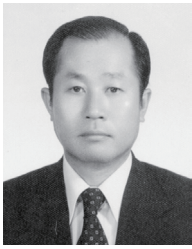
4대 조 민 하
1962.10.18~1966.12.17



5대 박 노 태
1966.12.18~1969.02.23



6대 김 경 수
1969.02.24~1973.02.24



7대, 8대 김 규 택
1973.02.25~1980.11.14



9대 박 봉 식
1980.11.15~1984.11.14



10대, 11대 조 성 옥
1984.11.15~1990.06.04



12대 김 영 식
1990.06.12~1991.04.06



13대 정 희 채
1991.05.06~1993.07.21



14대 차 인 석
1993.08.09~1996.10.09



15대 권 태 준
1996.10.10~2000.10.09



16대 김 여 수
2000.10.10~2004.10.09



17대 이 삼 열
2004.10.22~2008.10.21



18대 전 택 수
2008.10.22~2012.10.21



19대 민 동 석
2012.10.29~현재

1대 위원 (1954.1.30 ~ 1955.12.19)**【위원장】**

김법린 (문교부 장관) (1대)
이선근 (문교부 장관) (2대)

【부위원장】

허중수 (문교부 차관)
김호직 (문교부 차관)
조정환 (외무부 차관)
이하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선출)

【사무총장】

정대위 (1대)

【위원】

이경렬 (배재중고등학교)
윤을수 (한국천주교회)
안호상 (중앙교육위원회)
조동식 (대한교육연합회)
이규백 (덕수국민학교)
박은혜 (경기여자고등학교)
한순희 (천도교 총본부)
이동락 (천도교 총본부)
공진항 (천도교 총본부)
이정규 (유도회 총본부)
김장숙 (유도회 총본부)
박성하 (불교중앙총무원)
박원호 (대한부인회 총본부)
류각경 (대한부인회 총본부)
김활단 (이화여자대학교)
이상백 (진단학회)
이중우 (고려대학교)
이기봉 (대한체육회)
김호직 (대한생물학회)
김동일 (대한화학회)
유치진 (한국무대예술인)
최호진 (한국경제학회)
김원규 (한국교육문화협회)
고희동 (대한미술협회)
도상봉 (대한미술협회)
김장집 (대한출판문화협회)
오종식 (한국신문기자협회)
고병국 (한국법학협회)
장지영 (한글학회)
최현배 (한글학회)
심호섭 (대한의학협회)
최윤식 (대한수학회)

현재명 (한국음악가협회)
임한영 (한국교육학회)
고순덕 (한국심리학회)
윤태림 (한국심리학회)
김동리 (한국문학가협회)
유호준 (한국기독교연합회)
양만영 (서울공업고등학교)
최규남 (서울대학교)
정일형 (국제연합 한국협회)
갈홍기 (공보처장)
김현철 (기획처장)
신태의 (법제처장)
안용백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장)
이수영 (외무부 정보국장)
백낙준 (연세대학교 총장)
김봉조 (국회의원)
김두현 (학술원)
고병간 (경북대학교 총장)
임영신 (중앙대학교 총장)
조백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
윤일신 (학술원 회장)
박기철 (작가)
박종화 (예술원 회장)
김광섭 (시인)
황성수 (대한 YMCA 연합회장)
모운숙 (시인)

2대 위원 (1955.12.20 ~ 1958.9.28)**【위원장】**

이선근 (문교부 장관) (2대)
최규남 (문교부 장관) (3대)
최재유 (문교부 장관) (4대)

【부위원장】

김호직 (문교부 차관)
고광만 (문교부 차관)
김선기 (문교부 차관)
김동조 (외무부 차관)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정대위 (1대)
장내원 (2대)

【위원】

박종화 (예술원)
박명진 (예술원)
안동혁 (예술원)
김노설 (원자력위원회)
조동식 (중앙교육위원회)
박희병 (중앙교육연구소)
이현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유각경 (대한부인회 총본부)
원홍균 (한국시청각교육회)
이항녕 (대한성인교육회)
최석주 (대한방송사무협회)
전성천 (대한방송사무협회)
이선근 (한국정치학회)
이기봉 (대한체육회)
주요섭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김동일 (대한화학회)
최호진 (한국경제학회)
김원규 (한국교육문화협회)
이중재 (대한전업단)
이세정 (대한교육연합회)
도상봉 (대한미술협회)
김장집 (대한출판문화협회)
홍이섭 (한국역사학회)
고병익 (한국역사학회)
오종식 (한국신문기자협회)
표경조 (대한가정학회)
최현배 (한글학회)
정광현 (한국도서관협회)
이원철 (한국기상학회)
김관수 (대한영화협회)
현재명 (한국음악가협회)
고형근 (한국철학회)
김유택 (대한금융단)
김진형 (대한금융단)
김원규 (국회 문교분과위원회)
윤성순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이창우 (서울시대 부속국민학교)
문남식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백낙준 (연세대학교)
이근철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한상봉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박철재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김상필 (문교부 문화국장)
문덕주 (외무부 방교국장)

김원규 (한국교육문화협회)
이중재 (대한전업단)
이원경 (외무부 방교국장)
이열모 (재무부 이재국장)
김중대 (재무부 이재국장)
이근상 (공보처 공보국장)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장)
김두현 (학술원)
임영신 (중앙대학교 총장)
서원출 (문교부 보통교육국장)
이규백 (덕수중등학교 교장)
정문기 (학술원)
윤일신 (학술원 회장)
김광섭 (시인)
고희동 (예술원 회장)
이하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기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
안종화 (영화감독)
김영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모운숙 (시인)

3대 위원 (1958.9.29 ~ 1960.7.29)**【위원장】**

최재유 (문교부 장관) (4대)
이병도 (문교부 장관) (5대)
오천석 (문교부 장관) (6대)

【부위원장】

김선기 (문교부 차관)
이항녕 (문교부 차관)
김동조 (외무부 차관)
최규하 (외무부 차관)
이수영 (외무부 차관)
김용식 (외무부 차관)
김법린 (원자력원장) (선출)

【사무총장】

장내원 (2대)

【위원】

조정자 (이화여자대학교)
홍복음 (이화여자대학교)
임영신 (중앙대학교)
박술음 (한국외국어대학)
김진형 (대한금융단)
조동식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이세정 (대한교육연합회)
 박희병 (중앙교육연구소)
 이종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주영하 (수도여자사범대학)
 조영식 (경희대학교)
 백낙준 (연세대학교)
 서병성 (경북중고등학교)
 신봉조 (이화여자중고등학교)
 권태각 (청운국민학교)
 한홍수 (청운국민학교)
 김윤기 (대한기술총협회)
 윤일선 (학술원)
 신석호 (한국사학회)
 조기준 (고려대학교)
 전구홍 (동국대학교)
 이양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김두현 (숙명여자대학교)
 김연준 (한양대학교)
 이선근 (성균관대학교)
 이갑수 (수도치과대학)
 주요섭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장락 (대한국악원)
 김태봉 (대한국악원)
 정화세 (대한영화제작가협회)
 박종화 (예술원)
 김광섭 (전국극장문화단체협의회)
 모윤숙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현계명 (한국음악가협회)
 고광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고병국 (예술원)
 신태수 (건국대학교)
 박마리아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임한영 (연세대학교)
 권영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김동일 (대한화학회)
 김명선 (연세대학교 부총장)
 이윤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예용 (한국은행부총재)
 고헌경 (대한어머니회 회장)
 김법린 (전 문교부장관)
 윤봉춘 (영화감독)
 윤호근 (뉴욕타임즈 한국특파원)
 이현구 (이화여자대학교)
 한상봉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김중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변시민 (문교부 문화국장)
 김은우 (문교부 문화국장)
 박철재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최상업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이원경 (외무부 방교국장)
 윤석현 (외무부 방교국장)
 임윤영 (외무부 방교국장)
 김종대 (재무부 이재국장)
 김정렴 (재무부 이재국장)
 이상석 (공보부 선전국장)
 김호천 (공보부 선전국장)
 안윤백 (국회 문교분과위원회)
 손재형 (국회 문교분과위원회)
 윤성순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4대 위원 (1960.7.30 ~ 1963.9.22)

【위원장】

오천석 (문교부 장관) (6대)
 윤택중 (문교부 장관) (7대)
 문희석 (문교부 장관) (8대)
 김상협 (문교부 장관) (9대)
 박일경 (문교부 장관) (10대)
 이종우 (문교부 장관) (11대)

【부위원장】

윤택중 (문교부 차관)
 민장식 (문교부 차관)
 이민재 (문교부 차관)
 이승우 (문교부 차관)
 이수영 (외무부 차관)
 이원경 (외무부 차관)
 김명선 (원자력위원장) (선출)

【사무총장】

장내원 (2대)
 김성일 (3대)
 조민하 (4대)

【위원】

김중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홍용선 (문교부 문예국장)
 이춘성 (문교부 문예국장)
 임윤영 (외무부 방교국장)
 김정렴 (재무부 이재국장)
 함인영 (상공부 공업국장)
 이승운 (농림부 산림국장)
 김상돈 (서울특별시)

윤태일 (서울특별시)
 김기석 (단국대학교)
 김에마 (이화여자사범대학)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변희용 (성균관대학교 총장)
 고병국 (경희대학교 총장)
 조동식 (동덕여자대학교 학장)
 이종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사무국장)
 최옥자 (수도여자사범대학)
 이병도 (학술원 회장)
 조기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장)
 최호진 (한국경제학회)
 강문용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유진우 (고려대학교 총장)

장후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항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성식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이정환 (연세대학교 상과대학)
 윤일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종근 (중앙공업연구소)
 김창수 (한양대학교 총장서리)
 이상윤 (임업시험장)
 최희장 (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김장훈 (인하공과대학교 학장)
 박종홍 (서울대학교대학원장)
 정대위 (건국대학교 총장)
 이상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조의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김광섭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현구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장)
 주요섭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장)
 홍복윤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최두선 (동아일보사 사장)
 지덕영 (전국극장연합회장)
 김재복 (기독교 방송국)
 홍종인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현상열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박동운 (홍익대학교)
 배준호 (서울중앙방송국)
 장준하 (사상계 사장)

5대 위원 (1963.9.27 ~ 1965.5.31)

【위원장】

이종우 (문교부 장관) (11대)
 고광만 (문교부 장관) (12대)
 윤천주 (문교부 장관) (13대)
【부위원장】
 윤태팀 (문교부 차관)
 최형규 (문교부 차관)
 홍종철 (문교부 차관)
 한상봉 (문교부 차관)
 최문경 (외무부 차관)
 정일영 (외무부 차관)
 김법린 (동국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조민하 (4대)

【위원】

김귀승 (서울사범대학 부속중학교장)
 김동길 (연세대학교)
 김에마 (이화여자 사범대학장)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소장)
 유진우 (국제연합한국협회 회장)
 이예행 (숙명여자중고등학교장)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사무총장)
 차재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김기석 (서울시교육국장)
 김환관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오천석 (전 교육부장관)
 권중휘 (서울대학교 총장)
 김법린 (동국대학교 총장)
 조명기 (동국대학교 총장)
 동덕모 (한국연구위원장)
 신석호 (학술원 인문과기부)
 윤천주 (고려대학교)
 김진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고헌경 (서울여자대학교)
 김상협 (고려대학교)
 박종홍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이항녕 (고려대학교)
 권영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회장)
 국제표 (중앙관상대장)
 김명선 (전 원자력원장)
 박동길 (학술원 자연과학부)
 이민재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안동혁 (한양대학교)
 윤일선 (원자력원장)
 현신규 (농림진흥청장)
 고 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백 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김재원 (국립박물관)
 김세형 (한국음악가협회)
 김환기 (대한미술협회)
 김병기 (대한미술협회)
 박종화 (예술원)
 유치진 (한국연극연구소 소장)
 이상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모운숙 (시인)
 오영진 (극작가)
 정대위 (전국대학교 총장)
 고재욱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광길 (코리아 리퍼블리카)
 이종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
 이준구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장준하 (사상계 사장)
 정진숙 (대한출판문화협회)
 장기영 (한국일보사 사장)
 최두선 (한국적십자사 총재)
 백경복 (재무부 이재국장)
 김원기 (재무부 이재국장)
 진봉현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이철희 (문교부 문예국장)
 허신간 (교육부 문예체육국장)
 최영두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장)
 육인수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
 고형곤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
 이백일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
 류진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
 이희승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

6대 위원 (1965.5.31 ~ 1967.5.28)

【위원장】

윤천주 (문교부 장관) (13대)
 권오병 (문교부 장관) (14대)
 문홍주 (문교부 장관) (15대)

【부위원장】

한상봉 (문교부 차관)
 성동준 (문교부 차관)
 문덕주 (외무부 차관)
 김영주 (외무부 차관)
 윤태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조민하 (4대)

박노태 (5대)

【위원】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이종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애마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김은우 (한국시청각교육협회)
 김기석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김활란 (이화여자대학교)
 동덕모 (한국연구원)
 이상은 (아세아 문제연구소 소장)
 최두선 (국제연합 한국협회)
 유진오 (국제연합 한국협회)
 정수영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장인식 (한국도서관협회)
 이종문 (한국도서관협회)
 김학목 (한국적십자사)
 김주남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박동길 (학술원 자연과학부)
 권영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윤일선 (원자력원장)
 이길상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최상 (한국해양과학위원회)
 박인규 (국립지질연구소)
 조성옥 (문교부 문예체육국장)
 백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박종화 (예술원)
 유치진 (한국연극연구소)
 김인승 (한국미술협회)
 도상봉 (한국미술협회)
 이영세 (한국음악협회)
 김동선 (한국음악협회)
 김동선 (전국문화원연합회)
 신현옥 (전국문화원연합회)
 김인수 (대한여학사협회)
 박근 (외무부 방교국장)
 이병준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진숙 (대한출판문화협회)
 이규현 (코리아 타임즈사)
 홍종인 (한국신문연구소)
 오종식 (한국신문연구소)
 강원룡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이건호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이재욱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김명엽 (한국잡지발행인협회)

이성철 (공보부 문화선전국장)
 홍경모 (공보부 문화선전국장)
 홍천 (공보부 문화선전국장)
 정대위 (전국대학교 대학원장)
 김상협 (고려대학교)
 박종홍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김명선 (세계대학봉사회 한위 위원장)
 이종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현신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장)
 백낙준 (연세대학교 명예총장)
 오영진 (극작가)

7대 위원 (1967.5.29 ~ 1969.5.29)

【위원장】

문홍주 (문교부 장관) (15대)
 권오병 (문교부 장관) (16대)
 홍종철 (문교부 장관) (17대)

【부위원장】

김중환 (문교부 차관)
 박희범 (문교부 차관)
 진필식 (외무부 차관)
 이신근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선출)

【사무총장】

박노태 (5대)
 김경수 (6대)

【위원】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김성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차락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권오익 (성균관대학교)
 조명기 (동국대학교)
 천문암 (한국연구원)
 이상은 (아세아국제문제연구소)
 이용희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종락 (한국경제문제연구소)
 정병학 (아세아학술연구소)
 박일경 (한국경제연구소)
 김주남 (경제기획원예산국장)
 성좌경 (원자력연구소)
 이지찬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최상 (한국해양과학위원회)
 박인규 (국립지질연구소)

권영대 (대한자연과학협회)
 박철재 (인하공과대학)
 신용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조성옥 (문교부 문예체육국장)
 박종화 (예술원)
 신현옥 (전국문화원연합회)
 유치진 (국제극예술협회)
 김인승 (한국미술협회)
 임원식 (한국음악협회)
 조연현 (한국문인협회)
 박근 (외무부 방교국장)
 오종식 (한국신문연구소)
 이건호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조종출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박무승 (동양방송주식회사)
 장태화 (서울신문사)
 방우영 (조선일보사)
 이신근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박종홍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영덕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상협 (서울대학교)
 김기신 (성균관대학교)
 최문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박익수 (원자력청)
 박기채 (고려대학교)
 이덕원 (성균관대학교)
 모운숙 (시인)
 광종원 (전국대학교)
 김진만 (고려대학교)
 이규현 (중앙일보 편집국장)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항녕 (경향신문 논설위원)
 홍경모 (공보부 문화선전국장)

8대 위원 (1969.5.30 ~ 1971.5.27)

【위원장】

홍종철 (문교부 장관) (17대)

【부위원장】

박희범 (문교부 차관)
 김도창 (문교부 차관)
 진필식 (외무부 차관)
 윤석현 (외무부 차관)
 박일경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선출)

【사무총장】

김경수 (6대)

[위원]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김성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원홍균 (서울교육대학)
 조선출 (대한기독교사회)
 양순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황산덕 (성균관대학교)
 김동익 (동국대학교)
 이병도 (학술원)
 홍윤명 (연세대학교)
 유세환 (국제경제학회 한국위원회)
 김관영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상수 (원자력연구소)
 신웅근 (과학기술연구소)
 이정환 (국립지질조사소)
 이병돈 (한국해양과학위원회)
 김두홍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이 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현옥 (전국문화위원연합회)
 박종화 (예술원)
 유지진 (국제극예술협회)
 백 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엄대섭 (마을문고본부)
 최근만 (한국도서관협회)
 장태화 (서울신문사)
 방우영 (조선일보사)
 김동극 (동양방송주식회사)
 정진숙 (대한출판문화협회)
 김임용 (서울중앙방송국)
 김규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유영대 (전북대학교 총장)
 이철희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김인권 (외무부 방교과장)
 김진영 (문화공보부 예술국장)
 김주남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현승중 (고려대학교)
 박익수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회)
 도상봉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이항녕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이건호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이선근 (영남대학교 총장)
 김기석 (단국대학교 대학원장)
 최문환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장)
 최 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해랑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 회장)
 이흥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장)
 이규현 (중앙일보 편집국장)

9대 위원 (1971.5.28 ~ 1973.6.13)

[위원장]

홍종철 (문교부 장관) (17대)
 민관식 (문교부 장관) (18대)

[부위원장]

김도창 (문교부 차관)
 심창유 (문교부 차관)
 윤석현 (외무부 차관)
 민병구 (서울대학교 부총장) (선출)

[사무총장]

김경수 (6대)
 김규택 (7대)

[위원]

김성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원홍균 (국제대학)
 심태진 (대한교육연합회)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천년수 (중앙교육연구소)
 서명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학목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
 이강혁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
 김은우 (한국시청각교육협회)
 김관영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주만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인기 (숙명여자대학교)
 이항녕 (홍익대학교)
 김준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해영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신기석 (부산대학교)
 유영대 (전북대학교)
 이동술 (전북대학교)
 현승중 (고려대학교)
 이병도 (학술원)
 김성근 (국사편찬위원회)
 안병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상수 (한국과학원)
 김두홍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권숙표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

권령대 (지구물리학연맹 한국위원회)
 최 상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이대수 (성균관대학교)
 최상업 (서강대학교)
 박익수 (원자력연구소)
 박종화 (학술원)
 윤무병 (국립박물관)
 최근만 (한국도서관협회)
 엄대섭 (마을문고본부)
 광종원 (건국대학교)
 백 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박달조 (한국과학원)
 황수영 (국립박물관)
 강상운 (국립도서관)
 김규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최창봉 (중앙방송국)
 장기영 (한국일보사)
 계광길 (코리아헤럴드사)
 이을호 (전남대학교)
 이환익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정진숙 (대한출판문화협회)
 동 훈 (청와대사정 담당관실)
 김승환 (중앙일보 논설주간)
 김성두 (국회 문공위원)
 이택돈 (국회 문공위원)
 이해랑 (국회 문공위원)
 모윤숙 (국회 문공위원)
 장인숙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한우석 (외무부 방교국장)
 이만영 (과학기술처 국제협력국장)
 김형기 (과학기술처 국제협력국장)
 김재연 (문화공보부 예술국장)
 도상봉 (화가)
 이건호 (이화여자대학교)
 강근호 (국회의원)
 손재형 (예술원 부국장)

10대 위원 (1973.6.14 ~ 1975.3.25)

[위원장]

민관식 (문교부 장관) (18대)
 유기춘 (문교부 장관) (19대)

[부위원장]

조성옥 (문교부 차관)
 윤석현 (외무부 차관)

노신영 (외무부 차관)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
 이규현 (문화공보부 차관)
 현승중 (성균관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김규택 (7대)

[위원]

정인홍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서명원 (서울대학교 부총장)
 김상협 (고려대학교 총장)
 임철순 (중앙대학교 총장)
 박우식 (대학교육연합회 사무총장)
 남억우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부원장)
 김주익 (경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정범모 (한국행정과학연구소)
 이경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오현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김동욱 (국회의원)
 박성규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박인재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이항녕 (홍익대학교 총장)
 김성희 (한국정치학회 이사)
 김경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해영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학장)
 설인수 (전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한기욱 (청와대 정부비서관)
 이종세 (청와대 정부비서관)
 정홍진 (남북조절위원회 간사)
 이현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신기석 (국회의원)
 한우석 (외무부 방교국장)
 한상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최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박달조 (한국과학원 원장)
 김두홍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
 이병돈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소장)
 박종성 (한국해양문제연구소)
 이준수 (한국해양대학 학장)
 표현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이대수 (성균관대학교 이공대학)
 손승덕 (국회의원)
 백영학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광종원 (한국문화예술원장)
 백 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장)
 이혜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이상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김영정 (대한 YMCA 연합회)
 황수영 (국립박물관)
 임방현 (청와대 사회담당특별보좌관)
 유 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남 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이숙중 (국회의원)
 채문식 (국회의원)
 김영권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장상규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동 호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이원경 (합동통신사 사장)
 이환의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원경수 (코리아헤럴드 이사장)
 이만갑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원장)
 김규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홍순철 (부산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이강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한만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정연길 (동아일보 연설위원)
 정달선 (문교부 대변인)
 최성석 (국회의원)

11대 위원 (1975.3.27 ~ 1977.3.28)

【위원장】
 유기춘 (문교부 장관) (19대)
 황산덕 (문교부 장관) (20대)
【부위원장】
 조성옥 (문교부 차관)
 노신영 (외무부 차관)
 윤하정 (외무부 차관)
 이규현 (문화공보부 차관)
 김동휘 (문화공보부 차관)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
 문홍주 (헌법위원회 위원) (선출)
【사무총장】
 김규택 (7대)
【위원】
 김상협 (고려대학교 총장)
 차락훈 (고려대학교 총장)
 채문식 (국회의원)
 서명원 (서울대학교부 총장)
 손승덕 (국회의원)

이영덕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윤천주 (부산대학교 총장)
 허종현 (부산대학교 총장)
 임철순 (중앙대학교 총장)
 정태수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조병규 (경기도 도지사)
 박동양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항녕 (홍익대학교 총장)
 김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원장)
 김경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신기석 (국회의원)
 오현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이만갑 (서울대학교 도서관 관장)
 이해영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장)
 정상천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
 정인홍 (한국정치학회이사)
 한우석 (외무부 방교국장)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
 현승중 (성균관대학교 총장)
 최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박종성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
 김두홍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
 백영학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설인수 (전북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이병돈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소장)
 이선근 (동국대학교 총장)
 이우성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최성석 (국회의원)
 한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백 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장)
 이해광 (국회의원)
 김명희 (국회의원)
 광종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영권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엄정흠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김영정 (대한YWCA연합회)
 김주익 (경남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서원우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이대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이성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전숙희 (동서문화사 발행인)
 정연길 (동아일보사 논설위원)
 원경수 (대한공론사 이사장)
 정운무 (동국대학교 학생처장)
 선우휘 (조선일보사 논설위원)

신도환 (국회의원)
 유 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환의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
 임방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장기영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우 (중앙일보사 부사장)
 신상조 (경희대학교)

12대 위원 (1977.3.29 ~ 1979.3.29)

【위원장】
 황산덕 (문교부 장관) (20대)
 박찬원 (문교부 장관) (21대)
【부위원장】
 장인숙 (문교부 차관)
 고광득 (문교부 차관)
 이민우 (외무부 차관)
 이광표 (문화공보부 차관)
 문홍주 (헌법위원회 위원) (선출)
【사무총장】
 김규택 (8대)
【위원】
 차락훈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병 (국회의원)
 서명원 (충남대학교 총장)
 노희원 (전남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윤천주 (서울대학교 총장)
 이선근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영덕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임철순 (중앙대학교 총장)
 정범모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회장)
 정태수 (문교부 사회교육국장)
 조병규 (경상남도 도지사)
 최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우인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고범준 (산학협동재단 사무총장)
 김형기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이재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정해수 (유네스코 협동학교 대표)
 조순탁 (한국과학원 원장)
 최성석 (국회의원)
 한만은 (고려대학교 출판부장)
 한상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현병구 (자원개발연구소 소장)
 이항녕 (홍익대학교 총장)

김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원장)
 고병익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김경원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김명희 (국회의원)
 민병선 (국가안전보장회의 연구위원)
 정상천 (대통령 정무제2수석비서관)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
 현승중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숙중 (국회의원)
 이우주 (연세대학교 총장)
 김세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자)
 김원룡 (서울대학교 박물관 관장)
 유운소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이봉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보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숙희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장)
 정운무 (유네스코 학생지도 교수대표)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창봉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원경수 (대한공론사 이사장)
 채문식 (국회의원)
 구룡현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승한 (중앙일보 주필)
 김용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방일영 (국제신문인협회 회장)
 선우휘 (조선일보 주필)
 안재준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환의 (문화방송 경향신문사 사장)
 임방현 (대통령공보수석 비서관)
 최세경 (국회의원)

13대 위원 (1979.3.30 ~ 1981.3.30)

【위원장】
 박찬원 (문교부 장관) (21대)
 김옥길 (문교부 장관) (22대)
 이규호 (문교부 장관) (23대)
【부위원장】
 장인숙 (문교부 차관)
 김관영 (문교부 차관)
 김형기 (문교부 차관)
 이상규 (문교부 차관)
 이민우 (외무부 차관)
 김동휘 (외무부 차관)
 이영선 (과학기술처 차관)

이광표 (문화공보부 차관)
김은호 (문화공보부 차관)
문홍주 (헌법위원회 위원) (선출)

[사무총장]

김규택 (8대)
박봉식 (9대)

[위원]

설인수 (국회의원)
손영경 (서울시 교육위원)
곽종원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박정숙 (걸스카우트 사무 총장)
서명원 (충남대학교 총장)
손희식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이창갑 (서울시 교육감)
이영덕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대순 (문교부 기획관리실장)
장기옥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김기형 (전 과학기술처 장관)
고병준 (산학협동재단 사무총장)
이우주 (연세대학교 총장)
이재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임용규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전중휘 (인제외과대학 학장)
조순탁 (한국과학원 원장)
천병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최상업 (서강대학교 부총장)
최성석 (국회의원)
현병구 (자립개발연구소 소장)
전승희 (한국여류문학인회)
정희채 (국회의원)
고 건 (대통령 정무제2수석비서관)
박종규 (국회의원)
이선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이봉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원설 (경희대학교 교수)
유운소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정범모 (충북대학교 총장)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인복 (한국국대대학교 총장)
한성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승환 (중앙일보 주필)
채문식 (국회의원)
김용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순양 (YWCA 총무)
선우휘 (조선일보 주필)

손세일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현의 (문화방송, 경향신문사 사장)
이원경 (국제신문인협회 회장)
임철순 (중앙대학교 총장)
최세경 (한국방송공사 사장)

14대 위원 (1981.3.31 ~ 1983.3.30)

[위원장]

이규호 (문교부 장관) (23대)

[부위원장]

정태수 (문교부 차관)
김동휘 (외무부 차관)
노재원 (외무부 차관)
김은호 (문화공보부 차관)
허문도 (문화공보부 차관)
이웅선 (과학기술처 차관)
김용환 (과학기술처 차관)
권이혁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박봉식 (9대)

[위원]

이항녕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회장)
류형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중서 (한국사회교육협회 회장)
구룡현 (국회의원)
신극범 (한양대학교 교수)
이돈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이상주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범모 (충북대학교 총장)
연구형 (충북대학교 총장)
정우현 (고려대학교 교수)
최열근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신극범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홍용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정범석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박동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강원채 (국회의원)
권태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총장)
김규택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김달중 (연세대학교 교수)
김여수 (서울대학교 교수)
문홍주 (부산대학교 총장)
이시영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조 순 (서울대학교 교수)
우인근 (동남아지역천연화학물센터 소장)
김봉균 (동남아지역지구과학 네트워크 대표)
김병렬 (국회의원)
김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
김영기 (전 문교부 차관)
박승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안세희 (연세대학교 총장)
윤영훈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이상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이주천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이대원 (홍익대학교 총장)
황수영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박원탁 (국회의원)
여석기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위원장)
유현목 (한국영화인협회)
이광구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원 (문화공보부 국제교류국장)
이현복 (서울대학교 교수)
장사훈 (한국국악교육회 회장)
정윤우 (동국대학교 교수)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홍일해 (연한통신사전보)
이봉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관장)
강기필 (국회의원)
문태갑 (서울신문사장)
민영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종률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원홍 (한국방송공사 사장)
조남주 (국회의원)
조덕승 (조선일보 논설주간)
차배근 (서울대학교 교수)

15대 위원 (1983.3.31 ~ 1985.5.30)

[위원장]

이규호 (문교부 장관) (23대)
권이혁 (문교부 장관) (24대)
손제석 (문교부 장관) (25대)

[부위원장]

정태수 (문교부 차관)
정희채 (문교부 차관)
노재원 (외무부 차관)
이상옥 (외무부 차관)
허문도 (문화공보부 차관)

박현태 (문화공보부 차관)
김용환 (과학기술처 차관)
조경목 (과학기술처 차관)
권이혁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이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사무총장]

박봉식 (9대)
조성옥 (10대)

[위원]

장인숙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중서 (한국사회교육협회 회장)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배종근 (동국대학교 교수)
서명원 (충남대학교 총장)
신능순 (국회의원)
신극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류형진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영덕(유네스코 교육혁신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태범 (문교부 고직국제국장)
조규향 (문교부 고직국제국장)
홍용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정윤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김여수 (서울대학교 교수)
권태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강원채 (국회의원)
김기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안승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업 (고려대학교 총장)
변중수 (유네스코협회연맹 부회장)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이시영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조 순 (서울대학교 교수)
한배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김봉균 (동남아지역과학 네트워크 대표)
한병훈 (서울대학교 생물연구소 소장)
이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김병렬 (국회의원)
김형철 (한국MAB 국내위원회 위원)
목영일 (아주공과대학 대학원 원장)
박궁식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소장)
안세희 (연세대학교 총장)
한수는 (IHP한국위원회위원장)
윤영훈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김지문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임 관 (한국과학기술원장)
 전학제 (한국과학기술원장)
 송지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이대원 (홍익대학교 교수)
 김광식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김규택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김성진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손보기 (연세대학교 교수)
 신영균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장)
 조경희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장)
 이타훈 (국회의원)
 이광규 (서울대학교 교수)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한만영 (서울대학교 교수)
 한말숙 (작가)
 정종식 (연합통신사 사장)
 이봉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
 강기필 (국회의원)
 남재희 (국회의원)
 문태갑 (서울신문사 사장)
 이우세 (서울신문사 사장)
 민영빈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박홍수 (연세대학교 교수)
 방우영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이원홍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웅희 (문화방송 사장)
 한중우 (코리아 헤럴드 사장)

16대 위원 (1985.5.31 ~ 1987.3.29)

【위원장】

손제석 (문교부 장관) (25대)

【부위원장】

김찬재 (문교부 차관)
 이상옥 (외무부 차관)
 오재희 (외무부 차관)
 김윤환 (문화공보부 차관)
 최창윤 (문화공보부 차관)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
 박태원 (인하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조성옥 (10대)

【위원】

장인숙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장)

강우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란수 (충남대학교 총장)
 김보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일경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영덕 (아세아교육혁신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영빈 (전북대학교 총장)
 유인중 (고려대 사범대학 학장)
 심의구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박봉식 (서울대학교 총장)
 한상복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장)
 윤형원 (한국고원교육연구회 회장)
 김중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남영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김세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신섭중 (부산대학교 사회대학교수)
 안승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준범 (고려대학교 총장)
 김효규 (아주대학교 총장)
 정수봉 (동아대학교총장)
 차하순 (서강대학교 교수)
 홍승식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 의장)
 홍순우 (동남아지역 미생물학네트워크 대표)
 한병훈 (서울대학교생약연구소 소장)
 김형철 (한국MAB 위원회 위원)
 박길홍 (한국MAB 위원회 위원)
 김삼룡 (원광대학교 총장)
 김형덕 (한국여성개발원장)
 박한설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한배호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김용한 (전국대학교 법정대학교수)
 서영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유태완 (한국방송공사 감사)
 이수정 (문화방송 전무)
 주순호 (국립중앙도서관장)
 홍순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유경희 (한국데이터통신(주)연구위원)
 조성진 (충북대학교 총장)
 최지훈 (강릉대학교 총장)
 오수영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의경 (한국연구협회 이사장)
 김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신현천 (경상대학교 총장)
 이영재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강현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상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정오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조완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경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한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세중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최승범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한만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우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수)
 신상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수)
 이광규 (서울대학교 교수)
 전숙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정기돈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천호신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전영동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상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오진환 (한양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윤동운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이광표 (연합통신사 사장)
 이재철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진희 (한국신문협회 회장)
 임인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황선필 (문화방송사 사장)

17대 위원 (1987.3.30 ~ 1989.3.29)

【위원장】

손제석 (문교부 장관) (25대)

서명원 (문교부 장관) (26대)

김영식 (문교부 장관) (27대)

정원식 (문교부 장관) (28대)

【부위원장】

김찬재 (문교부 차관)

김상준 (문교부 차관)

장병규 (문교부 차관)

장기옥 (문교부 차관)

오재희 (외무부 차관)

박쌍용 (외무부 차관)

신동원 (외무부 차관)

최창윤 (문화공보부 차관)

강홍식 (문화공보부 차관)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
 신만교 (과학기술처 차관)
 최영환 (과학기술처 차관)
 김효규 (아주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조성옥 (10, 11대)

【위원】

강우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란수 (충남대학교 총장)
 (아태지역교육혁신사업 국내위원회 위원장)
 김신양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유인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윤형원 (한국고원교육연구회 회장)
 장인숙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중서 (특성여자대학교 총장)
 김호권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형효 (국회의원)
 이남영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김삼룡 (원광대학교 총장)
 김형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한설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차하순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한배호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한상복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운영위원)
 김용한 (전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서영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경근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재원 (국회의원)
 김세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박길홍 (한국MAB 국내위원회 위원)
 유경희 (한국데이터통신(주)연구위원)
 조성진 (충북대학교 총장)
 최지훈 (강릉대학교 학장)
 한병훈 (유네스코천연문화유산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수영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영재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김일운 (국회의원)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김광인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김의경 (한국연구협회 이사장)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전숙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정한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조경희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최승범 (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정기돈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한만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봉두완 (국회의원)
 전영동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오진환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하경근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유태완 (한국방송공사 감사)
 이수정 (문화방송 전무)
 신정후 (문화방송 전무)
 임인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권병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순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이천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홍순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강현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성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경남 (국회의원)
 박 실 (국회의원)

18대 위원 (1989.3.30 ~ 1991.3.29)

【위원장】

정원식 (문교부 장관) (28대)
 윤형섭 (교육부 장관) (29대)

【부위원장】

장기옥 (문교부 차관)
 조규향 (문교부 차관)
 신동원 (외무부 차관)
 유중하 (외무부 차관)
 강용식 (문화공보부 차관)
 허만일 (문화공보부 차관)
 최영환 (과학기술처 차관)
 서정옥 (과학기술처 차관)
 김종서 (한국지역사회교육후원회부회장(선출))

【사무총장】

조성옥 (11대)
 김영식 (12대)

【위원】

장인숙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구병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란수 (아태지역교육혁신사업국내위원회위원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강우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인곤 (국회의원)
 신세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윤형섭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이병호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장)
 이성진 (한국행정과학연구소 소장)
 이영덕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선제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김상구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황종진 (명지대학교 교수)
 차하순 (서강대학교 부총장)
 한상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강삼재 (국회의원)
 김대연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김은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문동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송영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양성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이호재 (고려대평화연구소 소장)
 조 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최 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황일청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한양대학교 상경대학교수))

한병훈 (유네스코천연문화유산네트워크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교수))
 하여영 (동남아미생물학네트워크 대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권갑택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신경식 (국회의원)
 유광일 (한양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심재형 (한국해양학회 회장)
 유경희 (한국데이터통신(주)연구위원)
 이영재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부총장)
 이종옥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소장)
 전무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재명 (산림청 임업연구소 소장)
 최동식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전승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광일 (문화공보부 문화국장)
 신형용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김정옥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회장)
 손주향 (국회의원)
 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이기문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전봉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강선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윤양중 (예술의전당 이사장)
 조경희 (예술의전당 이사장)
 한만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오진환 (한양대학교인문과학대학 교수)
 강현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동호 (영화진흥공사 사장)
 권병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진해술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임인규 (국회의원)
 최 훈 (국회의원)
 이천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황규환 (KBS방송연수원 원장)
 박배식 (KBS방송연수원 원장)
 홍순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남시옥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김진현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19대 위원 (1991.3.30 ~ 1993.3.29)

【위원장】

윤형섭 (교육부 장관) (29대)
 조완규 (교육부 장관) (30대)
 오병문 (교육부 장관) (31대)

【부위원장】

조규향 (교육부 차관)
 이천수 (교육부 차관)
 유중하 (외무부 차관)
 노창희 (외무부 차관)
 홍순영 (외무부 차관)
 허만일 (문화부 차관)
 김동호 (문화부 차관)
 박태권 (문화부 차관)
 서정옥 (과학기술처 차관)
 박진호 (과학기술처 차관)
 한영성 (과학기술처 차관)
 김종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선출)

【사무총장】

김영식 (12대)
 정희재 (13대)

【위원】

김란수 (아태지역교육혁신사업국내위원회위원장)
 구병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신세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중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정연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오덕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조영승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장)
 황종진 (명지대학교 교수)
 (아태지역 모든이를 위한 교육사업 국내위원장)
 김종서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회 상임부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홍기형 (중앙대학교 기획실장)
 김상구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금승호 (교육부 사회국제교육총장)
 이영덕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현승중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철수 (국회의원)
 김영수 (국회의원)
 권원기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김호기 (국립과학관 관장)
 한영성 (국립과학관 관장)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유경희 (한국데이터통신(주)연구위원)
 하여영 (동남아미생물학네트워크 대표)
 한병훈 (유네스코천연문화유산네트워크 사무국장)
 한상복 (한국MAB위원회의 위원장)
 조병환 (한국MAB위원회의 위원장)
 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정인 (고려대학교 교수)
 권갑택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류희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김필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함중환 (국회의원)
 김동근 (국회의원)
 김홍균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사무차장)
 조 형 (이화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장)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 연구소장)
 윤석현 (유네스코본부 집행위원)
 이석희 (대우문화재단 이사장)
 최 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조명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한상복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수))
 홍승직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장)
 백충현 (서울대학교 교수)

차인석 (서울대학교 교수)
 차하순 (서강대학교 교수)
 문동석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김재섭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이 철 (국회의원)
 함태혁 (유네스코 본부 집행위원)
 김정옥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회장)
 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정한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이기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이승열 (국립국악원 원장)
 전소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문덕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주국성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박석홍 (문화일보 학술부장)
 이기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신현옥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김일동 (국회의원)
 정주일 (국회의원)
 이종선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미술관 부관장)
 정한숙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권병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낙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권순용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호 (한국영화진흥공사 사장)
 윤 탁 (한국영화진흥공사 사장)
 박배식 (KBS 방송연수원장)
 신대근 (MBC 보도제작국장)
 고성관 (MBC 보도제작국장)
 강현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수)
 박홍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교수)
 김찬수 (KBS 방송연수원장)
 장영국 (KBS 방송연수원장)
 이상옥 (국회의원)
 홍기훈 (국회의원)

20대 위원 (1993.3.30 ~ 1995.3.23)

[위원장]

오병문 (교육부 장관) (31대)
 김숙희 (교육부 장관) (32대)

[부위원장]

이천수 (교육부 차관)
 홍순영 (외무부 차관)

박건우 (외무부 차관)
 이시영 (외무부 차관)
 박태권 (문화체육부 차관)
 김도현 (문화체육부 차관)
 한영성 (과학기술처 차관)
 구본영 (과학기술처 차관)
 김란수 (아태지역교육혁신사업국위원회의위원장(선출))

[사무총장]

정희재 (13대)
 차인석 (14대)

[위원]

한중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구병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덕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상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창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장)
 김사홍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장)
 황중건 (아태지역모든이름위한교육사업국위원장)
 김종서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회장)
 이영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형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성호 (연세대학교 학생처장)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김성동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유성환 (국회의원)
 한병훈 (유네스코천연문화유산네트워크 대표)
 하여영 (동남아미생물학네트워크 대표)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권갑택 (국립중앙과학관장)
 조병환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엄정인 (고려대학교 교수)
 유희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경종철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임재춘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송원오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김인영 (국회의원)
 임중철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백안기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이봉순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연합회 회장)
 양성철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준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김경동 (서울대학교 교수)

백충현 (서울대학교 교수)
 한상복 (서울대학교 교수)
 금정호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이삼열 (사회와 철학연구회 부회장)
 김종위 (국회의원)
 함명철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문덕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신영균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손주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중엽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성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이승렬 (국립국악원 원장)
 김광락 (국립국악원 원장)
 이우호 (국립국악원 원장)
 임영방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고병의 (한림대학교 교수)
 김정옥 (중앙대학교 교수)
 김진무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김용문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이중엽 (국제교류재단 전무이사)
 장영달 (국회의원)
 오진환 (한양대학교 교수)
 김낙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 탁 (한국영화진흥공사 사장)
 방원협 (KBS 방송연구원 원장)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이 중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윤혁기 (한국방송개발원 원장)
 엄효현 (한국방송개발원 원장)
 윤석근 (체신부 정보통신국장)
 이인표 (체신부 정보통신국장)
 오진환 (한양대학교 교수)
 유재천 (서강대학교 교수)
 홍기훈 (국회의원)

21대 위원 (1995.3.24 ~ 1997.3.11)

[위원장]

김숙희 (교육부 장관) (32대)
 박영식 (교육부 장관) (33대)
 안병영 (교육부 장관) (34대)

[부위원장]

이천수 (교육부 차관)

이영탁 (교육부 차관)
 이시영 (외무부 차관)
 이기주 (외무부 차관)
 김도현 (문화체육부 차관)
 김종민 (문화체육부 차관)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
 구본영 (과학기술처 차관)
 임창열 (과학기술처 차관)
 이부식 (과학기술처 차관)
 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차인석 (14대)
 권태준 (15대)

[위원]

김중서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회장)
 한중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구병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중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사홍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장)
 이태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태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선제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서범석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박석무 (국회의원)
 함중환 (국회의원)
 한병훈 (유네스코천연문화유산네트워크 대표)
 하여영 (동남아미생물학네트워크 대표)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권갑택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송원오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윤창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종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정 용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장)
 이용수 (동아일보 편집위원)
 경종철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유희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권오갑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김원옥 (국회의원)
 안택수 (국회의원)
 엄정식 (한국철학회 발전위원장)
 백남치 (국회의원)
 서상목 (국회의원)

박춘호 (한국해양법학회 회장)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성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양성철 (한국국제정치학회 고문)
 이삼열 (사회와 철학연구회 회장)
 백완기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임희섭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조철화 (유네스코협회연맹 부회장)
 백충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상복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김재운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
 함명철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이 양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백남치 (국회의원)
 이성천 (국립국악원 원장)
 한석진 (국제교류재단 전무이사)
 김정옥 (IT 본부 회장)
 문덕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고병익 (실크로드한국위원장)
 김진무 (문화재관리국장)
 이두식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김무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김홍문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정기영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김순규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김호일 (국회의원)
 김한길 (국회의원)
 김나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오진환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장)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유재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원우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김광식 (한국유선방송협회 부회장)
 정연준 (한국교육방송원 원장)
 박홍수 (한국교육방송원 원장)
 임상원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명진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송광호 (국회의원)
 박범진 (국회의원)
 한태열 (한국케이블TV 연구소장)

22대 위원 (1997.3.12 ~ 1999.3.14)

[위원장]

안병영 (교육부 장관) (34대)
 이명철 (교육부 장관) (35대)
 이해찬 (교육부 장관) (36대)

[부위원장]

이영탁 (교육부 차관)
 이용원 (교육부 차관)
 조선제 (교육부 차관)
 이기주 (외무부 차관)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
 김종민 (문화체육부 차관)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
 이부식 (과학기술부 차관)
 송옥환 (과학기술부 차관)
 김중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선출)
 이상주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회장) (선출)

[사무총장]

권태준 (15대)

[위원]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구병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현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중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란수 (영주대학교 총장)
 신극범 (영주대학교 총장)
 정석구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이종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김중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정희경 (국회의원)
 함중환 (국회의원)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한준상 (아태지역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한국위 위원장)
 박종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 위원회 위원장)
 강성용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 위원회 위원장)
 안영재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 위원회 위원장)
 한병훈 (유네스코 천연물 화학네트워크 한국대표)

하영칠 (유네스코 동남아 미생물학네트워크 한국대표)
 김명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안택수 (국회의원)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장희익 (유네스코 아태지역 물리교육네트워크 한국대표)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권오갑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협력국장)
 최재익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협력국장)
 전의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서대원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이규형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한상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삼열 (사회와 철학연구회 회장)
 김재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백충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교수)
 서상목 (국회의원)
 임희섭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안병영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최상용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최정호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고병익 (1987년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문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김윤식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김한길 (국회의원)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원장)
 정기영 (문화재관리국장)
 정문교 (문화재관리국장)
 이성천 (국립국악원 원장)
 한명희 (국립국악원 원장)
 문덕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차범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박홍수 (한국교육방송원 원장)
 원우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손용기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박명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장)
 박범진 (국회의원)
 양윤길 (해외공보관 관장)
 박영길 (해외문화홍보원장)
 안국정 (한국방송공사 편성본부장)
 유재천 (한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안병영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통신개발연구원 원장)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박범진 (국회의원)
 이상욱 (한국방송공사 특임본부장)

23대 위원 (1999.3.15 ~ 2001.3.14)

[위원장]

이해찬 (교육부 장관) (36대)
 김택중 (교육부 장관) (37대)
 문용린 (교육부 장관) (38대)
 송 자 (교육부 장관) (39대)
 이돈희 (교육부 장관) (40대)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1대)

[부위원장]

조선제 (교육부 차관)
 이원우 (교육부 차관)
 김상권 (교육부 차관)
 선준영 (외교 통상부 차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
 송옥환 (과학기술부 차관)
 한정길 (과학기술부 차관)
 조건호 (과학기술부 차관)
 이상주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회장) (선출)

[사무총장]

권태준 (15대)
 김여수 (16대)

[위원]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찬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이현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광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준상 (아태지역 모든이를 위한 교육사업 한국위 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고 용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박경재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정희경 (국회의원)
 함중한 (국회의원)
 이규택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강광남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원장)
 박은정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이금휘 (유네스코아태지역물리교육네트워크 한국대표)
 조규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안영재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위원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희익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명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상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문유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황우여 (국회의원)
 최정일 (국제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유남 (한국정치학회 회장)
 하영선 (한국평화학회 회장)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안병영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김문환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원장)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김우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원장)
 이삼일 (철학연구회 회장)
 최충옥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최상용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규형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최중무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이원복 (국회의원)
 조부영 (국회의원)
 정문교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장)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치근 (한국기업예술협회의 사무처장)
 한명희 (국립국악원 원장)
 윤미용 (국립국악원 원장)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이상택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정옥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도정일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최정호 (문화비전2000추진위원회 위원장)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서경배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장)
 김일주 (국회의원)
 박창달 (국회의원)
 차범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유재천 (한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동구 (한국언론재단 원장)
 김봉기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김상균 (문화방송 보도국장)
 박홍수 (한국교육방송원 원장)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서삼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오택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이경자 (한국방송진흥원 원장)
 박명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범진 (국회의원)
 설 훈 (국회의원)
 강대영 (한국방송공사 방송정책실장)
 김요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4대 위원 (2001.3.15 ~ 2003.3.14)

【위원장】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1대)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2대)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3대)

【부위원장】

김신복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상권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

윤형구 (문화관광부 차관)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이승구 (과학기술부 차관)

김신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신출)

【사무총장】

김여수 (16대)

【위원】

김신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광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성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이현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한준상 (아태지역 모든이를 위한 교육사업 국내조정관)
 이인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기획관)
 김정숙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금휘 (유네스코 아태지역 물리교육 네트워크 한국대표)
 박은정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강광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위원장)
 전병성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위원장)
 김희준 (서울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문순홍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정광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이규택 (국회의원)
 문유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이경숙 (유네스코 석좌교수) (숙명여대 총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조 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하용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한상진 (한국인권재단 이사)

황운원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천영우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조부영 (국회의원)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전의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윤미용 (국립국악원 원장)
 이연택 (한국관광연구원 원장)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정연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정옥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정홍익 (문화정책학회 회장)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든중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윤창하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박창달 (국회의원)

서삼영 (한국전선원 원장)
 윤영민 (인터넷 이용자 포럼 공동대표)

오택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목진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백옥인 (서울산업대학교 인문자연학과 교수)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김봉기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양승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노희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양준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윤창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전창오 (정보통신연구원 원장)

김경천 (국회의원)

25대 위원 (2003.3.15 ~ 2005.3.14)

【위원장】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3대)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4대)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5대)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6대)

【부위원장】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이승구 (과학기술부 차관)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선출)
【사무총장】
 김여수 (16대)
【위원】
 김신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김영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조규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도재원 (거창고등학교 교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경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김동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문희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최영희 (국회의원)
 현승일 (국회의원)
 김영화 (인간과생물권 계획한국위원회 위원장)
 손희만 (인간과생물권 계획한국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유네스코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정광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권철현 (국회의원)
 박정택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이문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권이중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돈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장율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김병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경구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조부영 (국회의원)
 김명곤 (국립극장 극장장)
 윤미용 (국립국악원 원장)
 김철호 (국립국악원 원장)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이종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강홍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부교수)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김장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백 익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이미경 (국회의원)
 김교정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센터 소장)
 서삼영 (한국전산원 원장)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윤영민 (인터넷이용자포럼 공동대표)
 이자범 (정보사회학회 회장)
 이평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부회장)
 오택섭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윤영탁 (국회의원)
 양춘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형태근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26대 위원 (2005.3.15 ~ 2007.3.14)

【위원장】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6대)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7대)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8대)
【부위원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조규향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선출)
【사무총장】
 이삼열 (17대)
【위원】

성경희 (유네스코교육연구소(UEI) 집행위원)
 김기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강대근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최정일 (인간과생물권계획(MB)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김차동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변상경 (한국해양학회(KOC) 위원장)
 염기대 (한국해양학회(KOC) 위원장)
 송진용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
 안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서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순탁 (국제수문학계(ICP)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양과정부 교수)
 송상용 (세계과학기술위원회(KOIST) 부위원장)
 강정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맹광호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
 서동만 (상지대 교양과 교수)
 오 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강경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윤덕홍 (한국하중양연구원장)
 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황경식 (철학연구회장)
 김문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정현 (문화연대 공동대표)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근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성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성남기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종철 (한국진흥문화학교 총장)
 이평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부회장)
 하은나 (한국정보통신대 총장)
 이창근 (한국인문학회장)
 김영식 (한국인문학회장)
 권영만 (교육방송(EBS) 사장)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손연기 (정보문화진흥원장)
 오택섭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민 (정보트러스트센터 대표)
 이경숙 (유네스코 석좌교수)
 이종수 (한국방송(KBS) 이사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27대 위원 (2007.3.15 ~ 2009.3.14)

【위원장】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8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9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0대)
【부위원장】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정 윤 (과학기술부 차관)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김장실 (문화관광부 차관)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출)
【사무총장】
 이삼열 (17대)
 전택수 (18대)
【위원】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신장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인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평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권철원 (국회의원)
 김교홍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황우여 (국회의원)
 조병돈 (이천시장)
 고철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송상홍 (세계과학기술위원회(ICOMOS)부위원장)
 연기대 (한국해양학위원회(KOCC) 위원장)
 강정국 (한국해양학위원회(KOCC) 위원장)
 이순탁 (국제수문학포럼(IAGLR) 한국위원회 위원)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공동부대표)
 노경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박찬모 (포스텍 총장)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장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서상기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원우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정운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맹광호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전태국 (한국사회학회 회장)
 홍두승 (한국사회학회 회장)
 이진우 (계명대학교 총장)
 임해규 (국회의원)
 이광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장)
 임관식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장)

김두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주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고석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해경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민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상호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반광록 (청주시 기획행정국장)
 남봉익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송인범 (문화재청 차장)
 허은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성남기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장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규태 (한국언론학회 회장)
 권혁남 (한국언론학회 회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김영준 (국회의원)
 노영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설정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28대 위원 (2009.3.15 ~ 2012.3.14)

[위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0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1대)
[부위원장]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장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
 민동석 (외교통상부 차관)
 김장실 (문화관광부 차관)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경숙 (대한적십자사미대전략특별위원장(산술))
[사무총장]
 전택수 (18대)
[위원]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상대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덕환 (사강대 자연과학부 교수)
 이일용 (중앙대 사범대학 학장)
 이평우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유재진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조병돈 (이천시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영진 (국회의원)
 황우여 (국회의원)
 정 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해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송중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김지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우예중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최양도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
 배은희 (국회의원)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맹광호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김두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전희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환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광영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연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
 김형수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
 노희용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
 서동진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
 강왕기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재은 (예술의 전당 음악자문위원)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최정필 (ICOMOS한국위원회 위원장)
 박보환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서경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효은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박상덕 (국가기록원장)
 이경옥 (국가기록원장)
 박성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조명우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성남기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우진영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안병무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정준영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반재홍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29대 위원 (2012.3.15 ~ 2015.3.14)

[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1대)
 서남수 (교육부 장관) (52대)
 황우여 (교육부 장관) (53대)

[부위원장]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조을래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성한 (외교통상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차관)
 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은경 (물포럼 총재)(선출)

[사무총장]

전택수 (18대)
 민동석 (19대)

[위원]

안양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임천순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조병돈 (이천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최충옥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
 한승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황대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홍근 (국회의원)
 신학용 (국회의원)
 박성호 (국회의원)

박항식 (국립중앙과학관장)
 변상경 (유네스코 IOC 의장)
 김중훈 (IHP 한국위원회 대표)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
 서혜애 (부산대 과학교육과 교수)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이혜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성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은희 (국회의원)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홍순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관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홍성욱 (신경인문학연구회 회장)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ICOM 한국위원장)
 김영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노희용 (평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김상호 (평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영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김원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정경원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윤덕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이문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유재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신승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장)
 강중협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교정 (숙명여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김상현 (네이버 대표이사)
 심장섭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이충근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여주희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이홍규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희정 (국회의원)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적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과학·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제 1 조 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 헌장이 세계 국민들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2.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다음을 행한다.
 - 가) 모든 형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국민들 사이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약을 권고한다.
 - 나) 아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신성한 자극을 준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교육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당사국과 협력하며, 인종이나 성 또는 경제적·사회적 구분을 두지 않은 교

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이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 관계를 이룩하고, 세계 어린이들이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 다) 아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하며 전파한다.

세계 유산인 도서와 예술 작품, 역사적·과학적 기념물을 보존 보호하고 필요한 국제 협약을 관련 국가들에게 권고하며,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교류와 출판물 및 예술적·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물건과 기타 참고 자료의 교환 등을 포함하는 지적 활동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을 장려하고,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 또는 출판물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발의한다.

3. 이 기구의 회원국의 문화와 교육 제도의 독립, 통일성 및 결실이 많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본질적으로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 2 조 회원국의 지위

1.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될 권리를 수반한다.
2.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은 이 헌장의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이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집행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의 투표로 이기구의 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국제 관계의 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속령 또는 속령의 집단은 그들의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의 대리 신청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준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준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성질과 범위는 총회가 결정한다.
4. 국제연합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당한 이 기구의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구의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당한다.
5. 국제연합으로부터 제명된 이 기구의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6. 이 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 해 12월 31일 발효한다. 이러한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는 날 현재 이 기구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재정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회원국의 탈퇴 통고는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이 대리하여 행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기구에 상주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8. 회원국의 상주대표는 이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신임장이 제출된 날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한다.

제 3 조 제 기구

이 기구는 총회,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 4 조 총회

(가) 구성

1. 총회는 이 기구의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회원국 정부는 국가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때는 이것과,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육·과학·문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5인 이내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임무

1. 총회는 이 기구의 정책과 사업의 중요한 방침들을 결정한다. 총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결정한다.
2.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 과학 및 인문과학과 지식의 보급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총회와 집행이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동일한 주제의 비정부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원국에게 제안할 안건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권고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국제 협약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투표로 족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각 회원국은 권고 또는 협약을 채택한 총회가 폐회한 후 1년 이내에 그 권고 또는 협약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5조 제6항 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는 국제연합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과학 및 문화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이 기구와 국제연합의 적당한 당국간에 합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에 조언한다.
5. 총회는 회원국이 이 기구에 제출하는 위 제4항에 언급된 권고와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심의하며,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 보고서의 분석요지를 수령하고 심의한다.
6. 총회는 집행이사회를 임명하며 집행이사회에 임명하는 권고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다) 표결

1. 가)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결은 이 헌장장의 규정과 총회의 절차 규칙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다수에 따라 행한다. 다수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 한다.
나) 회원국은 채납된 분담금 총액이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다) 다만, 총회는 지불 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라) 절차

1. 가) 총회는 2년 마다 정기 회기를 개최한다. 총회는 총회자체의 결정이나 집행이사회에의 소집 또는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총회는 매 회기마다 차기 정기 회기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 개최 장소는 총회가 소집할 때는 총회가 결정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2. 총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회기마다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3. 총회는 특별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기타 총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기관을 설치한다.
4. 총회는 그것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회의가 공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옵서버

1. 총회는 그 절차 규칙에 따라 집행이사회에의 추천과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총회 또는 그 위원회의 특정한 회기에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국제 기구의 대표자를 옵서버로 초청할 수 있다.
2.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국제비정부기구 또는 준정부기구와의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기구들에게 총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이사회

(가) 구성

1. 가)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하며 58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의장은 직권상 고문의 자격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한다.
나) 선출된 집행이사국은 이하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지칭한다.
2. 가) 각 집행이사회 위원은 대표자 1인을 임명해야 하며, 교체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나) 집행이사회 대표를 선택할 때 집행이사회 위원은 유네스코 활동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행정 및 집행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표의 임기는 집행이사회위원의 임기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3. 집행이사회 위원을 선출할 때 총회는 문화적 다양성과 균형있는 지리적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
4. 가) 집행이사회 위원은 그를 선출한 총회 회기의 종료시부터 동선임하기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의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총회는 매 정기총회 회기 종료시에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위원을 선출한다.
나) 집행이사회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국의 중임 위원들은 그 대표를 교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5. 집행이사회 위원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경우 그 임기는 탈퇴가 발효되는 날 종료된다.

(나) 임무

6. 가)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의사 일정을 준비한다. 집행이사회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이 기구의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의 사항을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총회의 권한하에서 행동하는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채택한 사업 계획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두 정기 회기 사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사업 계획을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정기 회기 사이에 자문이 요구되는 문제로 총회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다루어졌거나 또는 그 해결책이 총회의 결정사항에 내포되었을 때에는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7. 집행이사회는 새 회원국의 이 기구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한다.
8.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집행이사회는 위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9. 집행이사회는 2년마다 적어도 4회의 정기 회기를 갖고 의장의 발의나 집행이사회 위원 6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기를 가질 수 있다.
10. 집행이사회 의장은 집행이사회를 대표하며 제6조 제3항 나)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준비한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의견을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고 총회의 매 정기 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집행이사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이 기구의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3. 집행이사회는 또한 총회 전체를 대신하여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6 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집행이사회가 지명하고 4년의 임기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4년을 더 연임할 수 있으나 또다시 연임할 수는 없다.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행정상의 수석 임원이다.
3. 가)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은 총회와 집행이사회 및 이 기구의 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집행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 기구의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르는 예산안을 집행 이사회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나)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과 집행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 수록될 기간은 총회가 결정한다.

4.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직원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최고 수준의 성실성과 능력, 기술적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최우선의 고려를 하되 급급적 광범한 지리적 안배를 하여 임명해야 한다.
5.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무는 그 성격상 오로지 국제적인 것이다. 임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이 기구 외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훈령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적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된다.
6.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 기구가 국제연합내에서 공동의 업무와 직원 겸임, 그리고 직원의 교류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제 7 조 국내 협력단체

1. 회원국은 교육·과학·문화와 관련한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로서는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널리 대표하는 국가위원회의 설립이 요망된다.
2. 국가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을 경우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자국 대표단과 집행이사회의 대표 및 교체 대표, 그리고 자국의 정부에게 자문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구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3. 이 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 국가위원회 활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 직원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국의 보고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과학·문화 활동과 관련된 법령, 규칙 또는 통계에 관하여, 그리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권고와 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예산

1. 예산은 이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2. 총회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되는 협정에 규정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협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 또는 이 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 재정적 부담의 할당을 승인하고 또 이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
3. 사무총장은 재정 규정에 따라 정부, 공적·사적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 증여, 유증 또는 보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이 기구는 국제연합 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가급적 조속히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관계는 국제연합 헌장 제63조에 의거한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이 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정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기구 간의 유효한 협력을 규정하고 동시에 이 헌장이 정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기구의 자치를 승인해야 한다. 이 협정은 특히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이 기구의 예산 승인과 그 재원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다른 국제전문기구와의 관계

1. 이 기구는 그 관심과 활동이 이 기구의 목적과 관계있는 다른 정부간 전문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전반적 권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또 유효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구와 체결하는 정식의 협정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기구의 총회와 그리고 목적과 임무가 이 기구와 관련된 다른 정부간 전문 기구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자산과 활동을 이 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간에 이를 수락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기구는 회합에 상호간의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다른 정부간 기구와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계하고 있는 비정부국제기구와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 기구에 특정한 임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총회가 설립한 자문위원회에 이들 기구의 대표자가 적절하게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12 조 이 기구의 법적 지위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은 이 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13 조 개정

1. 이 헌장의 개정 제안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기구 목적의 근본적 변경 또는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그 승인 후 회원국의 3분의 2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개정 제안의 초안은 적어도 총회의 심의 6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2. 총회는 본 조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규칙을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 14 조 해석

1. 이 헌장의 영어와 불어의 본문은 동등하게 정문으로 간주한다.
2. 이 헌장의 해석에 관한 의견 또는 분쟁은 총회가 그 절차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그 결정을 위하여 위탁한다.

제 15 조 효력의 발생

1. 이 헌장은 수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수락서는 영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2. 이 헌장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여 영국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둔다. 서명은 수락서의 기탁전이나 후라도 행할 수 있다. 수락 전후에 서명이 행해지지 않으면 수락은 효력을 발생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구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지 새로운 수락서를 기탁하면 된다.
3. 이 헌장은 서명국 중 20개국이 수락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의 수락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4. 영국 정부는 모든 수락서의 수령과 이 헌장이 전함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사무총장에 통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영어와 불어를 동등하게 정문으로 하는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영어와 불어의 정문 각 1통을 작성하였다. 인증 등본은 영국 정부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dopted in London on 16 November 1945 and amend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2th, 15th, 17th, 19th, 20th, 21st, 24th, 25th, 26th, 27th, 28th, 29th and 31st sessions.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on behalf of their peoples declare: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hat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

That the great and terrible war which has now ended was a war made possible by the denial of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the dignity, equality and mutual respect of men, and by the propagation, in their place, through ignorance and prejudice, of the doctrine of the inequality of men and race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fil in a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That a peace based exclusively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arrangements of governments would not be a peace which could secure the unanimous, lasting and sincere support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hat the peace must therefore be founded, if it is not to fail, upon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mankind,

For these reasons,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believing in full and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for all, in the unrestricted pursuit of objective truth, and in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re agreed and determined to develop and to increa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peoples and to employ these means for the purpose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a truer and more perfect knowledge of each other's lives;

In consequence whereof they do hereby creat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rough the educational and scientific and cultural rela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of the common welfare of mankind for whic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which its Charter proclaims,

Article I, Purposes and functions

1.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order to further universal respect for justice, for the rule of law and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affirmed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without distinction of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 To realize this purpose the Organization will:

- (a)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eoples, through all means of mass communication and to that end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 (b) Give fresh impulse to popular education and to the spread of culture:

By collaborating with Members, at their request,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institu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o advance the ideal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ace, sex or any distinctions, economic or social;

By suggesting educational methods best suited to prepare the children of the worl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freedom;

- (c)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inheritance of books, works of art and monuments of history and science, and recommend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in all branches of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ons active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nd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objects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terest and other materials of information;

By initiating metho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lculated to give the people of all countries access to the printed and published materials produced by any of them,

3.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independence, integrity and fruitful diversity of the cultures and educational system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is prohibited from intervening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ir domestic jurisdiction,

Article II, Membership

1.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carry with it the right to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is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pproved pursuant to Article X of this Constitu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ay be admitted to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upon recommendation of the Executive Board,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General Conference,
3. Territories or groups of territories which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ay be admitted as Associate Members by the General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upon application made on behalf of such territory or group of territories by the Member or other authority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ssociate Memb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4.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latter, be suspended from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is Organization.
5.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expelled from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hall automatically cease to b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6. Any Member State or Associ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may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 by notice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Such notice shall take effect on 31 December of the year following that during which the notice was given. No such withdrawal shall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wed to the Organization on the date the withdrawal takes effect. Notice of withdrawal by an Associate Member shall be given on its behalf by the Member State or other authority having responsibility for its international relations.
7. Each Member State is entitled to appoint a Permanent Delegate to the Organization.
8. The Permanent Delegate of the Member State shall present his credential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officially assume his duties from the day of presentation of his credentials.

Article III, Organs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 General Conference, an Executive Board and a Secretariat.

Article IV, The General Conference

A. Composition

1.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Government of each Member State shall appoint not more than five delegates, who shall be selec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Commission, if established, or with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bodies.

B. Functions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policies and the main lines of work of the Organization. It shall take decisions on programmes submitted to it by the Executive Board.
3.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when it deems desirab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o be made by it, summ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states on educatio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or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non-governmental conferences on the same subjects may be summo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r by the Executive Board in accordance with such regulations.
4.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in adopting proposals for submission to the Member States, distinguish between recommendat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bmitted for their approval. In the former case a majority vote shall suffice; in the latter case a two-thirds majority shall be required. Each of the Member States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or conventions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in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close of the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t which they were adopted.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V, paragraph 6 (c),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dvise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on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aspects of matters of concern to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procedure agreed upon between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two Organizations.
6.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receive and consider the reports sent to the Organization by Member States on the action taken upon the recommendations and conven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or, if it so dec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se reports.
7.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elect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shall appoint the Director-General.

C. Voting

8. (a)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in the General Conference. Decisions shall be made by a simple majority except in cases in which a two-thirds majority i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r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General Conference. A majority shall be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 (b) A Member State shall have no vote in the General Conference i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due from it exceeds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payable by it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immediately preceding calendar year.
 - (c) The General Conference may nevertheless permit such a Member State to vote, if it is satisfied that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State.

D. Procedure

9. (a)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wo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decides to do so itself or if summoned by the Executive Board, or on the demand of at least one third of the Member States.
 - (b) At each session the location of its next ordinary session shall be designa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The location of an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decided by the General Conference if the session is summoned by it, or otherwise by the Executive Board.
10.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at each session elect a President and other officers.
11.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set up special and technical committees and such other subsidiary organs as may be necessary for its purposes.
1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cause arrangements to be made for public access to meetings, subject to such regulations as it shall prescribe.

E. Observers

13. The General Conferenc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Executive Board and by a two-thirds majority may, subject to its rules of procedure, invite as observers at specified sessions of the Conference or of its commissions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XI, paragraph 4.

14. When consultative arrangem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Executive Board for such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XI, paragraph 4, those organizations shall be invited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its commissions.

Article V. Executive Board

A. Composition

1. (a) The Executive Board shall be elec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nd it shall consist of fifty-eight Member States.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sit ex officio in an advisory capacity on the Executive Board.
- (b) Elected States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2. (a) Each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appoint one representative. It may also appoint alternates.
- (b) In selecting its representative on the Executive Board, the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endeavour to appoint a person qualified in one or more of the fields of competence of UNESCO and with the necessary experience and capacity to fulfil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duties of the Board.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each representative shall be appointed for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unless exceptional circumstances warrant his replacement. The alternates appointed by each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act in the absence of its representative in all his functions.
3. In electing Members to the Executive Board,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regard to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a balanced geographical distribution.
4. (a)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serve from the close of the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which elected them until the close of the second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eir election.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t each of its ordinary sessions, elec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required to fill vacancies occurring at the end of the session.
- (b)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are eligible for re-election. Re-elected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endeavour to change their representatives on the Board.
5. In the event of the withdrawal from the Organization of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its term of office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e withdrawal becomes effective.

B. Functions

6. (a) The Executive Board shall prepare the agenda for the General Conference. It shall examine the programme of work for the Organization and corresponding budget estimates submitted to it by the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VI and shall submit them with such recommendations as it considers desirable to the General Conference.

- (b) The Executive Board,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adopted by the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having regard to circumstances arising between two ordinary sessions, the Executive Board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and rational execution of the programme by the Director-General.
- (c) Between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Board may discharge the functions of adviser to the United Nations, set forth in Article IV, paragraph 5, whenever the problem upon which advice is sought has already been dealt with in principle by the Conference, or when the solution is implicit in decisions of the Conference.
7. The Executive Board shall recommend to the General Conference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o the Organization.
8. Subject to deci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Executive Boar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elect its officers from among its Members.
9. The Executive Board shall meet in regular session at least four times during a biennium and may meet in special session if convoked by the Chairman on his initiative or upon the request of six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10. The Chairman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present, on behalf of the Board, to the General Conference at each ordinary session, with or without comments, the reports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which the Director-General is required to prep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3 (b).
11. The Executive Board shall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to consult th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qualified persons concerned with questions within its competence.
12. Between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Executive Board may request advisory opin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field of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13. The Executive Board shall also exercise the powers delegated to it by the General Conference on behalf of the Conference as a whole.

Article VI.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shall consist of a Director-General and such staff as may be required.
2.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nominated by the Executive Board and appoin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for a period of four years, under such conditions as the Conference may approve. The Director-General may be appointed for a further term of four years but shall not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a subsequent term.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3. (a) The Director-General, or a deputy designated by him,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Executive Board, and of the Committees of the Organization. He shall formulate proposals for appropriate action by the Conference and the Board, and shall

- prepare for submission to the Board a draft programme of work for the Organization with corresponding budget estimates,
- (b)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pare and communicate to Member States and to the Executive Board periodical reports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periods to be covered by these reports,
4. The Director-General shall appoint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staff regulations to be approved by the General Conference, Subject to the paramount consideration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ompetence, appointment to the staff shall be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5.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General and of the staff shall be exclusively international in character,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they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prejudice their positions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undertakes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the Organization from entering into special arrangements within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common services and staff and for the interchange of personnel,

Article VII, National cooperating bodies

1. Each Member State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as suit its particular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ssociating its principal bodies interested i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ters with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preferably by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mmission broadly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nd such bodies,
2. National Commissions or National Cooperating Bodies, where they exist, shall act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to the General Conference, to the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of their countries on the Executive Board and to their Governments in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shall function as agencies of liaison in all matters of interest to it,
3. The Organization may, on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delegate,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a member of its Secretariat to serve on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at state, in order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its work,

Article VIII, Reports by Member States

Each Member State shall submit to the Organization, at such times and in such manner a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reports on the laws, regulations and statistics relating to it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activities, and on the action taken upon the recommendations and conventions referred to in Article IV, paragraph 4,

Article IX, Budget

1. The budget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approve and give final effect to the budget and to the apportionment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ubject to such arrang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as may be provided in the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pursuant to Article X,
3. The Director-General may accept voluntary contributions,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directly from government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ssociations and private persons,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Article X,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This Organization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s soon as practicable, as one of the specialized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57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relationship shall be effected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der Article 63 of the Charter, which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is Organization, The agreement shall provide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the pursuit of their common purposes, and at the same time shall recognize the autonomy of this Organization, within the fields of its competence as defined in this Constitution, Such agreement may, among other matters, provide for the approval and financing of the budget of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 Relations with other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1. This Organization may cooperate with other specialize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whose interests and activities are related to its purposes, To this end the Director-General, acting under the general authority of the Executive Board, may establish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s with such organizations and agencies and establish such joint committees as may be necessary to assure effective cooperation, Any formal arrangements entered into with such organizations or agencies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Executive Board,
2. Whenever the General Conference of this Organiza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ny other specialize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agencies whose purpose and functions lie within the competence of this Organization deem it desirable to effect a transfer of their resources and activities to this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nference, may enter into mutually acceptable arrangements for this purpose,
3. This Organization may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reciprocal representation at meetings,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and may invite them to undertake specific tasks. Such cooperation may also include appropriate participation by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zations on advisory committees set up by the General Conference.

Article XII. Legal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4 and 10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at Organization,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apply in the same way to this Organization.

Article XIII. Amendments

1.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shall become effective upon receiving the approval of the General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provided, however, that those amendments which involve fundamental alterations in the aims of the Organization or new obligations for the Member States shall require subsequent acceptance on the part of two thirds of the Member States before they come into force. The draft texts of proposed amendment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the Member State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Conference.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power to adopt by a two-thirds majority rules of procedure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XIV. Interpretation

1.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regarded as equally authoritative.
2. Any question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referred for determin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o an arbitral tribunal, as the General Conference may determine under its Rules of Procedure.

Article XV. Entry into force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subject to acceptance.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 This Constitution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i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Signature may take place either before or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No acceptance shall be valid unless preceded or followed by signature. However, a state that has withdrawn from the Organization shall simply deposit a new instrument of acceptance in order to resume

membership.

3. This Constitution shall come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ccepted by twenty of its signatories. Subsequent acceptances shall take effect immediately.
4.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ll inform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ceipt of all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of the date on which the Constitution come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Constitution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Done in London the sixteenth day of Nov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five, in a single cop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of which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Governments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제정 1963. 4. 27. 법률제13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

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 ①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제8조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⑤ 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 ① 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③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

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제14조 (감사)

- ①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 ② 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⑧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⑨ 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⑩ 감사(監査)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총회)

- ①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집행위원회)

- ①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 ③ 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 ⑤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 (분과위원회 등)

-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실비의 지급) 위원·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⑥ 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제24조 (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教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도	기간	내용
1945	6. 26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을 채택
	11. 16	연합국 교육문화회의에서 44개국 대표들이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런던)
1946	11. 9 - 12. 10	제1차 유네스코 총회에 44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초대 사무총장으로 줄리언 헉슬리(Julian S.Huxley) 박사 선출(파리)
1948	9. 15	제1차 유네스코 임시총회(파리)
	11. 17	제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하이메 토레스 보데(Jaime Torres Bodet) 박사를 제2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베이루트)
1949	6. 16 - 6. 25	제1차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 김두헌 박사 참석(덴마크 옐시노어)
1950	5. 22 - 6. 17	제 5차 유네스코 총회, 주불 공관 공진항 공사 참석, 5월 29일에 개최된 제8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가입문제를 심의한 결과 찬성 27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결의(피렌체)
	6. 14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55번째 회원국)되고 이날을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기념일로 지정
	8. 29	제23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긴급 원조를 결의
1951	6. 28	대한문교서적 인쇄공장 설립을 위해 유네스코와 우크라이나(UNKRA)에서 각각 10만 달러와 14만 달러를 한국에 원조
1952	11. 10	제2대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유네스코 헌장 준수서약」에 관한 동의 요청이 만장일치로 통과
1953	7.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령」을 대통령령 제801호로 공포
1954	1. 30	제1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서울대 강당), 초대위원장에게 김법린 문교부 장관, 초대 사무국장(현 사무총장)에 정대위 박사 취임
	5.	유네스코 임무 및 활동에 관해 전국 각 대학교 순회 강연회를 일주일 동안 개최
	8.	제1차 유네스코학생건설대(지도교수 5명, 대학생 155명)를 수복지구에 파견하여 2개 모범촌 건설
	9.	헤이든(H.Hayden) 씨가 초대 신생활교육원 원장으로 취임(~1957.8)
1955	9. 16	서울 대방동에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설립·준공
	7. 5 - 7. 25	유네스코 세계 순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
	9. 5 - 9. 25	숙명여자중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제1회 세계 아동 미술 전시회 개최(경복궁 화랑)
	9.	유네스코 과학 전시회 '사막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개최
1956	10. 24	서울 시공관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강연회 개최
	2. 28 - 3. 3	제1차 아시아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대표자회의에 김호직 박사, 이하운, 황성수, 장내원 참석(도쿄)
	2. 28	「UNESCO Activities in Korea」 간행
	3. 1 - 3. 2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반스(H. Evans) 박사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 시찰을 위해 내한
	5. 4 - 5. 16	국제 고고학적 발굴 전문가 회의에 김재원 박사 참석(이탈리아 팔레르모)
1957	11. 20	유네스코·우크라이나 30만 달러 원조로 신생활교육원 개원(수원)
	4. 24	유네스코 본부 초대 한국 상주 대표로 주불 대사관 이수영 참사관 임명
	5.	「유네스코 한국총람」 간행
	6. 8	한국외국어대학원 원장에 칼 림bacher(Karl Limbacher) 씨 취임
	7.	월간 「유네스코 통신」 간행
1958	9. 9 - 9. 20	방사성 동위원소 국제회의에 이준녕, 이종진, 기영숙, 윤세원 씨가 한국대표로 참석(도쿄)
	3. 24	수원 신생활교육원 제1기 수료생 졸업
	11. 3	유네스코 본부 청사 개관(파리)
1959	11. 3	유네스코 본부 청사 신축 낙성 기념우표 발행
	1. 14 - 1. 18	극동 및 동남아 해양과학 전문가 회의에 배동환 박사 참석(사이공)
	9. 25	유네스코 본부 상주대표로 정일권 대사 임명
1960	12. 18 - 1. 9	아시아지역 초등의무교육 대표자회의에 성래운, 송경국 씨 참석(인도 카라치)
	7. 8 - 7. 16	유네스코 해양과학 국제지문회의 제5차 회의 및 해양학연구 정부간 회의에 지철근, 정문기 씨 참석(코펜하겐)
	8. 22 - 8. 31	제2차 유네스코 성인교육국제회의에 김두헌 박사 참석(몬트리올)

* 1945년~2003년 연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년사」(2004)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에서는 간략히 추렸음.

연도	기간	내용
1960	9. 26	『유네스코 한국총람』의 영문판인 『UNESCO Korean Survey』 간행
	11. 3	제1차 유네스코 전국연구대회 개최, 전국 65명의 대표가 참석(숙명여자중고등학교)
1961	3. 21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한국정밀기기센터(FIC) 설치에 관한 의정서 합의
	7. 12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에 한국 가입
	7. 25	한국해양학위원회 창설
	8. 5	유네스코 쿠폰제도 가입
	9. 1	영문 월간지 『Korea Journal』을 창간하고 사무국에 출판부를 신설
	12.	서울사대부고, 서울사대부중, 이화여대부고, 숙명여고 4개 학교가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ASP)에 가입
1962	1.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창설
	2. 26 - 3. 8	아시아 농촌여성교육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고헤경, 이필숙 여사 참석(방콕)
	5. 1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월간지 『뉴스레터』 창간
	10. 24 -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유엔학생협회(UNSA)에 유엔 관계 도서 기증
1963	3. 1 - 3. 4	제1차 아시아 청년문제연구소 총회에 강문규 씨 참석(마닐라)
	4. 2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5호) 공포
	10.	『국제이해교육』 발간
	11.	『카라치플랜』 발간
	12. 18 - 12. 21	국제이해교육 전국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문교부 사생과 편수관, 각 시도 장학사, 사생과 교과서 저자 및 지정된 각 시도 사생과 교사 등 52명 대표 참석(중앙교육연구소)
1964	1. 26 - 2. 3	유네스코 세계 순회 명화 전시회 『1860년 이전의 회화(루벤스 '스페인의 이사벨라', 콘스테이블 '보리밭' 등 50점, 중앙공보관 화랑)』에 2만여 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한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동시 진행
	3. 2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사단법인으로 발족, 초대 회장에 권영대 박사 취임
	6. 10	130 UNUM(UNESCO Unit of Money, 당시 미화 5달러 정도)의 증여금권(Gift Coupons)을 협성고등공민학교에 기부, 협성학교는 1959년부터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미국위원회, 유네스코일본위원회로부터 모두 3차례 걸쳐 약 2천 달러에 해당하는 증여금권을 기부받아 교육 과학 기계를 구입
	6. 1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효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를 대신한 이수영 공보부 장관, 윤천주 문교부 장관, 칼 붐거 주한 서독 대사 등 300여 명 참석. 유공자표창에 유네스코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초대위원장 고 김법린 박사와 제2대 사무총장 고 장내원 씨를 표창. 강원룡 박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기념 경연, 조지훈 작사 김동진 작곡 '유네스코 노래'를 이인영 씨가 처음으로 가창(YWCA 강당)
		1965
1965	1. 11 - 4. 10	유네스코 보조금이 의한 문맹퇴치사업을 전개하였고 지도요원 101명이 참가하여 3,388명 문맹 퇴치 교육과정 수료(제주도 지역)
	3. 17 - 3. 18	유네스코 장학생 귀국 보고 간담회 개최, 양순담(대한소녀단 부회장) 씨는 '구주 교육 시찰을 마치고, 김용필(숙명여고 교사) 씨는 '영국의 교육제도와 행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위 회의실)
	8. 3	국제해양과학위원회(IOC)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 쿠로시오 국제합동조사(참가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베트남, 미국, 소련 등)에 참가. 한국은 한국 근해와 동중국해 일부를 담당하여 동해와 서해는 농림부(수산국,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남해는 교통부수로국에서 조사
	9. 14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목리 유치원 건축공사 보조작업에 참여한 유네스코 학생봉사단이 학생 봉사 활동으로 완공한 목리유치원 낙성식
	9.	유네스코학생 봉사지역인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목리와 화성군 반월면 4리와 3리, 팔남면 노하리 3개 지역에 한위 직원들의 모금 8,297원으로 마을 문고를 구입 및 기증
	10. 10 - 10. 28	각 대학 유네스코클럽 창립 총회. 서강대(10.2) 동국대(10.13), 연세대(10.26), 서울대 사범대(10.28)
	12. 8	한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결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치목(YMCA), 부위원장 양순담(대한소녀단), 박성중(가톨릭노동청년회) 씨 취임(YWCA 강당)

연도	기간	내용
1966	4. 13	UNDP 원조로 유네스코 정밀기센터 서울에 설치
	8. 1 - 8. 14	제1회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 개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 7개국 학생 20명을 포함하여 50명 참가. 당시 건축 중이던 아카데미 하우스 도로 건설 작업에 참가(서울 수유리)
	8. 22 - 8. 27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영어교육 전문가, 영어장학사 및 영어교사 등 40명 참석. 유네스코에서 일본 도쿄교육대학 세리자와 사케 교수를 파견하여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영어교육 현황 및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재단 유학생지도 소장 Robert A. Yangas 씨 특별 강연(서울대 어학연구소)
1967	1. 9	대통령령 제2865호로 실세법 제35조 제14호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공공 연구 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구입하는 과학 기제, 교육용 필름 및 서적에 대하여 면세 조치 발효
	2. 17	유네스코회원 준공. 장기영 부총리, 성동준 문교부 차관(한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KUSA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상 11층, 지하 2층, 건평 4,000여 평에 이르는 회관 준공. 1959년 3월 30일 기공하여 만 7년 이상의 공기를 거쳐 완공. 한위 사무처는 7층에 위치
	4. 6 - 4. 8	제1회 유네스코전국대회 개최. 지방협회 대표 20명과 유네스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아카데미 하우스)
	11. 4	새물결운동 전국대회 및 한국유네스코 학생협회 창립 총회 개최. KUSA 회원 850명 참가. 각 대학별로 전개해온 유네스코학생 활동을 발표하고 '새물결운동'의 이상과 정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총회로 초대 협회장에 김두영(한국외국어대) 씨 선임(성균관대)
1968	4. 26 - 5. 5	제5차 쿠로시오 조사 국제조정관회의 및 해양과학 심포지엄(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영수(수로국), 이창기(수산진흥원), 이석우(수로국) 참석
1969	6. 5	한국 최초 불어판 종합 계간지 『Revue de Corée』 창간
1971	11.	한국일보사는 제12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 부문 수상 도서로 한위가 발간한 『Modern Korean Painting(한국현대화집)』을 선정. 『Modern Korean Painting(한국현대화집)』은 한국 현대화가 20명을 선정하여 각각 5점의 작품과 작가평을 영문으로 수록
1973	12. 31	한일은행으로부터 유네스코회원 관리권 인수. 사회과학 논문집 『Social Science Journal』 발간
1974	5. 26	KBS TV에서 「유네스코 아이위」 프로그램 방영.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30~55분까지 25분 동안 방영. 유네스코 활동과 세계 각국의 문화 및 환경 등을 소개(1975.3.29까지 방영)
	8. 5 - 8. 15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개최. 서울, 충청, 호남, 영남 각지에서 전국 대학생 1,463명이 출발. 대전에서 합류하여 백제의 고도 부여 백마 강변에서 '아! 4300년'이란 젊음의 민족축제를 벌이고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가진 후 해산
	10.	북한 유네스코 가입
	12. 2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중 개정된 '법률 제2711호' 공포. 사무국이 '사무처'로 개칭되고 한위 부위원장이 3인에서 문공부 차관, 과거처 차관이 당연직부위원장으로 추가되어 5인으로 확대
1976	4. 1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창립 총회에서 고병익 서울대 교수를 초대 회장 선출(한위 회의실)
1977	10. 4 - 10. 8	제2차 아시아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회 개최. 14개국 사회과학 분야 저명 학자 50명 참가(한위 국제회의장)
	10. 4	유네스코회원 11층에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등 다목적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센터를 개관. 개관 기념으로 현대 작가 10인 초대 전시회 주최
1978	6.	『유네스코 꾸리에』 한국어판 창간. 유네스코가 발간하는 종합 교양지로 세계에서 19번째 언어로 발간
1979	5. 15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유네스코 본부가 '2000년대의 나의 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세계 아동 미술 공모전(회원국 146개국에서 60여만 점의 작품)에서 박정제(서울 사당국고 2년) 어린이의 '달나라 여행'이 특선 영예 수상. 일본, 서독 등 10개국에서 각각 1명씩 특선에 입선. 유네스코는 박정제 어린이의 작품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영구 보존할 계획이며 보호자 1명과 함께 할 수 있는 파리 여행을 부상으로 수여
	6. 19 - 6. 21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과학연구자 회의 개최. 한국,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여성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가하여 각국의 여성 문제에 관한 연구 상황과 여성 지위 향상 방안을 토의(한위 국제회의장)
1980	6. 13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창립. 초대 위원장에 김준민 서울대 명예교수 선출(한위 회의실)
	6. 11	교육 혁신 아시아 프로그램 국내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에 이돈희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선임(한위 회의실)

연도	기간	내용
1981	2. 25 - 2. 27	아시아 거석문화-국제비교연구회의 개최, 아시아 5개국 고고학자 20명 참가(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및 강원도 현지 조사)
	8. 1 - 8. 12	한독 청년야영 실시(전남 원도군)
	9. 1 - 9. 4	유네스코와 유엔대학 공동으로 발전 계획과 사회 경제지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20개국 관련 학자 30명 참가
	11. 14 - 11. 15	유네스코학생회 새물결 전국대회(서울여대)
1982	4. 20	유네스코 간행물 전시관 개관, 유네스코와 한위가 발행한 간행물을 유네스코회관 1층에 전시
	6. 14	설악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11. 22	유네스코 본부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 200호 「무락도(舞樂圖: 일명 무당춤) 기준
1983	2. 14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가입
	8.	전국 13만 시각장애자를 위한 한국어 점자판 「세계로 열린 창」 발간
1984	1. 30 - 1.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 사회의 자생적 발전 심포지엄 개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인사 150명 참가(한위 국제회의장)
	1. 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기념 리셉션 개최, 교육, 과학, 문화계 및 언론계, 주한 외교사절 등 600명 참가(서울 신라호텔)
1985	4. 10 - 5. 18	'세계 청소년의 해' 기념 유네스코 순회 사진전 개최, '1980년대의 젊은이들'을 주제로 27개국 작품 50점 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7. 15 - 8. 3	미국 위스콘신 국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하계 영어교육 과정 개최, 미국인 강사 9명, 국내 중학교 교사 80명 참가(유네스코청년원)
	10. 7 - 10. 22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 특별 연수 과정 개최, 아태지역 8개국 청소년 지도자 20명 참가(유네스코청년원)
	11. 18 - 11. 21	서울대 생약연구소와 공동으로 천연물의 피인 효능 평가에 관한 워크숍 개최, 일본 등 15개국 전문가 80명 참가(서울대 생약연구소)
1986	4. 7	유럽의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워크숍 개최, 독일 빌레펠트대 Dr. Dahm 교수 등 6명 참가(한위 회의실)
	5. 29 - 6. 4	하와이대 동서센터(East-West Center)와 공동으로 동양의학 비교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 중국, 일본 동양의학자 20명 참가(일본 동경대학교)
1987	1. 23 - 2. 3	유네스코 문화영화 국내 TV 방영,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문화영화 11편을 KBS3 TV를 통해 매일 오후 8시에 30분간 방영
	8. 10 - 10. 25	'세계 40대 화가 40인전' 전시회 개최(서울, 대구, 부산)
	9. 14	『동남아 한국교민 연구자료집』 발행
1989	7. 5 - 7. 12	아태지역 과학대중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8개국 학자 20명 참가(서울 타워호텔)
1990	1. 7 - 1. 14	실크로드 종합연구 한국위원회 제2차 유로소위원회 회의 참가
	1. 16 - 2. 9	중국 연변지역 한인 연구 제1차 현지 조사
	3. 5 - 3. 9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세계회의 참가
	8. 30	한국청년해외 봉사단 제1차 파견 단원 발대식 개최, 파견 대상국 주한 대사 및 관계 인사, 봉사단 및 가족 등 200명 참가(프레스센터)
	9. 1	한국청년해외 봉사단 제1차 파견 단원 1진 23명 출국(스리랑카, 인도네시아),
	9. 8	세계문해교육상 시상, 유네스코 문해교육을 위한 세종대왕상 인도의 과학대중화 운동 단체인 Kerala Sahita Tarishad에 수여
1991	1. - 12.	중국 연변 한인에 관한 연구
	2.	유네스코협동학교 뉴스 창간
	6. 25 - 6. 28	신흥 공업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사회 문화 변동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학술회의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말레이시아, 태국 등 12개국 학자, UNCRD, APDC 등 국제기구 관계자 27명 참가(유네스코 정규사업)
	10. 15 - 11. 7	제26차 유네스코 총회, 함태혁 주유네스코 대사를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22명 참가, 함태혁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당선

연도	기간	내용
1992	7. 10 - 8. 6	실크로드 종합연구 한국위원회 유목·알타이 루트 탐사 참가
	9. 1 - 9.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학자 12명과 국내 문화원 관계자 150명 참가
	10. 29	『한국전통자료집』 영문판 제1권 발행
1993	11. 25 - 11. 26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협동학교 교사, 학생 및 국제이해교육 지도위원 등 110명 참가
1994	1. 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Korea Journal』에 게재된 한국 단편소설 9편을 엄선하여 영문판 소설선집 『Reunion So Far Away』 발간
	9. 27 - 9. 29	민주주의와 관용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한완상 부총리 등 40여 명이 토론에 참여하여 관용에 관한 서울 권고(Seoul Recommendations) 채택
	11. 14 - 12. 8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UNEVOC) Fellowship 아태지역 직업기술교육자 훈련과정 개최
1995	3. 10	세계청소년정보교류망(INFOYOUTH) 아태지역 네트워크 운영(유네스코청년월), 청소년 단체 정보 자료 담당자 30명 참가
	3. 13 - 3. 17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문헌 및 정보관리자 훈련과정 개최(한위 회의실), 유네스코 본부 대표 등 14개국 17명 참가
	5. 29 - 6. 2	동북아 생물권보존지역 공동비교연구사업 제3차 회의 및 생물권보존지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아태지역 회의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속초 뉴설악호텔), 관련 전문가 50명 참가,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보존지역 네트워크(EABRN) 출범
12. 1	평화, 인권, 민주주의 분야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고려대에 설립, 석좌교수 한승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6	4. 27 - 4. 29	민통선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 연구 용역 사업 현지 조사 실시(강원도 철원평야, 향로봉 산맥 일대) 연구진 9명 참가
1997	5. 26 - 5. 29	아태지역 INFOYOUTH 네트워크 개발 워크숍 개최(타워호텔, 유네스코청년월), Mr. Roger Holdsworth 호주 청소년 활동 연구 네트워크 담당자 등 14개국 29명 참가
	6.	『유네스코포럼』 창간
	9. 24 - 9. 25	21세기 역사 교과서 국제포럼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5개국에서 학자 및 전문가 20명, 일반인 100명 참가
	9. 29 - 10. 2	동서양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연세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실, 청주 예술의전당), 6개국 전문가 20명 및 일반인 100명 참가
	10. 15	한국유네스코 문화교류센터 설치(유네스코회관 10층)
1998	3. 26 - 3. 28	동북아 5개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1차 회의 참가(중국 베이징),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관계자 21명 참가
	6.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보고서 『21세기 교육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발간
	11. 14 - 11. 16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 개최(송실대 사회봉사관), 시민 패널 14명, 전문가 패널 14명 등 100명 참가
11. 20 - 11. 21	탈냉전 시대의 평화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서울 프레스센터), 국내외 평화학 전문가 7명 및 일반인 100명 참가	
1999	4. 19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창립식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초대 위원장에 고병익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임
	6. 26 - 7. 1	세계과학회의(헝가리 부다페스트),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 대표단 10명 참가
	9. 10 - 9. 13	생명복제기술 합의회 개최(연세대 치과대학병원 및 알렌관), 시민 패널 16명, 전문가 패널 11명, 조정위원 및 일반인 200명 참가
	9. 14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 개최(새종문화회관), 고건 서울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 240명 참가
2000	5. 10	SBS와 공동으로 세계 평화의 문화 해 기념 콘서트 개최(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신승훈, GOD 등 출연, 5,000명 관람
	5. 27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개관(유네스코회관 2층), 박지원 문화부 장관, 고건 서울시장, 청소년, 시민 등 2,000명 참가
	7. 5 - 7. 7	동아시아의 환경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원주 토지문화관), 이안 데이비스(Ian Davies) UNDP 두만강 프로젝트 컨설턴트 등 국외 참가자 16명, 국내 전문가 20명 외 일반인 80명 참가
	8. 26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개원식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부 장관, 국내외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등 23개국 200명 참가
	9. 5 - 9. 7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수원시와 공동으로 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특별자문관, 세계유산 성곽도시 시장 등 31명 참가
9. 19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1차 포럼 개최,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을 주제로 전문가 12명 등 60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0	11. 27 - 12. 2	경주 역사지구와 고인돌 유적 세계유산 등재, 제2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호주 케인즈)	
	11. 28	제30차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총회 개최(세종문화회관), 전병성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위원 20명 참가	
	12. 14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2차포럼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주제로 John Perry Barlow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설립자 등 전문가 11명, 참관인 100명 참가	
2001	2. 5 - 4. 15	KUCES 한국어교실 운영(1학기), 37개국 141명 참가	
	6. 18 - 6. 19	문화일보 평화포럼과 공동으로 세계 평화의 문화 지수 전문가 워크숍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Dr. Albrecht Schnabel 유엔대학 교수 등 외국인 참가자 5명, 김진현 평화포럼 이사장 및 연구진 10명 참가	
	6. 27 - 6. 29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청주 예술의전당), 국제자문위원 10명 등 30명 참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의(승정원 일기, 직지심체요절, 구텐베르크 성경 등 총 21점 신규 등재)	
	6. 30	청주시와 공동으로 기록유산의 디지털화 국제세미나 개최(청주 고인쇄박물관), Mr. Adolf Knoll 체코 국립도서관 부관장 등 13명 참가	
	9. 7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에 관한 회의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스티븐 힐 유네스코자카르타사무소장 등 발표자 6명, 토론자 20명, 일반인 130명 참가	
	9. 26 - 9. 27	사이버스페이스와 언어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세종호텔), 크리스티안 갈린스키 인포텀(Infoterm) 회장 등 국내외 학자 16명 및 일반인 100명 참가	
	10. 12 - 10. 13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으로 아시아의 에너지 대안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연세대 상남경영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회원, 연구자 등 70명 참가	
	10.	『Korea Journal』 국내 인문학 학술지로서 최초로 과학정보기구(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예술 및 인문학 분야색인에 등재	
	2002	6. 1	월드컵 세계 지성인 라운드테이블 개최(서울 힐튼호텔), Jacques Attali 전 유럽은행 총재 등 패널리스트 17명, 참관인 100명
		6. 5 - 6. 8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훈련 워크숍 개최(청주 고인쇄박물관), 국내외 전문가 25명, 일반 청중 150명 참가
6. 11 - 6. 13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전환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Virginia Hall 뉴욕시립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19명 발표, 참관인 50명	
7. 24		교과서 인쇄용지 북한 지원, 북한 영어 교과서 약 130만 권 인쇄본 200톤 지원, 삼성유네스코교육기금 지원본 100톤 및 한국제지 용지 지원본 100톤	
9. 30 - 10. 3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서울 타워호텔), 국내외 전문가 30명, 일반인 150명 참가	
10. 4 - 10. 11		한독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동서남북' 실시(서울, 철원, DMZ), 독일청소년 11명, 한국 청소년 19명 참가, 남북한, 동서독 청소년의 분단에 대한 인식 교류	
10. 17		제5회 정보사회 성찰포럼 개최(한위 회의실),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김대호 인하대 교수 등 13명 발표, 참관인 50명	
11. 20		UN 문화유산의 해 기념 심포지엄 개최(세종문화회관), Masaru Maeno ICOMOS 일본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 19명, 일반 청중 150명	
12. 12 - 12. 13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이화여대 LG 컨벤션홀), 자코 힌티카(Dr. Jaakko Hintikka) 보스톤대 교수 등 발표자 25명 참관인 100명 참가	
2003	1. 24	한일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식 및 제3차 ESD 한일교사포럼(일본 오사카)	
	3. 23	제3회 서울, 도쿄, 오키나와 청소년 영상 평화토론회 개최, 한국 청소년 36명, 일본 청소년 46명 참가(서울, 도쿄, 오키나와)	
	3. 30 - 4. 16	제16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김여수 사무총장 참가	
	4. 18	유네스코 옥상 생태공원 '작은누리' 개원	
	5. 7 - 5. 10	국제철학올림피아드 이지에 이화여대 교수, 이현 대원외고 학생 등 3명 참가(아르헨티나)	
	5. 23 - 5. 2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개최, 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 주최,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00인 참가(서울 교육문화회관)	
	5. 26 - 6. 7	두만강 하구지역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립 타당성 연구 현장 조사 실시(중국 연길,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5.	청소년의 달 기념 미지축재 개최(미지센터 및 명동 거리)	
6. 16 - 6. 17	동아시아 인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현인택 고려대 일반국제관계연구원장 등 발표자 12명, 관련 학자 및 시민 150명 참가(서울 프레스센터)		

연도	기간	내용
2003	6. 25	문화다양성 국제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 세미나 개최. 강내희 중앙대 교수 등 16명 참석
	7. 1 - 7. 5	유엔대학 Global Seminar Seoul Session 개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18개국 160명 참가(연세대, 유네스코 문화원)
	8. 3 - 8. 9	유네스코 협동학교 50주년 기념 국제대회(뉴질랜드 오클랜드). 정우탁 교육팀장 참가
	8. 17 - 9. 20	브릿지사업 아프리카 청년 초청 프로그램(유네스코평화센터)
	9. 1 - 9. 7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사업 실시. 아세안 10개국 문화계 인사 30명 한국 방문(서울, 순천)
	9. 9 - 9. 24	제16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김여수 사무총장 참가
	9. 22 - 9. 23	독일 괴팅겐대학교 공동으로 한독 고인쇄문화 학술회의 개최
	9. 22 - 10. 5	독일 괴팅겐대학교 공동으로 직지/구텐베르크 성경 전시회 개최(독일 괴팅겐대학)
	9. 24 - 9. 26	공동 가치 국제포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문화다양성과 공동 가치 주제로 개최. 이어령 문화일보 고문 등 한국 참가자 16명 월레 소잉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외국 참가자 12명, 일반 청중 100명 참가(경주)
	9. 29 - 10. 17	제32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윤덕홍 위원장, 김여수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26명 참가
	10. 1 - 10. 10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경주). 태국 직원 2명 참가
	11. 3	동북아 교육협력 원탁회의 개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한국 참가자 5명/ 몽골, 북한 등 동북아 5개국 교육정책 담당자 등 외국 참가자 18명 참가(중국 상하이)
	11. 8 - 11.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국제회의의 참가, 정우탁 교육팀장(중국 베이징)
	11. 27 - 11. 29	광주비엔날레, 서울대조형연구소, 현대미술학회와 공동으로 동서양 미술 비교 국제심포지엄 개최.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한국 참가자 12명, 외국 참가자 7명 및 일반 청중 600명 참가(서울대, 광주 조선대)
12. 27 - 1. 21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초중등 영어교사 97인 참가(유네스코 문화원)	
2004	1. 5 - 1. 17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개최(유네스코 문화원). 호주 영어강사 16명 / 국내 초·중등 영어교사 99명 참가
	1. 13 - 1. 14	두만강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검토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중국 및 러시아의 연구 자문관 및 연락기관 대표, 중국 임업성 대표, 임현복(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등 21명 참가
	1. 22 - 1. 25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일본 오카야마). 이삼열(아태교육원장) 참가
	1. 29	한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안병영 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유네스코베ijing사무소장, 몽골·일본·중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주한 외국 대사 등 350여 명 참가
	1. 29 - 2. 10	한국 교사 일본 방문(일본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국내 ASP(Associated Schools project) 초·중·고교 교사 99명 참가
	2. - 11.	국제사회 지원사업 2차년도(2003~04년) 사업 추진. 감비아, 네팔,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타지키스탄, 파키스탄에 각 미화 5천 달러 지원
	2. 24	ASP 교사총회 개최(한위 회의실). ASP 담당 교사 30명 참가
	3. 2 - 3. 3	아태지역에서 상생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개최(한위 회의실). 스리랑카, 인도, 일본, 필리핀, 한국의 관련 전문가 등 40명 참가
	3. 20 - 3. 22	고등교육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회의(중국 베이징). 임천순(세종대 인문과학대학장) 참가
	3. 23	평화교육 워크숍 개최(한위 회의실). 평화교육 교사, NGO 활동가, 언론인, 종교인 등 60명 참가
	3. 27 - 3. 28	글로벌 미지 프로젝트 국제교류박람회 개최(미지센터). 중·고교생, 대학생, 국제교류 관계자 등 1,800여 명 참가
	4. 3 - 11. 13	유네스코회관 옥상 생태공원 '작은누리' 운영 관련 생태교육 프로그램 실시(한위 회의실, 작은누리). 초등학생, 일반인 등 매회 별 30명 참가
	4. 9	두만강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설립 타당성 연구결과 국내보고회 개최(한위 회의실). Zhu Weihong(중국 연변대 지리학과 교수·연구 자문관), 국내 관련 기관 대표 등 20명 참가
	4. 22	제53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서울 세종호텔)
4. 23	제1차 유네스코 평생학습사회 콜로кви엄 개최(고려대).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4	5. 1	제1차 국제이해교육연구 토론회 개최(한위 회의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 교사,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60명 참가
	5. 13 - 5. 14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 제1차 아태지역 회의(일본 도쿄), 정우탁 교육팀장 참가
	5. 20	제2차 유네스코 평생학습사회 콜로퀴엄 개최(한위 회의실),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 참가
	5. 22 - 5. 27	제13차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총회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회의(뉴질랜드 웰딩턴), 이승환 본부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5. 25	시민사회를 위한 평화교육 강좌 개최(한위 회의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평화교육자, 국제대학원생, 교사 등 30여 명 참가
	6. 10	'21세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임무' 콜로퀴엄 개최(한위 회의실), 이상주(전 한위 부위원장), 차인석(전 한위 사무총장), 강영순(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등 한위 인사 27명 참가
	6. 10 - 6. 11	유네스코 문명 간 대화사업 고위급 회의(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삼열(아태교육원장) 참가
	6. 13 - 6. 18	일본 교사 한국 방문(서울, 대전, 경주, 부산), 일본 교사 16명 참가
	6. 15 - 6. 17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시장단회의 개최(강릉시청 대회의실), 12개국 시장단 등 18개국 50여 명 참가
	6. 21 - 7. 11	제4차 아태지역 교원연수 개최(유네스코 문화원), 아태지역 교사 34명 참가
	6. 23	제3차 유네스코 평생학습사회 콜로퀴엄 개최(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 참가
	6. 26	인권 워크숍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한위 회의실), Daniela Tilbury(호주 맥쿼리대학 교수) 등 강사 2명, 평화교육자, 공무원, 인권활동가, 종교지도자 등 75명 참가
	7. 10	제2차 국제이해교육 연구 토론회 개최(한위 회의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 교사 등 70여 명 참가
	7. 13	평화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한위 회의실), 역사 교과서 관련 학자,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등 국내외 참가자 60여 명 참가
	7. 13 - 9. 7	제30차 국제청년야영 개최(강원도 철원, 홍성, 경남 창원, 경기도 남양주, 유네스코 문화원) 14개국 93명 참가
	7. 23 - 8. 16	미지(MIZY) 세계청소년문화축제(인사동 관훈갤러리), 청소년 작가, 기성 작가, 관객 등 약 1,200명 참가
	7. 26 - 7. 31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수원)
	7. 27 - 7. 28	'유네스코 21세기 대화' 서울회의 개최(신라호텔), Gianni Vattimo(이탈리아 토리노대학 철학 교수),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외국 참가자 18명, 서정욱(전 과학기술부 장관), 소홍렬(포항공대 교수) 등 한국 참가자 8명, 일반 청중 300여 명 참석
	7. 28 - 7. 30	국제기구 및 전문가 협력 자문위원회의 개최(한위 회의실 및 유네스코 문화원), 자문위원 6명, 유네스코·한위 사무처·교육부 관계자 등 3명 참가
	7. 29 - 7. 31	2004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 개최(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7. 29 - 8. 2	교원 직무연수 심화 과정 개최(유네스코 문화원), 국제이해교육 관련 교사 33명 참가
	7. 31	제5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 개최(조선호텔), 유네스코 사무총장, 중국, 일본, 몽골 사무총장 등 25명 참가
	8. 6 - 8. 16	한독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미지센터, 파주, 광주, 지리산), 한국 청소년 15명, 독일 청소년 11명 참가
	8. 7 - 12. 24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일본)
	8. 16 - 8. 20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서울회의 개최(숙명여대), 외국 참가자 9개국 48명, 한국 참가자 40명 참가
	8. 19 - 8. 20	재생가능에너지와 동북아 평화 지역회의 개최(은행회관), Michael Sailer(독일 생태연구소 부소장),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아시아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 청중 등 100여 명 참가
	9. 4 - 9. 7	제2회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존훈련 워크숍 개최(청주 고인쇄박물관), 아태지역 기록유산 담당자 15명, Abdelaziz Abid(유네스코 기록유산 담당관), Dole Peters(디지털유산 국제 전문가), 한국 참가자 10명
9. 17	한위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공모전 개최(한위 회의실)	
9. 22 - 9. 23	'21세기 지식혁명과 평생학습사회' 국제비교 세미나 개최(제주도 제주시), Carolyn Medel-Anonuevo 유네스코 교육연구소 연구원, 한승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등 주제 발표자 15명, 조영남(가수), 이윤기(소설가) 등 좌담자, 일반 청중 100여 명 참가	
9. 25 - 10. 3	국제이해교육 체험학습 및 교류 프로그램 개최(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교사 12명, 몽골 교사 및 교육자 20여 명 참가	
10. 1 - 10. 29	국제이해교육 수업 모형 공모 및 시상(서울교육대학 시청각실)	

연도	기간	내용
2004	10. 11 - 10. 12	‘UNESCO/OECD 국가를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관한 지침’ 초안 작성회의(호주 시드니). 정우탁 교육팀장 참가
	10. 14 - 10. 15	유네스코 고등교육 지식 및 연구 포럼 아태지역 학술위원회 회의(일본 도쿄). 정우탁 교육팀장 참가
	10. 15 - 10. 17	글로벌 리더십 워크숍 개최(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국제교류 담당자 15명 참가
	10. 19 - 10. 28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경주). 일본, 중국, 태국 등 3개국 4명 참가
	10. 28	제4차 유네스코 평생학습사회 콜로кви엄 개최(마포평생학습관) 정찬남(한국문해기초교육연합회장), 김종천(충북 제천 솔피학교장), 김영준(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참가
	10. 30 - 11. 9	남아시아 소지역 교원 워크숍 및 인도 전문가 협의회 개최(스리랑카 파스투라타 교육대학, 인도 벵갈로 사회교육센터 등).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한국 교사 34명, 인도 교수 및 시민사회 지도자 20명 참가
	11.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7대 이삼열 사무총장 취임
	11. 4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 디지털 유산 관련 시민단체, 학생 등 100여 명 참가
	11. 12 - 11. 13	국제자원활동 보고회 개최(경기도 기흥 청려수련원). 자원활동 참가자 30명
	11. 14 - 11. 20	한국 ASP 교사 캄보디아 방문(캄보디아 프놈펜 등). 국내 ASP 학교 교사 등 10명 참가
	11. 16	과학기술윤리 포럼 개최(은행회관). Jens Erik Fenstad(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장), 송상용(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한양대 석좌교수) 등 40명 참가
	11. 16	유네스코 생명윤리 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은행회관). 연구진 및 생명윤리 전문가 등 60명 참가
	11. 17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 정책세미나 개최(서울대 환경대학원). 국내 문화유산 전문가 및 정부 담당 공무원 50명 참가
	11. 17 - 11. 26	중국 청소년 초청 사업 실시(서울, 경주 등). 중국 외교부 등 공무원 100명 참가
	11. 20	제5차 국제이해교육 학술회의 개최(서울교육대학).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 교사 등 200여 명 참가
	11. 22 - 11. 24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워크숍 개최(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강당). 아태지역 10개국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50여 명 참가
	11. 28 - 12. 3	유네스코 교육회의 및 ASPnet 회의(호주 에들레이드). 이삼열(사무총장), 이홍자(서울사대부여중 교장), 최순호(교육팀원) 등 7명 참가
11. 29	유네스코 60주년 기념 축하식 개최(신라호텔). Pierre Sané, 전·현직 한위 위원 및 사무총장,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 주한 외 교사절 등 400여 명 참가	
12. 1 - 12. 8	한·아세안 문화계 인사 교류사업 개최(서울, 청주, 이천) 아세안 국가 공예 전문가 27명, Indrasen Vencatathellum(유네스코 공예디자인과장), 황동열(중앙대 예술경영학과장), 국내 공예 관련 기관 담당자 40명 참가	
12. 9 - 12. 10	WTO/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와 고등교육 아태지역 세미나 지역 전문가 준비회의(인도 뉴델리). 이 승환(사업본부장), 정기오(한국교원대 교수) 참가	
12. 9 - 12. 15	캄보디아 ASP 교사 방한(서울, 경주 등). 캄보디아 ASP 학교장 10명 참가	
2005	1. 3 - 1. 15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개최(유네스코 문화원, 경기도 이천). 경기도 지역 초·중등 영어교사 100명, 남호주교육청 추천 교사 18명 참가
	1. 15 - 1. 27	AVAN(Asian Volunteer Action Network) 네트워크 회의(라오스 방비엥). 이선재(청소년교류팀원) 참가
	1. 17 - 1. 18	양질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을 위한 UNESCO/OECD 공동 지침 최종초안 작성 회의(OECD, 프랑스 파리). 최은옥(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서기관), 김광호(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 최순호(교육팀원) 참가
	1. 24 - 1. 28	생명윤리 정부간위원회 회의(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맹광호(가톨릭대 의대 교수), 방해자(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사무관), 김승윤(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2. 1 - 2. 3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아태지역 전략회의(태국 방콕). 이삼열(사무총장) 참가
	2. 2 - 2. 10	문화다양성협약 제2차 정부간회의(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유정희(유네스코 상주대표부 공사), 김귀배(문화팀원) 등 134개국 약 600명 참가
	2. 21 - 2. 22	ASEF(Asia Europe Foundation) 아시아-유럽 문화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준비회의(싱가포르). 이선경(문화팀원)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5	3. 4 - 3. 6	아태지역 국제교육 및 가치교육 네트워크(APNIEVE; Asia Pacific Network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Values Education) 회의(필리핀 마닐라), 이승환(사업본부장) 참가
	3. 13 - 3. 14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준비위원회 회의(포르투갈 리스본), 김주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혜경(문화팀원), M. Del Corral(유네스코 문화예술산업국장) 등 30명 참가
	3. 17 - 12. 5	지역별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사협의회 개최(청주, 부산, 광주, 제주, 대전), 정우탁(교육팀장·ASPnet 국가조정관), 해당지역 ASP 교사 10명 인략 참가
	3. 21 - 3. 24	'예술을 통한 학습' 유네스코/IOC(India International Centre) 아시아 심포지엄(인도 뉴델리), 용호성(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허권(문화팀장) 참가
	3. 23 - 3. 25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회의(태국 방콕), 송상용(COMEST 위원), 김은영(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3. 24 - 12. 15	유네스코 국제교육정책 포럼 4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김장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관련 기관 대표, 전문가 등 20명 인략 참가
	3. 26 - 3. 27	국제교류박람회(미지센터), 중·고교생, 대학생, 국제교류 관계자 등 약 1,800명 참가
	3. 28 - 4. 1	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신규직원 훈련세미나 개최(연세대 상남경영관), 23개국 30명, 본부직원 8명 등 40명 참가
	4. 3 - 4. 7	제1차 '생명윤리 선언' 초안 검토를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맹광호(가톨릭대 의대 교수) 참가
	4. 9	ASPnet 교사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유네스코협동학교 담당 교사 50명 참가
	4. 25 - 4. 26	제3차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 아태지역 학술위원회 회의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Achira Arimoto(학술위원회 위원장),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장), 유네스코 고등교육포럼 사업 담당자 등 15명 참가
	4. 27 - 4. 29	WTO/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아태지역 세미나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아태지역 학술위원회 위원 10명,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장), 유네스코 본부 직원, 유럽·아프리카 고등교육 전문가, 국내 대학 기획처장 등 30명 참가
	5. 6	제54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김진표 위원장 등 제26대 위원 56명(위임 포함) 참석
	5. 13 - 10. 23	CCAP Carawan 운영, 외국인 자원활동가, 한국인 자원활동가 등 16명 참가
	5. 19 - 5. 22	제13차 국제철학올림피아드 참가자 파견 지원(폴란드 바르샤바).
	5. 24 - 5. 25	제8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위원회 회의(중국 쿤밍),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순호(교육팀원) 참가
	5. 24 - 6. 3	문화다양성협약 제3차 정부간회의(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김종일(유네스코 상주대표부 공사), 박성기(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장), 이선경(문화팀원) 등 130개국 약 550명 참가
	5. 27	생명윤리 학술대회 개최(서울대 의대 합춘회관), 이인영(한림대 법학부 교수) 등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 일반인 60여 명 참가
	5. 27 - 8. 9	국제자원활동 훈련 워크숍 4회 개최(청려수련원, 경기도 기흥 등), 매회 자원활동 참가자 30명~55명
	6. 2	'인터넷 미디어문화 10년을 진단한다-웹에서 블로그까지' 좌담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손동수(전 스키조 편집장) 등 20명 참가
6. 3 - 6. 5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심포지엄(일본 도쿄 다마가와대학), 유철(ASPnet 교사협의회 회장), 이삼열(사무총장), 송종진(교육팀원) 참가	
6. 8 - 6. 11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발전 국제 워크숍 개최(강원도 강릉시청 대회의실), Marcello Schiaffino(이탈리아 레반토 시장) 등 국내외 지방 관리자 및 국제 전문가 21개국 50명 참가	
6. 9 - 6. 10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프로그램 국제 활동 강화를 위한 워크숍(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경남 거제), 한국해양학위원회 등 4개 유네스코 자연과학 프로그램 정부간위원회 한국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27명 참가	
6. 20 - 6. 24	제2차 '생명윤리 선언' 초안 검토를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 참가	
6. 21 - 6. 30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인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등 3개국 4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5	6. 27 - 6. 29	유네스코 동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타워호텔). 몽골,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4개국 문화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30명 참가
	7. 5 - 7. 6	세계고등교육회의의 후속 아태지역 중간 평가회의(로얄호텔). 아태지역 학술위원회 위원 11명, 초청 연사 4명, 유네스코 본부 직원 등 참가
	7. 10 - 7. 17	제29차 세계유산위원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심숙경(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신청 준비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8명 참가
	7. 14 - 7. 18	유엔대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 세미나 제주 회의(제주대). 몽골, 중국, 미국, 케냐 등 11개국 92명 대학(원)생 참가
	7. 14 - 7. 19	GDN(Global Development Network) 연구사업 최종 평가회의 개최(몽골 울란바토르). 박남기(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연구총책임자) 등 3명 참가
	7. 28	제6차 동아시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중국 마카오).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7. 28 - 7. 30	2005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중국 마카오). 이삼열(사무총장), 허권(문화팀장) 정수영(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사무총장), 선화예술학교 공연단 20명 등 전체 500여 명 참가
	8. 11 - 8. 22	제40차 국제청년캠프(IYC; International Youth Camp) (유네스코 문화원 및 현장학습지). 21개국 107명 청년, 대학(원)생 참가
	8. 25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해와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김문환(서울대 미학과 교수), 김정현(문화연대 공동대표),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6명 참가
	8. 30 - 9. 3	제9차 EABRN 회의 개최(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러시아, 몽골, 스페인, 중국, 유네스코 등 국외 참가자 26명, 국내 참가자 50여 명, 방청객 100여 명 참가
	9. 2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공동 개최(청주시 예술의전당).
	9. 12 - 9. 14	아태지역 과학·공학 교육 개혁 및 혁신을 위한 국제포럼(타워호텔). 아태지역 과학·공학 교육 전문가 14명, 한국 참가자 16명
	9. 24 - 9. 25	국제자원활동 정회원 보고회 개최(청려수련원, 경기도 기흥). 국제자원활동 정회원 40명 참가
	10. 3 - 10. 21	제33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김진표 위원장,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36명 참가
	11. 4 - 11. 6	북한 인쇄기 지원 남북한 실무협의회 개최(북한 금강산호텔). 김창식(주)대한교과서 상무, 이삼열(사무총장), 박현학(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참가) 등 9명 참가
	11. 7 - 11. 9	제2차 MOW 아태지역 위원회 회의(필리핀 마닐라). 이선경(문화팀원) 참가
	11. 8 - 11. 11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 ICT 훈련 워크숍(정보문화진흥원). 필리핀 등 아태지역 9개국 청소년 단체 정보 담당자 및 활동가 10명 참가
	11. 23 - 11. 25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최(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말레이시아 등 국가 대표단 20개국 39명, 발표자·전문가 13명, 유네스코방콕사무소장 등 유네스코 직원 6명 등 100여 명 참가
	11. 25	강릉단오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재 지원
	11. 28 - 11. 29	유네스코 문명간 대화 국제회의 개최(타워호텔). 아시아·아랍 학자 15명, 기타 지역 학자 2명, 국내 학자 9명, Pierre Sane(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부총장) 등 유네스코 본부 직원 4명 참가
	11. 29	유네스코 60주년 기념 포럼 '유네스코와 미래 세계' 개최(타워호텔). 유네스코 문명간 대화 국제회의의 참가자, 김여수(경희대 NGO 대학원장·전 사무총장) 등 참가
	12. 8 - 12. 10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보호 지문화의 개최(타워호텔). Amarswar Galla(국제박물관협회 부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8개국 25명 참가
	12. 17 - 12. 18	교사총회 개최(유네스코 문화원,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협동학교 담당 교사 50명 참가
	12. 19	북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위한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 참가
	12. 20	제6차 임시총회 개최(은행회관 국제회의실)
	12. 21	'문화경관과 문화유산의 보호 세계유산정책' 세미나 개최(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세미나실). 황기원(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 위원장) 등 국내 전문가 10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5	12. 30	『Museum International』 국문판 특별호 발간
2006	1. 2 - 1. 14	제4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실시(유네스코 문화원, 서울, 대전, 천안 등). 경기도 영어교사100명 및 남호주 교사18명 참가
	2. 2 - 2. 4	인권교육 교사연수 실시(유네스코 문화원, 경기도 이천). 서영순(백신교 교감) 등 25명 참가
	2. 4 - 10. 28	미지의 세계문화여행(서울시내 청소년 수련관, 미지센터). 청소년 721명 참가
	2. 18 - 12. 2	북한 지원 사업, 교과서 인쇄 운전기 지원
	2. 20 - 2. 24	사회과학연구-정책 연계 국제 포럼(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5개 도시). 이삼열(사무총장), 정현백(인문사회 과학분과위원) 교수 참가
	3. 6 - 3. 9	제1차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전 세계 예술교육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1,200여 명 참가
	3. 16	제1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3. 25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장단회의 및 교사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1층 본관). 이돈희(민족사관교 교장), 전국ASP 교장 및 교사 등 96명 참가
	3. 25 - 3. 26	국제교류박람회 '세계와 일촌 맺기(미지센터). 청소년 2,500명 참가
	4. 3 - 4. 7	제17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참가
	4. 13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 자문회의(유네스코회관 회의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 부처, 교육 관련 기관, 학자, 교사 등 14명 참가
	4. 2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 선언' 토론회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맹광호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등 발표·토론자 12명, 생명윤리 전문가, 정책 담당자, 과학자, 언론, 시민단체 등 참관자 20명
	5. 1	청소년 참여 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발표자 및 토론자 9명, 청중 150명 참가
	5. 2 - 5. 4	몽골 기록유산 보존훈련 워크숍 개최(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국제회의실).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전문가 10명 및 몽골 기록물 보존 관리 실무자 35명 참가
	5. 8 - 5. 12	제2회 한·아세안 예술경영 워크숍 개최(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10개국 예술경영·기획자 40명, 한국 9명, 기조 강연자 등 총 63명 참가
	5. 14 - 5. 16	자연재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회의 개최(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 국내외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학자, 언론인 등 60명 참가
	5. 14 - 5. 18	제14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이탈리아 코센차). 이준원(중등교), 우효진(대원외국어교) 등 학생 2인 및 인솔 교사 1인 참가
	5. 18	제55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김진표 위원장 등 제26대 위원 24명(위원 포함) 참석
	5. 1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4명 참가
	5. 19	PCST-9 회의 '생명윤리와 언론' 분과 주관(서울 코엑스 회의실). 국내외 과학 담당 언론인, 윤리 전문가, 일반인 등 20여 명 참가
5. 19 - 5. 20	2006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훈련 워크숍(미지센터). 국내외 청소년 활동가 80명 참가	
5. 26	유네스코 '과학기술자 윤리강령' 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송상용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부위원장 등 발표자 7명, 과학자, 인문사회학자, 과학기술학자 등 30명 토론 참여	
6. 6	제7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베트남 하노이).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6. 6 - 6. 9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회의(베트남 하노이). 이삼열 사무총장 등 3명 참가	
6. 12 - 6. 16	2006년 한국-몽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류 프로그램 개최(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대관령 백두대간 보호지역, 한국자생식물원 등). Bayarmagnai 몽골 MAB 위원회 위원장 등 몽골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15명, 최철일 한국 MAB 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등 한국 5명 참가	
6. 27 - 6. 29	제1차 무형문화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김귀배 문화팀장 참가	
6. 29	제1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7. 3 - 7. 8	아시아 유스 캠프(제주도). 국내외 청소년 32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6	7. 18 - 7. 22	UNU-KNCU Global Seminar 개최(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지역 9개국 청년·대학생 90명 / 한스 반 힝켈(Hans van Ginkel) 유엔대학 총장, 찬드라 무자파(Chandra Muzaffar) JUST 대표, 마크 로젠즈바이그(Mark Rosenzweig) 예일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한진수 강원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 14명 참가
	7. 22 - 8. 1	세계문명탐사(중국, 캄보디아). 국내 청소년 20명 및 현지 청소년 참가
	7. 25 - 8. 9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 '인도'(인도 바라나시). 국내 청소년 10명, 인도 청소년 57명 참가
	7. 26 - 7. 28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교육 회의 개최(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한국 등 아태지역과 미국, 영국, 이집트의 생명윤리 교육 전문가, 교사, 정책 담당자 80여 명 참가
	7. 27 - 7. 29	2006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미카오, 5개국 1지역 500여 명 참가
	7. 28 - 8. 7	이르쿠츠크 국제학생포럼(러시아 이르쿠츠크). 한국 청소년 8명, 외국 청소년 80명 참가
	8. 6 - 8. 17	세계문명탐사(중국, 캄보디아). 국내 청소년 20명 및 현지 청소년 참가
	8. 9 - 8. 12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아태 지역 검토 회의 참가(일본 히로시마). 이삼열 사무총장 참가
	8. 3 - 8. 13	제41차 국제청년캠프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경기도 이천 및 전곡 12개 현장학습 지역). 26개국 청년·대학생 105명 참가
	8. 21 - 8. 30	브로시스 프로젝트(BroSis Project)(미지센터). 국내 청소년 8명, 자매도시 청소년 8명 참가
	8. 24 - 8. 25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위원회 워크숍 개최(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IHP, IOC, MAB, IGCP 국내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초청 강사 등 35명 참가
	8. 26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 교사 워크숍(유네스코회관 회의실). 강사, 교사 등 30여 명 참가
	9. 3 - 9. 10	한국 ASPnet 학교 몽골 방문 프로그램 실시(몽골 울란바토르 및 어워르항가이). 민족사관고, 청명고, 과천중앙고, 남성여고, 개성고, 부산국제중, 시흥은행중 학교장, 교사, 학생 각 1명 및 한위 직원 2명 등 총 23명 참가
	9. 4 - 9. 7	제3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존훈련 워크숍 개최(청주, 대전, 서울) 아태지역 기록유산 담당자 15명, 국내 전문가 10명, 국내 기관 기록 업무 담당자 20명 참가
	9. 14 - 9. 15	2006 동아시아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인증(SEAL) 심사위원회 참가(몽골 울란바토르). 신미아(문화탐원) / 박원길(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정보화사업팀장), 류영미(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정보화사업팀원) 참가
	9. 23	판계아 프로젝트(미지센터). 국내 청소년 50명, 일본 청소년 50명 참가
	9. 26 - 10. 3	제17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9. 27 - 9. 29	지식사회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국제회의 개최(서울 타워호텔). 클리포드 크리스찬스 교수(미국 일리노이대학) 등 국내외 미디어 관련 학자 및 전문가 73명(국외 15명) 참가
	9. 30	미지청소년문화포럼 개최(미지센터). 청소년 40명 참가
	10. 19 - 10. 21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미지센터, 유스호스텔).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및 전공자 20명 참가
10. 23 - 10. 27	제19차 MAB 국제조정위원회(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최정일 MAB한국위원회 위원장,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최은옥 일등서기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심숙경 차장(MAB 한국위원회 사무국) 대표로 참가	
10. 23 - 11. 1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등 3개국 4명 참가	
10. 24 - 10. 27	UNESCO-APNIEVE 회의 참가(중국 상하이). 이승환(APNIEVE 재정 담당 부회장) 참가	
10. 27 - 10. 28	아시아 출판교류 증진 지역회의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도 디아터 인디아 프레스(The Other India Press) 편집인 클로드 알바레스(Claude Alvares) 박사 등 아시아 6개국 출판인 및 학자 20여 명 참가	
10. 30 - 11. 2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유산교육 동북아시아 ASP교사 제4차 워크숍 개최(서울 타워호텔). 중국, 일본, 몽골, 한국 교사, 강사진, 유네스코 직원 등 40여 명 참가	
10. 31 - 11. 2	2006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워크숍 개최(강릉시청). 국외 19개국 정책 담당자 및 무형유산 전문가 20명, 국내 전문가 15명, 일반인 100여 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6	11. 5 - 11. 12	몽골 ASPNet 학교 한국 방문 프로그램 실시(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남질더르찌 교장 등 몽골 ASPNet 학교장, 교사,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직원 등 10명 참가	
	11. 14 - 11. 15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개최(서울 태워호텔). 외국 전문가 12명, 국내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16명, 일반인 및 시민사회 관계자 100여 명 참가	
	11. 18	미지아리랑 개최(미지센터), 국내외 청소년 300명 참가	
	11. 29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후원(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 황필규 변호사, 주니비에브 도미나크쉬크(Genevieve Domenach-Chich)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 인문사회과학담당 등 관련 기관·단체 인사 30여 명 참가	
	11. 30	제1회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서울 YWCA), 청년·대학생, 일반인, 관련 기관 담당자 등 150여 명 참가	
	12. 6 - 12. 8	제10차 APEID 연차대회(태국 방콕), 이삼열 사무총장, 이승환 정책사업본부장, 최순호 교육팀장, 이봄미 교육팀원 참가	
	12. 19 - 12. 22	유네스코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 방문 프로그램 개최(서울), 유네스코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 13명 참가	
	2007	1. 23 - 2. 5	2007년도 한국 교사 일본 방문(동경, 오사카 및 5개 시/현), 교사·교장, 장학사 등 159명 참가
	1. 23 - 6. 21	유네스코-아시아재단 문화간 이해 포럼 개최	
	3. 5 - 3. 11	유럽지역 국제자원활동 네트워크 회의(터키 이스탄불, 안탈리아), 강종안 청소년팀 차장, 김보영 청소년팀원 참가	
3. 10 - 11. 26	네트워크 사업 관계자 프로젝트(미지센터), 만 11~13세 초등학생 59명(일본 MIE 초등학생 22명 포함) 참가		
3. 23 - 11. 14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국제 화상회의(서울시청 영상회의실), 만 16~24세 청소년 78명 참가		
3. 24	ASPNet 총회(숙명여고), ASPNet 담당 교사 및 교장 등 100명 참가		
4. 2 - 6. 29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전반기 정규수업 실시, 학생 약 2만4,000명 참가		
4. 15 - 4. 26	제17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4. 21 - 5. 26	국제교류정보마당(미지센터, 주한 외국 대사관 및 국제교류기관), 만 13~18세 청소년 53명 참가		
4. 25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워크숍(통영교육청), ASP 교사, 통영 ESD 연구학교 교사 등 80여 명 참가		
4. 27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하야시 요코(일본 쇼비대 교수), 이근관(서울대 법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2명 및 청중 100여 명 참가		
4. 28	한국청년의 국제자원활동 성찰을 주제로 제2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청년·대학생·일반인 250명 참가		
5. 7	제1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회의장),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정규 참가기관 실무자 및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구촌나눔운동, 월드비전, KDI 국제대학원 등 10개 기관 관련 실무자 참가		
5. 10	제56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김신일 위원장 등 42명(위임 포함) 참석		
5. 22 - 5. 23	제9차 고등교육 학위인정협약 아태지역위원회 회의 개최(서울), 아태지역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 참가		
5. 23 - 5. 27	제1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회의(중국 청두), 조준혁(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수석대표), 임돈희(동국대 사학과 교수), 김귀배(문화팀장) 등 6명 참가		
5. 28	대(對)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1차 회의, 고철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외 14명 참가		
6. - 12.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고려대학교 국제관 외 전국 33개 학교 일원).		
6. 5 - 6. 6	제14차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조준혁(외교통상부 문화홍보심의관), 이근관(서울대 법대 교수), 신미아(문화팀 차장) 등 한국 대표단 6인 참가		
6. 10 - 6. 17	2007년도 일본 교사 한국 방문(서울 외 4개 도시 기관, 학교 및 문화유적지), 나가소메 히로후미 단장(참여원, 전 문부대신), 교직원 24명, 일본문부과학성 직원 2명,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이사, 직원 2명 참가		
6. 14 - 6. 15	문화유산교육 교사 워크숍(서울 세종호텔), ASP 교사, 문화유산 연구 시범학교 교사, 문화유산 방문 교육 교사, 주관 단체 실무자 등 130여 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7	6. 18 - 6. 23	세계유산 청소년 포럼 참가(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6. 20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
	6. 25 - 6. 29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아시아 22개국 청소년 대표 및 유관 기관 실무자 등 총 67명 참가
	6. 27	대(韓)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2차 회의. 김영길(한동대 총장) 외 11명 참가
	7. - 8.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해외 파견) 만 13~18세 청소년 13개팀 88명 참가
	7. - 11.	북한 교과서 용지 지원 사업
	7. 2 - 7. 7	아시아 유스 캠프(강화도, 미지센터). 한국 대학생 13명, 외국 대학생 13명, 자원활동가 8명 참가
	7. 3 - 7. 7	UNU 글로벌 세미나 개최(한동대학교). 한·중·일·몽골 동북아 4개국 및 말레이시아 외 9개국 청년·대학생 98명 참가
	7. 6	제1회 유네스코 과학기술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맹광호(가톨릭의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 16명 및 참관인 30여 명 참가
	7. 10 - 7. 13	우간다 교사들을 위한 평화 및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우간다)
	7. 21 - 7. 29	스리랑카 기록유산 보존훈련 워크숍 개최(스리랑카 콜롬보). 김봉진(국립문화재연구소장), 서영범(충남대 교수) 등 기록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한국 12명, 스리랑카 100여 명 참가
	7. 22 - 7. 27	한국 ASPnet 학교 인도네시아 방문 프로그램 실시. ASPnet 5개 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생 등 총 17명 참가
	7. 26	대(韓)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3차 회의. 주철기(전 주프랑스 대사) 등 12명 참가
	7. 29 - 8. 8	서울 자매도시 프로젝트(브로시스 프로젝트) 개최(미지센터). 국내 대학생 18명, 외국 대학생 28명, 자원활동가 13명
	8. 2 - 8. 4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중국 선양). 중국, 일본, 몽골, 남북한, 마카오, 홍콩의 5개국 2지역 공연단 및 관련 인사 600여 명 참가
	8. 3 - 8. 4	제8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중국 선양).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8. 3 - 8. 9	현대예술워크숍(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청소년 30명, 작가 4명, 몽골 청소년 30명, 작가 3명 참가
	8. 9 - 8. 19	제42차 국제청년캠프 '청년! 변화의 시작'(유네스코평화센터 및 전국 11개 현장학습지). 20개국 127명(한국 34명, 외국 93명) 참가
	8. 19 - 8. 22	한·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활용 전략회의 개최(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무형유산 전문가 7명, 몽골 무형유산 전문가 20명 참가
	8. 19 - 8. 28	2008년도 일본 교사 한국초청 프로그램(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지역 학교, 기관 및 문화유적지)
	8. 24	제6차 임시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이경숙 부위원장 등 24명 참가
	8. 28 - 9. 1	2007년 한·몽 생물관보전지역 관리자 교류(몽골 오르콘계곡 국립보호구, 쿠스타인누루 국립공원 등). MAB 한국, 몽골 위원회 위원 등 14명 참가
	9. 2 - 9. 5	제10차 EABRN 회의(몽골 테렐지 국립공원 울란바토르). EABRN 회원국 및 관련 국제 NGO 등 60여 명 참가
	9. 3 - 9. 7	제2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회의(일본 도쿄). 조준혁(외교통상부 심의관), 임돈희(동국대 교수), 최종덕(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이승환(정책사업본부장) 등 9명 참가
	9. 3 - 9. 9	제13차 세계비교교육학술대회(사리에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각국 비교교육 관련 전문가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참가
	9. 4 - 9. 5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회의(창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및 국내외 평생학습 관계자 참가
	9. 6 - 9. 8	동물장기이식 합의회의 개최(서울유스호텔). 이현근(부경대 강사) 등 시민 패널 14명 및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 패널 18명 참가
	9. 10 - 9. 15	인도네시아, 몽골 빈곤 가정의 음악 분야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및 방한 초청 연수
	9. 11	몽골 기록유산 보존 장비 기증(몽골기록물보존소, 몽골 울란바토르).
	9. 16 - 9. 20	무형문화유산보호 도시간 네트워크 회의(영리 페즈). 최명희 강릉시장, 황원규 강릉대 교수, 김광래 관동대 교수, 김귀배 문화재단장 등 8명 참가
	9. 25 - 10. 11	제177차 유네스코 집행사회회(프랑스 파리). 이승환 정책사업본부장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7	10. 9 - 10. 10	동아시아 역사문화 국제포럼 개최(서울 세종호텔), 도이 류이치(일본 민주당 의원), 미타니 히로시(일본 도쿄대 교수), 수지량(중국 상하이 사범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과 청중 100여 명 참가	
	10. 12 - 10. 13	제4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조우진(청소년팀), 정지은(서강대 국제대학원), 박세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가	
	10. 16 - 11. 3	제34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김신일 위원장,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30명 참가	
	10. 26	2007년도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후원 및 참가(대전 유성관광호텔).	
	10. 29 - 11. 2	ICNYP(국가청소년정책국제협의회) 국제심포지엄 참가(인도 고아), 이선재 청소년팀장 참가	
	11. 3	제2회 유네스코 과학기술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John Weckert(Charles Sturt University 교수), Jun Fudano(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송상용(COMEST 부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12명 및 참관인 30여 명 참가	
	11. 5 - 11. 9	한·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활용 전략회의 개최, 한국 무형유산 전문가 10명, 몽골 무형유산 전문가 10명 참가	
	11. 12 - 11. 13	2007년도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워크숍(제주도 한화콘도),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IHP, IOC, MAB, IGCP) 한국위원회 위원 및 관련 기관 31명 참가	
	11. 16	한국 청년의 세계시민의식과 실천을 주제로 제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대학생 및 일반인 60명 참가	
	11. 16 - 11. 18	아태지역 과학대중화 포럼(서울 플라자호텔), 아태지역 17개국 과학관 대표, 과학대중화 사업 관계자, 과학교육 전문가 등 32명 참가	
	11. 17	CCAP 10년 평가 포럼(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각계 전문가, 자원활동가, 담당 교사 등 총 100여 명 참가	
	11. 25 - 11. 28	제4차 세계환경교육회의(인도 아메다바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및 전문가 참가	
	12. 3 - 12. 12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등 3개국 4명 참가	
	12. 5 - 12. 7	청소년국제교류 실무자 훈련 워크숍(미지센터), 청소년 현장 활동가 151명 참가	
	12. 12 - 12. 14	제11차 아시아·태평양 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APEID) 회의(태국 방콕),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APEID 네트워크 참여 교육기관 관계자 참가	
	2008	1. 7 - 1. 18	제6회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 개최, 남호주교육청 소속 교사 18명,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 100명 참가
		1. 18	한국의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1. 22 - 2. 4		2008년도 한국 교사 일본 초청 프로그램(일본 도쿄, 오사카 및 군마현 등 5개 시/현)	
2.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발간	
2.		호주국립박물관 교류사업(미지센터 및 호주 현지), 청소년 10명 참가	
2. 4 - 2. 9		제20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및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스페인 마드리드), 전체 850명(한국: 최정일 MAB한국위원장 등 13명) 참가	
2. 17 - 2. 22		제3차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회의 및 MOW 아태지역위원회 회의(호주 캔버라), 30개국 140여 명 참가	
2. 18 - 2. 22		에티오피아 ICT 교사 연수 개최(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교사 50여 명 대상	
2. 18 - 2. 22		제2차 무형문화유산협약 임시 정부간위원회(불가리아 소피아), 이근관(서울대 교수),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관계자, 신미아(문화탐원) 등 7명 참가	
3. 20 - 12. 5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청소년 국제화상회의(서울시청 영상회의실)	
3. 22		2008년도 ASPnet 총회(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강당 및 과학관), ASPnet 학교장, 교사 및 학생, 교육청 관계자 및 참관인 등 총 127명 참가	
4. 1 - 4.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방문(독일 본),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4명	
4. 1 - 4. 17		제17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6명 참가	
4. 18		지속가능발전교육 정부 부처 간 1차 협의회의,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전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등 총 6명 참가	
4. 29	제1차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포럼(유네스코회관 소회의장)		

연도	기간	내용
2008	5. 18	제9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필리핀 마닐라).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4명 참가
	5. 19 - 5. 23	제14차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총회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회의(필리핀 마닐라).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4명 참가
	5. 27 - 5. 29	유럽지역 예술교육 전문가 회의(독일 빌트바트 크로이트). 이삼열(사무총장) 등 3명 참가
	6. 7	베트남 후에 황성 유적 디지털 복원사업 영상물 전달식(베트남 후에 황성). 송인범(문화재청 차장), 임창용(한국과학기술대학 교수), 김귀배(문화팀장) 등 6인 참가
	6. 8 - 6. 17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 프로그램 개최(서울, 경주). 일본, 태국, 우간다 등 3개국 3명 참가
	6. 16 - 6. 19	제2차 무형문화유산협약 당사국 회의(프랑스 파리). 권영대(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장), 문화재청 관계자, 신미아(문화팀원) 등 8명 참가
	6. 22 - 6. 26	유네스코 지질공원 회의(독일 오스나브뤼크). 60개국 500명 참가
	6. 24 - 7. 1	제4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회(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정도안(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장) 등 13명 참가
	6. 26	제2차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포럼(유네스코회관 소회의장).
	6. 26 - 6. 30	제2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 개최(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아시아 20개국 청년활동가 및 관계자 등 50명 참가
	6. 28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청년'을 주제로 한 제4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서울 YWCA 대강당). 청년 및 대학생 약 40명 참가
	6. 28	아시아 청년문화 한마당 개최(광주광역시 금남로 근린공원). 포럼 참가자, 주한 외국인 유학생, 지역 관계자 등 200여 명 참가
	7. - 8.	몽골국제청소년공연예술축제(몽골 울란바토르). 국내 청소년 30명, 현지 참가자 및 외국 참가자 80명 참가
	7. 2 - 7. 10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캐나다 퀘벡).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관련 전문가, 이삼열(사무총장), 김귀배(문화팀장) 등 직원 3명 참가
	7. 21 - 7. 26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광주)
	7. 24 - 7. 27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국외 110여 명, 국내 163여 명 참가
	7. 29 - 7. 30	BPRC(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UNESCO 생명윤리 국제포럼 개최(이화여대). 자이 샤오메이(중국의학원) 교수 등 외국 학자 10명, 맹광호(가톨릭대) 교수 등 국내 학자 15명 참가
	8. - 9.	아시아 청년 기금(Asia Youth Fund) 사업 실시
	8. 3 - 8. 9	한국 ASPnet학교 말레이시아 방문 프로그램 실시(쿠알라룸푸르). 교장, 교사, 학생 15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2명 참가
	8. 7 - 8. 17	제43차 국제청년캠프(유네스코평화센터 및 전국 9개 현장학습지)
	8. 25 - 8. 29	UNU-KNCU 글로벌 세미나: Asian Culture in Globalization(유네스코평화센터). 한·중·일·몽골 동북아 4개국 및 기타 3개국 청년·대학생 98명 참가
	9. 8 - 9. 9	동북아 역사문화 국제포럼 개최(서울 세종호텔). 중국사회과학원 탕중난 교수, 일본 도쿄학예대 사카이 도시키 교수 등 외국 학자 7명, 국내 학자 16명 참가
	9. 16 - 9. 21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직원 한위 방문 프로그램 개최(서울). Roland Bernecker 사무총장 등 5명 방문
	9. 18	2008년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워크숍(서울 남산 유스호텔). L. Moeller(유네스코독일위원회 과학팀장),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위원 등 26명 참가
9. 20	2008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한양사이버대학교). 국내외의 전문가, 교사, 교수 및 학자, 관련 부처 공무원, 지자체, NGO 관계자 등 200여 명 참가	
9. 27 - 9. 29	2008 유네스코 우수공예품 인증사업 심사회의(중국 베이징). 조정현(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3명 참가	
9. 27 - 10. 4	국제회의의 파견사업(캐나다, 터키). 청소년 10명 참가	
9. 29 - 10. 2	우간다 교사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워크숍 개최	
9. 30 - 10. 17	제18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이삼열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6명 참가	
10. 19 - 10. 25	말레이시아 ASPnet학교 한국 방문 프로그램 실시(서울, 대구, 경기 내 5개 ASPnet 교류 학교). 학교장, 교사, 학생 15명, 말레이시아 국가위 직원 2명 참가	
10. 2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8대 전택수 사무총장 취임	

연도	기간	내용	
2008	10. 23 - 10. 24	2008 ESD 국제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Regional Centres of Expertise) 총회 참가(통영시민문화회관 및 통영시 일원), 아태지역 RCE 관계자, 유엔대학 담당자, 통영 시민 등 참가	
	10. 28 - 10. 31	2008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중국 항저우), 데렉 엘리야스 방콕사무소 ESD 과장, 마헤쉬 프라단 UNEP 환경담당관, 각국 대표단 참가	
	11. 4 - 11. 8	제3차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터키 이스탄불), 임돈희(동국대 사학과 교수),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등 관계자, 신미아(문화팀원) 등 7명 참가	
	11. 12	제57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안병만 위원장 등 35명 참가	
	11. 14	지구촌 평화마을(이천영어마을) 개원식, 이천시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약 500명 참석	
	11. 14 - 11. 15	국제교류 실무자 훈련 워크숍 개최(미지센터, 서울 예정동), 청소년 현장 활동가 30명 참가	
	11. 21	'청년, 공익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한 제5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10층 회의장), 청년 및 대학생 약 90명 참가	
	11. 25 - 11. 28	제48차 세계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스위스 제네바),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부 고위 관계자, NGO, 및 기타 교육기관 관계자 참가	
	12. 2 - 12. 5	2008 도쿄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일본 도쿄),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본 교육부장관, 유네스코 DESD 담당 국장,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 참가	
	12. 3	2008 유네스코 우수공예품 인증사업 시상식(코엑스 태평양홀), 유네스코 AWARD 수상자 11명 등 약 50명 참가	
	12. 3 - 12. 6	기후변화와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의 주최(제주도),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참가	
	12. 16	다문화 정책포럼 주최(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Ms. Nina Obuljen 크로아티아 문화부 차관, 영국, 호주 등 국내외 전문가 40명 및 참관자 60명	
	12. 22	제5차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포럼(롯데호텔), 국내 ODA 및 국제교류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 참가	
	2009	1. 6 - 1. 16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 실시, 남호주교육청 소속 교사 13명,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 96명 참가
		1. 8	제1차 국제개발협력 정책 포럼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9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본부장 취임 축하 리셉션 개최(한국프레스센터)
2. 3 - 2. 16		2009년도 한국 교사 일본 초청 프로그램(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시마현 등 5개 지역), 이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단장), 교사·교장 등 교육행정이 148명 참가	
2. 4 - 2. 6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회의(태국 방콕), Ray Edmonson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재소위원회 및 편집소위원회 위원 등 10명 참가	
2. 4 - 9. 30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워크숍(유네스코회관 대회의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과학기술 12개 기관·단체 25명 참가	
2. 14 - 2. 22		'역사지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유네스코석좌 국제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서울 연세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7개국 40여 명 건축, 환경 관련 대학원생 및 전문가, 교수 참가	
2. 18 - 2. 20		아태지역 MOW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서울, 이천, 대전), 10개국 기록유산 전문가, 국내 기록유산 관련기관 관계자 80여 명 참가	
2. 25 - 11. 10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국제화상회의 개최(미지센터,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청소년 총 44명 참가	
3. - 12.		북한 교과서 용지 지원 사업(북한 전역)	
3. 20 - 3. 21		지질공원 워크숍 개최(제주도), 지질유산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 180여 명 참가	
3. 23 - 3. 31		방콕 자매도시 청소년 프로그램(태국 방콕), 서울시 대표단 4명 참가	
3. 31 - 4. 2		ESD 세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독일 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자 및 전문가 8명 참가	
4. 4		2009년도 ASPnet 총회 개최(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 ASPnet 학교장, 교사 및 학생 109명, 교육청 및 학교장 참관 7명 등 총 116명 참가	
4. 19 - 5. 1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5. - 11.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최, 서울 시내 중학생 63명, 고등학교생 45명 등 총 20개팀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09	5. 7 - 5. 8	IDEA(국제연극교육협회) 회의(독일 로스토크), 오남숙(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사무관), 정연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개발팀장), 김귀배(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등 4인 참가
	5. - 12.	온스타일-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인재양성 기금사업 진행
	5. 18	제6차 국내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청년·대학생 및 청년 분야 관계자 120여 명 참가
	5. 22	동아시아 공동무형유산 보호 국제포럼 자문회의 개최(유네스코회관 8층 회의실).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 등 자문위원 3명 참가
	5. 24 - 5. 29	제2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제주도), MAB 국제조정이사국(34개국) 대표, 유네스코 및 회원국 대표 등 120여 명 참가
	5. 29	문화유산 분야 유네스코 협력 국제 NGO 네트워크 회의 개최(유네스코회관 8층 회의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국제민속축전단체협의회 한국본부 등 유무형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협력 NGO 7개 기관 대표 참석
	6. 18	제58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서울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안병만 위원장 등 44명 참석
	6. 18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시상. 진홍상: 배현숙 연세대 생물학과 교수, 펠로우십: 이진아 한남대 생명과학과 교수, 우주연 KAIST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이윤진 한국원자력의학원 선임연구원
	6. 19	제1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도널드 브라운(켄살베이니아 주립대),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변순용(서울교대), 양해림(충남대), 발표자 4명, 사회 및 토론자 7명, 청중 100여 명 참가
	6. 22 - 6. 30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스페인 세비아). 전택수 사무총장 등 직원 3인,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대표, NGO 등 약 800명 참가
	7. 2 - 7. 7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 '다시 그리는 우리의 미래-아시아 대안을 찾아서'(조선대, 평주 대인시장). 아시아 21개국 청년활동가 70명 참가
	7. 5 - 7. 10	UNU-KNCU 글로벌 세미나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한·중·일·몽골 및 기타 외국 청년·대학생 69명 참가
	7. 6 - 7. 15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 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세네갈 등 4개국 4명 참가
	7. 13 - 7. 22	청소년수련관 교류프로그램 보급 사업 터키-코냐 교류(터키 코냐 지방). 서울시 청소년 18명 참가
	7.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서울 힐튼호텔). 국외 참가자 4명, 국내 참가자 8명,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희망 국내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약 200명 참석
	7. 22 - 8. 2	제44차 청년지역행동 'Vision Value, and Ac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개최(전국 6개 현장). 21개국 70명 참가
	7. 29 - 7. 3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참관(마베이도스 브리지타운). 전택수 사무총장 등 40여 명 참가
	8. 7	제10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일본 나라).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4명 참가
	8. 20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설치
	8. 26 - 9. 4	2009년도 일본 교사 한국 초청 프로그램(서울, 강화, 통영, 안동, 부산). 기소 이사오 일본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총단장) 및 교직원 49명, 문부과학성 2명, ACCU 직원 2명 등 53명 방문
8. 27	제1회 ESD 한일 교사 포럼(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 일본 교직원 53명, 한국 교사 및 관계자 등 약 130여 명 참가	
8. 27 - 8. 28	제3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개최(서울 세종호텔). 베트남 학자 3명, 중국, 일본, 호주 학자 각 1명, 한국 학자 10여 명 및 청중 50여 명 참가	
9. 2	역사유적 보존과 지속가능발전 특강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주한 이스라엘 대사 및 관계자, 국내 도시건축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70명 참가	
9. 4 - 9. 7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및 아태 기록유산 국제워크숍 개최(서울, 청주, 대전). 오스트리아 영상자료센터 전문가, 아태지역 11개국 기록유산 담당자 및 국내 관련 기관 담당자 등 30명 참가	
9. 7 - 9. 23	제18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9. 8	제1차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정기회의(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ESD위원회 위원 15인 참가	
9. 28 - 10. 2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참가(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연도	기간	내용
2009	9. 29 - 9. 30	제1회 유네스코 아태 과학기술교육 포럼 주최(서울대 호암관 및 교육정보관). 아태지역 11개국 과학기술교육 정책 담당자 16명, 국내 전문가 10명, 방청객 50여 명 참가
	10. 1 - 10. 3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한국 청년대표· 연구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당자 등 4명 참가
	10. 6 - 10. 23	제35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34명 참가
	10. 9 - 10. 10	2009 한국 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지원
	10. 24 - 10. 27	아태지역 유네스코협동학교 ESD & MDGs 포럼 개최(유네스코명화센터, 유네스코회관). ESD & MDGs, 전문가, 국내 협동학교 교사 50여 명 등 총 100여 명 참가
	10. 27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을 위한 MAB 정책토론회 주최(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환경부 등 중앙 및 지방정부, MAB한국위원회 위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50여 명 참가
	11. 4 - 11. 5	2009 컬처링크 아태지역 문화정책회의 개최(서울 힐튼호텔,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국내 참가자 7명, 국내 문화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개인 등 약 150명 참석
	11. 5 - 11. 7	세계과학포럼(헝가리 과학아카데미, 부다페스트). 전택수 사무총장 외 1명 참가
	11. 10 - 11. 15	EABRN(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11차 회의 참가(중국 무이산 생물권보전지역). EABRN 6개 회원국 대표 47명 참가
	11. 19	제2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 개최(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이인기(국회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장) 및 조용성(고려대), 정순희(이화여대), 권원태(기상연구소), 박진희(동국대), 발표자 4명, 사회 및 토론자 7명, 청중 70여 명 참가
	11. 21	제7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청년·대학생 80여 명 참가
	11. 24 - 11. 25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포럼 개최(강원도 강릉시청). 국내 전문가 20명, 일반 참가자 약 150명 참가
	11. 26	제2차 국제개발협력 정책 포럼 개최(세종호텔 세종홀). 관련 정부 부처, 워크숍 참가 기관, 대외 원조 기관, 대학, 기업, 관련 NGO 등 120명 참가
	12. 2 - 12. 3	문명과 평화 포럼 주최(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이란) 등 해외 학자 및 전문가 20명, 국내 학자 20여 명 및 청중 300여 명 참가
	12. 3	아태지역 ICT 교육센터 개원식 개최(필리핀 마닐라 외곽 나보타스 시). 삼성전자 필리핀 현지법인 협력
	12. 4 - 12. 5	생명윤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연세대 의료원). Henk Bekedam(WHO), 맹광호(IBC), 이태근(보건복지가족부) 등 발표자 9명, 사회 및 토론자 15명, 청중 50여 명 참가
	12. 8	다문화 사회 모두를 위한 정보 포럼 개최. 한진수 강원대 교수 외 국내 전문가 6명 등 50여 명 참가
	12. 10	국립대학 사범대학 학장 ESD 라운드테이블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국립사범대학장 및 관계자 20명, ESD 교사 교육과정 논의
2010	1. 2 - 1. 16	제8회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 개최. 남호주교육청 소속 교사 및 교육 전문가 15명, 경기도 교육청 소속 영어 담당 교사 89명 참가
	1.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너지관리공단 업무협약식(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전택수 사무총장 및 협동학교팀 관계자,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및 교육연수실 관계자 참가
	1. 12 - 1. 25	한국 교사 일본 초청 프로그램 실시(일본 도쿄, 오사카 및 개센누마 시 등 5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가 등 149명 참가(단장: 전택수 사무총장)
	2. 17	2010 디지털유산 어워드 시상식 개최(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어워드 수상자 대표 등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 30여 명 참가
	2. 22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워크숍 개최(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MAB한국위원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등 40여 명 참가
	2. 23 - 2. 25	EFA 고위급 회담(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EFA 관련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및 지원국, 수혜국 정부 대표 등 150여 명 참가
	3. 27	ASPnet 총회 개최(서울 용강중학교). ASPnet 학교장, 교사 113명, 교육청·학교장 참관 12명 참가
	3. 29 - 3. 30	IFAP 정부간위원회(유네스코 본부). IFAP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100여 명 참가
	3. 30 - 4. 15	제18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4. 10 - 4. 15	제4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회의(말레이시아 랑카위 지질공원). 27개국 423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0	4. 22 - 4. 23	유네스코 기후변화윤리선언 제정 타당성 검토 지역전문가 회의(UNU-IAS 센터, 일본 요코하마). 이재형 고려대 법학과 교수 등 아시아 지역 전문가 20여 명 참가
	4. 24 - 4. 25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유네스코 세계 순회 전시회 개막(국립과천과학관)
	4. 28 - 5. 2	ASEM 국제회의(베트남 하롱 시). 아시아 유럽지역 문화부, 외교부, 문화기관 관계자, 예술가, 이선경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등 85명 참가
	4. 30	제59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실). 김중현 부위원장 등 38명 참석
	5. 4	제1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관련 전문가 90여 명 참가
	5. 9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3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학생 대표 및 담당 교사 총 70명 참가
	5. 19 - 5. 21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사교육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유네스코 본부). 54개국 70개 교사 교육기관 총장, 교수, 공무원 등 90여 명 참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5. 21 - 5. 24	유네스코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총회 개최(창원컨벤션센터). 아태지역 46개국 130명 참가
	5. 22 - 5. 25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창원)
	5. 24	한국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기념행사(유네스코회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유네스코 관련 인사 200명 참가
	5. 24	아이티 교육재건 기금 전달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미회 20만불, 한국 유네스코 가족 미회 2만8천불)
	5. 25 - 5. 28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서울 코엑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관련 국제 NGO, 예술가, 문화예술 교육 강사 등 110개국 3,000여 명 참가
	5. 29	UNGO 국제활동박람회 개최(서울광장). 청소년 포함 일반 시민 약 2만 명 참가
	5. 31 - 6. 4	22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의(유네스코 본부). MAB국제조정이사국 34개국 대표 및 참관자 154여 명, 한국 대표단 6명 참가
	6. 8 - 6. 10	생물·문화다양성 국제회의(캐나다 몬트리올). 생물 및 문화다양성 전문가, 국제기구 등 150명 참가
	6. 15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유네스코 세계 순회 사진전 화보집 발간
	6. 17	중국 내 고구려 유적 훼손 관련 국내 대책회의(유네스코회관 8층 회의실).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발해학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한민족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등 12명 참가
	6. 22	제9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 진흥상: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펠로우십: 서원희 CHA 의과학대학교 조교수, 이나경 순천향대학교 조교수, 황은숙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6. 22 - 6. 24	무형문화유산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유네스코 본부). 전진성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6. 30	제2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관련 전문가 80여 명 참가
7. 5 - 7. 6	ASEF Culture360 전략회의(싱가포르). Culture360 웹 개발, 에디터 및 아시아지역 네트워크 담당자 약 20명 및 이선경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7. 9 - 7. 10	2010년도 유네스코 국내 청년포럼(귀정사 및 지리산 일원). 지역 청년 및 대학생 약 40명 참가	
7. 16 - 7. 18	제1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	
7. 20 - 7. 21	아태지역 공동무형유산회의 참가(태국 방콕)	
7. 25 - 8. 3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브라질 브라질리아). 전택수 사무총장,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7. 26 - 7. 31	20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10개국 청년·대학생 66명 참가	
7. 26 - 7. 31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과학교육 워크숍(서울대 및 대전 출연연구소 3곳). 아태지역 15개 개도국 과학교육 전문가 30명, 국내외 과학교육 및 정책 전문가 20명 참가	
8. - 12.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네팔 카트만두)	
8. 2 - 8. 13	제45차 청년지역행동 행사 개최(전국 6개 현장). 19개국 87명 참가	
8. 3 - 8. 8	대한민국과학축전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특별전 개최(일산 킨텍스)	
8. 6 - 8. 7	제4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개최(베트남 하노이). 9개국 출신 30여 명의 명의 역사 전문가, NGO 활동가, 언론 관계자 참석	
8. 12 - 8. 20	한·영 도시디자인 교류 한국 청소년 영국 방문(영국 런던). 고등학교생, 대학생 14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0	8. 13 - 8. 15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ASPnet) 중·고등학교 학생 46명 참가
	8. 16 - 8. 26	여름방학 청소년 생물다양성 캠프 개최(설악산, 신안 증도, 계룡산). 초·중등학생 150여 명 참가
	8. 19 - 8. 21	생물다양성 보전 종합학술대회 개최(서울대학교). Charles Lee 미 하버드 의대, Dan Larhammar 스웨덴 읍살라대학 등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 참가
	8. 24	제3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경기개발연구원 국제회의실). 관련 전문가 90여 명 참가
	8. 25 - 9. 3	2010 일본 교사 한국 초청 프로그램 실시(서울, 부산, 원주, 청주). 사가구치 히토미 단장(미노시 교육위원회 위원) 외 교직원 49인, 문부과학성 및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직원 4인 등 53명 참가
	8. 26	제3회 ESD 한일교사포럼 개최(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 한일 교직원 약 100명 참가
	8. 27	제11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중국 마카오). 김승운 사업본부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8. 27 - 8. 29	초록시네마, 생물다양성 영상제 개최(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8. 29 - 9. 13	제1회 DMZ 청년영상캠프 개최(경기도 파주시 소재 '지지향'). 13개국 40명 참가
	8. 30 - 9. 8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짐바브웨 등 4개국 4명 참가
	8. 30 - 9. 27	대학생 생물다양성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 1 - 9. 3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국제 심포지엄(제주시 오리엔탈호텔).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 전문가, 자연공원 관리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 참가
	9. 7 - 9. 9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문화교실 개최(전주고, 전북사대부고, 공주교대부초)
	9. 9 - 9. 11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OCN) 2010 시장단회의 참가(체코 우헤르스케헤라디슈테 시)
	9. 17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실천을 위한 울리 국제회의 개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 100여 명 참가
	9. 18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발대식(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외 100여 명 참석
	9. 21 - 9. 23	제16차 불멸소유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유네스코 본부).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관계자 및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참가
	10.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주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주재관 파견(김구배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10. 5 - 10. 22	제18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10. 7	제1기 브릿지 활동가 18명 6개국 18개 지역 파견
	10. 15	컬처링크 국제자문화의 개최(명동 이비스호텔 회의실). 사라 가드너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구연합회(IFACCA) 사무총장, 캐트린 멀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문화정책부장, 아시아유럽재단(ASEF),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 등 국외 7명, 국내 5명 참가
	10. 17 - 11. 27	창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미지센터, 서울시립미술관, 한얼소극장). 만 13~15세 청소년 14명 참가
	10. 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이천시 아트홀)
	10. 29	"신경과학이 여는 새로운 세상: 인문/사회학적 대응" 회의 공동개최(이화여대 교육관 김애마홀). 국내 신경과학, 신경윤리, 신경법률 전문가 50여 명 참가
	11.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도시문화유산보존 국제포럼 개최(서울역사박물관). 국내 사회/토론자 6명, 관계자 및 청중 등 250명 참가
	11. 5 - 11. 7	제2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
	11. 10	2010년도 유네스코 국내 청년포럼(대전광역시 북카페 이테). 지역 청년 및 대학생 약 50명 참가
11. 11 - 11. 13	DMZ 일원 생태 평화 국제회의 주관(강원도 고성 한국DMZ박물관). 세계 접경지역 전문가 및 국내 DMZ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 250명 참가	
11. 12 - 11. 14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개최 및 세계시민선언문 채택(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ASPnet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100여 명 참가	
11. 15	제2회 다문화 사회 모두를 위한 정보포럼 개최(대한상공회의소). 다문화 관련 민간 언론사 및 정보 네트워크 등 실무 운영자, 정책지원사업 실무자 및 전문가 12명 등 총 100여 명 참가	
11. 15 - 11. 19	제5차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케냐 나이로비). 이선경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11. 17 - 11. 18	2010년도 유네스코 국내 청년포럼(전남 곡성 심청문화센터). 광주 지역 청년활동가 및 관계자 등 20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0	11. 17 - 11. 20	제11차 EFA 국가조정관 지역 회의(태국 방콕). 아태지역 38개국 교육부 직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 및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교육 관련 전문가 참가
	11. 26 - 11. 28	제3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
	11. 26 - 11. 29	유네스코 남아 및 동남아 과학기술정책 포럼(인도 뉴델리 인도과학한림원). 유네스코, 유럽연합 과학기술정책 및 국제 전문가 100여 명 참가
	11. 27	CCAP 전국 종합보고회 개최(대구 계명대). 외국인 문화교류 자원봉사자, 한국어 통역 자원활동가, 담당 교사 및 협력기관 담당자 총 150명 참가
	11. 29 - 12. 3	제4차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유네스코 본부). 25개 위원국 대표단 및 옵서버 등 350여 명 참가
	11. 30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인천 송도파크호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마헨드라 프라사드 싱 인도 델리대 교수 등 100여 명 참가
	12. 1	유네스코 전략포럼(롯데호텔).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언론인 등 70명 참가
	12. 5 - 12. 7	제7차 세계스포츠포럼(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센터).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12. 6 - 12. 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0 컨퍼런스(중국 선전). 네트워크 가입도시 및 전문가 약 200명 참가, 전진성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12. 7 - 12. 8	DESD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석좌 회의(러시아 모스크바). 유네스코 ESD 석좌 및 UNITWIN 관계자 100여 명 참가
	2011	1. 10 - 1. 20
1. 11 - 1. 24		2011 한국 교직원 일본 초청 프로그램(일본 동경, 오사카, 아키토 시 등 5개 지역). 단장: 권대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부위원장
2. 15 - 2. 17		아태지역 ESD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태국 방콕).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강상규 교육팀원 참가
2. 19 - 2. 21		아태지역 교육협력 ESD 포럼(일본 도쿄). 강상규 교육팀원, 김명신 협력사업팀원 참가
2. 22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워크숍 개최(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MAB한국위원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등 40여 명 참가
3. 8		유네스코일본위원회 제128차 총회 참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 발표(일본 동경).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3. 11 - 3. 14		2011년 저개발국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태지역 10개국 10명 참가
3. 15 - 3. 16		문화재 불법반출입 금지관련 협약 40주년 기념 특별회의(유네스코 본부).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3. 22 - 3. 24		제10차 유네스코 EFA 고위그룹회담(태국 줍티엔). 전택수 사무총장, 이주옥 교육팀원 참가
3. 2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략포럼 개최(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창의도시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400명 참가
3. 26		2011년도 ASPnet 총회 개최(서울 신용산초등학교). ASPnet 학교장, 교사 138명, 교육청 및 학교장, 참관 교사 25명 등 총 163명 참가
3. 31 - 5. 30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육재건 협력사업. 전국 유네스코협동학교 33개교 및 방일 한국 교직원(단장 6명 포함) 110명 참가
4. 10 - 4. 15		제4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회의(말레이시아 랑카위 지질공원). 27개국 423명 참가
5. 3 - 5. 19		제18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5. 13 - 7. 17		제4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13개 시도 27개 고교생 84명, 대학생 진행요원 9명 참가
5. 18 - 5. 21		제4차 Memory of the World(MOW)회의(폴란드 바르샤바). 전진성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5. 23 - 5. 25		제10차 MOW 국제자문위원회의(영국 맨체스터). 전택수 사무총장, 김귀배 주유네스코 대표부 주재관, 전진성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5. 28		제6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소극장).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150여 명 참가
6. 2		MAB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유네스코화관 11층 유네스코홀). MAB한국위원회 전·현직 위원, 관련 연구자, 시민단체 등 참가
6. 14 - 6. 17		제3차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유네스코 본부). 정용시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6. 18 - 6. 19	제3차 아태지역 국회의원 교육포럼(FASPPED).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6. 19 - 6. 29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유네스코 본부). 허권 유네스코평화센터 원장,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6. 27 - 7.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개최 'What Should the Global Education Agenda Be after 2015: Post-EFA and Post-ESD'(유네스코평화센터).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6명 및 국내외 11개국 대학(원)생 등 80여 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1	6. 30	제60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홀), 이주호 위원장 등 32명 참석
	6. 30 - 7. 1	제17차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유네스코 본부),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7. 1	CCAP 포럼(유네스코홀), 교사, 자원활동가 및 운영기관 담당자 등 60명 참가
	7. 1 - 8. 28	국제워크숍 개최, 제주(7.1~15), 부산(7.8~22), 울진(8.1~15), 원주(8.18~28), 국내 13명, 해외 33명 참가
	7. 2 - 7. 11	2011년 한·인도 포럼(미지센터, 서울 시내), 한국인 참가자 10명, 인도 참가자 12명 참가
	7. 3 - 7. 7	유엔 경제사회국(ECOSOC) 연례장관급 회의(스위스 제네바), 김희웅 교육팀원 참가
	7. 3 - 7. 7	유네스코 내부감사실(IOS) 한위 방문 및 모니터링활동 지원
	7. 4 - 7. 8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주최 세계유산 관리 및 보호 워크숍(일본 히로시마), 박하영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7. 6	제7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전남 신안군 신안갯벌센터), 관련 전문가 130여 명 참가
	7. 8 - 7. 9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베트남 하노이), 디자인 관련 양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 현지 청소년 및 관계자 약 100명 참가
	7. 19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개최(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발표자 6명, 국내 발표자 2명(사회자 2명, 토론자 7명, 관계 기관·일반 참석자 200여 명 참가
	7. 19 - 7. 21	네팔 평화사절단 훈련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브리티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네팔 치트완)
	7. 25 - 7. 27	ESD 모니터링·평가 전문가 워크숍(일본 요코하마), 강사구 교육팀원 참가
	7. 25 - 7. 29	EFA 국가조정관 지역회의 개최(세종호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태지역 27개국 EFA국가조정관 및 교육부 고위 관료,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담당 직원,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교육 전문가 등 120여 명 참가
	7. 25 - 11. 18	한국 사회과학의 현황과 과제 연구 콜로кви엄 개최(5회)(유네스코회관 8층 회의실), 연구진 5명 외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조우진 과학팀장, 임시연 과학팀원, 홍보강 과학팀원 참가
	7. 27 - 7. 28	World CP-Asia: Expert Meeting on Cultural Policy 개최(유네스코회관, 서울 메트로호텔), Ritva Mitchell, EricArts 회장, Sarah Gardner, IFACCA 사무총장, ASEF, 인도·몽고·베트남·태국 문화정책 연구자 및 정부 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참석자 22명 참가
	7. 30 - 8. 2	Asian RICE Project 사전연수 개최(태국 치앙마이), 프로젝트 선발 학교/단체 사업 담당자 등 총 34명 참가
	8. 5 - 8. 6	제5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개최(태국, 방콕), 역사 전문가 30여 명, NGO 활동가, 언론인 참석
	8. - 11.	넬슨 만델라 재단 협력 남아공 지역학습센터 구축(남아프리카공화국 큐뉴 지역)
	8. 18 - 8. 22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WFUCA) 세계대회(베트남 하노이), 이선재 협력사업본부장 참가
	8. 22 - 8. 26	제5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아시아 22개국 청년활동가 및 청년 분야 관계자 등 70여 명 참가
	8. 23 - 8. 24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 심포지엄(중국 평타이),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8. 27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프로그램 실시, 제4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 개최(유네스코홀), 한일 교직원 100여 명 참가
	8. 27	유네스코한국위원회-네이버 세계유산 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세종호텔 3층 라일락룸), 공모전 수상자, 후원사 및 주최 기관 관계자 50여 명 참가
	8. 28 - 9. 6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일본, 중국, 태국, 이란, 잠비아 등 5개국 5명 참가
	8. 30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10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
	8. 31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결과 단행본 발간
9. 2	제4차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개최(청주 예술의전당)	
9. 8 - 9. 23	체험형 과학수학 교사 연수 개최: 유네스코 브리티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동티모르 딜리)	
9. 12 - 9. 23	동티모르 체험형 과학 및 수학교사 연수 개최(동티모르 딜리), 동티모르 과학 및 수학 교사 60여 명, 교육 전문가 10명 참가	
9. 16	제8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인하대),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250여 명 참가	
9. 16 - 9. 21	제2회 DMZ 청년영상캠프 개최(경기도 일산 및 파주출판도시, DMZ 일원), 10개국 37명 참가	
9. 20 - 9. 23	제12차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정기회의(전남 신안 증도), EABRN 회원국 MAB 국가위원회 관계자,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자, 유네스코, 국내 전문가 등 100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1	9. 22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기념행사 학술 심포지엄 개최(유네스코홀), 국내 인문학 학회 및 학술지 관계자 등 100여 명 참가
	9. 23	조계종 지원 아이티 교육재건 신탁기금(미화 40만불) 확보 및 지원
	9. 23 - 11. 6	제5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13개 시도 28개 고교생 84명, 대학생 진행요원 9명 참가
	9. 28 - 9. 29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 주관(창원컨벤션센터 CEO)
	10. 5 - 12. 20	『UNESCO와 한국: 한국의 UNESCO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10. 6 - 10. 11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수상자 초청사업 개최(서울 및 경기도 지역)
	10. 12	제9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 전문가 80여 명 참가
	10. 15 - 10. 18	제5회 베이징 ESD 국제포럼(중국 북경), ESD 전문가 등 참가
	10. 20 - 10. 25	제1차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지역통합연수 실시(태국 치앙마이 YMCA), 동남아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사, 지역사회 전문가, 국내 전문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등 50명 참가
	10. 25 - 11. 10	제36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이주호 위원장,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40명 참가
	10. 31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가입
	11. 11 - 11. 13	제6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2011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행사와 함께 개최)
	11. 14 - 11. 15	유네스코 과학기술혁신정책 워크숍 개최(서울), 아태지역 11개국 과학기술 정책 담당자, 유네스코 및 국내 전문가 등 20여 명 참가
	11. 14 - 11. 15	창원 국제교육도시연합(AAEC) 심포지엄 개최(창원컨벤션센터 CEO), 아태지역 지방정부 대표 및 관계자, 국내외 국제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유네스코 관계자 등 200명 참가
	11. 16 - 11. 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5개 창의도시 시장단 및 대표단, 창의도시 전문가 등 약 400명 참가
	11. 22 - 11. 29	제6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인도네시아 발리), 강상규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박하영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11. 24 - 11. 26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부산광역시 벡스코), 발표자 및 사회자 65명 참가
	11. 26	청소년 인문학콘서트 개최(부산광역시 벡스코 회의장), 이리나 보코바(유네스코 사무총장), 르 클레지오(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11. 26 - 12. 1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부산, 경주)
	12. 1	『세계 사회과학 동향에 비추어본 한국사회과학의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 발표회 개최(유네스코홀), 정책연구 참가자 및 사회 과학 분야 전문가 총 30여 명 참가
	12. 7 - 12. 10	세계유산 아태지역 정기보고회의 개최(수원시), 아태지역 27개국 세계유산 담당자, ICOMOS, IUCN 대표, 국제자문단 등 130여 명 참석
12. 11 - 12. 18	유네스코미인미위원회를 위한 사무기기 지원: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미안마 양곤)	
12. 13 - 12. 14	청소년국제교류실무자 워크숍(미지센터), 청소년기관 국제교류 실무자, 학생, 일반인 29명 참가	
12. 16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하반기 인증수여식 개최(유네스코홀)	
2012	1. 5 - 1. 19	제10회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 남호주교육청 소속 교사 및 교육 전문가 12명, 경기도 교육청 소속 영어 담당 교사 72명 참가
	1. 11 - 1. 22	한국 교직원 일본 초청 프로그램 실시(일본 동경, 오사카, 사이타마 시 등 5개 지역), 단장: 박은경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1. 14 - 3. 24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 365 희망 릴레이(미지센터)
	1. 31 - 6. 27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사업 공동 주최
	2. 7	MAB 콜로кви엄 개최(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MAB한국위원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등 30여 명 참가
	2. 27 - 2. 28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 워크숍(독일 본), 전택수 사무총장 참가
	2. 27 - 3. 10	제18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3. 2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략포럼 개최(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창의도시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400명 참가
	3.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학생연합회 간 협력회의 실시(유네스코홀), 전택수 사무총장, 이인서 유네스코학생연합회장 외 23명 참가
	3. 31	2012년도 ASPnet 총회 개최(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ASPnet 학교장 및 교사 132명, 교육청 관계자 및 참관 교사 26명 등 총 158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2	4. 20 - 6. 3	제7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대표단 80명, 고등학생 의장단 4명, 대학생 의장단 8명, 자문위원 4명, 직원 등 총 100여 명 참가
	4. 23 - 4. 27	제2차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지역종합연수 실시(경남 양산 BTC 아카데미, 창원 예비뉴호텔), 2011년도 RICE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 및 관계/협력기관 참관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 참가
	4. 26 - 4. 29	창원-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개최(창원호텔), 아태지역 개도국 도시·교육 관계자(50명), 유네스코 본부, 방콕사무소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20명), 국내 교육 및 지역사회, 도시발전 전문가(30명) 참가
	4. 27	국가위원회 간 협력 촉진을 위한 포럼 개최
	5. 8 - 5. 1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전문가 회의(폴란드 바르샤바), 강상규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참가
	5. 9 - 5. 11	Post-EFA 전문가 정책회의 개최(태국 방콕 임페리얼컨호텔), 아태지역 교육개발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80명 참가
	5. 12 - 8. 12	여수엑스포 유네스코 전시관 운영
	5. 13 - 5. 16	제3차 유네스코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중국 상해), 조우진 교육팀장 참가
	5. 17 - 5. 22	동아시아 그린스쿨 워크숍(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현숙 협력사업팀장 참가
	5. 17 - 5. 2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캐나다 몬트리올), 전택수 사무총장, 김유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5. 25	제11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서울무역전시시장(SETEC) 소풍ZONE 2층 세미나실), 관련 전문가, 관계자 및 일반인 150여 명 참가
	5. 25	제61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홀), 김응권 부위원장 등 43명 참석
	5. 31 - 6. 2	유네스코-중국유네스코국가위원회 주최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세계유산과 지속가능발전: 지역사회의 역할과 가능성의 발견' 회의(중국 귀주성 리보 현),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석
	6. 1 - 7. 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청년 에세이 콘테스트,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6. 6 - 6. 10	유네스코 정책평가 워크숍(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오혜제 교육팀원(ESD 담당자)
	6. 10 - 6. 12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45개 ASPnet 고등학교 학생 90명 참가
	6. 15 - 6. 18	아태지역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회의(베트남 탄호아),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6. 18 - 6. 24	문화재 훼손 관련 국제회의(유네스코 본부), 박하영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6. 21	20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국제기구 특강(유네스코홀), 전국 대학생 약 130명 참석
	6. 24 - 7. 6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관계 시장단 초청(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7. 2 - 12. 20	'위기의 UNESCO, 어디로 갈 것인가' 연구 실시
	7. 8 - 7. 9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베트남 하노이), 디자인 관련 양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 현지 청소년 및 관계자 약 100명 참가
	7. 9 - 7. 13	제24차 인간과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유네스코 본부), MAB 국제조정이사회 34개 이사국 대표단, MAB 사무국, 유네스코 회원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관련 기구 200명 참가
	7. 20 - 8. 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워크숍 개최(제주), 10개국 20명 참가
	7. 23 - 7. 25	아시아 지역 ESD 평가·모니터링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을 위한 국제포럼(일본 요코하마), 이선경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한국위원회 위원, 오혜제 교육팀원 참가
	7. 23 - 8. 6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워크숍(부산), 9개국 20명 참가
7. 25 - 8. 8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워크숍(경주), 12개국 20명 참가	
7. 27 - 7. 28	World CP-Asia: Expert Meeting on Cultural Policy 개최(유네스코회관, 서울 메트로호텔), Rita Mitchell EricArts 회장, Sarah Gardner IFACCA 사무총장, ASEF, 인도·몽고·베트남·태국 문화정책 연구자 및 정부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참석자 22명 참가	
7. 30 - 9. 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계유산으로 만나는 지구촌' 전시 공동 개최	
8. 7 - 8. 10	아프리카 해양관측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베냉 코토누), 10개국 21명 한국 전문가 8명 참가	
8. 11 - 8. 14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여수)	

연도	기간	내용
2012	8.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청년포럼 개최(여수 MVL호텔 Euros Hall), 국내 외국 유학생 등 청소년·학생 200여 명 참가
	8. 13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80명 군내초 방문
	8. 20 - 8. 24	제11회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회 국제포럼 개최(서울유스호스텔), 3개국 18~30세 청년 56명, 행사관계자, 일반 참가자 등 총 150여 명 참가
	8. 22 - 8. 25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몽골 울란바토르), 전택수 사무총장, 서현숙 협력사업팀장, 정용시 협력사업팀원 참가
	8. 24	제12차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회의(몽골 울란바토르),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2명 참가
	8. 24 - 10. 28	제8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고등학생 대표단 80명, 고등학생 의장단 4명, 대학생 의장단 8명, 자문위원 4명, 직원 등 총 100여 명 참가
	8. 29 - 9. 7	2012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프로그램(서울, 부산, 경기, 충남), 일본 교직원 53명 참가
	8. 29 - 8. 30	유네스코 아태 세계유산도시 시장단회의 개최(경주시)
	8. 30	제5회 ESD 한일 교사 포럼 개최(유네스코홀), 한일 교직원 100명 참가
	8. 31	유네스코 전략포럼 개최(유네스코홀),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50명 참가
	9. 17 - 9. 20	라오스 교사들을 위한 ESD 훈련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리티시 역량강화 지원 사업(라오스 비엔티엔)
	9. 19	자연과학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유네스코화관 중회의실), 박항식 자연과학분과위원장 및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창의재단 등 관련 기관 전문가 3명 참가
	9. 21 - 9. 23	제7차 세계RCB총회(경남 통영시), 조우진 교육팀장, 오혜재 교육팀원, 손지혜 교육팀원 참가
	9. 22	제12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경상대), 관련 전문가, 관계자 및 일반인 130여 명 참가
	9. 26 - 9. 28	세계기록유산사업(MOW) 20주년 기념 디지털유산 보존 국제회의(캐나다 밴쿠버), 박하영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9. 30	『2010 유엔 세계 청소년 보고서: 청소년과 기후변화』 번역 발간
	10. 3 - 10. 8	제19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전택수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7명 참가
	10. 4	제13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서울 YWCA),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80여 명 참가
	10. 15 - 10. 18	유네스코 브리티시 1기 지역활동가 귀국 및 귀국훈련 실시(유네스코평화센터)
	10. 15 - 10. 19	제3차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지역종합워크숍 개최(태국 치앙마이 등), 프로젝트 담당자, 해당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직원 등 60여 명 참가
	10. 16 - 10. 17	2012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 회의 개최(서울 그랜드힐튼호텔), 국내외 발표자 20명 및 일반 참가자 등 200여 명 참가
	10. 28 - 11. 6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중국, 일본, 태국, 영국 등 4개국 4명 참가
	10. 29	제19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차관 취임
	10. 29 - 11. 2	성인 기초영어 문해율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된 어학교재 개발 및 교사교육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리티시 역량강화 지원 사업(솔로몬제도 호니아라)
	11. 1 - 11. 3	유네스코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부산광역시 벡스코), 주제: 치유의 인문학(Healing and Humanities)
	11. 5 - 11. 8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특별회의(일본 교토), 김은영 과학팀원,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11. 9 - 11. 11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47개 ASPnet 고등학교 학생 및 중·고 교사 등 130명 참가
	11. 16 - 11. 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5개 창의도시 시장단 및 대표단, 창의도시 전문가 등 약 400명 참가
	11. 21 - 11. 23	제1차 글로벌 모두를 위한 교육(EFA) 회의(프랑스 파리),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김하용 교육팀원 참가
	11. 24	제14차 ESD 콜로кви엄 개최(고려대), 유네스코학교(ASPnet) 교사/학생 및 국내 고등학생, 청소년 활동 지도자 등 80여 명 참가
11. 25 - 11. 27	제8차 세계 스포츠·문화·교육 회의(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현목 과학팀장, 임시연 과학팀원 참가	
11. 27	유산 규범 이행 제도 및 방안 연구 공개 세미나 개최(국립고궁박물관)	
12. 3 - 12. 5	중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파트너십을 통한 가시성 증진과 공동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리티시 역량강화 지원 사업(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연도	기간	내용
2012	12. 5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2012년도 공식프로젝트 인증 수여식 및 네트워크 회의(유네스코홀), 2011~12년도 ESD 인증프로젝트 관계자,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100여 명 참가
	12. 6	제2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학생연맹회 간 협력회의 실시(유네스코홀), 전국 15개 대학 KUSA 회원 약 50명 참가
	12. 10 - 12. 13	MOW 20주년 기념 세계기록유산 아프리카지역 등재후원 워크숍 개최(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지역 8개국 전문가 및 오만 참관자 6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 참가
	12. 31	유네스코 세계공학보고서 번역 발간
	12. 31	CCAP 백서 『툰아보는 CCAP 15년』 발간
2013	1. 16 - 1. 27	2013 한국교직원 일본초청 프로그램(일본 도쿄, 오사카, 야치요시 등 5개 시), 김태완 단장(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부위원장)등 한국 교직원 144명 참가
	1. 31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 한글판 발간
	2. 2 - 2. 17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현장 1차 답사(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2. 8	『ESD 길잡이』 한국어판 발간
	2. 21 - 2. 22	제2차 유네스코 삼자실무그룹 회의(프랑스 파리), 민동석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2. 26 - 3. 1	제13차 모두를 위한 교육(EFA) 국가조정관 지역회의 및 Post-2015 교육의제 지역협의회(태국 방콕), 민동석 사무총장, 임천순 세종대 교수, 조우진 교육팀장, 김희용 교육팀원 참가
	3. 11 - 3. 22	2013년 브릿지 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및 발대식(3,22)
	3. 12 - 3. 14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단 회의(감보디아 프놈펜), 김귀배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단 11인 등 참가
	3. 14	유네스코 문화재환수규범 이행 연구 자문회의 개최(프랑스 파리), 유네스코한국대표부 정차영 서기관,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3. 22	2013 상반기 유네스코한위-KUSA 워크숍 개최(유네스코홀), 유네스코학생회 소속 60명 및 관계자 등 총 70명 참가
	3. 30	2013년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총회 개최(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ASPnet 교사, 교장(감), 교육청 관계자, 참관 교사 191명, 한위 직원 18명 등 총 209명 참가
	3. 30 - 4. 12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현장 2차 답사 실시(남아공, 레소토, 짐바브웨)
	4. 3 - 4. 5	세계 문화간 화해 10년(2013-2022) 관점에서의 카자흐스탄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석좌, 유네스코협회 역량 강화 포럼(알마티), 조우진 교육팀장 참가
	4. 12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 재즈의 날 홍보대사에 위촉
	4. 30	세계 재즈의 날 기념공연 개최(삼성동 올림푸스홀), 나윤선, 재즈세대밴드, 윤석철트리오 등 출연
	5. 9	ESD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서울역 내 회의실),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직원 6명 참가
	5. 9	2013 이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학술포럼(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창의도시 지자체,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일반시민 등 총 70명 참가
	5. 9	제62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홀), 서남수 위원장 등 41명 참석
	5. 10	『ESD 렌즈』 한국어판 발간
	5. 10 - 5. 11	국제워크숍 훈련워크숍 개최(유네스코 회의실)
	5. 14 - 5. 17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중국 항저우), 김승윤 사업본부장,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5. 14 - 5. 18	개도국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개발 워크숍 개최(솔로몬제도 호니아리), 나우루, 솔로몬제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피지 등 6개국 웹사이트 개발 지원
	5. 24 - 5. 25	제1회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대학생 28팀 80명 참가
5. 24 - 6. 8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진전(유네스코회관 1층 로비)	
6. 8 - 6. 9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유네스코 평화센터), 중·고교생 50여 명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3	6. 10 - 6. 11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아태지역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장원 해양솔라파크)
	6. 17 - 6. 27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캄보디아 프놈펜, 씨엠펙),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6. 18 - 6. 21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광주광역시). 국제자문위원, 전문 소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 해외인사 30여 명, 국내 관계자 20여 명 등 참가
	6. 19 - 6. 21	제20차 유네스코국제생명윤리위원회 개최(연세대), IBC 위원(24명), 집행이사회 의장 등 유네스코 관계자, 한국 정부 및 기관 인사, 관련전문가 등 참가
	6. 27 - 6. 28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워크숍 개최(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제주 일원)
	6. 30 - 7. 2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특별회의 및 제1차 보조 정부간위원회(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원 참가
	7.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개발특별위원회와 홍보소통특별위원회 설치
	7. 3 - 7. 5	평화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교육-유네스코 클럽과 유네스코 협동학교 담당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부탄 탐부)
	7. 3 - 8. 29	유네스코 청년 개발협력 프로그램, 경희대(잠비아), 계명대(말라위), 전남대(말라위)
	7. 4	문화와 발전 전문가 패널 세미나 개최(유네스코홀). 문화와 발전 전문가 패널, 관련 기관 전문가 등 30명 참가
	7. 10 - 7. 19	제2기 브릿지 활동가 국내교육 실시 및 발대식(7.19)
	7. 14 - 7. 20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직원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4개국 5명 참가
	7. 15 - 7. 24	세계유산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한 젊은 에너지: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스리랑카 콜롬보)
	7. 18	유네스코회관 사인(UNESCO) 복원식
	7. 18 - 9. 17	이이남 작가 문화예술 진선대사 위촉 및 전시회(유네스코회관 1층 로비)
	7. 19	제2기 아프리카 브릿지 활동가 발대식
	7. 24 - 12. 23	DESD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실시
	7. 29 - 7. 31	우즈베키스탄 ASP 교사 ESD 훈련 워크숍: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8. 1 - 8. 2	개도국 과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현장 조사(동티모르 달리 및 바우카우).
	8. 1 - 12. 15	유네스코 문화재환수규범 이행 연구 실시
8. 7 - 8. 11	유네스코 키즈 여름캠프 개최(유네스코 평화센터). 초등학교 4~6학년 80명, 대학생 멘토 10명(사회적 배려대상자 약 40% 포함) 참가	
8. 8 - 8. 15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개최(서울,대전,부산). 중·고교생 200여 명 참가	
8. 9 - 8. 22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 국제워크숍 개최(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8개국 20명(한국 6명, 해외 14명) 참가	
8. 19 - 8. 23	제2회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개최(서울유스호텔). 15개국 60명(한국 20명, 해외 40명) 참가	
8. 22 - 8. 29	2013 일본교직원 한국초청 프로그램(서울, 충북, 강원). 일본교사, 교장(감), 교육위원회 담당자, 문부성 관계자 등 50명 참가	
9. 7 - 9. 9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경기도 수원시 호텔 캐슬). 해외 75명, 국내 175명 참가	
9. 11 - 9. 13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국가별 훈련 워크숍 지원(네팔)	
9. 12	제5차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개최(청주 예술의전당). 유네스코 본부 세계기록유산 담당관, 수상기관(멕시코의 ADABI) 대표, 국내기관 관계자 및 시민합창단 등 1,500여 명 참가	
9. 13 - 9. 25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2차 사진전 개최(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	
9. 23 - 10. 10	제19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임현목 국제협력본부장 참가	
9. 25 - 9. 27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국가별 훈련 워크숍 지원(라오스). 2011~2013 선별 아시아기후변화 프로젝트 담당자 및 해당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담당자 참여	
9. 27	창립60주년 비전포럼 개최(유네스코홀)	
10. 2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 협력 포럼 개최(유네스코회관 중회의실)	
10. 13 - 10. 15	제2회 세계사회과학포럼(캐나다 몬트리올). 신종범 과학팀 차장 참가	

연도	기간	내용
2013	10. 16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개최(유네스코홀). 문화와 발전 분야 국외 전문가, 국내 전문가 패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및 일반 청중 등 150명 참가
	10. 23 - 10. 27	제3회 문화재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협력(그리스 올림피아)
	10. 29 - 10. 30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 전국 워크숍 개최(유네스코회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D 담당자, RCE 관계자,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담당자 등 60여 명 참가
	10. 29 - 10. 31	2013 제8차 유네스코(본부) 청년포럼 한국대표단 파견(프랑스 파리).
	11.	코리아지널상 운영 규정 제정 및 공표
	11. 5 - 11. 20	제37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 서남수 위원장, 민동석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단 50명 참가
	11. 9 - 11. 10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개최(유네스코 평화센터). 고교생 60명, 교사 5명 참가
	11. 14 - 11. 15	유네스코 과학대중화 국제심포지엄 개최(국립과천과학관). 국내외 과학관 및 과학교육기관 관계자, 과학교육 전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 참가
	11. 1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 글로벌 홍보단 출범
	11. 15	2013 하반기 KUSA-한위 워크숍 실시(유네스코회관 회의실). 전국 KUSA 회원 50명 참가
	11. 15 - 11. 16	2013 통영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립경상대학교 해양생물센터)
	11. 20 - 11. 22	아테 EFA 국가평가 워크숍(태국 방콕). EFA국가평가 담당자 및 국제기구 직원 120여 명 참가
	11. 25	아프리카 브릿지와 협력 아프리카 국가 ICT 교육 지원(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11. 25 - 11. 29	개도국 과학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차)
	11. 25 - 11. 29	제4차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지역총합워크숍 개최(태국 치앙마이 등 기후변화교육 현장). 2011~2013 RICE 프로젝트 담당자,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담당자, 기후변화교육 전문가 등 약 60명 참가
	11. 26 - 11. 2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테지역 등재후원 워크숍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테지역위원장 등 국제전문가 5명, 라오스, 볼디브 등 아테지역 8개국 대표 8명 및 브루나이 옵저버 2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 참가
	12. 2 - 12. 6	개도국 과학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동티모르 딜리 등)
	12. 2 - 12. 8	제8차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김승윤 사업본부장, 김지현 문화커뮤니케이션팀 차장보,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24개 위원국 및 148개 협약 당사국 대표단, 자문기구 대표 등 300명 참가
	12. 20	제1회 유네스코 대학생 볼론티어 시상식 개최
	2014	1. 6 - 1. 8
1. 16		배우 신세경 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특별홍보대사에 위촉
1. 19 - 1. 27		2014 한국교직원 일본초청 프로그램 실시(일본 도쿄, 오사카 및 4개 지역). 한국 교사, 교장(감), 교육청 담당자 등 한국교직원 120명 참가
2. 2 - 2. 5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한(서울)
2.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개최(삼성동 코엑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 비전 선포
2. 10 - 2. 28		브릿지 3기 활동가 국내교육 실시 및 발대식(2,28)
2. 16 - 2. 24		제1기 유네스코 키즈 해외현장학습 실시(프랑스 파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32명, 경희대학생 멘토 8명, 민동석 사무총장, 송영철 홍보소통특별위원 등 관계자 등 6명 참가
2. 27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협력 전략세미나 개최(국립고궁박물관)
3. 4		국약소녀 송소희 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대사에 위촉
3. 16 - 3. 30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현장 점검(남아공, 르완다, 잠비아, 짐바브웨)
3. 16 - 4. 18		KBS 파노라마 「다리를 놓다」 촬영 및 방영(7.11) 지원. 지구촌 이웃의 자립을 돕는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취지와 청년활동가들의 삶과 꿈 조명

연도	기간	내용
2014	3. 29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총회 개최(서울신용산초), 전국 유네스코학교 교장(감) 및 담당교사, 교육청 담당자 참가
	4. - 11.	방글라데시 무형문화유산 '잡다니' 보호 및 관련 문화산업 지원 사업: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방글라데시 다카)
	4. 2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울산과학기술대학교 본관 경동홀)
	4. 15 - 10. 14	주변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통합대응전략 연구 실시. 분야별(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국제법/국제기구 등) 전문가 10인 참가
	4. 22 - 4. 24	세계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방글라데시 다카)
	4. 29 - 4. 30	EFA 국가보고서 피드백 워크숍(태국 방콕),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아태지역 국가 교육부 관계자, 전문가 참가
	4. 30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내 협력 포럼 개최(유네스코홀), 유네스코 정무간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관계자 20여 명 참가
	5. 11 - 5. 15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총회(중국 광저우), 한국 부의장(김귀배 문화커뮤니케이션위원장) 당선
	5. 12 - 5. 14	글로벌 EFA 회의(오만 무스카트), 유네스코 회원국 및 지역대표 300여 명 참가
	5. 22	유네스코 친선대사 이브리 기틀리스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개최
	5. 23 - 5. 24	제2회 유네스코 대학생 볼он티어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전국 대학생 24팀 100명 참가
	5. 29 - 5. 31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워크숍 개최(경기 양평 불룸비스타 연수원), 대학(원)생 등 60여 명 참가
	6. 9 - 6. 13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직인교류 초청프로그램 개최(서울, 제주), 중국, 일본, 태국, 독일, 잠비아 등 5개국 5명 참가
	6. 13	제63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 개최(유네스코홀), 나승일 부위원장 등 36명 참석
	6. 25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시상식(서울대학교), 학술진흥상: 정진주 단국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펠로십: 민달희 서울대 화학부 부교수, 김혜영 서울대 의학과 부교수, 심지원 한양대 생명과학과 조교수 수상
	6. 27	유네스코회관 옥상 생태공원 '작은누리' 시민 개방행사
	7. 2 - 7. 9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현지 방문·모니터링(제1차) 실시(베트남, 스리랑카)
	7. 8 - 7. 21	유네스코 제주 워크숍 개최(제주도 서귀포시)
	7. 15 - 7. 28	유네스코 정선, 인제, 무안 워크숍 개최
	7. 18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7. 21 - 7. 22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J) 한마당 개최(유네스코평화센터)
	7. 22 - 7. 24	제1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민동석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8. 9 - 8. 13	제2기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세계시민캠프 개최(경기도 이천)
	8. 11 - 8. 16	동티모르 과학교사 역량강화 워크숍(동티모르 딜리), 동티모르 수학/과학교사 60명, 유네스코 동티모르위원회 및 유네스코한 국위원회 관계자, 국내 전문가 등 70명 참가
	8. 11 - 12. 30	'유네스코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 분석' 연구 실시
	8. 13 - 8. 15	유네스코 청소년 해양캠프 공동개최(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유네스코학교 학생 20여 명 참가
	8. 17 - 8. 21	제3회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회 국제포럼 개최(서울 유스호스텔), 16개국 51명(한국 20명, 해외 31명) 참가
	8. 26 - 9. 1	2014 일본교직원 한국초청 프로그램 실시(강원, 충북, 서울), 일본 교사, 교장(감), 교육위원회 담당자 등 일본교직원 50명 참가
	8.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방영
	9. 2 - 9. 4	개도국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개발 워크숍 개최(자메이카 킹스턴), 아루바, 큐라소,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마틴 등 6개국 웹사이트 개발 지원
	9. 15	고은 시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친선대사에 위촉, "유네스코에게"라는 제목의 헌정시 발표
	9. 15 - 9. 18	지방 여성을 위한 창업훈련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9. 17 - 9. 20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9. 18	제1회 코리아저널 상 시상식 개최(유네스코홀), 최기숙 연세대 교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수상	
9. 22 - 9. 24	'비즈-캐스테' 대중화 및 장인 육성을 위한 훈련자 양성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카자흐스탄 알마티)	
9. 22 - 9. 26	라오스 양성평등 교육 ASP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브릿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라오스 방비엥)	

연도	기간	내용
2014	9. 26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린터어 사업 활동 보고회 개최(유네스코홀), 대학(원)생, 주취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 참가
	10. 6 - 10. 10	유네스코본부 미디어아트 전시회 개최(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이라나 보코바 사무총장 등 유네스코 본부 직원, 각 국 외 교단, 현지 언론, 재불교민 등 참가
	10. 20 - 10. 31	제19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프랑스 파리), 민동석 사무총장 등 한위 직원 3명 참가
	10. 28	'대한제국 황손' 이석 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통문화 친선대사에 위촉
	10. 29 - 10. 30	유네스코 문화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세종호텔), 국내외 문화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개도국 문화 분야 관계자, 국내 관련 부처·기관·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150여 명 참가
	11.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상 첫 국민모금 캠페인 광고 TV 방영
	11. 4 - 11. 8	유네스코학교 국제 ESD대회(일본 오카야마 국제센터) 참가
	11. 4 - 11. 17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일본 나고야, 오카야마), 박은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경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 조우진 교육팀장, 백승현 교육팀원 등 참석
	11. 13	크로스오버 음악가 양방언 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예술 홍보대사에 위촉
	11. 17 - 11. 22	2014 유네스코학교 교사 국제교류 사업(네팔 카트만두), 유철 충북교육청 학교정책과장 등 12명 참가
	11. 17 - 11. 23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현지 방문·모니터링 실시(네팔, 라오스)
	11. 26	제2회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편찬위원회 박 현 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경영본부장
임 현 목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김 승 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희망브릿지본부장
윤 병 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개발홍보본부장
박 정 섭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감사평가실장
송 종 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팀장
전 진 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김 귀 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노 지 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팀 책임담당관

편찬 실무 강 상 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신 종 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책임담당관
김 민 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유네스코평화발전연구소 부소장
김 정 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유네스코평화발전연구소 담당관

감 수 전 성 민 | 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 직원)
허 권 |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사무총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 직원)

편찬 대행 박 주 양 | 에이앤씨(A&C)기획

편집디자인 우 선 화 이 창 민 | 씨엠기획

표지디자인 홍 은 주 | 흥x김

2014년 12월 19일 발행

발 행 인 민동석
발 행 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 26
전화 (02) 6858-4100 (대표)
팩스 (02) 6958-4252
<http://www.unesco.or.kr>

인 쇄 처 가람미술

ISBN 978-89-94307-63-3(03060)

(비매품)